



목



1. 김상연 - 허브를 이용한 천연 방향제 만들기
부제 : 내 손으로 만드는 드라이 포푸리
2. 김수용 -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이야기
3. 김종화 - 제천간디학교 농구문화 실태조사 및 대안제시
4. 김진규 - 공간의 변화‘리모델링’
부제 : 리모델링으로 바뀌는 ‘테이블 위에 전쟁’
- 5.. 김한솔 - 학교의 화석연료 및 전기에너지 연구와 절감방안제시
- 6.. 김현정 - 무대 위의 이야기
부제 : 창작연극 만들기
7. 김혜린 - 천 리사이클 하기
부제 : 자투리 천으로 생활용품 만들기
8. 나현준 - 제천간디학교와 타 간디학교의
학생 생활규칙에 대한 비교 연구
9. 남궁홍 - 촉감 동화책 만들기

차



10. 박록리 - 직접 만든 걱정인형으로 간디인들의 걱정 덜어주기
부제 : 여러 가지 종류의 걱정인형
11. 박수열 - 폐품을 활용한 학교 버스 리모델링하기
부제 : 폐품을 활용해서 학교 버스 문제점 보완하기
12. 신지은 - 디자인 한복 만들기
13. 오지영 - 간디학교에서의 일상을 4컷 만화로 그리기
부제 : 이 땅에서 살아남아봅시다
14. 유현영 - 퓨전 국악과 힙합의 만남
15. 이민지 - 내 손으로 간디학교 홍보 리플릿 만들기
16. 장기중 - 본국검법(本國劍法)의 원본 재해석
17. 최민현 - 생태 건축에 대한 연구
18. 최소은 - 청소년 미혼모 인식개선 방안연구
부제 : 어린엄마들을 위한 이야기
19. 전수정 - 도넛에 담은 나의 이야기
부제 : 작곡과 음반 제작



이 름 : 김상연

성 별 : ♂(남)

혈액형 : O

좌우명 :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생 일 : 4월 13일

한마디 : 대충하면 안 하니만 못 하니까 할거면 제대로
이제 당분간은 허브 안 보겠다.

허브를 이용한 천연 방향제 만들기

부제: 내 손으로 만드는 드라이 포푸리

이름: 김상연
담당 교사: 송영민

목차

I. 서론

1. 논문 동기
2. 논문 목적
3. 연구 방법

II. 본론

1. 이론적 배경
 - 1-1. 허브의 정의와 종류
 - 1-2. 허브의 역사
 - 1-3. 허브의 효능과 활용법
2. 작품 제작 방법 및 절차
 - 2-1. 작품 제작 대상
 - 2-2. 야생초 포푸리 제작 과정
 - 2-2-1. 재료 준비
 - 2-2-2. 야생초 포푸리 만들기
 - 2-3. 허브 포푸리 제작 과정
 - 2-3-1. 재료 준비
 - 2-3-2. 허브 포푸리 만들기
 - 2-4. 작품 결과
3. 학교에 설치
 - 3-1. 후기

III. 결론

제작 후기

I. 서론

1. 논문 동기

나는 논문주제를 고민하던 차에 타 대안학교의 논문집을 보다가 허브를 주제로 쓴 논문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논문의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꽃을 좋아하고 그 꽃에 향기를 맡는 걸 좋아해서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활용도가 정말 많기 때문이다.

특히 그 중에서 포푸리를 정한 이유는 오랫동안 유지 보관하기 쉽고 장기간 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정한 것이다. 솔직히 나는 논문 주제를 정하기 전까진 포푸리라는 방향제 종류를 전혀 몰랐다. 그래서 처음에는 허브 그 자체를 주제로 정했었는데 엄마가 부제를 정해야 더 확실하게 논문을 쓸 수 있다고 해서 부제를 포푸리로 정하게 된 것이다.

2. 논문 목적

나는 이 논문이 제대로 되면 한번 학교에 응용 해볼 생각이다.

나의 목표는 학교의 심한 냄새를 조금이나마 없애 보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허브를 주제로 하려다가 포푸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든 생각이 있었다. ‘아, 포푸리라는 걸 허브를 주제로 잡은 나도 몰랐던 건데 우리 학교 사람들은 알까?’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이유도 있어서 내 또 다른 목표는 사람들에게 허브와 포푸리를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결과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확인 해 보고 그걸 더욱 확대 시켜 보겠다.

3. 연구방법

- 참조한 책

허브 라이프 / 최영전 저 / 예가 출판사

허브(HERB) / 조태동 저 / 대원사 출판사

잘 먹고 잘 사는 법(허브) / 이정연 저 / 김영사 출판사

나는 허브에 탐닉한다. / 박현신 저 / 갤리온 출판사

HERBALISM / 프랭크 J. 립 저 강영민 옮김 / 창해 출판사

- 방문

평창 허브나라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 303

허브&조이 /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634-2

II. 본론

1. 이론적 배경

1-1. 허브의 정의와 종류

사람들은 대개 허브라고 하면 대부분 외래종을 생각한다. 나도 물론 처음엔 그렇게 생각 했었다. 하지만 우리가 요리에 자주 쓰는 파나 쑥 같은 것도 ‘허브’에 해당 된다. 허브는 우리말로 산 약초이다. 또 약효가 있거나 향신료로 쓰여 온 식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지만 향이 없는 허브도 있다. 먹지는 못 하지만 유용한 효과를 가진 허브는 있지만 먹지도 못 하고 효과도 없는 허브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1-2. 허브의 역사

허브는 고대에 여러 가지 이용법이 체험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병이나 상처에 달여서 먹거나 외용으로 바르기도 하고 때로는 태워서 연기를 흡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몸에 지니고 있어서 향기를 맡거나 몸에 발라 염색하기도 하였다.

허브는 이집트에선 기원전 2800년 무렵부터 생활화 되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동물이나 물고기가 썩는 퀴퀴한 냄새를 사악한 것으로 여긴 반면, 상쾌하고 달콤한 향기를 지닌 허브는 나쁜 병을 고치고 아픈 것을 물리치는 향기로운 제물로 신성시 하여 제사의식의 훈향으로 사용했다.

그리스인들은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자라는 허브와 스파이스를 주로 사용했다. 강렬한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열대 아시아에서 나는 향기로운 허브와 스파이스는 피로와 무력감을 해소하고, 졸도나 중풍, 독사나 전갈에 물렸을 때의 해독작용 등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1-3. 허브의 효능과 활용법

허브는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그 중 향기로 치료를 한다. 한방약재들 중에는 앞에 향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약재가 많은데 이러한 약재들은 대개 그 약의 향을 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취 후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해야 효과가 좋다.

2. 작품 제작 방법 및 절차

2-1. 작품 제작 대상

야생초

해바라기

해바라기 (Sunflower, 뜻: 동경, 숭배, 의지, 신앙)

이명 : 향일 화, 산 자연, 해바라기, 강낭피, 조일 화

해바라기의 꽃말은 그리움으로도 많이 표현을 한다.

속명인 Helianthus는 태양과 꽃의 합성어이고 종소명인 annuus는 한해살이란 뜻으로 태양의 꽃 또는 황금 꽃이라 부른다.

기원전 1000년부터 아메리카 인디언에 의해 재배되었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대륙을 발견한 다음 유럽에 소개되었다.

도깨비바늘

도깨비바늘

이명 : 좀도깨비바늘, 좀도깨비바늘, 좀독개비바늘, 참귀살이, 바늘닥사리, 귀침채, 귀침초(鬼針草)

꽃말은 흥분으로도 많이 표현을 한다.

산과 들에서 자란다. 높이는 25~85cm이고 털이 다소 있으며 줄기는 네모 진다. 잎은 마주나고 양면에 털이 다소 있으며 2회 깃꼴로 갈라진다. 설상화는 1~3개로 노란색이고 길이 5~6mm이다. 열매는 수과이고 길이 12~18mm, 나비 1mm로 좁은 줄 모양이다. 관모는 거꾸로 된 가시가 있어 다른 물체나 동물에 잘 붙는다.

어린잎은 식용한다. 생즙은 독벌레에게 물렸을 때나 상처에 바른다.

허브

레몬 버베나

높이 60~150cm 정도 자라는 비 내한성 낙엽 소저목이다. 전체에 강한 레몬 향을 지닌다. 잎의 길이는 7~12cm로 긴 피침 형으로 끝은 뾰족하다. 잎은 3~4개가 줄기에 윤생한다. 꽃은 여름에 흰색 또는 연보라색으로 작은 것이 밀집하여 원추화서로 달린다.

남아메리카 원산이며 관상용으로 온실에서 가꾼다. 잎을 손수건에 문지르면 향수를 뿌린 듯하고, 뜸에 심으면 콜레라를 미리 막을 수 있다고도 한다. 유럽에서는 잎에서 향료를 채취하여 화장품 등을 만들고 차로 마시거나 음식물에 향기를 내는 재료로 사용하였다.

라벤더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이다. 높이는 30~60cm이고 정원에서 잘 가꾸면 90cm까지 자란다. 전체에 흰색 털이 있으며 줄기는 둔한 네모꼴이고 뭉쳐나며 밑 부분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진다. 잎은 돌려 나거나 마주나고 바소 모양이며 길이가 4cm, 폭이 4~6mm이다. 잎자루는 없으며 잎에 잔털이 있다.

꽃은 6~9월에 연한 보라색이나 흰색으로 피고 잎이 달리지 않은 긴 꽃대 끝에 수상꽃차례를 이루며 드문드문 달린다. 꽃·잎·줄기를 덮고 있는 털들 사이에 향기가 나오는 기름샘이 있다. 물이 잘 빠지는 모래땅에 약간의 자갈이 섞인 곳에서 잘 자라고 너무 비옥하지 않은 땅이 좋다. 햇빛을 잘 받는 남향과 습하지 않은 곳에서 잘 자란다.

장미

관목성의 화목이다. 야생종이 북반구의 한대·아한대·온대·아열대에 분포하며 약 100종 이상이 알려져 있다. 오늘날 장미라고 하는 것은 이들 야생종의 자연잡종과 개량종을 말한다. 장미는 갓춘꽃으로 꽃의 아름다운 형태와 향기 때문에 관상용과 향료용으로 재배해왔으며, 개량을 가하여 육성한 원예 종(*Rosa hybrida* Hort.)을 말한다. 지금까지 2만 5000종이 개발되었으나 현존하는 것은 6~7000종이며, 해마다 200종 이상의 새 품종이 개발되고 있다.

계피

육계나무는 중국의 남부지방에서 자생하는 늘푸른큰키나무로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나무껍질을 채취하여 사용한다. 잎맥의 가운데 주맥과 양쪽의 측 맥이 도드라져 보여 규(圭)자를 연상하게 해서 식물명에 사용하게 되었는데 규란 홀기 즉, 제사의 차레를 적은 부채모양의 도구로 여러 갈래의 잎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육계나무가 규(圭)를 들고 있는 관리처럼 모든 약을 총괄하기 때문에 규라는 글자를 쓰게 되었다는 유래도 있다.

오일

로즈 아로마 오일

로즈

향 : 우아한 장미향 중향(Middle Note)

여성호르몬 밸런스에 효과적이다.

여성관련 증상(폐경, 월경불순 등) 및 질병에 효과, 마음 안정 우울증, 긴장, 피로, 스트레스, 생리장애, 남성 불임증, 고급 향수 제 건성피부, 피부재생(노화피부), 주름살 방지, 피부탄력, 강한 소염 성분(염증, 가려움증)에 좋다.

유칼립투스

향기요법에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식물중의 하나가 유칼립투스이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원산지인 이 나무는 세계적으로 키가 가장 큰 나무중의 하나다. 46m까지 자라는 것도 있다고 한다. 유칼립투스란 말은 ‘잘 덮여 있다’란 의미의 그리스어 ‘유칼립 토스’에서 왔다. 꽃봉오리들이 컵같이 생긴 막으로 덮여있기 때문이다. 유칼립투스의 오일을 세상에 알린 사람은 독일의 식물학자이자 탐험가인 바론 페러디 난드 폰 뮐러다. ‘푸른 고무나무’로도 불리는 유칼립투스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랫동안 민간치료제로 이용돼왔다. 19세기 후반에는 유칼립투스 오일이 이 나라 전체에서 만병통치약으로 간주될 정도였다. 그 후 유칼립투스는 감기, 발열, 류머티즘, 이질, 비염, 신경통, 근육통 등에 널리 사용됐다.

2-2. 야생초 포푸리 제작 과정

2-2-1. 재료 준비

재료

밀폐 용기, 야생초 (갯가지 혼합해서)200ML, 유칼립투스 약 0.5ML)

미리 준비해 놓을 것

야생초들은 꽃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잎만 떼어 내고 꽃술이 묻어 있을 염려가 있으므로 물에 깨끗이 씻어낸다. 또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내고 넓게 펴서 말린다.

2-2-2. 야생초 포푸리 만들기

1. 충분히 말린 야생초들을 밀폐용기 안에 넣는다.
2. 그 위에 유칼립투스 오일을 고루고루 뿌려 준다.
3. 뚜껑을 단단히 막고 완전히 섞일 때까지 흔들어 준다.
4. 최소 10일에서 1달까지 통풍이 잘 되고 반그늘진 곳에서 숙성 시킨다.



완성된 모습

2-3. 허브 포푸리 제작 과정

2-3-1. 재료 준비



재료

밀폐 용기, 계피 15ML, 장미 잎 20장, 라벤더 100ML, 레몬 버베나 15장, 로즈 오일 약 5ML

미리 준비해 놓을 것



계피를 잘게 부숴 놓는다.

나는 가루보다는 조각을 내야 향도
잘날 것 같고 보기에 예쁠 것 같아서
가위로 조각을 냈다.



(부숴 놓은 것)



장미를 말려서 준비한다. 대개 붉은 장미를 넣지만 한번 색다른 걸 해 보고 싶어서 노란 것과 파
란 것을 준비했다.



(장미 잎을 조심스럽게 뜯어낸다.)



레몬 버베나는 잎을 따서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잘 펴서 말린다.

그 외에 라벤더와 로즈 오일은 허브 농장에 가서 구입을 했다.

2-2-2. 포푸리 만들기



1. 밀폐 용기에 계피를 담는다.



2. 잎을 뜯은 장미를 뿌린다.





3. 레몬 버베나를 넣는다.



4. 그 위에 라벤더를 고루고루 뿌린다.



5. 마지막으로 로즈 오일을 고루 뿌린 다음 섞는다. 나는 섞을 만한 게 없어서 손으로 섞었다.(이 포푸리는 오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향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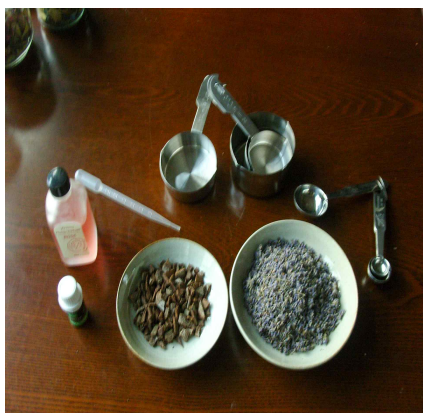


완성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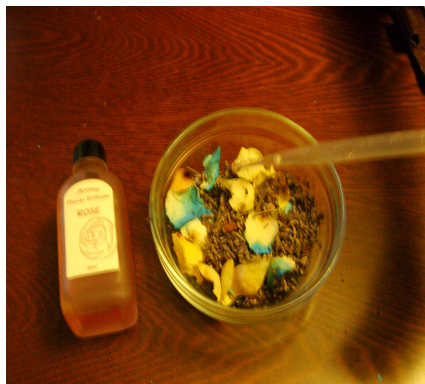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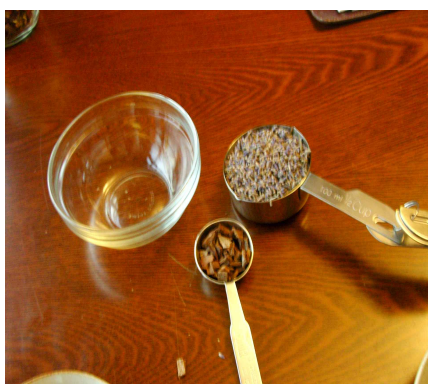
이건 계피 넣지 않은 것
(이 포푸리는 오일을 조금만 넣어서 그런지 향이 은은하다.)

레몬 버베나를 제외한 허브 포푸리



재료

밀폐 용기, 계량스푼 100ML, 스포이트, 계피 15ML, 장미 잎 20장, 라벤더 100ML, 로즈 오일 약 5ML(이 포푸리에는 레몬 버베나가 들어있지 않다.)(4,5번째 포푸리는 정확하게 측정해서 만들었다.) 만드는 법은 위 포푸리와 같다. 하지만 5번째 포푸리는 한번 유칼립투스를 넣어 봤다. 천연 농축액이라서 역시 5ML 정도만 넣었다.



위 마지막 사진은 좌측 상단부터 만든 순서이다. 1번째가 처음에 만들었던 야생초 포푸리, 2번째가 계피를 넣은 허브 포푸리, 3번째가 계피를 넣지 않고 오일을 소량만 넣은 것, 4번째와 5번째는 레몬 버베나를 넣지 않고 2번째 포푸리와 양을 똑같이 맞춘 것이다. 하지만 5번째 포푸리는 다른 허브 포푸리와는 다르게 조금 색다르게 해 보기 위해서 오일을 유칼립투스로 했다. 물론 아주 소량만 넣어서 향이 강하진 않을 것이다.

2-3. 작품 결과

* 야생초 포푸리

사람들 반응

중등

좋은 점

향이 좋음, 구하기 쉬움, 알록달록하다, 시원하다, 중독성 있는 향, 코가 뚫린다. 레몬 향 같다. 향이 진하다 등등

나쁜 점

향이 독하다, 잡다한 향이 느껴진다, 어지럽다, 우리가 알던 향이 아닌 것 같다 등등

향을 맡았을 때 느낌

좋다, 톡 쏜다, 새롭고 신기하다, 진하고 충격적 등등

개선해야 할 점

가까이서도 은은하게, 조금 약했으면, 조금 많이 알려야 할 듯 등등

고등

좋은 점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 마약 효과가 있다, 박하향이 콧속에 맴돈다, 자연의 향기가 살아서 좋은 것 같다, 의약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등등

나쁜 점

원하는 향을 만들기 쉽지 않다, 향이 산만하다, 많이 맡으면 머리가 아프다, 향이 강해서 코가 아프다 등등

향을 맡았을 때 느낌

좀 강하다, 머리가 아프다, 쿨 하다, 어지럽다, 향이 좋다, 알싸하고 매콤한 것 같다, 레몬 향이 나는 것 같다 등등

개선해야 할 점

향이 강해서 약초를 조절해야 할 것 같다, 될 수 있으면 연하고 시원한 향이었으면 좋겠다. 등등

제작 후기

솔직히 이 야생초 포푸리는 내 생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작 과정이 짧다.

그래도 야생초로 만든 포푸리도 향이 좋기 때문에 허브의 값이 비싸서 부담 된다거나 판매하는 인공 포푸리의 향이 역겹다고 피한다면 이런 방법의 포푸리도 추천한다. 원래 유칼립투스도 로즈 오일과 비슷한 양을 넣어야 했는데 이 오일은 천연 농축액이라 향이 진해서 조금만 넣어야 했다.

나는 숙성을 시키는데 10일 정도 걸렸다. 원래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려야 하는데 그럴만한 곳이 없어서 그냥 내 가방에 넣어서 가방 문을 열어 놓고 다녔다. 그래도 숙성이 잘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허브 포푸리

사람들 반응

중등

좋은 점

은은함, 시원한 듯 매끄러운 향, 상큼한 향, 익숙한 향, 깔끔한 향, 정신이 되살아나는 진함 등등

나쁜 점

왠지 모르게 약간 썩은 냄새가 남, 구하기 힘들다, 풀 냄새가 좀 난다, 향이 진하다 등등

향을 맡았을 때 느낌

마음이 편안, 상큼하다, 진정됨, 은은함, 비누 냄새, 향긋하다, 약품 냄새가 난다 등등

개선해야 할 점

은은함이 더 필요하다, 더 다양한 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레몬 버베나를 좀 더 넣었으면 좋겠다, 조금 약하고 시원한 향이었으면 좋겠다. 등등

고등

좋은 점

원하는 양의 허브를 얻을 수 있다, 향이 좋다, 중독적인 향이 난다, 계속 마시고 싶다, 향이 부드럽다, 색이 예쁘다 등등

나쁜 점

코가 알싸하다, 돈이 든다, 야생초보다 약하다, 중독된다. 등등

향을 맡았을 때 느낌

부드럽다, 은은하다, 중독 적이다, 시중에서 파는 것과 비슷하다, 평화롭다, 비누 냄새가 난다, 알싸하다, 똥냄새, 맡고 나서도 코에 향이 남 는다 등등

개선해야 할 점

향이 강하다

제작 후기

원래 책 정도에서 나오는 포푸리를 만들어야 효과가 좋은데 나는 책이나 인터넷에서 본 것들을 이것저것 섞었다. 그래 봤자 4가지 종류밖에 안되지만 어쨌든 만들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 처음에는 계피를 넣은 포푸리를 만들었는데 잘못해서 오일을 많이 넣어 버려서 향이 강해졌다.

처음 냄새를 맡는 순간 향이 역겹게 올라와서 저절로 얼굴이 찡그려졌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맡아 보게 하니깐 다들 괜찮다고 해서 어리둥절했다. 그래도 좋다고 하니 기분 좋았다. 사람들이 향이 강하다고 하니깐 다음에는 조금 신경을 써서 넣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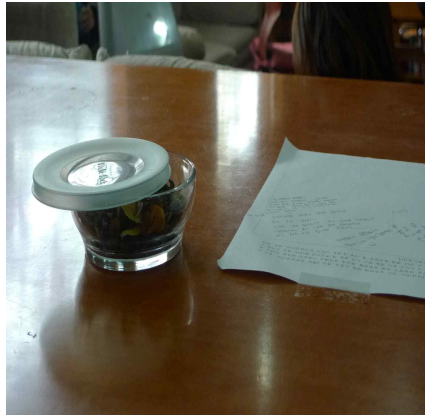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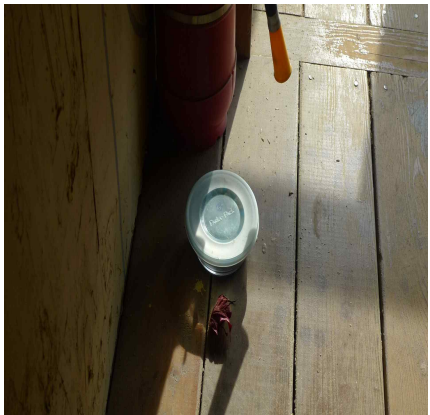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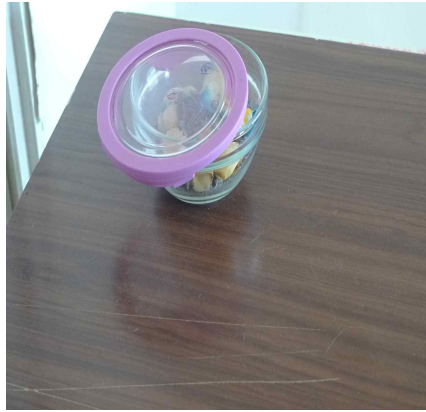
3. 학교에 설치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학교에 설치를 해보기로 했다.

포푸리를 설치해 둔 곳 바로 옆에 설문지를 붙여 보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푸리에 대한 논문을 썼던 김상연입니다. 제가 논문을 보완하기 위해 포푸리를 학교에 설치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려고 하는데 눈으로 보고 향을 맡고 느낀 점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설치해 둔 곳은 남녀 생태 화장실과 왕 나방 휴게소 그리고 도서관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치를 하고 옆에 설문지를 붙여 놓고 3일 동안 지켜보았다.



맨 위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남 생태 화장실, 왕 나방 휴게소, 도서관, 여 생태 화장실이다

생각보다 반응이 없어서 약간 실망했다. 남 녀 화장실은 붙여 놓을 곳이 없어서 게시판에다가 붙였는데 한명도 쓰지 않았다. 왕 나방도 하나도 쓰여 있지 않았다. 왕 나방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꽤 많을 줄 알았는데 내심 서운했다. 의견이 나온 곳은 도서관이었다.

반응

good, 동서양의 오묘함이 바람을 타고 전해진다. 강하지 않고 은은하고 허브의 잎도 모양이 다양해서 보기 좋다. 도서관에서 뚜껑이 닫혀 있으니 향이 나지 않는다. 뚜껑을 열어 놓았을 때 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조사해야 하고 그 것을 통해 교체하면서 향이 계속 났으면 좋겠다. 지나가는데 향이 은은하게 나서 좋았다 등등이 있었다. 그래도 좋다는 반응이 꽤 있었다.

3-1. 후기

솔직히 설문지를 인쇄하면서 의문이 들었다. ‘이 작은 설문지가 과연 사람들 눈에 띄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사람들이 잘 보지 않았다. 내심 서운했지만 작게 만든 나도 잘못이 있다.

누가 말 했던가 작게 만들거나 쓰면 그 사람도 소심하다고. 맞는 말이다. 나도 내가 소심하다고 생각한다. 어쨌거나 왕 나방에 반응이 없어서 꽤나 놀랐다. 왕 나방이 제일 많을 줄 알았으니까.

어디까지나 예외는 있는 것 같다. 반응이 온 곳은 도서관이었는데 역시 은은한 향기는 도서관이 적당한 거 같다. 향이 은은하다 해서 기분이 좋았지만 3일밖에 못 한 것은 상당히 많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내 포푸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겨울 방학 전까지 빌려 주어 보기로 했다. 이걸로 사람들이 향기를 맡고 기분 좋게 하루를 지내는 바램이다.

Ⅲ. 결론

제작 후기

드디어 논문이 끝났다. 원래 내가 가장 빨리 주제를 정했지만 귀찮아서 최종 논문을 보내는 시간을 넘어서야 겨우 끝났다. 처음엔 주제가 허브여서 재밌게 빨리 끝날 수 있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었다. 오히려 범위가 너무 넓어서 골머리를 앓았었다. 동기에서처럼 허브라는 주제가 범위가 넓어서 엄마의 도움으로 부제로 포푸리를 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서 자료를 긁어 왔었다. 하지만 수자 쌤이 이렇게 하면 개인 프로젝트보다도 못 하다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오랬다. 그래서 그 계기로 제대로 집중을 하고 쓴 결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래도 포푸리에 대한 상식은 많이 미숙해서 나중에는 더 찾아 볼 것이다. 포푸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못 찾은 게 나의 미숙한 점이자 이 논문의 한계인 것 같다. 지금은 야생화와 몇 개의 허브로 만족하지만 나중에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포푸리와 허브 작품들을 개발 해낼 것이다.

thanks to

먼저 뒤늦게 와서 내 논문이 기대된다고 했던 광이 형, 내 논문 잘 될 것 같다고 해준 태운이 형, 내가 많이 못 해도 언제나 격려 해주시고 파이팅과 수고해! 를 외쳐 주셨던 영민 쌤, 내 논문의 목차를 잘 알아줘 주신 소영 쌤, 설문 조사에 참여해준 간디 사람들, 그리고 많이 싸우지만 언제나 함께 웃어 주며 지냈던 간장게장 아이들, 마지막으로 많이 혼냈지만 논문을 많이 도와주신 수자 쌤과 정상 쌤, 날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격려 해주신 우리 부모님, 그 외 간디인들

이것이 내가 만든 포푸리의 모든 것이다. 지금은 야생화와 몇 개의 허브로 만족하지만 나중에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포푸리와 허브 작품들을 개발 해낼 것이다.

完



이 름 : 김수용

성 별 : 진규랑 다름

혈액형 : ABc

한마디 : 햄토리 소세지에는 쥐고기가 안 들어간다

그 외 하고 싶은 말 : 논문이란게 참 이상해. 끝날 때도
시작할 때도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느낌이 다르달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이야기

제출자: 김 수용

지도교사: 이 정상

- 목차 -

I. 서론

1. 논문의 동기
2. 논문의 목적
3. 연구 방법

II. 본론

1. 핵 발전이란?
 - 1) 핵 발전이란?
 - 2) 핵 발전의 목적
2. 핵 발전의 피해 사례
 - 1)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 ① 진행과정
 - ② 사고
 - ㄱ. 폭발규모
 - ㄴ. 재산피해
 - ㄷ. 인명피해
 - ㄹ. 환경피해
 - 2)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 ① 진행과정
 - ② 사고
 - ㄱ. 폭발규모
 - ㄴ. 재산피해
 - ㄷ. 인명피해
 - ㄹ. 환경피해
 - 3) 스리마일 핵발전소 사고
 - ① 진행과정
 - ② 스리마일 핵발전소 사고의 의미
 - 4) 기타 핵 발전의 피해사례
 - ① 환경을 파괴하는 핵
 - ② 비싼 에너지 핵
 - ③ 핵폐기물에 대한 문제
3. 핵에너지 사용 절감에 대한 고찰
 - 1)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만 하는 이유
 - 2) 대안에너지
 - ① 대안에너지란
 - ② 대안에너지의 종류
 - ③ 대안에너지의 특징
 - ㄱ. 대안에너지의 단점
 - ㄴ. 대안에너지의 장점
 - 1) 에너지 사용 절감 대안
 - ① 대기전력 줄이기
 - ② 인식 개선

III. 결론

별첨자료

한국반핵연대 창립자 남 효선 선생님 인터뷰

한국전력 충주지사 송 상민 차장님 인터뷰

Thanks to

캠페인

I.서론

1.논문의 동기

2011년 3월 11일 리히터 규모9.0 강도의 강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바와 관련해 피해자가 100만 명에 달하는 최악의 핵발전소 폭발사고인 체르노빌 핵 발전소폭발 사고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과학적이며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라고는 하지만 크나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을 수 밖에 없는 핵 발전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고, 핵 폐기물을 처리 할 장소도 마땅히 없는 마당에 더 많은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핵 발전에 대해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싶어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2.논문의 목적

대한민국 국민들의 핵 발전 찬성률은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해 월등한 폭으로 높다. 핵 발전에 대한 부작용 (발전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암 발생률 상승 또는 유산확률 증가 등) 과 역대 핵발전소의 사고로 인한 인명, 환경, 재산피해 등을 조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핵 발전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핵에너지의 대안방안을 제시하고 모두 같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3.연구방법

①참고문헌

원자력 신화로 부터의 해방/타카기 진자부로/녹색평론 사
녹색평론118호/김종철(발행인)/녹색평론 사
녹색평론119호/김종철(발행인)/녹색평론 사
녹색평론120호/김종철(발행인)/녹색평론 사
뉴턴2011년6월호/뉴턴코리아
뉴턴2011년7월호/뉴턴코리아
원자력 딜레마/김명자 /사이언스 북스
에너지 대안을 찾아서/이필렬/창작과 비평사
원자력은 아니다/헬렌 칼디코트/양문
원전을 멈춰라/히로세 다카시/이음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정용일/ 환경재단 도요새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스베틀라나 알렉산드로브나 알렉시예비치/새잎
원자력 생활백서/한수원

②영상 및 사진

체르노빌 전투/Discovery channel
KBS스페셜-대지진100일 흔들리는 일본/KBS
EBS 다큐 대재앙-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건/EBS
특파원 현장보고-체르노빌 사고25년, 유령의 도시에 가다 외/KBS
INPUT 2011 Seoul 특선다큐-체르노빌, 자연의 역사인가/KBS
해외 특선다큐- 원자력 에너지의 미래/KTV
시사매거진-공포의 후쿠시마 외/MBC
시사매거진-죽음의 땅 체르노빌을 가다/MBC

③참고 사이트

www.greenpeace.org(그린피스)
www.kaeri.re.kr(한국 원자력 연구원)
www.kfem.or.kr(환경 운동연합)
www.greenkorea.org(녹색연합)
http://cafe.daum.net/gjkfem(경주환경운동연합)

④인터뷰

한국전력 충주지사 송 상민 차장님
한국반핵연대 설립자 남 효선 선생님

⑤방문 및 탐방

보령 화력 발전소 에너지 월드
한국전력 충주지사

II.본론

1.핵 발전이란?

1)핵 발전이란?

핵 발전은 열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리는 원리다. 이점에서는 일반 화력발전과 다를 바 없다. 천연 우라늄을 채굴해내어 그 안에0.711%정도 들어있는 우라늄235를 재련하고 농축하여 핵발전소에 적합한 농도로 만들어 성형 가공한 우라늄(또는 플루토늄)연료봉을 태워 열을 만든다. 우라늄235는 핵분열로 인하여 다량의 열과 플루토늄, 중성자를 방출한다. 이때 나오는 막대한 열을 사용하는 것이다. 독일의 핵물리학자 오토 한이 1939년 우라늄 핵붕괴 시 엄청난 열을 방출한다는 연구를 발표한 이래 핵은 끊임없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다. 1942년 이탈리아 출신의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가 세계 최초의 원자로 Chicago Pile-1에서 우라늄235 핵분열 연쇄 반응을 성공했다. 핵 발전을 단순화한다면 원자로 안에서 우라늄235가 핵분열하면서 내는 열로 물을 끓여 생산되는 증기로 터빈을 돌리고 증기를 식혀 물로 만들어 다시 원자로 내부로 순환되는 형식이다.

2)핵 발전의 목적

핵 발전은 최초에는 핵무기 개발용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53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34대 미국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원자”(atoms for peace)라는 연설을 시발점으로 상업용 목적을 가진 핵 발전이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애용되고 있었다. 화력발전소는 보일러와 터빈만 있으면 발전이 가능한 가장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수력, 풍력, 조력, 지열 같이 특수한 지형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또한 위험이 적기 때문에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비교적 멀지않은 곳에 건설할 수 있어 송전의 효율이 높다. 그러나 화력발전소는 원료를 화석연료, 즉 석탄(갈탄, 역청탄)이나 기름(병커c유) 등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화석연료를 소비하면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 등을 유발하고 또한 화석연료는 매장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원 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면에서 핵 발전은 매연을 생산하지 않으니 표면적으로 깨끗해 보일 수 있고 연료가 되는 우라늄도 화석연료보다 비교적 많으니 장기적인 에너지원으로 보일 수 있다. 지구상에 사용가능한 고 등급 우라늄은 350만t 에 불과하다. 많다고 느낄 수 도 있지만 세계 연간 이용량 6만7000t 을 생각한다면 겨우 50년 정도의 여분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저 등급 우라늄은 생산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핵 산업계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처리는 고속증식로라고 불리는 특수한 원자로에서 가동된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핵연료는 30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늘어나게 된다. 고속증식로에서는 물보다 열전도율이 높은 소듐¹⁾을 사용하는데 소듐은 산소에 노출되면 폭발하는 성질이 있다. 실제로 1995년 나트륨이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고, 바로 작년에 원자로에 플루토늄 연료봉을 넣는 크레인인 휘어서 빠지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계를 꺾는다면 금속가루가 소듐과 반응해 폭발할 수도 있고, 소듐 냉각재를 다 빼버리자면 노심이 뜨거워져 체르노빌 같은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냉각재를 소듐에서 물로 바꾸자면 물과 반응해 소듐이 폭발 할 것이고 내부에 있는 플루토늄을 연소할 때 까지 방치하자면 하루에 7억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 이처럼 사소한 사고 하나에도 고속증식로는 대 재앙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때 꿈의 에너지라고 불렸던 고속증식로는 핵강국 프랑스를 포함해서 러시아, 일본 등 많은 나라가 모두 도전에 실패했다.

2. 핵 발전의 피해 사례

1)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① 진행과정

1986년 4월26일 오전 1시 23분 58초 구 소련 (현 우크라이나) 의 체르노빌에 위치한 레닌 핵발전소(이하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 사상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 아니 인류 문명 최악의 사고가 일어났다. 원자로를 멈춰도 전기 공급이 지속되는지 실험하다가 실제로 전기가 끊겨버렸고, 전기 공급단절로 인하여 비상냉각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원자로가 폭발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원자로 안에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40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존재하고 있었고 방사능을 함유한 수천 톤의 흑연이 있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내부에 방사능을 측정하는 기구는 가이거 계수관이 있었고 표시의 한계점인 3.6뢴트겐²⁾을 넘어 있어서 방사선량이 얼마인지 정확히 측정할 수 없었다. 그 후 정밀히 측정한 결과 발전소 주변의 방사선량은 2080 뢰트겐 이었고 발전소 책임자와 직원들은 현실도피에 급급했다. 2080뢴트겐을 15분만 피폭당하면 인간에게는 치사량이 된다. 3km 정도 떨어져있는 인구 4만3000여명의 도시 프리피야트³⁾에서는 평균치0.000012뢴트겐의 600,000배인 7.2 뢰트겐이 감지되었다. 이 같은 공간에서 인간은 4일이면 치사량에 도달하게 된다. 사고 당시 소련은 체르노빌 발전소 사고가 연구원들의 실수 때문이라고 발표했지만 결국 RBMK⁴⁾형 원자로에 결함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 모든 사건의 근원인 체르노빌 핵발전소는 1943년 12월에 운전을 시작했으며 3년도 채 되지 않은 최신 원자로가 이러한 재앙을 불러온 것이다.

1) Na. 나트륨 이라고도 한다.

2) X선 및 감마선의 조사선량의 단위이다. 기호는 R이며, 0°C, 1기압의 조건의 건조공기 1mℓ의 중량 속에서 1 정전기단위인 전기량을 운반하는 X선 또는 감마선의 선량이다. 인간이 500뢴트겐 이상을 피폭당한다면 인체는 치명적으로 오염된다. 인체는 연간 2뢴트겐 정도를 별다른 피해 없이 흡수할 수 있다.

3) 우크라이나 북부에 있는 도시이다. 가까운 곳에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있으며 현재 세계 최대의 유령도시이다.

4)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는 비등경수로 압력관형 원자로를 뜻하며 원자로의 규모를 키울 수 있지만 불안정하다. 체르노빌이 RBMK형 원자로다.

②사고

ㄱ.폭발규모



↳지붕이 완전히 파괴되어 내부의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5)원자로의 노심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무게가 1200t에 이르는 지붕도 폭발과 함께 위로 튀어 오르면서 파손되었고 그로 인하여원자로 내부에 존재하던 원자폭탄2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의 방사성 물질과 감속재로 쓰이던 수천 톤의 방사능을 뿜 흑연도 공중으로 날아가 수백만 제곱킬로미터의 광활한 지역을 오염시켰고 아직도 체르노빌 핵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30km는 출입 금지구역이다. 현재 체르노빌 핵발전소 4호기는 콘크리트 30만t과 철근1만t을 들여 만든 ‘석관’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덮여있고 석관의 내부에는 사고당시 녹아내려 단단하게 굳은 180t 정도의 방사능 물질이 남아있다고 추정되며 이것은 최소 10만 년 간 제거될 수 없을 것이다. 그중에는 100kg가량의 플루토늄이 포함되는데 이는 1억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양이다.

ㄴ.재산피해

재산피해를 정확히 따질 수는 없다. 수십만, 수백만의 생명의 목숨 값도 따질 수 없을뿐더러 그들, 프리피야트 에 살고 있던 4만3000여명의 주민들과 13만 여명의 핵 난민들이 버리고 떠나야 했던 모든 것들. 이것들은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문제다. 반드시 따진다면 따질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는 운전을 시작한지 3년을 채우지 못한 최신원자로이다. 핵발전소의 특성상 건설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재산 피해다. 체르노빌 핵발전소는 뚜껑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뚜껑을 새로 덮지 않으면 방사능 물질의 유출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한 ‘석관’이라는 20세기의 피라미드로 불리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설치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수습에 180억 루블(한화 약20조원)이 사용되었다. 합한 면적이 200제곱미터가 넘는 금이 간 석관의 틈새사이로 방사성 연무질⁶⁾이 새어나오고 있고 틈사이로 빗물이 들어가면 그물이 흘러나옴으로서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다. 그리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는 망가져가는 석관을 통 채로 덮을 새로운 석관을 구상 중에 있다. 감마선을 차단하기위해 고품질의 강철로 제작되는데 이를 위해 1만8천 톤의 금속이 소요 된다⁷⁾. 최소 10억 달러(한화 약1조원)가 필요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재정난으로 인해 아직 시공하지 못하고 있다.

ㄷ.인명피해

사고가 난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던 연구원과 화재진압을 하러 온 소방관 51명이 사망했다. 지붕에 남아있던 흑연조각을 처리하기위해 투입되었던 군인과 시민 50만 여명 중 이미 2

5) 사진<http://blog.naver.com/h1523h?Redirect=Log&...>에서 발췌

6) 기체속에 액체나 고체상태의 미세한 입자가 분산되어 있는 상태

7) 도서 ‘체르노빌의 목소리’에서 발췌

만 여명은 이미 사망했고 20만은 공식 장애인이 되었다. 벨로루시만 해도 11만5,493명이 해체작업자로 근무하였다. 보건부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3년 사이 8,533명이 사망했다. 하루에 평균 두 명꼴로 사망한 것 이다. 이들에게 백혈병과 갑상선암은 아주 흔한 질병이다. 체르노빌 핵발전소와 인접해있는 벨로루시에서는 30만 여명의 기형아를 출산했다. 체르노빌 사태로 인해 주변지역의 피난민은 13만 명에 달했다. 체르노빌 전에 벨로루시 국민 10만 명중 암환자는82명에 불과했지만 2004년 통계를 보면 10만 명중 6000명이 암환자다. 이는 거의 74배나 상승한 수치다⁸⁾. 또한 사고 지역 주변에 살던 2000여명의 아이들은 갑상선암에 걸렸다. 원자로 안에 들어있던 핵 연료봉이 녹음으로써 점점 아래로 내려갔다. 결국 내려가다 보면 국가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거대한 대수층과 만나게 된다. 이것을 막기 위해 1만 명의 광부들이 땅굴을 뚫고 그 결과 2500여명의 광부들이 죽었다. 2002년 UN보고서에 따르면 그 수치는 두 배로 증가할 것 이라고 한다. 그리고 체르노빌 핵발전소 주변에 있는 국가 벨로루시, 러시아(체르노빌 인근), 우크라이나 의 주민들의 평균예상수명은 세계에서 20번째로 가난하고 2009년까지 근 30년의 내전을 겪어온 스리랑카보다 10년 정도 짧다고 유엔아동기금(UNICEF)는 추산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 판은 29일(현지시간)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 등 6개 항목에서 후쿠시마 사태를 체르노빌 사태와 비교하고 후쿠시마가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일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전했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인류 최악의 핵 참사는 체르노빌이 아니라 후쿠시마인 셈이다⁹⁾. 크리스 버스비 영국 얼스터대학교 교수는 후쿠시마의 여파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 이라고 추정했다.

ㄱ.환경피해

체르노빌이라는 이름만큼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다. 본디 방사성 물질이라는 것들의 특징이 무색, 무미, 무취에 국경도 없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으며 종류에 따라 수 초에서 수천만 년간 방사선을 내보낸다. 이러한 점 때문에 체르노빌이 기형아와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반경30km는 일반인의 출입을 불허하고 있다. 출입을 하고 싶다면 방사능에 노출되어 장애나 병이 생겨도 우크라이나 정부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출입증에 서명을 해야 한다. 초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로 인하여 숲이 붉게 변해버린 ‘붉은 숲’이 출입제한의 이유를 대변해 주고 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발전소의 근처로 다가갈수록 방사능 수치는 상승하고 다가갈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가장 가까운 발전소 근처 80m내에는 보통 공기의 정상적인 수치의 800배에서 수 천 배 까지 증가한다. 이런 수치가 존재하는 곳에서 맨몸으로 15분 이상 머물면 위험하다. 도로는 매일 물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수치가 낮지만 바로 옆 흙에 방사능 측정기를 대면 수치는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그러한 수치가 출입금지인 반경30km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퍼졌다는 점에서 환경피해는 대단한 것 이었다. 지금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시는 방사능의 3%는 체르노빌에서 방출된 것 이다¹⁰⁾.



ㄱ 체르노빌사고가 주변에 끼친 환경오염¹¹⁾

8) 도서 '체르노빌의 목소리'에서 발췌

9)인터넷 신문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829155007§ion=05&t1=n에서 발췌

10) 특파원 현장보고-체르노빌 사고25년, 유령의 도시에 가다에서 발췌

11) 사진 <http://blog.naver.com/a308501?Redirect=Log&logNo=10105316047>에서 발췌

2)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①진행과정

사고의 발단은 자연재해에 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부를 강타한 지진과 높이가 20m에 이르렀던 거대한 해일로 인하여 일본 동부에 자리 잡고 있는 11개의 원자로를 덮쳤다. 정기점검 중이던 후쿠시마 5호기, 6호기를 포함하여 7기는 무사히 비상정지 했지만 후쿠시마1호기~3호기는 운전중이었다. 3월11일 오후2시46분경 ‘동일본 대지진’을 감지한 핵발전소는 긴급정지 하였고 ECC S¹²⁾가 정상작동 하였다. 그러나 약 1시간후 오후3시40분경 쓰나미가 도달하여 비상 발전기가 파손되었고 이와 동시에 ECCS의 가동도 중지되었다. 그럼 으로서 원자로의 온도는 상승했고 3개의 원자로 가 통제 불능에 빠졌다. 3월 12일 오후3시 36분, 후쿠시마 핵발전소 1호기는 전원이 끊기면서 냉각수공급이 멈추자 냉각수의 수위가 내려갔고 결국 연료봉의 상부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수면위로 드러난 연료봉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수소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압력용기의 틈으로 빠져나간 수소는 금시에 건물내부에 들어찼고 결국 수소폭발에 이르렀다. 이틀 뒤인 3월 14일 오전11시 1분, 위의 내용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후쿠시마 핵발전소 3호기도 폭발했다. 그리고 3월15일 새벽6시10분, 새로운 형태의 폭발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2호기에서 일어났다. 원자로내부의 압력을 줄여주는 압력제어장치가 터진 것 이다. 외벽이 손상된 1,3호기에 비해 압력용기 자체가 부서진 2호기에서는 방사능이 대거 뿜어져 나왔다. 3시간 뒤, 9시 38분 2호기의 손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고가 4호기에서 일어났다. 원자로에 신경을 쓰는 동안 4호기의 사용 후 핵 연료봉을 담고 있는 저장수조의 수위가 내려가며 화재가 발생한 것 이다. 곧 3호기의 폐연료봉 저장수조에도 같은 문제가 있다며 뒤늦게 알아차렸다. 그러나 3호기와 4호기의 폐연료봉 저장수조의 치명적 약점은 방사능 유출을 따로 막아주는 격납용기가 없다는 사실이다. 아직 체르노빌은 운전원의 실수도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RBMK형 원자로의 설계상 결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는 시작은 천재였을지 모르나 중간의 과정이 인재였고 그 로 인하여 이처럼 참담한 사고를 낳게 되었다. 후쿠시마를 거대한 해일로 인한 천재라고 보는 사람도 있으나 후쿠시마가 인재인 이유가 있다. 과감성과 결단력이 떨어져 초기냉각에 실패한 것 이 인재의 첫 번째 이유이며 미국의 기술과 발전기 지원을 마다한 것 이 두 번째 이유이다. 3월11일 핵발전소 문제가 터지자마자 핵 대국인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후쿠시마에 기술과 발전기를 빌려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것 은 당연한 처사지만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이를 거부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도쿄전력의 허술한 원전운용과 쓸데없는 자존심등이 상호 작용해서 나타난 듯하다. 일본 후쿠시마(福島) 핵발전소 사태의 영향이 핵 재앙의 대명사인 1986년 체르노빌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는 과학자들의 분석이 나왔다. 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에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의 양이 많게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68.5배에 달한다고 공식 인정했다¹³⁾.

12)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비상 노심 냉각 장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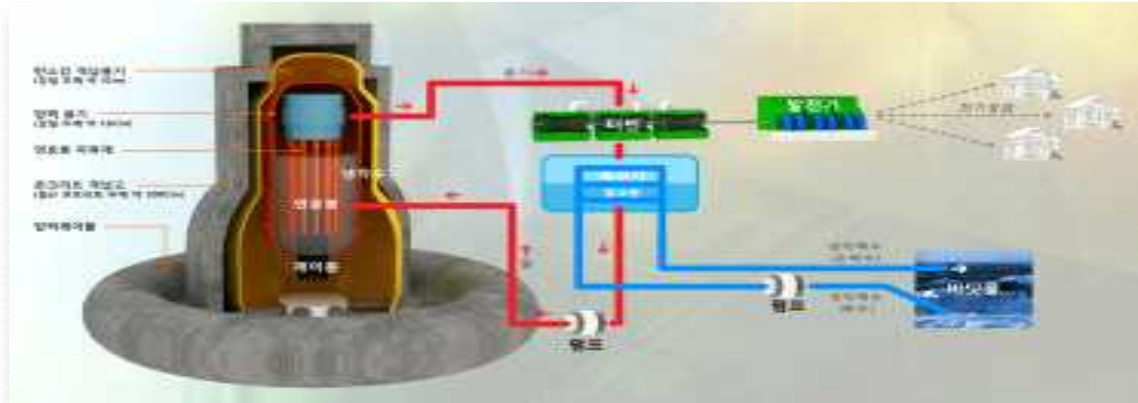
13)인터넷 뉴스 프레스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829155007§ion=05&t1=n에서 발췌

②사고

ㄱ.폭발규모

폭발만을 따진다면 이번 후쿠시마 원자로의 수소폭발은 체르노빌의 수소폭발과 함께 했던 수증기폭발만큼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후쿠시마에서는 수소폭발과 노심압력 조절장치가 파괴되면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물질들이 나오고 말았다. 체르노빌만큼 폭발이 거대한건 아니지만 체르노빌보다 훨씬 큰 원자로가 3기나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은 충분히 체르노빌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으로 볼 수 있다.



ㄱ 원자로의 하단에 있는 도넛 모양의 구조물이 압력제어실이다.

ㄴ.재산피해

앞으로의 문제가 관건이다. 과거의 문제에서는 재산피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문제라 함이란 원자로를 건설하고 운전하는 것 을 뜻하는데 60년대부터 건설하기 시작하여 71년도 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간 후쿠시마 1호기를 포함한 후쿠시마 제 1 핵발전소 1~4호기는 운전한지 40년이 지난 초 고령 원자로이다. 진작 에 폐로 해야 하는 상황 이였지만, 원자로를 폐로 하는 일은 여러 가지로 원전운용에 손해를 준다. 원자로를 계속 운영한다면 전력공사 측에는 이득이 되지만 원자로를 폐로 하는 것 은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 공사 측은 원자로의 폐로 시기를 계속 미룬다. 이는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이며 대한민국도 같은 상황이다. 원자로를 폐로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른다. 대한민국에서는 원자로를 폐로하려면 공식적으로 1조8000억 원의 돈이 소요 된다¹⁴⁾. 원자로는 상당히 복잡하고 위험한 구조라서 해체하는 데만 최소 수 십년이 걸린다.(2003년부터 해체작업에 들어간 신형 발전로 ‘후젠’은 35년에 걸쳐 해체할 예정이다.) 해체를 완료하더라도 원자로 노심과 외벽¹⁵⁾을 포함한 모든 원자로의 구성품은 핵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하지만 거대한 부피의 원자로를 처리할 처분장도 찾기 쉽지 않다. 현재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전1~4호기를 체르노빌처럼 해체하지 않고(못하고가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 그 자리에서 콘크리트로 묻어버리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후쿠시마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후쿠시마의 경우 1880억 파운드(331조5378억원)이상이라고 보도했다.

ㄷ.인명피해

방사능의 진정한 공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것 이 아니다. 인체 방사능에 심하게 피폭된다면 그 인체의 DNA를 파괴하여 피폭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 피폭2세 피폭3세 등에게 계속해서 기형이나 질병을 물려주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는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공포가 실체를 드러냈지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사고가 터진지 반년 정도밖에 세월이

14) 녹색평론118호 64쪽에서 발췌

15) 원자로의 가장 밖에 있는 콘크리트 벽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공포는 몸을 숨기고 있는 상태이다. 직접적인 방사능 피폭을 당한 사람도 있다. 원자로의 전기 공급을 위해 목숨을 건 ‘결사대50인’이나 망가진 냉각시스템 대신에 원자로에 뛰어든 소방대원들, 원자로 비상대책본부 등이 직접적인 피폭을 받은 사람들이다. 체르노빌에서도 직접피폭을 받아 사망한 사람들은 원자로 내부에 있던 운전원들과 소방대원이 전부였다. 후쿠시마에서는 원자로 사고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아직 없지만 눈을 돌리지 않고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 또 후쿠시마에서 300km 떨어진 카나가와 현의 녹차밭에서도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고 생선을 좋아하기로 유명한 일본의 바다는 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음식으로 인해 일본인들은 내부피폭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일본 핵안전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사고가 날 때 인근에 살고 있던 어린이 45%가 갑상선을 피폭당하였다고 한다. 체르노빌 사고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에는 갑상선암으로 인해 갑상선을 제거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 이러한 음식으로 인해 일본인들은 내부피폭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ㄱ. 환경피해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가 바닷가에 있었던 만큼 토양과 해양오염 모두 심각하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는 고농도의 방사능을 띤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까지 했는데 버릴 때 일본은 영향은 후쿠시마 300km 연안까지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중국의 과기일보(16)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동쪽으로 800km 떨어진 서태평양에서 중국 연안의 10배에서 300배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만약에 방사성물질이 가라앉는다면 그 해역의 수생식물을 꾸준히 먹는 것은 내부피폭이 생길 수 있고 가벼운 방사성물질들이 더 멀리 간다면 더 넓은 해역과 많은 나라에 피해를 줄 수 있다. 토양오염 또한 심각한 문제다. 일본의 핵발전 환경정비기구(NUMO)의 가와다 의원은 체르노빌의 거주 금지된 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토양오염이 600평방킬로미터에 걸쳐 퍼져있다는 추정치를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사고가 나서 32시간 머물렀던 프리피야트 주민들 사이에서 기형아와 암 발생률 등이 극적으로 상승한 것을 보면 후쿠시마도 인류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핵기술협회 최고고문인 이시카와 미치오는 “후쿠시마의 방사능 총량은 대체로 수십억 퀴리(17)가 가지는 열량과 같다. 이것이 공기 중으로 퍼지고 물속에 녹아들어가고 있다. 수십억 퀴리의 1%만 하더라도 1m 거리에서 수천만 램(18)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인간이 버틸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인간은 700램에서 사망한다.”라고 말했다. 일본 핵안전·보안원에 따르면 이번 사고에서 대기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은 ‘레벨7(19)’의 판단기준인 ‘수만 TBq’이 넘는 77만 TBq 이라고 도쿄전력은 추산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의 10% 수준이지만 이 추계에 바다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20) 해양의 직접적인 오염이 최초라서 사례가 없고 복잡한 해류 때문에 계산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이번 후쿠시마가 체르노빌 사고보다 위험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16) 중국 과학기술, 연구결과 해외동향 등을 실는 일간신문

17) 방사능의 단위로 기호는 Ci(퀴리). 1Ci는 매초 3.7×10^{10} 개의 원자핵이 붕괴할 때의 방사성물질의 양이다.

18) 생물학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 1/100 그레이와 같다. 1그레이는 1kg당 1줄의 방사선 에너지를 흡수한 것이다.

19) 국제원자력 사고등급을 뜻하며 사고등급은 0~7까지 8단계로 나눈다. 0단계 등급미만, 1단계 일탈, 2단계 이상사고, 3단계 중대한 이상사고, 4단계 주로 발전소 내에 영향을 주는 사고, 5단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 6단계 대 사고, 7단계 심각한 사고로 분류하며 5단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는 대표적으로 스리마일 핵발전소 사고가 있었고, 7단계 심각한 사고에는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포함된다.

20) 뉴턴 2011년 6월호 71p에서 발췌

3)스리마일 핵발전소 사고

①진행과정

사고의 경위는 1973년3월 28일 2호기에서 발생했다. 2호기는 운전개시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난 최신 원자로였다. 사고 당일 날 운전 중인 2호기의 배관에서 고장이 발생했다. 이 고장으로 급수와 터빈이 긴급 정지되어 냉각수가 흐르지 않게 되었다. 마침내 압력용기안의 물이 가동되어 증기가 늘어나고 압력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압력을 낮춰주는 밸브가 자동으로 열렸다. 여기서 첫 번째 실수가 일어났다. 압력이 내려간 다음에도 밸브가 닫히지 않은 것 이다. 계기에는 밸브가 ‘닫힘’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작업자는 이것을 알지 못했다. 이 부분이 기계의 결함을 뜻하는 실수다. 그리고 열린 밸브로부터 대량의 물이 증기가 되어 격납용기²¹⁾ 안으로 빠져나가서, 압력용기안의 수위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비상용 노심 냉각 장치(ECCS)가 작동했다. 비상용 노심 냉각 장치는 압력이 내려간 것 을 인식해 압력용기에 물을 집어넣기 시작했다. 그러나 계기판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왔고 작업자는 비상용 노심 냉각 장치가 오작동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수동으로 정지시켜 버렸다. 물은 계속 증기가 되어 수위는 줄어들어갔고 결국 연료봉이 물 밖으로 나오자 연료봉이 녹아 노심용융이 일어났다. 마침내 작업자가 알아차리고 밸브를 닫았다. 그러나 그다음에도 노심용융으로 압력격납용기의 내부에 수소가 생기고 물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격납용기로 수소와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었다. 그리하여 ECCS의 물 공급 기능이 곧 회복되고 사고는 수습단계로 접어들었다. 사고 16시간 후의 일이었다. 대부분의 수소와 방사성 물질들은 원자로 내부에 남아있지만 외부로도 방출되었다. 주변 80km 범위에 사는 주민 216 만여 명의 피폭량은 1mSv²²⁾로 추정된다. 단, 사고 당시 정보가 잘 못 전달되어 불필요한 대피권고가 나오는 등 주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²³⁾.

②스리마일 핵발전소 사고의 의미

미국 스리마일 핵발전소사고는 핵 산업계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다. 그 당시 노심용융이라는 민간인에게 노출된 사고 중에 최악의 사고였고, 인간의 실수와 기계의 결함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고였다. 또 핵에 대한 공포, 광범위한 피해 등 핵의 부정적인 면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거의 최초의 사례이다. 그 당시에도 핵 산업계 중에 1등 이었던 미국 핵 산업계는 자신만만 기세 등등 이었다. 노심이 용융될 확률은 사람이 지하주차장에서 번개를 맞을 확률이라며 자부했었지만 스리마일 핵발전소 사고가 터졌다. 웬만한 사고였으면 은폐했을 법한 문제지만 200만 명 이상이 대피하는 대소동이 있고 난 후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가 파해 쳐졌다. 이 말은 은폐한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을 대변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실제로 인간의 실수로 사라져버린 핵 도시가 여럿 있다. 그런 면에서 핵사고의 척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기타 핵 발전의 피해사례

핵에너지는 인간과는 공존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원자로를 가동하는 나라 가운데 원자로를 불안전하고 위험하며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생산해내고 전혀 생산단가가 저렴하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절대 광고하지 않는다. 극동아시아의 어떤 나라에서는 ‘녹색성장의 동력’, ‘희망찬 에너지 원자력’ 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핵에너지가 위험한 이유를 알아보자.

①환경을 파괴하는 핵

핵 발전에는 ‘핵연료주기’라고 불리는 우라늄의 채굴, 재련, 농축, 운송, 운전, 재처리, 폐기가 절대 불가피한 요소이다. 핵 산업계가 그렇게 강조하는 ‘깨끗한 에너지 원자력’은 곧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하지 않는다는 뜻 이다. 원자로를 운전하는 것에 한해서는 틀

21) 원자로 압력 용기 및 그 부속 설비를 수납하며 내압 · 내열성 및 기밀성을 가진 강철제 또는 콘크리트제의 밀폐 용기.

22) 방사능량의 단위이다. 기호는 Sv이며, 줄/킬로그램(J/kg)에 대한 고유명칭 이다.

23) 뉴턴2011년 6월호 71쪽 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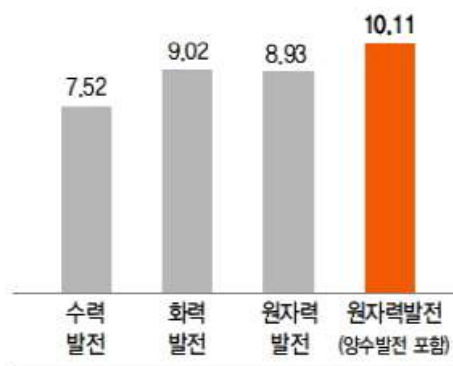
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핵연료주기를 포함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채굴, 운반도 말할 것이 없지만 특히 천연우라늄의 약0.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우라늄235를 원자로에 맞는 수준으로 농축²⁴⁾을 하는 것에는 이산화탄소보다 더 심각한 열 잡이 기체인 프레온 가스를 방출한다. 또 미국에서는 우라늄 농축공장1개를 위해 공해의 대명사인 석탄화력 발전소를 두 개나 가동하고 있다. 가스 확산법, 레이저법등 여러 가지의 우라늄235농축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원심분리법 이라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다. 원심분리법을 사용해서 우라늄235를 농축하는 것은, 말 그대로 원심력을 이용하는 것 이다. 우라늄 235와 238이 섞여있는 정련된 우라늄을 빠르게 돌리면 좀 더 무거운 우라늄238은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 우라늄238보다 가벼운235는 중심으로 모여들게 된다. 그러면 중심부분만 다시 추출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원심분리 하여서 우라늄235가 대략 3~5%정도가 되도록 농축한다. 이 부분에서 핵폭탄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 우라늄235를 3~5%정도로 농축한다면 핵연료가 되지만, 우라늄235를 99%이상으로 농축하면 그것은 인류 최악의 살상 무기인 우라늄 핵폭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라늄 농축기술은 겨우 미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만 소유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핵무기 보유 국가이다. 또 북한도 자체적인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이문제가 유엔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었다. 우라늄 원심분리는 전력소모가 엄청나게 심하다. 우라늄235를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우라늄농축도 결국엔 에너지를 얻기 위함인데 우라늄 농축 공장을 위해 화력 발전소를 두 개나 운영하는 것은 환경파괴에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프레온 가스를 방출하고 핵무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위험한 일임에 틀림없다. 또 대한민국을 포함한 우라늄235의 농축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국가의 입장으로선 농축우라늄을 100% 수입해야만 하는 경제적인 문제도 존재하고 있다.

②비싼 에너지 핵

또 핵 발전은 절대로 생산단가가 저렴하지 않다. 핵 발전 찬성론자들이 당당히 제시하는 두 번째 자랑거리이기도한 이 부분 또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다. 핵발전소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크게 한번 사고가 터지면 체르노빌 같은 사고도 유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보험료도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2003년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공과대학교에 ‘원자력의 미래(The Future of Nuclear Power)’이런 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있다. 보고서의 내용 중 “한 개의 새로운 핵발전소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의 평균화²⁵⁾ 가격이 보통의 가스가격을 가정할 때 석탄 화력발전소나 가스 화력발전소 의 전기보다 약60%가 비싸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설명하자면 현재의 저렴한 에너지라는 것은 오염, 사고, 원전사고보험료, 대 테러경비, 건설비용등을 포함한 운영비용이 누락된 수치다.

일본의 발전단가 비교

단위: 1kWh/당 엔 (조사기간: 2000~2007년 사이)



자료: 오시마 겐이치 리스메이칸대 교수 연구결과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 보고서 게재)

24) 종류에 따라 천연우라늄을 농축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는 원자로도 있다.

25) 발전소에 의해 생산된 전기에너지의 전체비용을 건설, 유지보수비용으로 나눈 값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하철이나 공항같이 공공적인 장소에서는 핵을 녹색 성장의 동력인 양 홍보하고 있다. 핵발전소는 구조상 다른 발전소처럼 전력수요가 급하다고 가동하고 전력이 남는다고 운전을 정지할 수 없다. 대체로 낮에는 전력을 많이 사용 하지만 밤에는 전력이 낮보다 상대적으로 전력이 많이 남는다. 전력이 많이 남으면 전류과부하가 걸려서 기기의 손상이나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고, 전력을 버려야하기 때문에 남는 전력으로 양수발전소를 돌린다. 양수발전소는 낮은 곳에 있는 물을 산위로 끌어올린 다음 다시 물을 내려 보내 그 물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다. 영구기관²⁶⁾이 가능하다면 상관없지만 공기와의 마찰, 축과의 마찰, 열 마찰을 포함한 마찰 때문에 결국 물을 끌어올리는데 소비된 에너지가 물이 떨어지는 운동에너지보다 크다. 결국 양수발전은 핵 발전의 어쩔 수 없는 선택지이자 아주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대한민국에도 양수발전소가 전국에 8곳이 있으며 모든 양수발전소가 그렇듯이 에너지 적자를 만들고 있다.

③ 핵폐기물에 대한 문제

세계적인 반핵 시민과학자이며 핵물리학자 다카기 진자부로²⁷⁾는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처리를 화장실 없는 맨션아파트라고 표현했다. 적절한 처분장이 없기 때문에 핵폐기물은 핵발전소의 가장 눈에 띄는 표면적 문제이자 가장 심각한 발등의 불이라고 할 수 있다. 핵폐기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원자로 내부에 들어갔었을 때 사용 한 방호복, 원자로 내부의 공기를 외부로 내보내는데 사용되는 필터 등이 중, 저준위 핵폐기물에 포함된다. 또 사용 후 핵 연료봉이나 연료봉을 피복하고 있던 지르코늄 합금 등은 고준위 핵폐기물에 포함된다.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말할 수 도 없이 위험하다. 핵‘폐기물’은 쓰레기장, 즉 사용 후 핵연료 폐기물처리장에 처분해야 한다. 부피와 양이 월등하게 많고 그나마 고준위 핵폐기물보다는 덜 위험한 중, 저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은 세계 곳곳에 있다. 그러나 전 세계에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은 단 한군데도 없다. 현재 핵 기술의 정점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미국이나 프랑스마저도 부지선정도 미처 하지 못하고 있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지하에 묻으려면 ‘안전한’ 지각을 찾아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교적’ 안전한 지각은 있지만 ‘완전히’ 안전한 지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지각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방사성 폐기물을 묻으려면 그나마 ‘비교적’ 안전한 지각에 처분해야 하는데 그 것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안전한 기준은 최소한 과거 10만 년 간 물이 흐르지 않았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이 지질학을 조사하기 시작된 건 100분의 1인 1000년도 되지 않는다. 결국 현재로써는 ‘비교적’ 안전한 지각조차 알 수가 없는 것 이다. 비교적 안전한 지각을 찾는 것 은 시작에 불과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지층처분 하려면 ‘유리 고화체’ 라는 고체로 만들어야한다. 유리의 원료와 방사능 폐기물을 함께 녹여서 ‘캐니스터’ 라고 불리는 특수 용기에 넣는다. 캐니스터는 다시 두께만 20cm의 강철제 ‘오버 팩’에 넣어야 한다. 오버 팩을 지하 300m 이상의 비교적 안전한 지각에 묻고 다시 물이 통하지 않게 완충재를 덧씌운다. 그 후 마지막으로 흙으로 메운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호들갑스럽다고 느낄 수 도 있다. 그러나 유리 고화체 안에 존재하는 방사능을 생각하면 이것도 모자라다. 유리 고화체 제조한 직후에는 유리 고화체 안에는 5만 테라²⁷⁾베크렐²⁸⁾ 이상이 남아있다. 5만 테라베크렐은 그 존재 자체로 인류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유리 고화체는 500kg 정도 남짓하지만 방사능총량은 재료의 근원이 된 우라늄광석 600t 보다 2만 배 많다. 유리 고화체의 방사능 총량이 우라늄 600t과 비슷한 정도가 되려면 수 만년이 걸리고 같은 무게의 우라늄 광석과 같은 농도의 방사능 총량으로 떨어지려면 수 천 만년이 걸린다.

이렇듯 위험한 핵폐기물을 처분하는 방법은 굉장히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실행에 옮기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핵 전문가들은 다중의 안전장치가 있어서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고는 예외가 없다. 여러 가지의 안전장치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의 사

26)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외부로 일을 할 수 있는 장치

27) 여기서 방사능 세기의 테라(T)는 1조배를 뜻한다.

28) 평균 횡수(붕괴 횡수/시간)로 측정된다. 1Bq의 방사성 물질은 1초당 1번의 붕괴를 하는 양이다.

소한 실수나 기계의 결함,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최악의 핵 사고인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났다. 한번 의 실수로 150년도 못 사는 인간으로선 거의 영원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사고가 일어났고, 평생을 고통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3. 핵에너지 사용 질감에 대한 고찰

1)에너지 사용을 줄여야만 하는 이유

우리는, 화석연료와 핵연료를 소비해서 전기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전기사용을 줄여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전기를 펄펄 쓰고 버리는 나라는 더욱더 전기를 아낄 줄 알아야 한다. 전기라는 2차 에너지를 쓸 때는 곧 화석연료와 핵이라는 1차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만든 것 이라는 생각 해야만 한다.

화력발전의 주원료인 1855년 석탄의 채탄량은 3600만t에 불과했지만, 1913년에는 세계 석탄 채탄량은 12억6000만t에 달했다. 후일 석탄에서 석유로 에너지의 주류는 넘어가지만 둘 다 화석연료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 화석에너지의 고갈 가능성은 1900년대 초반부터 제시되어 인류를 괴롭혔고 지금도 추측하고 있는 화석에너지 매장량이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다. 수입에 대부분의 원료를 의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같은 자원 빈국은 1970년대 두 번의 오일쇼크²⁹⁾같은 원유 값 폭등에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아니면 머지않은 미래에 화석연료의 바닥이 보여서 자원 보유국들이 자원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활 등은 일제히 무너질 것이다. 발전에 쓰이는 석탄은 호주와 중국 등지에서 전량 수입하는 것이고, 핵연료도 마찬가지로 원료인 우라늄을 전량 수입한다. 원료의 수입은 곧 외화의 지출을 뜻하는 것 이다. 에너지 절약, 절약이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버리는 에너지만 줄여도 외화의 지출을 줄이고, 환경을 좀 더 보전할 수 있다.

2)대안에너지

①대안에너지란

대안에너지는 말 그대로 현재 에너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에너지다. 과거 300여 년간 인간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나무에서 화석에너지로 전환되어 왔다. 석탄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기원 전 부터라는 기록이 있지만, 1769년 와트의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석탄의 채탄량이 늘기 시작했고 산업혁명과 함께 채탄량은 하늘을 찌를 듯 상승하고 있었다. 오일쇼크로 인해 미국을 포함한 유럽 등지의 국가들은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등에 대해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안’에너지 개발에 몰두했다. 후일 환경문제 등도 함께 부각되면서 대안에너지는 대안이 될 뿐만이 아니라 청정에너지로서 많은 나라의 연구대상이며 이미 실용화된 에너지의 한 조각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태양광 에너지만 으로 53만 세대의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완전한 탈 원전 정책을 선택했고, 정치정당에 녹색당이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은 독일은 축구장의 지붕에도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정도다.



습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광 발전소인 Solar Energy Generating Systems (SEGS).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모하비 사막에 위치함.³⁰⁾

29) 오일쇼크란 원유 값이 급등하여 전 세계 각국에 경제적 타격을 준 석유파동을 말하며, 지금까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2차례의 석유파동은 각각 1973과 1979년에 일어났다. 출처: 두산동아 doopedia

②대안에너지의 종류

대안에너지의 종류는 굉장히 많다. 유명한 것은 태양광전지, 풍력 발전부터 시작해서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는 조력발전, 다목적 댐에서 발생하는 수력에너지, 땅의 열로 물을 끓이는 지열발전, 파도의 상하운동을 이용하는 파력발전, 식물이나 미생물 또는 동물체를 이용하는 바이오매스, 쓰레기에서 얻는 폐기물 에너지,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단순한 소수력 발전 등이 포함된다. 직접적인 에너지 생산은 아니지만 지역난방과 화력발전을 엮어서 열 병합발전을 할 수도 있다. 열 병합 발전은 화력에너지의 쓰고 버리는 열을 재활용 하는 것이며 이 때 난방에 드는 막대한 에너지를 충분히 절약하여 궁극적으로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위의 많은 에너지 생산 방식 중에서도 간디학교에서 살면서 하루에도 한번은 눈에 띄게 되는 기숙사와 학교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기나 햇살마루 앞, 과학실 앞 창고 위에 설치되어 있는 풍력발전기는 대안 에너지에서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앞으로도 대안에너지는 계속 연구되어 새로운 방식이나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개발되어 대안에너지는 진보할 것 이다.

③대안에너지의 특징

ㄱ.대안에너지의 단점

대안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은 ‘간헐성’ 이다. 말 그대로 에너지의 원천이 간헐적 인게 문제라는 것이다. 태양에너지의 원천은 태양인데 구름이 낀다거나 비가내리는 등 기상의 악화나 햇빛이 없는 밤에는 발전이 불가능하다. 풍력발전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없으면 절대로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없다.

앞에서 나왔던 조력이나 파력 등 파도를 이용한다거나 수력, 소 수력 발전 같이 특정한 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한 발전 방식은 지역에 국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특정지역에 국한되면 장거리 송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송전하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전력의 손실과 비용이 커진다. 열 병합 발전은 더 까다롭다. 화력발전소와 제휴를 맺고 난방에 사용하려면 마을과 거리가 최소한도 가까워야 하는데 발전소와 거리가 가까운 마을을 찾기란 쉽지 않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작은 나라는 국토 어디를 가더라도 지형의 변화가 단조롭기 때문에 대안에너지를 확대하기가 더 힘들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전력의 낭비가 가장 심각한나라로 손꼽히기 때문에 화력발전이나 핵 발전처럼 한 번에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대안 에너지는 대한민국에서 제자리를 찾기 힘들다.

ㄴ.대안에너지의 장점

앞에서의 이유는 핵 발전 또는 화력발전보다 제약이 많다. 특히 화력발전소는 지형의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력공사 측에서 건설하기를 선호한다. 하지만 요즘에는 점점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안에너지의 장점을 알아보자.

화력발전의 환경적문제와 연료 고갈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핵 발전이 제시되어 실행에 옮겨졌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대안에너지로 떠오르고 있었던 핵 발전은 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일종의 대안에너지로서의 ‘모순’ 이 있었다. 모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체감한 인류는 친환경 적이며 안전하고, 에너지의 근원이 무한대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찾기 시작했고 대안에너지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대안에너지는 효율이 낮다. 즉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뜻이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보다 심각한 단점은 없다. 대부분의 나라가 자본주의인 세계에서 이런 단점은 크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양이나마 대안 에너지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다. 최근, 특히 지난 십여 년 간 세계 각지에서는 지구 온난화나 이상기후 등이 이슈로 급부상 했다. 이 같은 기상이변을 근거로 절망적인 미래를 예상하는 설이 정설로 자리매김

30)사진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jy0501&logNo=100091538257&categoryNo=0&parentCategoryNo=32&viewDate=¤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search> 에서 발췌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 그 중 한 가지는 탄소배출권 제도다. 돈을 내고 산 탄소배출권 만큼만 탄소를 배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매연을 내뿜는 화력발전이 전기 생산의 핵심이기 때문에 외화지출을 줄이려면 전기 생산을 줄이거나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다른 발전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러나 전기 생산을 줄이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오히려 나라의 재정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이런 점까지 계산한다면 국가차원에서도 대안에너지가 단가가 비싸고 효율이 떨어지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풍력이 간헐적으로 끊기거나 태양력이 계절과 기후 등으로 끊길 때 대안(재생)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전기 공급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시한다. 다양한 연구들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간헐성' 문제와 그에 대한 풍부한 해법을 조사해 왔다. 이를테면, 개선된 기상예보기술, 풍력발전기의 지리적 분포상태, 송전망과 배전망의 시기적절한 확장, 주들이나 국가들 사이의 경계를 넘는 전기교환, 그리고 같은 송전망에 파력, 지열, 열 병합 발전들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기술의 혼합. 이런 다양성은 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을 가능케 할 것이다.³¹⁾

1)에너지 사용 절감 대안

현재 인간의 문명사회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선 사회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자동차가 달리던 도로 위는 신호등이 꺼져버려서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이고, 각기 산업공정이 일제히 정지하면서 막대한 피해가 생길 것이다. 후쿠시마와 비슷한 시나리오로 원자로에 전기가 끊겨서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가 다시 생길 것이다. 비행기와 배도 마찬가지로 서로 충돌이나 추락 등 혼란을 면하지 못 할 것이고, 결국 세계 각국은 내부적, 외부적으로 전부 소통이 끊기다 못해 파괴되고 괴멸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인류가 전기를 단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1977년 7월 13일 에 미국 동북부 지역에 대규모 정전이 있었는데, 낙뢰로 인한 송전망의 파손이 원인이었다. 깜깜한 밤거리는 무법천지가 되었다. 하룻밤 만에 뉴욕경찰은 3776명을 체포했고 103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한번에 50대의 자동차를 도난당했다.

이처럼 전기는 현재의 인간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다. 하지만, 쓰고 싶은 만큼 다 쓰고 남는 에너지를 펄펄 버리는 지금처럼 가다가는 인류는 절망적인 미래를 피할 수 없다. 특히 대한민국이나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이례가 없을 만큼 전기사용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더 전력 낭비가 심각한 실태다.

①대기전력 줄이기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전제품은 동작하는데 전력이 필요하다. 전력을 받기위해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야 한다. 전기는 콘센트에 꽂혀있는 플러그를 따라 작동하지 않는 가전제품으로 계속 흘러들어 가고, 흘러간 전기는 소멸된다. 이것이 바로 '대기전력'이다. 전기 흡혈귀라고 불리기도 하는 대기전력은 평균적으로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11%를 차지한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빼고 플러그를 뽑아놓으면 전력사용량이 줄어 가정집에서는 전기세 부담을 덜고, 발전을 덜 해도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줄어든다. 평균적으로 연간 대기전력으로 주택 한 가구당 약93.11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는 소나무20그루가 내쉬는 산소의 양과 맞먹는다. 국내 가구당 평균적인 대기전력 사용량은 연간 306kWh(약 3만5000원)로, 가정 소비전력의 11%, 국가 전력량의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전력으로 인해 국가적으로도 매년 5000억원(4600GWh)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전력만 차단해도 850MW³²⁾급 발전소 1기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³³⁾

31) 도서 :원자력은 아니다 229-230 쪽에서 발췌

32) 1MW는 100만 와트를 뜻하며 850MW는 25만가구의 일반 가정집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33) 출처: 대기전력을 잡아라

②마음가짐

“근래 몇 년 새 우리 주변에 석유난로가 사라졌어요. 대신 전기온풍기를 쓰죠. 효율이 가장 나쁜 난방 방식이죠.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석유 값이 비싸고 전기가격이 싸기 때문이에요. 전기는 원가 이하로도 팔았어요. 최근 몇 년간 한전은 적자상태였죠. 특히 상업용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했어요. 가정은 누진율이 적용돼서 비싸서 못 쓰지만 상업용은 쌉니다. 상업용은 더 심각합니다. 상업용 전력소비가 24~25개월째 사상 최고를 경신하는 중이에요. 상업용이야말로 진짜 원가에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요를 조장한 면이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산업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업종으로 짜여있는 게 문제입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 . . 기후변화 대책을 아무리 세운다고 해도 답이 안 나와요.”³⁴⁾ 핵 발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나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전기세가 싼 나라들이다. 값이 싸다보니 국민들은 전기세의 가격이 싸지 않은 유럽³⁵⁾이나 일본 등지의 국민들 보다 전기 낭비가 훨씬 심하다.

실내에만 있으면 여름은 시원한 계절이고 겨울은 따뜻한 계절이라고 느낄 만큼 냉, 난방에 과도한 에너지를 낭비한다. 여름에 은행에 가면 시원하다 못해 추워서 직원들은 긴팔을 입고 있다. 겨울에는 집안에서 반팔을 입고 내복은 촌스러운 것이 되어 버린 이런 현상은 에너지 과소비, 낭비의 척도가 되었다. 여름에는 쓸데없이 추울 정도로 에어컨을 틀면서 “냉방병을 주의하자!”라는 포스터를 붙이고 다닌다. 내복이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이 시점에서 환경을 걱정하고 자신의 전기세를 걱정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을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

전기가 아낌없이 버려지고 있는 것은 간디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도 없는데 켜져 있는 전등, 꺼지지 않는 전산실 컴퓨터, 밤새 켜져 있는 화장실 전등. 이미 우리 몸에 익숙해진 전력 낭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전기가 싸기 때문에 아낌없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마음가짐은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발생시킬 뿐이고 궁극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 시킨다. 이런 점도 모순이다.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발생시키면, 지구의 온도는 더 올라가고, 지구가 더 더워지면 냉방기기를 더 많이 돌리게 된다. 지금 잠깐의 시원함이 점점 더 지구를 뜨겁게 말려 죽여 간다는 사실을 곱씹어야 한다.

III. 결론

핵 발전은 끊임없는 모순을 끝도 없이 가져온다. 핵 발전의 피할 수 없는 핵폐기물 문제부터 시작한다. ‘화장실 없는 맨션아파트’인 핵 발전의 부산물 핵폐기물은 아직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몰라 겨우 임시 저장수조에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의 임시저장수조는 2016년이 되면 전부 가득 찰 것이다. 사용 후 핵연료를 부르는 다른 말인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리할 장소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계획도 없지만, 만약 지금 바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을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2016년까지 완공되지 못할 것이고, 결국 임시 저장수조가 가득 찬 후에도 어찌 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가득 찬 저장수조 안에 꾸역꾸역 없는 자리 만들어 가며 채워 넣어야 한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을 완공했다고 하더라도 관리기술 조차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과 위험성은 비약적으로 높을 것이다.

아직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사고도 없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전 세계에 400기가 넘게 있는 핵발전소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 없이 일어났다. 약 6개월 전 전 세계적 관심이 모두 쏠렸던 후쿠시마 제 1 핵발전소부터 체르노빌 핵발전소와 스리마일까지, 그리고 브라운즈페리 핵발전소, 키시탐, 톰스크-7, 세미팔라틴스크 같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핵 ‘재앙’을 입은 곳 까지 핵은 발견되고부터 계속해서 인간을 괴롭혀 왔다. 방사능은 보이지도, 냄새도 없이

34) 녹색평론 118호 64쪽에서 발췌

35) 프랑스는 제외한다.

사람을 무차별 공격한다. 방사능에 피폭되었을 때 호르메시스 효과³⁶⁾ 가설이나 역치³⁷⁾가 존재한다는 가설도 있지만, 엄격한 가설은 피폭당하는 양에 비례한다는 가설이다. 100mSv³⁸⁾를 피폭당하면 암의 위험성(확률적 영향)이 약 0.5% 증가한다는 가설이다.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당시 4km정도 떨어져있는 프리피야트에 살고 있던 어린이들은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선에 축적되어 수 천 명의 아이들이 갑상선암에 걸려 갑상선 제거 수술을 받았다. 갑상선이 제거되면 인체에 필수적인 갑상선 호르몬 저하 증에 걸리게 되므로 평생 약을 복용하며 살아야 한다. 사고 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정신장애는 기본이고 두개골 밖으로 뇌가 튀어나온 아이, 팔 없는 아이 같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세 마리의 개구리가 붙어있고, 4m짜리 매기나 1m길이의 지렁이등도 체르노빌 주변 지역에서 출몰하고 있다.



갑상선 암에 걸려 갑상선 제거수술을 받은 환자³⁹⁾

위에서 나온 재앙들은 체르노빌 발전소사고가 발생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나타난 것들이다. 하지만 체르노빌과 같은 최악의 핵 발전 사고등급인 ‘7등급’을 받은 후쿠시마 제1원전은 겨우7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최초의 직접적으로 해양오염이 되었다. 직접적인 해양오염의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켜보는 것뿐이다. 대기오염과 해양오염 등으로 체르노빌과 맞먹는 양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었다. 방사성 물질은 어떤 방식으로건 간에 인간의 곁에 항상 있을 것이다. 대기 중에, 물속에, 혹은 먹고 있는 음식 속에 들어가 인간의 몸을 피폭시킬 것이다. 방사능 질병의 특성상 극단적으로 피폭을 당하지 않는다면 질병은 오랜 세월을 흐른 후에야 모습을 드러낸다. 후쿠시마의 후유증은 얼마나 심할지 누구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예측할 수 없다. 후쿠시마도 체르노빌과 마찬가지로 사고는 최악으로 치닫고, 체르노빌은 단 1기의 원자로에서 사고가 났을 뿐이지만 후쿠시마에서는 체르노빌 핵발전소보다 훨씬 발전용량이 큰 3기의 원자로에서 거의 동시에 사고가 났다. 300km떨어진 밭의 농작물이 출하금지가 되었을 정도로 방사능이 퍼졌다면 후쿠시마는 제2의 체르노빌, 아니면 인류역사상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가 될 수도 있다.

핵에너지는 화려한 기술을 겸비하면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직접 보이지도 않고 매장량도 충분한 ‘대안’에너지였다. 필요에 따라서는 핵무기 제조에도 용이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폭탄공장 이기도 하다. 1953년부터 “평화를 위한 원자(atoms for peace)”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수많은 핵 발전에 대한 신화가 깨졌고 또 많은 모순이 생겨났다. 예를 들자면 핵 발전은 무한한 에너지라는 신화가 깨졌고, 핵폐기물이라는 ‘뜨거운 감자’가 생겨났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라는 신화가 깨졌고, ‘꿈’의 원자로인 고속 증식로를 개발하는데 안전과 기술상의 문제에 부딪혀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핵 발전은 모순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기술이다. 핵 발전이 필요한 이유

36) 적당한 독이 약이 될 수 있다는 효과

37) 생물이 외부환경의 변화, 즉 자극에 대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이다

출처: 두산동아 doopidea

38) Sv(시버트):방사능 양의 단위이다. 성인남성은 7Sv에서 사망하고, 가슴x선 촬영을 1회 하면100μ(마이크로)Sv 정도의 방사선에 피폭된다.

는 전기를 얻기 위함이다. 전 세계적으로 핵 발전은 전기 생산의 약13.5%를 차지하고 있다. 인간과 전기는 떼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인류문명에게 전기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다. 고도의 문명과 경제 성장을 위해 전기의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지만, 전기의 소비와 경제성장이 비례하는 것만은 아니다. 스웨덴은 지난 10여 년간 전기의 소비를 늘이지 않고 경제성장을 꾸준히 해왔다.⁴⁰⁾ 전기를 줄이는 것이 경제성장을 포기하자는 말로 오인하면 안 된다. 우리가 전력 낭비를 줄이고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환경을 위한다면 전기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전기 중 핵 발전이 차지하는 13.5%. 대기전력을 줄이고, 안 쓰는 컴퓨터를 끈다면, 또는 아무도 없는 교실의 불을 끄거나, 에어컨 대신에 선풍기를 틀거나 부채를 사용하면, 우리는 모순 덩어리인 핵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별첨자료



한국반핵연대 창립자 남 효선 선생님 인터뷰.

인터뷰 대상 : 남 효선 선생님(한국반핵연대 창립, 한국탈핵연대, 울진21 기자)인터뷰

날짜 : 2011년 10월 24일

인터뷰 장소 : 자택

1.울진의 대표적인 핵 피해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울진에는 원자로가 6기 가동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2017년에 완공하는 원자로 4기를 더 건설하고 있다. 원자로가 한 곳에 10기 이상 뭉치면 원자로가 핵 단지화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핵 단지화가 되면 하나의 원인으로 도미노처럼 여러개의 원자로가 동시에 수습불가의 사태에 빠질 수 있는 위험도가 극도로 높아진다. 후쿠시마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울진원전은 1983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가장 컸던 사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울진원전 1호기의 ‘울진원전 도둑용접 사건’이고, 또 하나는 4호기의 ‘울진원전 4호기 세관 파단 사고’이다.

울진원전 도둑 용접사건은 1997년에 한국원자력 안전 기술원의 김 상택 연구원이 양심선언으로 시작되었다. 내용은 울진원전 1,2호기 배관에 몰래 용접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극도의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이 흐르는 배관을 용접하면 용접한 부분이 파열 될 수 있는 위험이 생긴다. 그래서 한 개의 긴 파이프를 사용해야 하는데, 건설할 당시에 한 개가 아닌 다수의 비교적 짧은 파이프를 가져와서 용접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원자로를 해체하고 내부를 확인하자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거세지고 있지만, 원자로를 해체하는 것에는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묵살되고 있는 현실이다.

울진원전 4호기 세관 파단사고는 2002년에 일어났다. 원자로의 증기발생기 안에는 미세한 관(세관)안에서 흐르는 뜨거운 방사성 물을 외부의 바닷물로 식혀주는 장치가 있다. 세관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동시에 만나기 때문에 마모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마모가 심해지다가 결국 세관이 파손되어 방사성을 띤 물 50여t이 원자로 내부로 유출되었다. 외부로 유출되었다면 엄청난 사고가 될 수 있었지만, 사고가 원자로 내부에 머물렀기 때문에 국제 원자력 기구는 0~7까지의 사고등급에서 4등급 판정을 내렸다.

40) 도서‘원자력은 아니다’에서 발췌

2.울진주민들의 핵 찬반 입장은 어떻게 나뉘나요?

울진원전 1호기의 시공이 박정희 개발 독재시절인 1979년이다. 당시 가난한 어촌마을에 ‘큰 공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은 좋아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발전소가 들어서고 타지의 노동자들이 머물 숙소가 없었는데, 주민들이 헛간을 방으로 꾸며서 세를 놓으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지급해줬었다.

둘째는 농한기에 남자들이 일할 자리가 생겼다.

셋째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식당도 많이 생겨서 여성들도 일자리가 생겼다.

넷째는 직접 키운 농작물을 일정하게 팔 데가 생겼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들은 좋아했었지만, 농작물이 타지에서 팔리지 않기 시작했다. 원자로 근처에서 생산되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계기로 농민들이 깨우치기 시작했고, 농민회가 결성되었다.

3.현재 진행 중인 울진의 반핵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반대하는 동해안 탈핵연대가 있다. 더 크게는 각 지역별 단체들이 연대한 환경운동연합이나 에너지 정의 행동 등이 있다.

4.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정에서의 전력소비를 줄이려면 가사노동의 중심인 ‘엄마’가 노력해야 한다. 물론 가사노동 양성화가 되어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엄마들이 중심이다.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결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전기는 대도시를 위한 것이지, 결코 원전주변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원전의 피해는 대부분 주민들이 입지만 이득은 대도시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전기세의 차등화가 필요하다. 원전에 대해 가장 ‘공정’해 보이는 투표를 하더라도 절대다수인 대도시 사람들이 찬성하기 때문에 소수인 원전 주변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될 수 밖에 없다.

5.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일어난 정전대란은 고의적인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겁을 먹인 것이다.

우리는 실천해야 한다. 일상에서부터 실천하는 운동과 동시에 법 개정을 위한 정책적 실천이 필요하다. 지금 바로 서울과 울진의 전기요금을 차등화 하자는 의견이 현실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 실천해야 한다. 우리들이 변혁의 주체가 되어야만 고쳐질 수 있다.



한국전력 충주지사 송 상민 차장님 인터뷰

인터뷰 대상 : 송 상민(한국전력공사 충주지사 차장)

인터뷰 날짜 : 2011년 10월 7일

인터뷰 장소 : 한국전력공사 충주지사

1. 이곳에서 직원 분들이 하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크게 발전, 송전, 변전, 배전으로 나뉘는데 각 부서별로 맡은 일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그 외에도 복지업무(어려운 사람들에겐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기도 한다.) 해지업무, 총무와 요금계산을 하는 부서 등이 있다.

2.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 되어서 우리학교까지 오는 과정을 말씀 해주신다면?

-발전소에서 발전한다.(전기 생산) → 각 지역으로 보낸다.(송전) → 압력이 큰 전기를 일반 가정집에서 쓸 수 있는 전기로 변화 시킨다.(변전) → 변압기로 보낸다. → 최종 목적지로 보냄.

3. 학교에서 전기소비를 줄일 수 있을 방안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대기전력을 절약한다. 콘센트를 꽂아두면 대기 전력(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전기가 제품으로 저절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때의 전기를 말함.)이 낭비되는데 콘센트를 뽑아두기만 해도 절약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또 전기가 싸다고 전기를 낭비하는 마음가짐을 뜯어 고쳐야 한다.

4. 보편적인 발전소의 용량인1000MW는 현실적으로 얼마만큼의 크기 인가요?

-약333,333 가구에게 요청한 만큼의 전기를 보낸다.(보통 한 가구당 요청 전기의 양은 3kw이다)

5. 만약 화석연료가 모두 고갈된다면 그때 어떻게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나요?

-현재 개발하는 것 중 하나를 설명하자면 태양열 에너지에 관한 것인데, 태양이 지구에 쏘는 빛은 대기권으로 인해 오는 도중 열이 약해진다. 하지만 이 열을 대기권 밖의 우주에서 받아 전력을 생산하여 지구로 쏜다면 지구에서 받는 태양의 열보다 훨씬 거대한 열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많고 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또 축전기술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생산한 전기를 바로 쓰거나 날리지 않고 안 쓸 때에는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현재 연구하고 개발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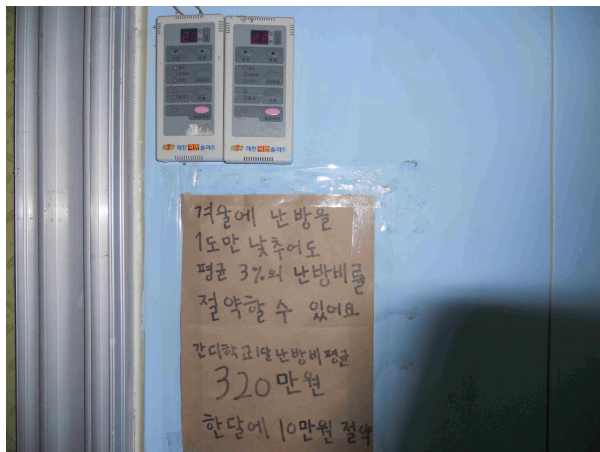
한국전력공사 충주시사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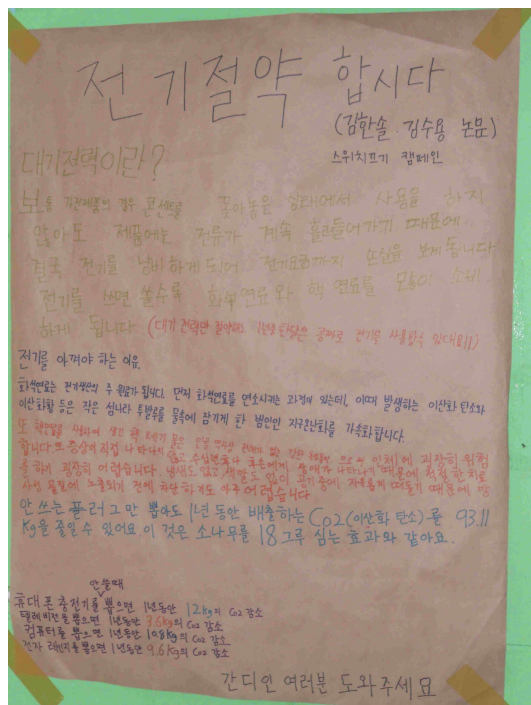
캠페인

이 논문은 연구논문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실천해야할 때’ 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 당장 대안에너지를 생산할 수는 없지만, 전등을 끄고,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빼는 것으로도 핵연료와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간디학교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소극적 이지만 가장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어렵지 않은 난방온도와 전기에너지, 이산화탄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대기전력 줄이기-플러그 뽑기 캠페인 을 홍보했다.



습학교2층 보일러 조절기 아래



습학교 현관 우측 이산화탄소와 환경과피, 플러그 뽑기 캠페인에 대한 홍보 대자보



↑2층 교실과 복도, 학년교실 등 학교 곳곳에 붙어있는 에너지 절약 홍보 스티커(사진은 전산실과 도서관)

thanks to

논문을 쓰면서 내가 고마운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 ‘논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나의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느꼈다.

도망가려던 나를 자리에 앉혀서 논문을 쓰게 해 주셨고, 논문에 필요한 것은 뭐든지 해주셨고 낱아주시고 길러주신 **엄마, 아빠**. 우리 때문에 자정이 넘어서까지 학교에 계셔 주셨고, 응원해주시고, 간식도 만들어 주셨던 **수자쌤, 정상쌤**.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논문에 아주 필요한 책자를 나누어주신 **영민쌤**. 자정이 넘어서까지 전산실에서 같이 논문 써주고 웃고 떠들었던 ‘김수자 간장게장’ 반의 **상연이, 한솔이, 민현이, 종화, 수열이, 기중이, 현준이, 진규, 수정이, 혜린이, 민지, 지은이, 록리, 현영이, 지영이, 소은이, 현정이, 홍이**. 논문 쓰느라 늦게 올라가도 기다려 줬었던 203호 **효원이형, 푸하, 형근이, 성혁이**. 102호 **광이형, 룬근이, 산이**. 논문발표가 몇일 남지 않아서 신경이 날카로워졌을 때도 참아준 많은 사람들. 못할 거라는 자기괴멸(?)에 빠져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응원해준 **민수형, 범수형, 현무형, 태운이형, 태원이형**. 전산실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했을 때 기분 좋게 비켜준 **익준이, 건산이, 별이와 많은 사람들**. 인터뷰에 친절하게 응해주신 한국전력 **송 상민 차장님**. 늦게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저녁 식사까지 권해주신 성우형네 아저씨 **남효선 선생님**. 논문으로 많이 부딪혔지만 서로에게 도움을 준 **한솔이**. 놀림 반 응원 반으로 힘내라고 해줬었던 **한새, 준상이를 비롯한 2학년 애들**, 그리고 논문을 다 쓴 **나 자신**.(내가 논문을 완성했다는 것에 나 스스로 굉장히 신기하게 느끼고 있다.)

내 기억력이 나빠서 전부 기억나지는 않지만, 내 논문에 도움을 주신 모두에게 감사하다.



이 름 : 김종화

성 별 : 건장한 남자

혈액형 : B형

한마디 : 인간의 세포는 약 60조개, 우리는 그걸 다 쓰고 있을까?

별 명 : 종불, 종달새, 종신보험, 에밀레종, 종파이어, 벨파이어, 크리스보쉬, 카멜로앤써니, 드웨인웨이드, 종꽃

좋아하는 거 : 3, 단거, 농구, 간장게장i들, 따뜻한거, 콜라 등등

싫어하는 거 ; 권력 및 책임, 현준이, 추운거, 감자, 까칠한 사람

제천간디학교 농구 문화 실태조사 및 대안제시

제출자: 김 종화

지도교사: 이 정상

<목차>

I. 서론

1. 동기 및 목적

2. 연구방법

II. 본론

1. 농구란?

- 1) 농구의 역사
- 2) 한국의 농구 역사
- 3) 농구의 기본 규칙 및 정의
- 4) 포지션 소개
 - ① 가드
 - ㄱ. 포인트 가드(Point Guard)의 특징, 역할
 - ㄴ. 슈팅 가드(Shooting Guard)의 특징, 역할
 - ② 포워드
 - ㄱ. 스몰포워드(Small Forward)의 특징, 역할
 - ㄴ. 파워포워드(Power Forward)의 특징, 역할
 - ③ 센터(Centre)의 특징, 역할

2. 길거리 농구란?

- 1) 길거리 농구의 역사
- 2) street ball
 - ① 기본 돌파기술 및 드리블
 - ② 볼 컨트롤
- 3) 정식농구와 길거리 농구의 차이점
 - ① 코트
 - ② 플레이 방식

3. 제천간디학교 농구문화의 실태 조사 및 대안 제시

- 1) 실태조사
 - ① 환경
 - ② 설문조사(농구동아리 설문조사, 전교생 설문조사)
- 2) 대안 제시
 - ① 스트리트볼
 - ② 농구대회
 - ③ 농구강습
 - ④ 농구영상제작
 - ⑤ 양면골대

III. 결론

후기

부록

전교생 인터뷰 양식

농구영상

I. 서론

1. 동기 및 목적

나는 제천간디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농구를 해본 적이 없었다. 직접 해볼 기회도 없었고 그냥 키가 큰사람들만 하는 운동이라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제천간디학교에 입학한 후에 선배들이 농구경기를 하는 모습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슛(shoot)을 넣을 때 느끼는 재미가 상당히 나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농구에 빠지게 되었다. 3년 동안 꾸준히 농구에 몰입해왔고 그동안 혼자 힘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농구는 일상생활만큼 친근하고 내가 느끼는 짜증, 불안함, 두려움을 떨쳐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3학년이 되어서 논문주제를 정해야 하게 되었을 때 미술, 음악,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주제를 찾아보고 있을 때 내가 간디학교에서 지내면서 배운 것 체험한 것을 주제로 정하고 싶었고 고민한 결과 농구가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농구로 어떻게 논문을 쓸 수 있을지 생각하다가 그동안 제천간디학교학생들이 농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기도 했고 제천간디학교에 좀 더 성숙하고 발전된 농구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은 생각에 '제천간디학교 농구 문화의 실태조사 및 대안제시'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다.

2. 연구방법

* 참고서적

I LOVE BASKETBALL / 손 대범 / 지식프레이밍

농구의 탄생 그 역사와 에피소드 / 손 대범 / 살림

볼수록 만만한 농구 / 이 우담 / 형설라이프

서울스포츠지 2월호 / 서울특별시체육회 / 서울특별시체육회

* 영상

스포츠 팡팡 체험단 / I MBC news

* 참조사이트

농구천재'안 희욱' / <http://cafe.daum.net/anheewook/>

농구보이 / <http://cafe.daum.net/HOOPHIPHOP>

WE'RE BASKETBALL

/ <http://blog.naver.com/subradio?Redirect=Log&logNo=100121961570>

KBL한국농구협회 / <http://www.kbl.or.kr/main/main.asp>

* 설문조사

제천간디학교 농구동아리인 '내일은2M' 동아리 원 설문조사

* 인터뷰

송 영민 선생님 농구 환경 관련인터뷰

II. 본론

1. 농구란?

공을 손으로 다루어 공중에 매달린 바스켓(basket)에 넣은 점수로 승부를 겨루는 구기 운동의 일종.

1) 농구의 역사

농구는 탄생의 기원이 육하원칙으로 설명 가능한 몇 안 되는 종목이다. 농구가 만들어진 것은 미국 북쪽 지역의 추운 날씨 때문이었다. 당시 매사추세츠주 YMCA 직업학교 체육학과장은 학생들이 겨울철에도 즐길 수 있는 놀이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 지시를 이행한 사람이 바로 체육교사 제임스 네이스미스. ‘농구의 창시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당시만 해도 겨울철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체조나 무용 등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은 지루함을 견디다 못해 말썽을 피우기 일쑤였다. 네이스미스는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놀이를 만들기 위해 고심했다. 그러다 마침 어린 시절에 동네 친구들과 했던 놀이가 생각났다. 캐나다의 시골에서 자란 그는 종종 친구들과 주먹만 한 돌을 던져 넣는 놀이를 하곤 했다. 네이스미스는 이를 응용해 축구공을 공중에 매달린 야채바구니에 던져넣는 놀이를 만들었다.

“발로 차는 게 아니라 던지는 거야.”, “공을 갖고 달리면 안 돼! 태클도 하면 안 돼.” 네이스미스는 학생들에게 몇 번이나 강조했다. 그는 럭비나 축구 같은 격렬한 운동이 되길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누군가 볼을 갖고 달리면 수비자가 이를 막으려고 태클로 저지할 것이 분명할 터. 때문에 드리블 대신 패스로 볼을 골대 근처까지 옮기도록 규칙을 정했다. 공은 던지거나 튀기도록 하고, 슈팅은 머리 위에서 곡선을 그리도록 했다. 1891년 12월 21일, 대망의 첫 경기가 열리는 날이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규칙을 이해시킨 네이스미스는 그때서야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것을 알게 됐다. 바로 공을 넣을 박스가 없었던 것. 그는 체육관 관리인에게 “박스 2개만 급히 구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참을 찾아 헤맨 관리인은 박스 대신 복숭아 바구니 2개를 내밀었다. “뭐, 그것도 좋겠군.” 네이스미스는 복숭아 바구니 2개를 3미터 높이에 매달았다. 농구가 오늘날의 ‘basketball’이 된 결정적 이유다. (초창기에는 basket ball이었지만, 1921년부터 basketball로 붙여 사용했다)

농구는 대단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학생들 사이에서 농구의 인기가 높아지자 네이스미스의 제자, 프랭크 마한은 놀이의 명칭을 ‘네이스미스 볼’로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겸손한 네이스미스는 한사코 거절했다. 만약 ‘네이스미스 볼’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면 네이스미스의 명성과 부는 상당히 커졌을 것이다. 네이스미스는 YMCA 교지를 통해 농구를 홍보했다. 네이스미스의 기대와는 달리, 대학의 체육교사들은 농구에 이렇다 할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YMCA와 학교에서 농구를 배운 학생들 사이에서 농구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도 YMCA 선교사들의 시범에 매료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농구공을 잡았다.(한국에는 YMCA 선교사였던 질레트의 소개로 처음 농구가 전파됐다.) 농구가 인기가 늘어나자 축구공을 버리고 농구만을 위한 공이 탄생했고 1893년부터 일부지역에서 바닥이 푹리고 그물이 걸려있는 링이 도입되면서 경기 진행은 좀 더 활기를 띠었다. 1895년엔 백보드가 등장했다. 사람들은 자기편이 실점할 것 같으면 막대를 흔들며 고의적으로 슈팅 실패를 유도했다. 이를 막기 위해 백보드를 설치, 링이 흔들리지 않도록 했다. 1900년대 초반, 여기저기서 팀이 창단됐고, 이때부터 농구 규칙도 조금씩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 모두 즐길 수 있도록 규칙이 개정되었다. 드리블이 가능해지고, 몸싸움이 부분적으로 허용됐다. 처음에는 단순히 전진을 위해 사용됐던 드리블은 점차 수비를 제치기 위한 기술로 정착했고, 1930~40년대부터는 우리가 ‘묘기’라 부르는 비하인드 백 드리블과

같은 기술도 탄생했다. 네이스미스는 “농구는 즐기기 위한 것이니 코치는 필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동지들의 생각은 달랐다. 농구가 더 전파되기 위해서는 그 재미를 전달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포레스트 포그 앨런이었다. 그 후 미국 본토에서는 프로농구리그가 출범되기에 이르렀다.

1898년 전국농구리그(NBBL)는 미국 최초의 프로리그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메이저리그 야구와 마찬가지로 구심점이 없고 수익에 한계가 있었기에 프로리그는 발족과 해체를 거듭했다. 1946년, 마침내 전국프로농구연맹(NBA·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이 탄생한다. 기존의 여러 리그를 통합한 대형리그였다. 출범당시 11팀이었던 NBA는 오늘날 발전을 거듭해 30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60여 년 동안 경기, 문화,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세계 프로농구리그의 롤-모델 역할을 해오고 있다. NBA는 관중들에게 더 재미있는 경기를 선사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새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1954년에 도입된 공격제한시간(24초)은 농구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로 여겨지고 있다.

한때 ‘점프는 천박한 짓’이라는 고정관념이 농구계를 사로잡았던 시절이 있었다. 되도록 모든 플레이는 발을 마룻바닥에서 떼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1940년대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점프를 하면 더 슛이 잘 들어가는데 왜 못하게 하지?”라는 생각을 처음 실천으로 옮긴 선수는 행크 루이세티라는 백인선수였다. 공격수가 슛을 점프해서 던지니, 수비도 가만있을 수 없었다. 결국 감독들은 ‘점프’라는 동작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같이 점프하다보니 농구 경기는 역동성을 더 해갔다.

2) 한국의 농구 역사

우리나라에 농구가 처음 소개된 것은 1907년 황성기독교청년회(YMCA) 초대 총무이자 미국인 선교사인 길레트에 의해서이다. 1916년 3월 25일 미국인 반 하트가 기독교청년회 간사로 부임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지도 보급이 이루어졌다. 그 후 1920년 3월 12일 중앙YMCA 회관에서 재경 서양인 팀과 YMCA 회원 팀이 시합을 가졌다. 그 뒤 이 경기는 연례행사로 발전하였으며, 또한 각 학교에서 농구부가 창설되는 계기가 되었다. 1925년 9월에는 조선바스켓볼협회가 창립되었고 본격적인 농구훈련 및 지도가 시작된 것은 1927년 3월 당시 일본 도쿄 YMCA 체육부 간사인 F.브라운을 초빙하여 농구강습회를 개최하면서부터였다. 1931년 4월에는 조선농구협회와 조선농구심판협회가 탄생하였다.

처음으로 농구 선수권대회가 개최된 것은 1931년 5월 27일부터 조선체육회와 기독교청년회 공동 주최, 동아일보사의 후원으로 종로 YMCA 뒤뜰에서 개최된 제1회 전 조선 농구선수권대회이다. 1945년 12월 19일 조선농구협회가 재 창립 되었으며, 1948년 KBA(Korea Basketball Association 대한농구협회)로 개칭하였다. 또한 1946년 대한체육회에 가맹하였고, 1947년 FIBA(Federation Internationale Basketball Association 국제농구연맹)에 가입하였다. 1963년에는 ABF(Asia Basketball Federation 아시아농구연맹)에 가입하였다. 1984년 제23회 로스앤젤레스올림픽에서는 1960년대의 걸출한 선수, 박 신자 이후 출현한 박 찬숙 등이 활약하여 아시아의 강호 중국 등을 물리치고 은메달을 차지함으로써 역대 올림픽 참가 이래 처음으로 단체 구기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였다.

1983년부터는 한국 최대 규모의 성인 농구대회인 농구 대잔치가 개최되었으며, 1997년에는 프로농구리그가 창설되어 오늘에 이른다. 그 이후에도 각종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생활 체육으로서도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인기 스포츠가 되었다.

3) 농구의 기본 규칙 및 정의

경기방법 경기인원은 각 팀 5명으로 구성되며, 7명까지 교체 선수를 둘 수 있다. 경기 시간은 전, 후반 각각 20분이며, 중간의 휴식 시간은 10분이다. 연장전은 전, 후반 구분 없이 5분간이며, 승부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승부가 결정될 때까지 경기를 계속해서 실시한다. 경기

개시는 센터라인에서 점프볼로 시작되며 경기의 종료는 계시원의 종료 신호로 끝난다.

만약 전후반전이나 연장전에 있어서 계시원의 종료 신호와 동시에 파울이 발생하여 벌칙으로 프리스로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프리스로를 한 다음, 경기가 끝나게 된다. 또한 경기 종료 전에 공이 이미 손을 떠나 슛이 성공되었다면 이는 득점으로 인정된다. 3점 라인 안에서의 슛(라인을 밟고 행해지는 슛 포함)에 의한 골은 2점, 밖에서의 슛에 의한 골은 3점, 프리스로에 의한 골은 1점이다. 작전타임은 전 후반 각각 2회씩, 연장전 시에는 1회씩 1분간의 작전 타임을 가질 수 있다. 전반전에 사용하지 않은 작전 타임은 후반전이나 연장전에 사용할 수 없다. 작전 타임은 경기가 중단되었을 경우 가능하며, 터치아웃 되었을 경우에는 공격권을 가지고 있는 팀만이 작전 타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 타임은 선수가 요청할 수 없고, 반드시 감독이나 코치가 요청해야 한다. 선수 교대는 인원과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20초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작전 타임과 마찬가지로 파울로 인한 경기 중단 시나 터치아웃 시 공격권을 가지고 있는 팀만이 선수 교대를 할 수 있다. 단 공격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상대 팀에서 선수 교대를 할 경우에는 같이 선수 교대를 할 수 있다.

프리스로(free throw)는 공격자가 슛하는 동작에서 발생한 파울에 대한 벌칙으로, 3점 슛할 때 발생한 파울에 대해서는 3개, 2점 슛에 대한 파울 시에는 2개가 주어진다. 또한 슛이 성공 되었을 경우에는 슛에 의한 득점이 인정되고 추가로 1개의 프리스로가 주어지게 된다. 상대팀의 팀파울 이후에 발생한 파울에 대해서는 2개의 프리스로가 주어진다. 프리스로는 심판이 볼을 건네준 후부터 5초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격권이 상대 팀에게 넘어간다. 개인 파울(foul)은 4회까지 가능하며, 5회가 되면 퇴장이 된다. 또한 한 팀이 7회의 파울을 범했을 경우 팀 파울에 걸리게 되며, 8회째부터의 파울에 대해서는 2개의 프리스로가 상대 팀에게 주어진다. 단, 공격자 파울인 경우에는 예외이다.

① 바이얼레이션 : 경기 중 개인 또는 팀이 자의적으로 범하는 실책으로, 파울을 제외한 그 외의 규칙 위반을 말한다. 위킹, 더블 드리블, 오버 타임, 라인 크로스, 킥킹, 하프 라인 바이얼레이션, 오버 드리블, 점프 볼 위반 등이 있다.

② 오버타임

3초 : 공격자가 제한 구역에서 3초 이상 머물러 있을 때

5초 : 경기 중 공을 가진 선수가 5초 이내에 패스, 슛 또는 드리블을 하지 못할 때

10초 : 백 코트에서 공을 가진 팀이 10초 이내에 프론트 코트로 넘어가지 못했을 때

30초 : 코트 안에서 공을 소유한 팀이 30초 이내에 슛을 하지 못했을 때

③ 인텐셔널 파울 : 공과는 관계없이 고의라고 판단되는 신체 접촉을 범했을 때를 말하는 퍼스널 파울이다.

④ 테크니컬 파울 : 경기자, 코치, 응원자 등이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거나 경기진행을 방해했을 경우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진다.

⑤ 퍼스널 파울:경기 중 신체적 접촉에 의한 파울로서 푸싱, 홀딩, 핸드체킹, 블로킹, 해킹, 차징 등이 있다.

⑥ 헬드볼 : 공격자와 수비자가 동시에 볼을 잡고 있는 상태. 헬드볼이 선언되면 점프볼을 한다.

⑦ 인터피어 : 수비 팀 선수는 상대 팀 선수가 슛한 공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여 완전히 링 높이보다 위에 있는 동안에는 공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또한 수비 팀 선수는 골을 위하여 슛한 공이 링에 얹혀 있을 때 바스켓이나 백보드를 터치할 수 없으며, 공이 이미 바스켓 속에 있을 때에도 바스켓이나 공을 터치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바이얼레이션을 수비자가 범했다면 이는 상대팀의 득점 즉, 프리스로인 경우 1점, 2점 슛인 경우 2점, 3점 슛인 경우 3점으로 인정된다.

4) 포지션 소개

1) 가드

농구는 골밑에서, 또는 외곽에서 슛을 잘 넣는 센터와 포워드만으로는 전 경기를 소화할 수 없다. 경기 전체의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하여 게임을 리드하면서 적재적소에 공을 공급하여 최상의 슛 기회를 만들어주는 가드의 존재가 절대 필요하다. 경기 중 선수에게 감독과 코치가 작전지시를 할 수 있는 시간은 각 쿼터에 1회씩 4회와 제4쿼터에서는 1회를 더 가질 수 있는 작전 타임과 하프 타임, 거기에 상대 팀에서 요구하는 작전 타임 등 몇 번 안 된다. 순간순간 상황이 급변하는 농구경기에서 감독, 코치가 코트위의 선수에게 일일이 지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시시각각 돌변하는 경기진행상황을 잘 파악하여 4명의 팀 동료들에게 공을 적절히 공급해 주고, 게임을 조였다 풀었다 할 수 있으며, 때로는 자신이 직접 슛할 수 있는 가드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까닭에 가드는 경기 중에 4명의 팀 선수에게 지금부터 어떤 플레이를 할 것인지 알릴 수 있는 의사소통방법을 터득해야 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경기 중에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판단능력이 필요하다.

①포인트 가드(Point Guard)의 특징, 역할



Position	포인트가드(Point Guard)
특징	경기 중 코트에서 플레이메이커(playmaker) 역할을 하며 팀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선수를 지칭. 상황 판단과 작전 이해 능력이 뛰어나고, 게임을 리드하면서 적재적소에 공을 공급하여 가장 좋은 슛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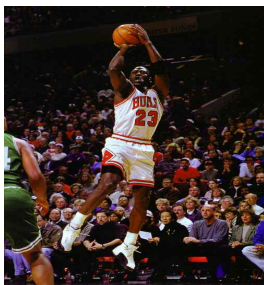
'코트 위의 코치'라는 포인트 가드. 득점을 많이 하는 포지션이라기보다 코트 위에서 팀 공격을 이끌고 다른 선수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넓은 시야, 즉 한눈에 코트 전체를 보면서 자기 동료들과 선수들의 위치를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이 필수. 탁월한 볼 핸들링 솜씨와 패스 실력, 슛 감각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상대팀의 수비전략을 재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대응한 오피스를 펼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포인트 가드는 다른 어떤 포지션보다도 어려운 자리이다.

포인트 가드는 팀에서 가장 키가 작은 선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NBA 포인트 가드들 역시 대개 183cm 안팎의 선수들이다.

포인트 가드는 경기 템포를 조절하고 자기 득점보다는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에 주력해야 하기 때문에 포인트 가드의 기량을 측정해주는 것은 바로 어시스트이다.

또한 포인트 가드는 자기가 득점을 노려야 할 상황과 동료에게 찬스를 넘겨주어야 할 상황을 본능적으로 구분해 적시에 패스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득점할 수 있도록 하는' 포인트 가드가 되는 게 중요하다.

②슛 텅 가드(Shooting Guard)의 특징, 역할



Position	슛텅 가드(Shooting Guard)
· 특징	포워드보다 비교적 키가 작고 빠름. 득점이 이 포지션의 주된 목표. 슈팅가드와 스몰 포워드의 역할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됨.

농구 포지션 중 슈팅 가드만큼 정의를 내리기 힘든 것도 없다. 원칙적으로 슈팅 가드의 임무는 슛을 던지고 득점을 하는 것이다. 외곽슛만 잘 해도 슈팅 가드로서 손색이 없다. 대개의 경우 슈

팅 가드는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보다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의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된 임무가 득점인 만큼 패스나 볼 핸들링은 포인트 가드보다 떨어지고 리바운드는 스몰 포워드보다 약하다. 슈팅 가드는 또한 포인트 가드와는 다른 각도에서 경기를 펼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마이클 조던이다. 포인트 가드는 자기 팀 전체의 공격에 대해 책임을 지며 상대팀 전체를 무너뜨릴 방법을 강구해내야 한다. 반면 슈팅 가드는 상대 수비수를 물리치고 득점을 해야 하는 임무를 띤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를 받고 득점을 하는 것이 슈팅 가드이고, 그런 슈팅 가드를 발견해서 패스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포인트 가드이다.

2) 포워드

농구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배우는 플레이가 포워드(forward)의 플레이이다. 처음에는 누구든지 포워드 연습을 한다. 어느 정도 그것이 익숙해지면 가드와 같은 움직임이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포워드는 스피드, 점프력, 넓은 시야, 민첩성, 능수능란한 볼 핸들링 등을 필요로 한다. 현대 농구에서는 포워드의 개념이 스몰 포워드와 파워 포워드로 나누어져 있다. 스몰 포워드는 주로 외곽에서 플레이를 하며 슈팅이나 찬스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고, 파워 포워드는 센터와 유사하게 포스트에서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포워드가 세분된 것은 리바운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농구선수가 장신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포워드는 항상 자기가 득점한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워드는 공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물론,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쏠 것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의 쏠 지역을 자각하고, 쏠 지역 안에서 수비자를 제치고 공을 받을 수 있도록 플레이하여야 한다.

①스몰포워드(Small Forward)의 특징, 역할



Position	스몰포워드(Small Forward)
특징	비교적 신장이 작은 공격수를 지칭. 공격력, 수비력, 리바운드 가담력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특히 슈팅과 드리블에 능해야 함.

스피드, 순발력, 볼 핸들링, 바스켓 밑에서 리바운드 다툼을 벌이고 득점을 올릴 수 있는 파워 등 스몰 포워드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 공수 양쪽에서 리바운드를 건져낼 수 있어야 하는 것까지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스몰 포워드이기에 다른 어떤 포지션보다 그 특성을 규정짓기가 어렵다. 그리고 스몰 포워드 역시 슈팅 가드와 마찬가지로 득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존재가치가 있다.

②파워포워드(Power Forward)의 특징, 역할



Position	파워포워드(Power Forward)
특징	비교적 장신인 선수가 말으며, 스피드, 점프력, 민첩성, 넓은 시야 등이 요구되는 포지션. 센터와 함께 포스트에서 리바운드를 한다.

스몰 포워드와 파워 포워드의 가장 큰 차이는 순발력과 스피드이다. 파워 포워드는 대부분의 경우 센터와 자리바꿈을 해도 좋을 만큼 커다란 덩치를 자랑해도 좋을 만큼 커다란 덩치를 자랑

한다. 파워 포워드의 주된 임무는 신장과 파워를 이용해서 터프한 골밑 수비를 펼치고 공수 리바운드를 건져 올리는 것이다. 따라서 오펜스에서도 포스트 플레이를 펼친다든지 아니면 바스켓에서 가까운 거리의 슛을 노리는 등 포워드보다는 오히려 센터에 가깝다. 그런 이유에서 파워 포워드를 센터의 보디가드라고 일컫기도 한다.

3) 센터(Centre)의 특징, 역할)



Position	센터(Centre) 또는 Post man, Pivot man
특징	일반적으로 팀에서 신장이 가장 큰 선수가 맡으며 수비와 공격에서의 리바운드와 몸싸움, 골 밑에서의 공 배급, 골 결정력 등이 뛰어나야 함. 특히 리바운드 장악은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커다란 요소이므로 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누가 뭐라고 해도 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센터이다. 농구는 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센터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센터의 임무로는 리바운드, 슛 블로킹, 그리고 슈터의 찬스를 열어주기 위한 것 등이 있다. 또한 센터는 포스트 업에 능해야 하고 짧은 거리의 슛을 성공시킬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의 센터들은 이런 전통적인 임무 이외에 드리블, 스피드, 외곽슛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비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실정이다. 좋은 센터는 일단 인사이드 플레이에 능해야 한다. 인사이드 플레이라고 하면 로우 포스트에서 자리 잡는 것. 골밑에 들어가서 온갖 굵은일을 도맡아 하는 센터가 그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사실 포인트 가드 못지않게 농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2. 길거리 농구(street-basketball)란?

3인조 농구 또는 길거리 농구라고도 한다. 정식 코트가 아닌 동네 골목길에서 주로 행해져 길거리 농구라는 이름이 붙었다. 한 팀 인원수는 1~5명으로 제한이 없었으나, 3명씩 겨루는 국제대회가 정착하였다. 발상지는 프로농구의 붐이 일던 1960년대 미국이라고 하나, 한국을 비롯하여, 나라마다 일찍부터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반코트 농구가 있었다. 미국의 스포츠용품회사 나이키와 영국의 리복이 1990년대 들어 자국대회와 국제대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세계적인, 특히 청소년층의 생활 스포츠로 정착했다.

1) street ball

미국 뉴욕 빈민가 러커파크라는 농구장에서 길거리농구를 하던 흑인들 사이에서 각종 드리블, 볼 핸들링, 덩크 등 묘기들이 발전되어 힙합음악에 맞추어 펼치는 길거리농구를 뜻한다. 정식농구와는 다른 길거리 농구이기 때문에 일정한 유니폼을 입지 않고 혈령혈령한 티셔츠나 통이 넓은 반바지를 입은 채 힙합을 추면서 환상적인 농구 실력을 선보이는데, 이들을 가리켜 스트리트볼러(street baller)라고 한다.

이들은 농구 경기보다는 플레이어 각자의 독창적 패션과 창의적인 움직임 등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경기방식은 주로 1대1 경기를 하는데 상대방을 속이고 약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을 뽐내면서 진행된다. 그리고 기술을 사용할 때 기본적인 룰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주로 오버드리블, 킥킹, 더블드리블 등) 하지만 기술이나 모션 중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규칙위반은 대부분 느슨하게 봐준다.

street ball이 국내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90년대 중~후반쯤부터 NBA에 앨런아이버슨 이나 제이슨윌리엄스 같은 놀라운 드리블의 소유자들이 등장하고 앤드윈 믹스테이프 (And1 Mix Tape)이라는 길거리농구선수들의 하이라이트모음집이 나오면서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다. 본

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나이키 프리스타일 광고영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나이키 공식 길거리 대회에서 만들어진 ‘힙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① 기본 돌파기술 및 드리블

ㄱ. 힙노 타이저

등 뒤에서 뒷손으로 공을 던져 상대방의 뒤까지 넘기는 기술로 공을 상대방 뒤로 넘긴 것을 못 알아채도록 리얼한 움직임이 필요한 동작이다.

ㄴ. 헤드팝

기본적인 드리블을 하다가 상대가 드리블에 집중해있을 때 상대의 이마에 공을 던져서 맞추고 튕겨져 나온 공을 잡아서 돌파하는 기술로 상대방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준다. 다소 폭력적이고 도발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제천간디학교에는 알맞지 않는 기술이다.

ㄷ. 부메랑

이름대로 공이 돌아오게 하는 기술이다. 공을 공중에 던지는 모션을 취하면서 팔과 손가락으로 스핀을 줘서 공이 날아가지만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는 고난이도 기술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고 다시 잡으면 더블 드리블이기 때문에 길거리 농구에서도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ㄹ. 크로스 오버

한쪽 방향으로 드리블 하면서 진행하려는 척하다가 갑자기 반대편으로 방향을 틀어서 수비하는 상대방을 돌파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장 기초적인 돌파기술인 만큼 상당한 응용동작을 가지고 있으며 빠르게 상대방을 돌파할 수 있다. 앨런 아이버슨이라는 농구선수가 크로스오버를 잘 다루는 선수로 유명하다.

ㅁ. 스핀무브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드리블을 하다가 왼발을 마주한 상대의 오른발 옆에 디터서 축발로 사용하여 돈다. 이때 공은 손으로 살포시 감아서 안 떨어지도록 한다. 공을 잘 제어한다면 쉽게 돌파를 할 수 있다.

ㅂ. 레그 스로우

레그 스ро우는 다리와 다리사이에 바운드를 주어 공을 통과시키는 기술이다. 상대방에게 돌파 타이밍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거나, 레그 스로우를 통해 슛 타이밍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또는 레그 스로우로 드리블 하는 손을 바꿈으로써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다. 렉스로우, 레그 스루, 레그 드로우 등 부르는 이름은 조금씩 다르다.

ㅅ. 비하인드 백 드리블

비하인드 백 드리블은 공의 바운드를 뒤쪽으로 해서 손을 체인지 하여 상대를 제치는 고급기술이다. 실전에서 이용하여 돌파하려면 상당한 연습이 필요하다.

ㅇ. 더 롤

공을 튀기며 바닥을 구르는 기술로 조금만 연습하면 쉽게 배울 수도 있으면서도 잘 활용하면 상대방을 혼란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② 볼 컨트롤

ㄱ. 스핀볼

공에 스핀을 주면서 살짝 던진 후 손가락 하나로 받쳐서 다른 손으로 계속 회전을 주며 공을 굴리는 기술이다.

ㄴ. 암롤

오른쪽에서 시작할 경우 오른손에서부터 팔, 가슴, 왼쪽 팔, 왼쪽 손, 까지 거쳐서 원으로 돌리는 기술이다. 숙련되면 1바퀴로 끝내지 않고 계속 돌릴 수 있다.

ㄷ. 팝업

루즈볼 된 공을 손으로 끌어올려 드리블 하는 것이다. 팝업은 공 윗부분을 감싸듯이 탁 치면 올라온다. 루즈볼을 살려서 다시 드리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 정식농구에서는 첫 드리블이 이루어지고 굴러가는 볼은 드리블이 끝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팝업을 하면 더블드리블이 선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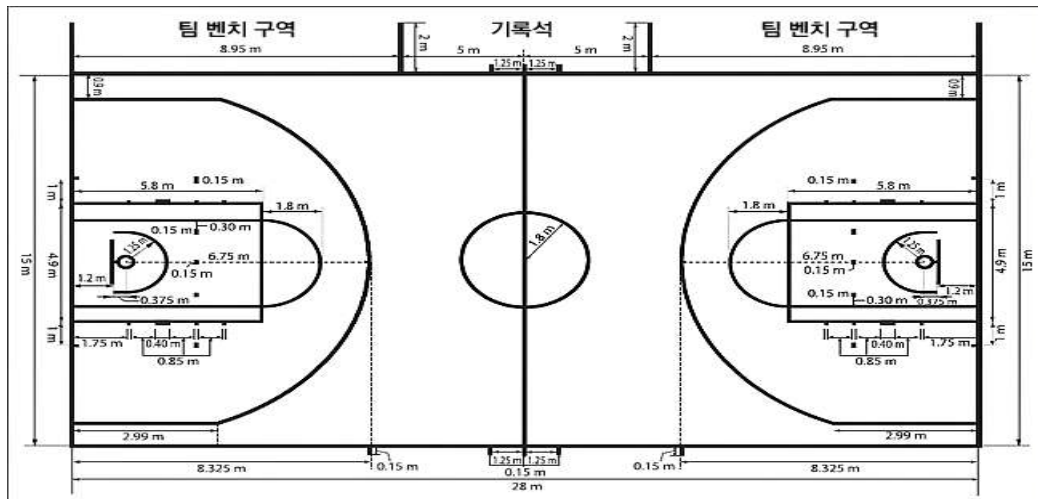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세요.)

2)정식농구와 길거리 농구의 차이점

①코트

ㄱ. 정식농구

KBL 공식 코트의 규격은 다음의 코트 그림과 같다.



바닥의 재질은 나무코트만을 사용하며 골대 높이는 305cm 백보드는 가로 1.8m, 세로 1.05m의 직사각형이다.

ㄴ. 길거리농구

길거리 농구는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하는 농구이기 때문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 바닥의 재질도 흙바닥부터 시작해서 아스팔트, 우레탄, 나무코트까지 다양하게 이용한다. 골대는 전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95cm이다.

②플레이 방식

ㄱ. 정식농구

5대5로 경기를 진행하고 탄탄한 조직력으로 안정적인 패스플레이를 한다. 이기는 것이 목적인 농구이기 때문에 작전을 많이 사용한다.

ㄴ. 길거리농구

보통 3대3으로 경기를 하고 반코트만 사용한다. 개인기가 주가 되기 때문에 이기기 위한 다기보다는 즐기는 것이 목적이다. 또 정식농구와의 차이점은 길거리 농구는 심판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정식농구보다 규칙이 느슨하다.

3. 제천간디학교 농구 문화의 실태 조사 및 대안 제시

1) 실태조사

① 환경

일단 코트의 바닥 재질이 모래인데, 이는 다른 재질에 비해 미끄러워서 넘어지기가 쉽고, 먼지가 매우 많이 발생하며, 또한 비가 오는 날에는 실외 코트이다 보니 코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

후에도 코트가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정식농구(정식코트 = 28: 15, 학교 코트= 16 : 7)코트에 비해 너무나도 좁다. 또한 조명이 없어서 야간시간에 이용하기에 힘들고 농구공의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②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3학년 김 종화입니다. 제 논문주제가 '제천간디학교 농구 문화 및 대안제시'인데요. '내일은2M'동아리원분들과 그 외에 농구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의 의견이필요하여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의 있게 써주시길 바랍니다.

1. 제천간디학교 농구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코트가 좁다
- ②땅이 미끄러워서 다치기 쉽다
- ③밤에는 조명이 있어야 안전하게 농구를 할 수 있다
- ④열악하다
- ⑤흙바닥이라 무릎이 아프다
- ⑥사람 수가 적다
- ⑦공관리가 잘 안 된다
- ⑧학교의 적극적이지 못한 지원

▸ 이 질문의 의도는 제천간디학교 농구 문화의 하드웨어적인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동아리부원들은 대부분 농구장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코트에 대한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코트가 부족하게 되면 소수의 사람들이 코트를 점유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더군다나 남학생 위주로 (특히 선배)코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래 전교생 설문에서처럼 여학생들은 거의 참여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진다.

2. 농구를 좋아하는 이유, 농구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 ①형들이 하는 거 보고 멋있어서
- ②빠지게 된 것은 NBA선수들의 화려한 플레이를 보고 나서 좋아하게 되었다
- ③농구를 하는 게 재미있어서
- ④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았다
- ⑤조던의 덩크를 보고 멋있어서 빠지게 됨
- ⑥키가 크고 싶어서

▸ 이 질문은 농구의 장점을 통해 농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각자 접하게 된 계기는 달랐지만 남이 하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가졌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동아리원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좀 더 쉽게 접하고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과정의 중요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농구하기 싫을 때는 언제입니까? 간디학교의 농구문화 중 극복해야할 부정적인 면을 이해하는 과정

- ①우리 편이 개인플레이를 할 때, 좀 패스를 줬으면 좋겠다.
- ②조금만 실수해도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 ③약 올리면서 할 때
- ④화내면서 할 때
- ⑤대충 농구할 때

⑥축구하는 애들이 슛 때릴 때, 축구공 날아올 때

- 이 질문은 제천간디학교 농구의 부정적인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축구하는 사람과의 마찰을 제외하고는 거의 감정적인 문제가 컸다. 본인 스스로 점점 감정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거나 감정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면 쉽게 팀워크가 깨지고 농구의 흥미를 잃게 된다. 그리고 또 대충대충 한다던 가 상대방을 약 올릴 때, 개인플레이를 하는 것도 타인에게 안 좋은 인상을 심겨주거나 상대방을 도발하게 만든다. 이 문항 덕분에 제천간디학교 농구의 부정적인 부분을 알게 되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문화로 만들 계획이다.

4. 제천간디학교 농구에 길거리농구와 스트리트볼을 접목시킨다면 어떨 것 같나요?

- ①매우 멋있을 것 같고 운동도 되서 좋을 것 같다
- ②재밌을 것 같다
- ③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명이 즐길 수 있을 듯

- 이 질문은 문제로 지적된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승패를 가르는 경기만을 떠나 각자의 기량을 선보이며 농구라는 운동에 다양한 퍼포먼스를 접목시켜 예술적인 부분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문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서였다. 길거리 농구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지만 너무 개인플레이가 많을 것 같다는 충고가 있었고, 스트리트볼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해서 의견은 많지 않았지만 대부분 새로운 방식의 농구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고 점수만 넣는 경기가 아닌 서로의 개성이나 끼를 알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아 학교의 또 다른 농구문화로 활서 시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5. 현재의 모습에서 더욱 즐거운 농구 생활을 위해 생기면 좋을 것 같은 농구문화가 있다면?

(답변) 1달에 1번씩 농구대회를 하자.

- ①농구클리닉
- ②3간디 농구대회를 만들자!
- ③우레탄 깔면 최고다
- ④자발적으로 농구를 하는 문화
- ⑤지역 아마추어 대회에 나가보자

- 이 질문을 통해 문장 그대로 즐거운 농구 생활을 위해 어떤 농구문화가 생기면 좋을지를 공유하였고, 문항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농구대회를 원했다. 이것으로 보아 농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의 실력을 알아보고 배워보는 게임을 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아마추어 농구대회도 나가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제천간디학교 안에서 뿐만이 아닌 바깥의 농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관심이 큰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외에는 농구 환경을 개선하자고 한 다거나 농구를 배울 수 있는 농구 클리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것으로 현재 농구를 배우고 싶어도 배울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과 좁은 우물 안에서만 하고 있다는 아쉬움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 위 설문지의 대상은 농구동아리 '내일은 2m'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 더 다양한 정보를 얻고자 전교생 설문지를 마련하여 아래의 차트로 설명하고자 함.

전교생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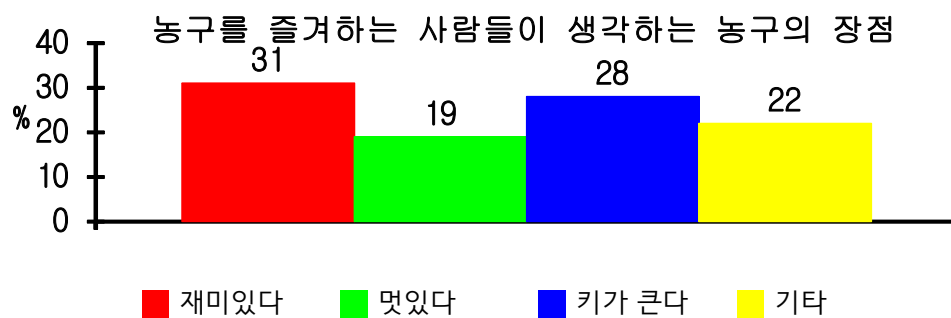
- 대상 : 1,2,3,5학년 총 43명
- 설문지내용 : 농구의 관심도와 우리 학교 농구 환경의 장.단점 조사 → 양식부록첨부

전교생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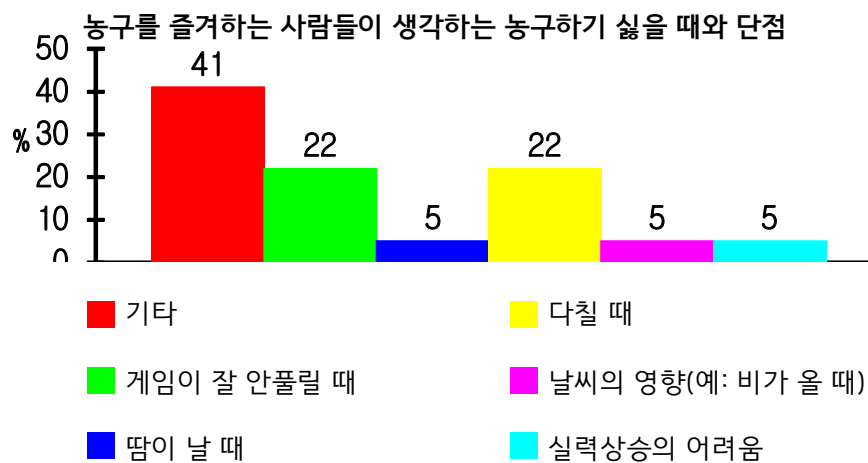
1. 농구를 즐겨하십니까?



1-1. 위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이들이 생각하는 농구의 장점



1-2. 위의 질문에 '예'를 대답한 사람들이 말하는 농구하기 싫을 때의 경우와 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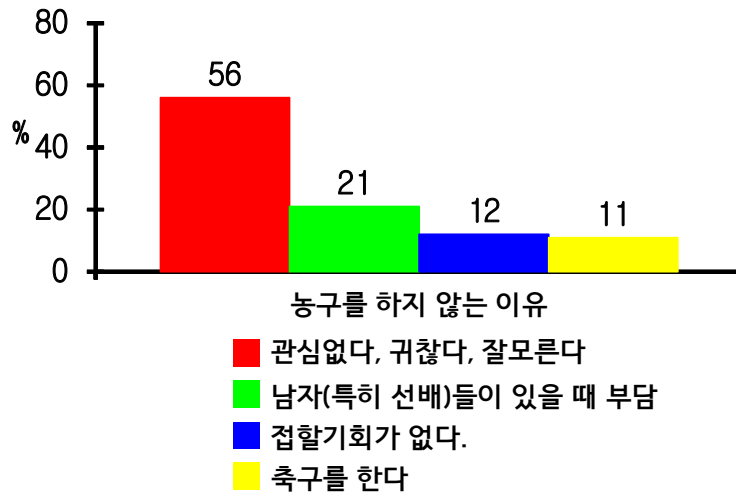


1-3제천간디학교 농구 환경의 장점과 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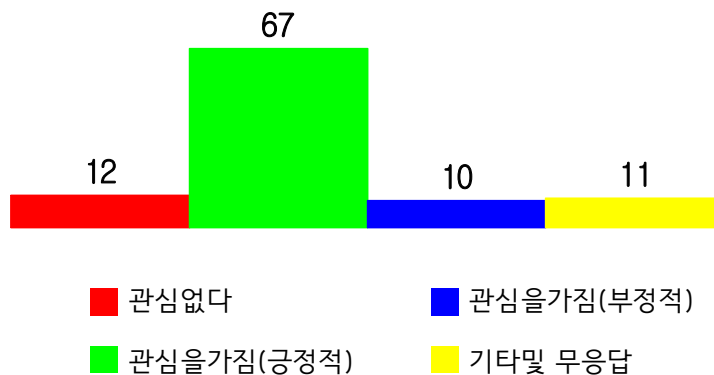
장점: 동아리가 있다, 골대가 낮아서 우리학교 학생의 수준에 알맞다, 가족회의 주를 여는 시간 전에 즉석으로 농구를 할 수 있다, 야외이다 보니 구경하기 쉽다,

단점: 모래코트이다(비가 오면 한동안 못한다, 경기를 할 때 쉽게 미끄러진다. 공이 잘 안 튕긴다, 먼지가 많이 날린다), 코트가 많이 좁다, 골대가 허약하다, 조명이 없다(묵학시간에 농구를 못한다), 선배를 우선시한다, 축구공이 날아온다, 못할 때 화를 내는 안 좋은 모습이 보인다.

2. 농구를 하지 않는 이유



2-1. 농구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3. 제천 간디학교에서 생겼으면 하는 농구 문화 또는 농구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 3간디 농구리그 개최
- 2M농구대회 개최
- 생리통 농구강습
- 욕을 하지 않는 평화로운 농구 문화
 - 수업개설
 - 농구동아리 활성화
 - 농구를 많은 사람이 접할 기회를 주고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
 - 농구로 춤을 춘다던가 하는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2) 대안 제시

① 스트리트볼

위의 설문을 통해 일부는 농구라는 종목이 상대와의 경쟁이 심하다는 생각에 접근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경쟁의 농구가 아닌 스스로를 표현하고, 같이 배우며 즐길 수 있는 농구의 한 영역으로 제천 간디학교만의 새로운 농구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같이 해보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② 농구대회

농구대회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일은2M'설문조사에서 제천간디학교에 자리 잡았으면 하는 농구 문화 중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요구된 의견이기 때문이다. 농구대회가 생겨서 미치게 되는 영향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의 실력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계기로 농구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이다. 또 평소에 하는 것처럼 장난으로 하지 않고 진지하게 경기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제천간디학교 안에서의 농구대회 뿐만이 아닌 다른 아마추어 농구대회 라던가 타 대안학교와 시합을 통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이번 2011년 10월 17일에 시행했던 '내일은 2M' 농구대회에 참가한 1학년학생들의 평가 및 필자의 평가와 농구대회 사진자료이다.

1학년

평가: 같은 학년끼리 공식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았다, 1학년이 돋보일 수 있어서 좋았다, 1학년끼리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각자의 실력을 알게 되었다, 패스를 많이 하고 작전을 짜서 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었다, 농구의 재미를 알게 되었다, 재밌었다, 농구를 해서 좋다.

다음에 바라는 점? 다시 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공식적으로 해서 관객이 많았으면 좋겠다, 코트가 넓었으면 좋겠다,

김 종화

평가: 주최자인 나로서는 이번 대회에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너무 변동이 심한 일정 탓에 경기시간 약속도 잘 안 지켜지고 갑자기 다른 사정이 생겨 흐지부지되어 흩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평소에는 설렁설렁 대충농구를 하던 사람들이 점수 한 점 한 점에 집중하며 공을 던지고, 막으려고 하는 모습들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동적이었다. 다음에는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관객들을 모으고, 대회를 장기적으로 진행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앞으로는 제천간디학교 농구대회를 하되 설문조사에서 많이 나오던 의견인 '3간디농구대회'또는 '대안학교농구대회'까지로 발전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③농구 강습 (클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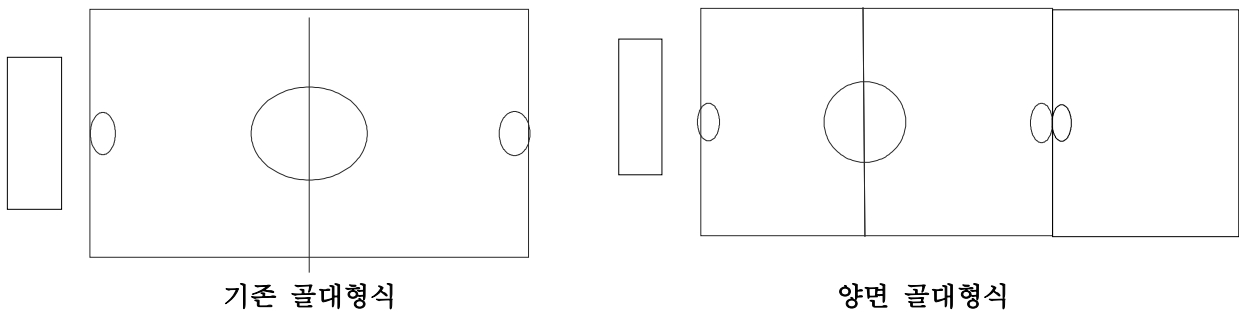
스트리트 볼과 농구 시합 등을 통해 보여 지는 농구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직접 하는 농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혼자서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일 것이다. 이를 2M 회원들의 강습과 선배들의 클리닉으로 해결한다면, 모두가 쉽고 즐겁게 농구를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④농구 영상제작

이번 논문 발표에서 영상물을 제작하면서 그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앞으로 개최될 여러 대회나 개인 퍼포먼스 등을 영상물로 남긴다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같이 하려 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

⑤양면 골대

현재 농구장이 열악한 상황에서 코트 자체를 넓히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 양면 농구대를 설치하여 다양한 코트를 확보하는 방법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나는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농구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하는 끈기와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한 방법으로 조금은 더 자유롭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농구를 하는 것과 여러 종류의 대회를 경험하며, 우선은 대안학교 친구들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가져본 뒤 그 지역을 확산해 더 많은 경험을 통해 다양한 즐거움을 느꼈으면 하는 바램이며, 이러한 경험이 제천간디학교의 한 문화로 정착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 외에도 농구하는 사람들이 더욱 성숙해져 멋진 스포츠맨십을 발휘해 건강하고 밝은 간디학교를 만드는데 그 역할을 십분 발휘했으면 좋겠다.

후기

이번 논문으로 농구에 대해 더욱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좋았고, 제천간디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농구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알게 되어 만족스러웠으며, 서로가 더 즐거운 문화로 만들어가자는 의지가 뭉쳐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 많은 도움을 준 선배들과 동기들 후배들, 끝으로 가장 많이 의지 할 수 있었고 힘들 때마다 끌어올려주신 이 정상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부록

- 전교생 대상 설문조사 내용 첨부

안녕하세요. 3학년 김 중화입니다. '제천간디학교 농구 문화 실태조사 및 대안제시'를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학생여러분의 의견이필요하여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의 있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_____ 학년, 성별: 남 / 여

1.평소에 농구를 즐겨하십니까? 예/아니요

1번에서 '예' 라고 답한 사람만 답해주세요

농구의 장점 중 무엇이 있을까요?

농구를 하기 싫을 때나 또는 농구의 단점이 있을까요?

제천간디학교 농구 환경의 장점과 단점

장점:

단점:

1번에서 '아니요' 라고 답한 사람만 답해주세요

농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농구경기를 볼 때나 농구를 하는 학생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2. 제천간디학교에서 생겼으면 하는 농구 문화 또는 농구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름 : 김 진규

성 별 : 남자다. 여자 아니다.

혈 액 형 : RH-A

좌 우 명 : 죽을 때까지 죽음까지 긍정하는 사람이 되자.

별 명 : 해초, 뇨자, 진진, 기타 왕, 해조류, 독버섯, 골뱅이 소면, 집 아들(술집아들)

좋아하는 것 : 씨빨건색, 기타, 기타리스트, 수채화, 무예, 고양이

싫어하는 것 : 추운거, 더운거

한 마 디 : 난 기타를 좋아한다. 그림도 좋아한다. 고양이를 사람보다 더 좋아한다. 난 여자가 아니다. 정역적인 남자다. 머리는 추워서 기르는 것이다. 논문과 다르게 리모델링에 관심 별로 없다. 난 머리가 초록색이었다.

공간의 변화 ‘리모델링’

- 리모델링으로 바뀌는 ‘테이블 위의 전쟁’ -

제출자: 김 진규

담당교사: 김 태진

- 목 차 -

I 서론

1. 동기
2. 목적
3. 연구방법

II 본론

1. 리모델링이란
2. 집 리모델링
3. ‘테이블 위에 전쟁’ 리모델링
 - 1) 내가 생각하는 ‘테이블 위에 전쟁’의 문제점
 - 2) ‘테이블 위에 전쟁’ 동아리원들이 생각하는 문제점
 - 3) 리모델링 구상하기
 - 가) ‘테이블 위에 전쟁’ 동아리방의 구상도 만들기
 - 나) 리모델링에 필요할 재료들 구상하기
 - ① 가구
 - ② 바닥
 - ③ 페인트
 - 4) ‘테이블 위에 전쟁’ 리모델링에 대한 평가
 - 가) 리모델링 작업
 - 나) 바뀐 동아리 원들의 생각
 - 다) 손님들의 느낀 점
 - 라) 리모델링 후의 나의 느낀 점

III 결론

별첨자료-

감사한 분들♥

I 서론

1. 동기

3학년이 되고나서 논문을 쓰려고 하니 주제잡기가 쉽지 않았다. 1학년 때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작곡을 주제로 하려고 했지만 별로 흥미가 돋지 않았다.

그때 ‘테이블 위에 전쟁’(이하 ‘테전’) 동아리방이 눈에 들어왔다. ‘테전’은 2009 1학기 말 때 만들어진 동아리로서 동아리 실은 카페 옆 빨간 비디오 동아리방 건너편에 학생회실로 사용되던 곳을 사용하게 되었다.

나는 ‘테전’의 동아리 일원 이였고 지금은 ‘테전’에 회장으로 ‘테전’동아리활동을 하면서 ‘테전’을 이용하는 손님들 또한 불만이 많았다. 그 계기를 통해 동아리방을 지금과 다르게 리모델링하여 손님들의 불만을 줄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에 ‘테전 리모델링이 눈에 들어왔다.

‘테전’을 리모델링하려고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었을 땐 문틈세로도 풍겨오던 악취가 눈을 찌푸리게 하였다. 초기에 동아리 활동을 하기위해서 식당에서 가져온 부실한 밥상과 온갖 가죽이 찢어져있는 소파 일부러 자기위해서 가져온 건지 널려있는 이불과 베게 그리고 여러 색으로 색칠되어있는 고장 난 기타들이 나에게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벽에 쓴 곰팡이니 물때로 밖이 흐릿하게 보일정도로 심각한 창문들은 사람들이 보드게임을 이용하기에는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다.

그래서 ‘테전’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니 페인트칠도 해본 적이 없고 별다른 기술이 없는 나에게서는 어쩌면 무리였었다. 물론 내가 리모델링의 경험은 없지만 이번을 계기로 통하여 리모델링을 해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제천간디학교에서 보드게임이라고 하면 다수가 병정놀이 따위의 취급을 하듯 하였다. 그래서 이번기회로 ‘테전’이 활성화된다면 제천간디학교의 보드게임 문화가 활성화 하지 않을까 하여서 리모델링을 하였다.

2. 목적

리모델링을 하여 학교에 있는 상태가 좋지 않은 시설을 보수함으로 활성화 시키고 또한 ‘테전’동아리방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리모델링 후 ‘테전’을 보았을 때 리모델링이 어떻게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치해 있는 장소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카페 옆 구석에 위치하여 찾아오는 사람들도 드물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잘 찾아올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여서 ‘테전’동아리방으로 쓰이는 곳을 활성화 하면 ‘테전’리모델링으로 제천간디학교의 보드게임문화 또한 활성화하지 않을까 싶다.

3. 연구방법

1) 방문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변에 가까운 곳들을 가서 탐방을 하였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성당에 가 보았다. 외부에서 보았을 때 중세 서양의 건축술이 묻어 나왔고 내부는 외부와는 다르게 현대식으로 계량되었다.

그리고 ‘공간 민들레’와 ‘성미산 학교’또한 둘러보았다.

또한 하자센터에 방문하여 어떻게 공간들을 활용하는지 에 초점을 맞추고 보았다. 연극이나 프로그램 등을 광고하는 포스터 등도 많고 색의 배치도 어지럽게 되어있어 약간은 지저분하다는 느낌도 들었지만 건물의 설치되어있는 건축물은 창의적인 형태를 보여주었다.

사촌 누나의 도움을 얻어 ‘서울대학교’에도 가서 여러 곳을 둘러보았다.

<사진자료>



2) 내방 리모델링

세로2m가로2.4m도 되는 방에 리모델링을 해보았다. 벽색이 흰색이라 때도 많이 타있고 전체적으로 좁아보여서 계속 리모델링을 하려 했지만 그동안 하지 못하였다.

이번 논문을 계기로 하여서 ‘테전’을 리모델링하기 전에 페인트칠이라도 하는 법을 알기위해 내방을 먼저 리모델링 해보았다.

3) 준비 및 조사과정

‘테전’동아리방의 구조상 직사각형 방에 창가양쪽에 기둥이 나와 있다.

전체적으로 면적과 높이를 구한 후 나온 기둥의 면적을 구하여 재료 등의 예산을 잡아놓았다.

Ⅱ 본론

1. 리모델링이란

리모델링의 정의란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공간 구조의 변경 없이 외관 및 내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보수함으로써 시설의 노화를 억제하고 성능 및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실용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건축물의 재창조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 리모델링과 같이 오래된 건축물 등을 재창조하는 의미에서 ‘리폼’, ‘리노베이션’, ‘개보수’ 등으로 불리어 지기도 한다.

유럽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 적용되는 비중이 30%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첨단기술과 공법으로 이용하여 건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리모델링은 재건설에 비해서 비용과 시간 절감은 물론 좀 더 나아가서는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의 효과 또한 얻을 수 있어 21세기의 가장 적합한 미래형 건축문화라고도 불린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는 사람이 리모델링을 하여 자신이 원하는 색으로 건물의 내부를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집 리모델링

한번쯤 내방을 내손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생각을 했다. 대부분의 벽지도배나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전문적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일을 맡기게 되는데 내방쯤은 내손으로 리모델링을 해보자는 생각에서 내손으로 나의 방을 리모델링을 해보았다.

<리모델링하기 전 준비할 물품>

***페인트** - 페인트의 종류는 사용하기 쉽고 물에 희석할 수 있어 빠른 시간 안에 마르는 수성 페인트가 있다.

인체에 무해하게 만든 천연페인트 등과 같이 내부시설을 도배할 때 많이 쓰이고 또한 사용방법이 쉽기 때문에 벽면 등 다방면에서 쓰인다.

그 외에도 거친 표면에도 칠이 잘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지만 단점으로는 때가 잘 타고 유리, 금속, 비닐 등의 표면이 매끄러운 부분에는 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수성과 달리 유성페인트는 식물의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어 페인트의 색이 다양하고 물에 튀어도 방수기능을 띄고 있으며 표면을 무광과 유광으로 만들 수 있다.

유성 페인트의 단점은 수성과 다르게 거친 표면에는 잘 칠이 안 되고 사용을 할 때 페인트에 시너(신나)와 희석 시켜야 사용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젯소** - 일종의 메이크업 베이스와 같은 역할을 하며 벽면을 도배할 때 접착성과 페인트가 잘 먹도록 밀칠을 할 때 쓰인다.

***바니쉬** -일본에서 넘어온 발음에 의해서 흔히 니스라고도 불린다.

칠 위에 막을 형성하도록 만들며 목재가구에도 쓰인다.

***트레이** - 수성페인트에는 물과 희석 할 수 있게 유성페인트에는 시너와 희석할 수 있게 담아놓는 그릇이다.

***롤러** - 전체적으로 큰 벽면을 칠하는 데에도 쓰인다.

그 외에도 브러쉬로 닿지 않는 천장 등을 칠할 때에도 쓰인다.

***브러쉬** - 페인트용 붓으로 롤러로 칠하지 않은 곳이나 롤러로 칠할 수 없는 곳을 칠하는 붓 이다.

***마킹 테이프** - 페인트칠 전에 묻으면 안 될 부분에 붙 혀 놓는 테이프다.

***해라** - 페인트 통을 열거나 벽지를 떼 때 쓰는 도구다.

***염료**- 다색의 페인트를 살 필요 없이 백색 계열 페인트에 섞어 다른 색을 만들어 쓸 수 있다.

시작하기 전 먼저 할 작업은 페인트가 바닥에 튀지 않도록 방지하여 바닥에 신문지등을 깔아놓고 시작하였다.

신문지가 페인트 흡수를 잘해서 쓰기에 가장 적합하였지만 집에 신문지가 없는 관계로 비닐을 사용했다.

<집을 칠할 때 쓴 물품들>

라임라이트 색 친환경 수성 페인트1, 흰색 수성 페인트, 페인트를 담을 트레이 대신 쓴 바구니, 브러쉬(붓), 롤러를 사용했다.

<과정>



1. 페인트칠하기 전의 나의방



2. 신문지 대신 비닐을 깔아놓은 방



라임라이트 색 친환경 페인트



3. 완성된 나의 방
(6시간만에 완성, 나무한그루도 심었다)

<후기>

집 리모델링을 마친 후 달라진 나의 방을 보고서 처음 해보는 페인트칠이라서 뿌듯하기도 하였고 조금은 먼저 페인트칠을 해보니 테이블위에 전쟁 페인트칠하기도 한결 쉬워진 것 같았다.

또한 방이 워낙 좁고 흰색 벽에 때가 많이 타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 계기로 방이 한결 더 화사해지고 노란색의 따듯하고 넓은 느낌이 물신 풍긴다.

3. ‘테이블 위의 전쟁’ 리모델링

1) 내가 생각하는 ‘테이블 위에 전쟁’의 문제점

이곳이 ‘테전’ 동아리 실이 되기 전에는 학생회실로 사용되던 공간 이였다.

별다른 동아리물품 없이 학생회가 놓고 간 물품이나 식당 등에서 가져온 상등을 이용해 운영되고 있던 ‘테전’ 을 보면 부실하고 안쓰럽기도 하다.

벽에 피어있는 곰팡이에서 나는 건지 장판 밑에서 부터 올라오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악취의 원인은 알 수 없고 창문에 낀 때들은 밖이 흐리게 보일 정도로 청소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2) ‘테이블 위에 전쟁’ 동아리 원들이 생각하는 문제점

가장먼저 나온 불만은 위생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았다. 오래 동안 관리가 잘 되지못하여 벽지 안과 장판 밑에 습기가 차서 핀 곰팡이에 의하여 손님들 또한 거리낌과 불만을 호소하였다고 하였다. ‘테전’ 동아리 실을 전체적으로 그리 좁은 공간은 아니니 좀 더 아늑한 색을 칠하여 조금은 좁아 보이더라도 보드게임을 하기 좋은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그 후 너무 어두운 색이나 색을 많이 쓰게 되면 방이 전체적으로 어지럽기도 하고 좀 더 깔끔한 느낌을 위해서 배경색을 연한 색으로 정하고 한 면만 조금 다른 색으로 칠하였으면 한다고 하였다.

3) 리모델링 구상하기

가) ‘테이블 위에 전쟁’ 리모델링 구상도 만들기

전체적인 배경색은 흰색계통의 크림색을 선택 하였다. 원래는 ‘테전’ 동아리 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두운 색을 선택하려고 하였지만 벽이나 온갖 부분들이 더러워서 크림색을 바탕색으로 선택하였다. 6대 불검출 잉크를 사용 (환경호르몬 불검출 인쇄) 한다. 납, 카드뮴, 비소, 아연, 수은 등이 없는 잉크로서 유아용 제품, 수출용 전자제품이 많이 이용한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보이는 창문 밑 부분은 테이블 위에 전쟁에 분위기와 맞는 추상적인 그림보다는 가장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자연적인 그림을 그릴 것이다. 양쪽 기둥에는 손님들이 들어와서 부담되지 않는 그림으로 녹색으로 넝쿨을 그리고 창문 밑에는 화분을 그리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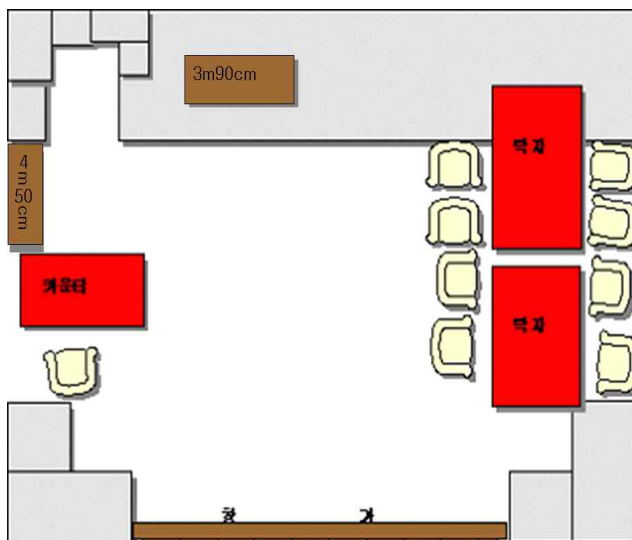
문을 열고 들어와 보이는 오른쪽 벽면은 크림색에 황색과 녹색 염료를 섞어 초록빛이 나도록 한 후 그쪽 벽면은 ‘테전’과 어울리는 주제를 정하여 주제에 맞는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

들어왔을 때 가장 잘 보이는 벽면을 초록빛을 나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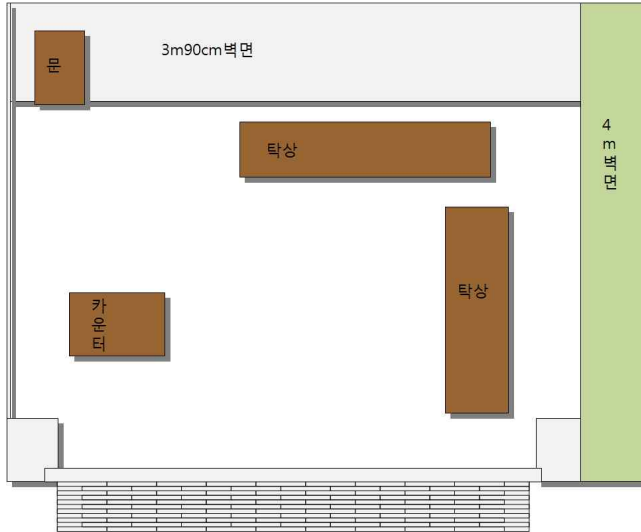
<리모델링 구상도>

가로길이는 3m90cm 이고 세로로는 4m30cm 이다.

가장 이상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으로 장판을 벗겨낸 후 데코타일을 붙이고 의자는 카운터 자리와 손님용으로 9개 탁자는 손님용2개 카운터용1개를 배치할 것이다.



<보안 후 구상도>



리모델링 전의 ‘테전’은 구조가 좌식 구조로 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변화의 분위기를 주고 싶어 입식 구조로 구상도를 만들었다. 구상도를 보고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수정을 하였다.

좌식구조를 하게 된다면 상은 물론이고 의자까지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적 절감을 위해서 원래 구조였던 좌식으로 수정하게 되었다. 또한 학교 내에 시설구조가 대체로 입식 구조로 되어있어 편하게 설 수 있는 의미로 기존의 방식인 좌식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의자가 배치되어 있으면 의자 수만큼 인원이 정해지지만 인원 제한이 없다는 것 또한 장
점이다.

탁상의 배치는 아래 그림과 같이 할 것이다. 공간이 좀 더 넓어 보이도록 탁상을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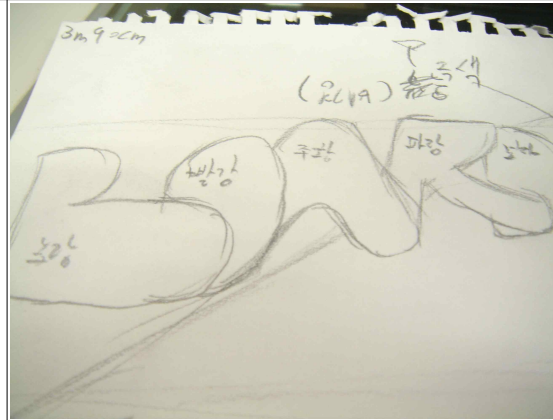
<예산의 절감>

처음 구상도의 예산구상은 대략 30만원을 소비한다. 장판이 1/3 페인트가 1/3 가구가 1/3 이었지만 가구에서 의자가 제외됐기 때문에 구상을 입식 구조에서 좌식 구조로 수정되며 예산이 절감되었다.(페인트4통-79,100)(장판5개-115,100)(테이블2개-69,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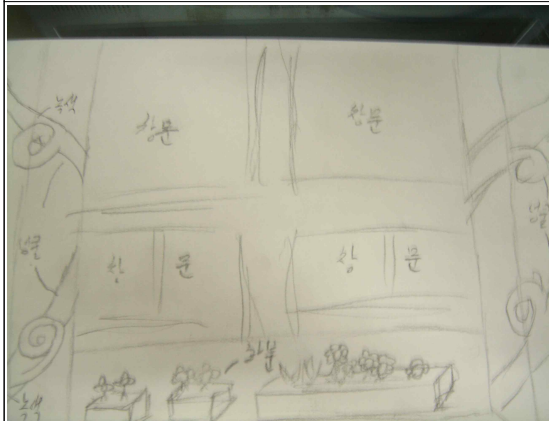
<벽면 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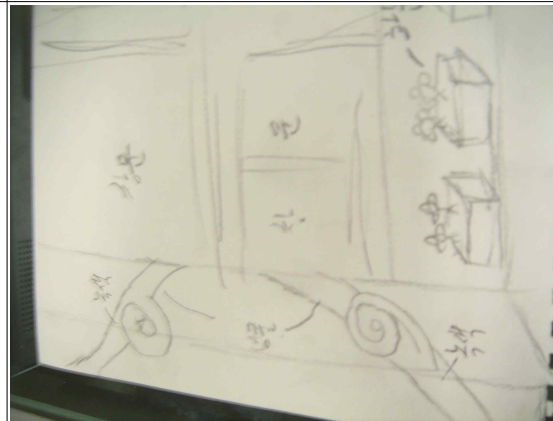
왼쪽 벽면에 그릴 구상도



board game(보드게임)이다.



창문 쪽 구상도



넝쿨 화분 등으로 되어있다.

나) 리모델링에 필요할 재료들 구상하기

① 가구

* 탁자 - 손님용 2개를 구입하였고 카운터 탁상은 원래 사용하던 물품이 양호하기 때문에 사용에 문제가 있지 않다.

② 바닥

* 데코타일 - 하나리빙 오크우드 4개 반 (1개에 24입)을 구매하였다.

③ 페인트

페인트는 흰색계열 화이트크림색 10L 4통을 구매하였다.

그리고 한쪽 벽면을 녹색계열로 칠하기 위해 페인트에 섞어서 색을 바꾸는 황색염료와 녹색염료를 하나씩 구매하였다.

4) 테이블 위에 전쟁 리모델링에 대한 평가

가) 리모델링 작업

먼저 동아리실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밖으로 빼내고 청소를 먼저 하였다.

사진을 보면 불필요한 탁상, 천, 고장 난 기타, 누더기가 된 소파, 어디에 쓰는지 모를 물건 등이 뒤굴고 있다. 또한 사진으로는 알지 못하는 특유의 악취 또한 진동하였다.

<리모델링 전 ‘테전’모습>



들어와서 본 오른쪽 벽면



문이 있는 벽면



들어와서 바로 보이는 창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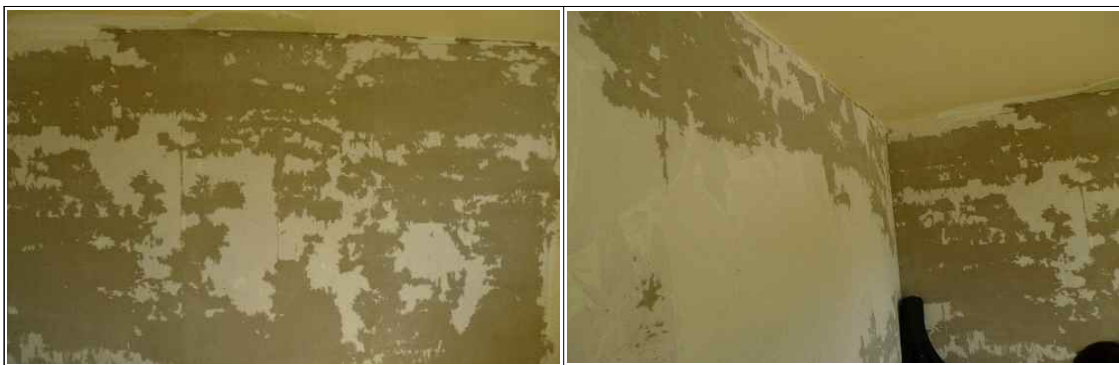


왼쪽 벽면

‘테전’ 동아리 원들의 도움으로 쓸모없는 것들을 모두 치운 후 창문을 닫기 위해 창문도 빼내어 닫았다.

기존에 벽에 붙어있던 벽지에 페인트칠을 하게 되면 벽지가 습기를 먹어 울긋불긋 올라오기 때문에 ‘해라’(벽에 붙은 껌을 떼는데도 사용된다.)를 사용하여 너덜거리는 벽지를 제거하였다.

<벽지 떼어내기>



잘만 때질 것 같던 벽지는 한 겹이 아닌 여러 겹으로 붙여져 있어 떼기가 매우 어려웠다.

벽지를 어느 정도 떼어내고 고무장판을 걷어냈다. 고무장판을 걷어내자 원인모를 악취가 올라왔다. 장판을 걷어낸 바닥에는 곰팡이들이 많이 피어있어 제거할 필요성을 느꼈다.

페인트칠을 하기 전 먼저 준비작업 으로 신문지등을 바닥에 깔아놓아 장판 등에 묻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장판을 모두 걷어 놓아서 준비작업 없이 페인트칠을 시작하였다.

모든 벽면을 크림색으로 칠한 후 남은 페인트 한통에 녹색과 황색염료를 섞어 색을 만들어 칠하였다.



임시로 걷어낸 장판



두 가지 염료를 섞어 만들어낸 색



옆 벽에 튀지 않도록 조심해서 칠하였다.



원래는 초록색을 만들려고 했지만 녹색 염료가 많아서 옥색같이 되었다



벽면을 칠한 후 장판 밑에 있던 시트 지를 벗겨내자 심한 악취가 올라왔다. 시트를 떼어낸 세멘 바닥에는 거뭇거뭇하게 곰팡이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세멘에 붙어있는 곰팡이와 시트 지를 해라로 긁어낸 후 중간 중간에 모래로 메워진 부분을 경속 썸이 시멘트로 메워주셨다.

<세멘부분>

전에 식당 천장에 이상이 있어 공사를 하느라 모래로 메워져 있었다.	부분 부분적으로 벽에도 파손이 가 있었다.	바닥과 평평하게 시멘트를 칠하는 작업을 할 수 없어 경숙쌤의 도움을 얻었다.

바닥에 붙어있는 종이등과 곰팡이들을 '해라'로 떼어내고 바닥 작업(데코타일)을 하였다.

<데코타일 작업>

데코타일 작업은 농쌤께서 지도하여 주셨다. 위에 사진은 벽이 수직이 아니라서 수직선을 그리는 작업이다.	접착성 데코타일이라 바닥에 모래조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잘 붙여지지 않았다.
붙이는 방식은 4개 다음에는 3개식으로 붙였다.	수직선을 그리고 시작했기 때문에 벽과 바닥이 만나는 곳에는 마지막에 붙이기로 하였다.

원래는 밑에 그림에서 보이는 벽면을 칠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너무나도 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 그림을 그려 넣었다.



처음에는 직선으로 그리려고 하였지만 붓이 꺾이
에서 이탈하여 그림과 같이 하였다.

아무렇게나 그렸지만 그리고 보니 악어를 닮아
악어를 그렸다.

‘테전’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보이는 벽에 그림을 그렸다. 그림은 도안을 참조하여 그렸다.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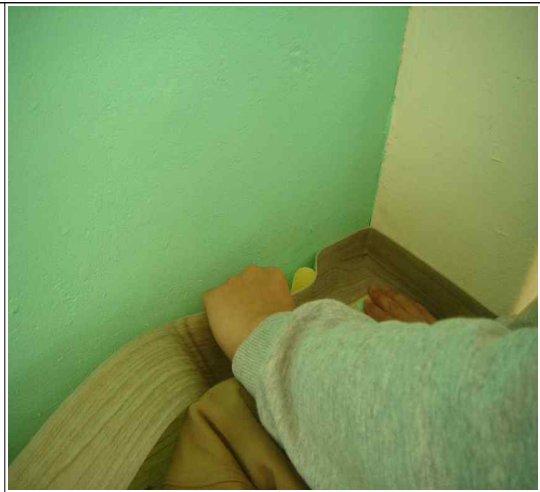


염료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녹색을 사용하였다.

보라색과 주황색은 색을 섞어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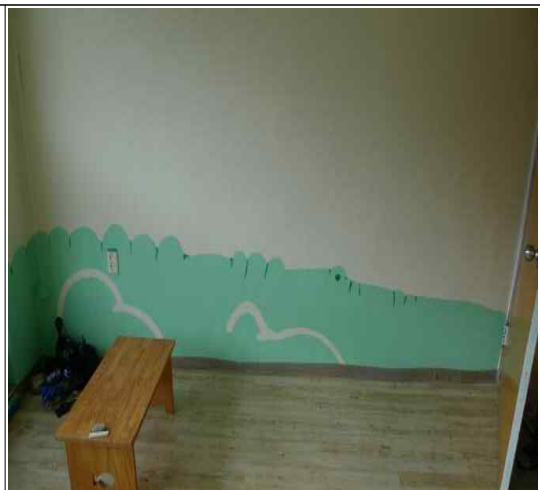
창가 왼쪽 벽면에 넝쿨을 그려 넣었다. 도안대로라면 양쪽 기둥에 넝쿨을 그려 넣을 예정이었지만 악어그림으로 대체하였다.

마지막으로 장판과 벽 사이에 틈을 매우기 위해 굽도리(걸레받이)를 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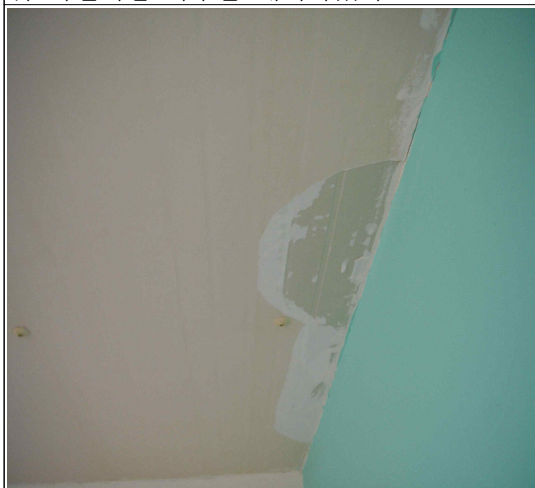
굽도리 또는 걸레받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벽과 바닥과 벽 사이가 수직이 아니라서 갈수록 어긋나게 되어서 틈을 메우기 위해서 붙이는 것이다.

굽도리 작업까지 마무리 한 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였다. 그 후 가구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페인트칠하기 전 벽지를 떼는 작업 도중 실수로 천장의 벽지를 떼어내게 되었다. 그래서 경숙쌤 과 상의를 한 후 학교 창고에 있는 벽지를 사용하여 커버하였다.



위 사진처럼 가구를 배치하였다.

카운터는 기존에 있던 상을 사용했다.



벽지를 떼는 작업도중 실수하여 떼어버린 천장

벽지를 구하여 다시 붙였다.

<리모델링 후 ‘테전’모습>

기존의 ‘테전’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었는지조차 모르게 환경이 좋아졌다. 잡동사니로 채웠던 공간을 비우니 훨씬 넓어 보였다. 또한 구상을 할 때 ‘테전’ 공간이 좁다고 생각하고 구상을 했지만 막상 리모델링을 한 후의 ‘테전’은 내가 생각한 것 보다 더 넓어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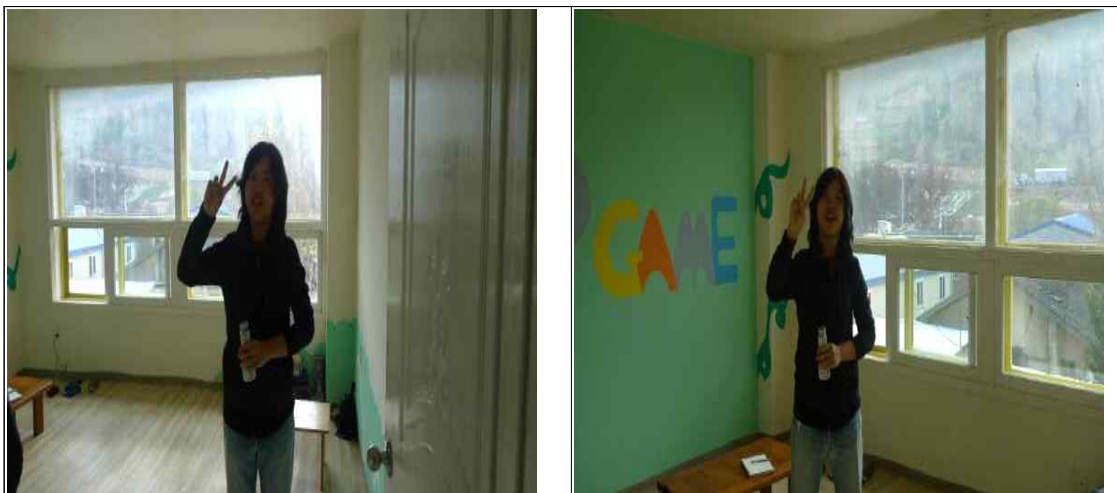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테전’과 리모델링 후의 ‘테전’을 비교한다면

<리모델링 전의 ‘테전’>



오래된 곰팡이 냄새 지저분하게 창문에 붙어있는 물때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잡동사니들과 중간 중간에 떠오른 장판 등을 보면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된다.

<리모델링 후의 ‘테전’>





리모델링을 하고 본 ‘테전’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지고 예전과 다르게 칙칙한 분위기와 곰팡이 대신 밝고 편한 느낌이 난다. 단점이 있다면 페인트 냄새가 잘 빠지지 않아서 문제였지만 상연이가 논문으로 쓴 포푸리를 ‘테전’에 기부해서 조금은 나아졌다.

나) 바뀐 동아리 원들의 생각

동아리 원들 모두 리모델링후의 ‘테전’에 만족하는 의견 이였다. 리모델링 후 공간이 좀 더 넓어져서 활용성이 많아지며 약간은 공간이 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서 책상을 몇 개 더 놓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한동안 창문을 열어놓아서 들어온 벌레들이 너무 많아 그 부분이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동아리 원들도 있었다. 또한 페인트 냄새가 잘 빠지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바뀐 ‘테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문제제기 되었던 곰팡이 냄새가 나지 않아서 좋고 장판이 청소하기도 좋고 깔끔한 느낌이어서 좋다, 디자인도 좋아지고 위생환경도 좋아지고 해서 깔끔하고 쾌적하다고 말해 주었다.

다) 손님들의 느낀 점

손님들의 느낀 점을 반영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임시로 오픈을 하였다. 모든 보드 게임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방송을 했지만 점심시간이 끝나갈 쯤에 몇몇 사람들이 와 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의견은 듣지 못하였다.

원래‘테전’의 악취는 사라졌지만 페인트 냄새가 난다는 단점도 있었다.

잠깐이라도 ‘테전’을 둘러보고 느낀 글을 써주었다. 예전에 ‘테전’과 다르게 변해서 놀랍다, 깔끔하고 좋아졌다 등이 있었다.

라)리모델링 후의 나의 느낀 점

전과 비교한다면 공간을 활용성이나 색 등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불필요한 고장 난 상이나 소파, 잡동사니를 치워놓고 보니 예상보다 더 넓어보여서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늘어났다.

처음에 가장 문제제기 되었던 악취는 장판 밑에 붙어있는 시트지가 습기를 먹어 생긴 곰팡이가 원인 이였다. 데코타일 작업을 하기 전 바닥에 붙어있는 시트지를 모두 떼어 내었기 때문에 악취가 제거되어 칙칙한 느낌이 사라졌다.

벽에 그린 그림은 너무 심플하다는 생각이 들어 약간은 아쉽다. 도안대로 그리려고 했지만 벽과 도안의 비율이 안 맞아서 하지 못하였다.

벽이 흰색이라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받아 더 밝은 느낌을 조성하는 것 같다.

III 결론

확실히 리모델링을 한 후의 사람들의 평은 더 좋아졌다. 공간의 구조를 바꾸고 색상을 바꾼 후의 바뀐 사람들의 생각은 대부분이 긍정을 해 주었다. 좁다고만 느껴졌던 태전도 리모델링 후 보았을 때 나또한 리모델링에 효과를 받은 것 같다.

처음으로 건축이나 리모델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처음 이 주제를 잡았을 때 목표로 하고 있던 ‘태전’과 조금은 달랐다. 나의 예상과 결과물이 달라서 부정하는 의미는 아니다. 목표로 하고 있던 ‘태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았기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의외로 완성한 것이 내가 만족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이번 계기로 할 줄도 모르는 페인트를 칠하며 페인트를 칠하게 되었고 할 줄도 모르는 데코타일 작업을 하며 데코타일을 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염료, 페인트도 처음 사용해 보았고 건물 내부의 치수를 재는 것도 처음 해보았다. 정말 많은 기술들을 배운 것 같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기간 내에 이 논문을 끝낼 수 있을까 걱정만 앞서서 진행이 되지를 않았다. 점점 갈수록 앞으로 에 계획을 세우는 법을 알아갔던 것 같다. 처음 건드려 보는 주제이다 보니 걱정이 먼저 앞섰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논문을 쓰며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던 것 같다.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을 때, 논문에 대한 긴장이 풀려 나태해 졌을 때, 아예 나의 논문의 주제에 대한 흥미를 잃었을 때 등 정말로 힘들었던 것 같다. 평소에 리모델링에 관심도 없었던 나였기에 중간 중간에 힘들었던 것 같다.

그렇게 힘들어 저서 조금 식 나태해 지다보니 일을 끌게 된 것 같다. 그래서 리모델링 전의 ‘태전’을 떠올리기가 힘들어 완성 후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였다.

‘리모델링’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고 보니 뭐든 간에 하려고 하면 계획을 세운 후 해야 한다는 배움을 얻었다. 꼭 앞으로의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라도 내가 얼마 만큼 왔는지 어느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다음일 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에 리모델링을 주제로 삼으려고 했을 때 간단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막상 지금 와서 리모델링의 과정을 생각하면 리모델링을 왜 주제로 정했는지 리모델링의 도안 가구배치 등등 리모델링이라는 주제가 그리 쉽지만은 안은 것 같다.

앞으로는 학교 안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몇몇 공간도 리모델링 해보고 싶다고 생각한다.

감사한 분들

논문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나에게 도움 되어주었던 ‘테전’동아리원인
도운이, 늦은 진행에도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주신 감사한 태진쌤, 기술
적인 방면에서 많이 도와주신 농쌤 그리고 경숙쌤, 논문 쓰느라 바쁘는데 도와준
3학년 ‘테전’ 동아리 원, 노동일을 도와준 민현이, 동아리를 위해 도와준 룬근
이, 바쁜 와중에도 도와준 4학년 테전 동아리원 태운이형,광이형, 힘들게 같이
논문을 써온 김수자 간장게장 친구들, 항상 우리에게 신경 써주시는 수자쌤,정
상쌤, 옆에서 힘이 되어주신 용쌤, 가끔 식 지나가며 ‘테전’을 불러보고는 예기
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간디인 모두.

마지막으로 항상 걱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별첨자료. 결산

페인트 4개 79,100원

데코타일 5개 115,100원

좌식 테이블 2개 69,800원

(그 외 염료, 굵도리, 데코타일1개를 더 구입하였지만 그 금액은 개인 사비로 부담.)

살림터에게 청구한 금액 총-264,000원

살림터에서 지원해준 금액 132,000(1/2)



이름 : 김한솔

성별 : 남자

혈액형 : A

한마디 : 애들이 사춘기야.

그 외 하고 싶은 말 : 애들아 좀 신경질 내지마 제발 나
도 빠치거든.

학교의 화석연료 및 전기에너지 연구와 절감방안 제시

제출자 : 김한솔

지도교사 : 송영민

- 목차 -

I 서론

1. 논문의 동기
2. 논문의 목적
3. 연구방법

II 본론

1. 화석연료란?
 - 1) 화석연료란?
 - 2) 화석 연료의 종류
 - 3) 화석 연료의 쓰임
2. 화석연료 소비에 의한 장·단점
 - 1) 화석 연료의 단점·문제점
 - 2) 화석 연료의 장점
3. 화석연료로 인한 피해 사례
 - 1) 작은 섬나라 투발루
 - 2) 작은 섬나라 키리바시 공화국
4. 오일피크(Oil peak)
5. 화석연료와 전기
 - 1) 내가 선택한 방향
 - 2) 보령에너지월드(보령화력본부)
 - 3)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할 때 끼치는 영향
6. 인터뷰 자료
7. 간디학교에서 화석 연료가 쓰이는 곳 알아보기
 - 1) 기숙사에서 쓰이는 화석연료
 - 2) 학교에서 쓰이는 화석연료
8. 사회에서 실천중인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는 방안 알아보기
 - 1) 플러그 뽑기 캠페인
 - 2) 대안 에너지 개발
 - 3) 가정에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9. 나의주장
 - 1)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멈춰야 한다.
10. 간디학교에서 화석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대안 내기

III 결론

부록

I 서론

1. 논문의 동기

나는 본래에 문명의 이기에 관심이 많았다. 이미 너무 발전해 버려서 편한 생활에 익숙해진 인간들이 자연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만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한 인간으로써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였다.

자연은 이미 많이 어질러져 있고 상처 입었다. 하지만 옛말에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라도 나는 자연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줄여나가는 데에 힘을 쓰려고 한다.

하지만 문명의 이기라고 하면 폭이 너무 넓어 나는 많은 분야 중에서도 현재 인간과 자연에게 동시에 많은 영향을 주는 화석에너지에 대하여 연구하려고 한다.

2. 논문의 목적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의 최종 목표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즉 화석연료의 40%이상이나 사용하면서 생산해내는 전기 소비를 줄이는 대안을 내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현재 사회에서는 보통 캠페인이나 작은 실천들로 하여금 조금씩 줄여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의 실정을 봤을 때 전기를 아예 끊는 극단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 에서도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앞서 말한 사회에서 쓰이는 캠페인을 학교에서 실천 해보기도 하고 또 내가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어 직접 실천 해보는 것을 중점에 두고 이 논문을 쓰려 한다.

3. 연구 방법

1) 참고서적

작은 것이 아름답다. / 에른스트 슈마허 저 / 문예 출판사
녹색평론 제111호 / 110~127/ 박용남 / 녹색 평론 사

2) 취재와 인터뷰

송영민 선생님 인터뷰
한국 전력공사 충주지사 송상민 차장님 인터뷰
김경수 선생님 인터뷰

3) 참고 사이트

www.kepco.co.kr (한국 전력 공사)
www.mltm.go.kr (국토해양부)

4) 참고자료

원자력과 민주주의(이화여자대학교 강연 자료)

5) 방문 및 탐방

한국 전력공사 충주지사
보령에너지월드(보령화력본부)

II 본론

1. 화석연료란?

1) 화석연료란?⁴¹⁾

화석연료란 화석 에너지라고도 하는데 지각에 파묻힌 동식물의 유해가 오랜 세월에 걸쳐 화석화하여 만들어진 연료로서 이것에 의해서 얻어진 에너지를 화석에너지라고 한다.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2) 화석연료의 종류⁴²⁾

- 석탄과 그 종류 : 지질시대의 육생식물이나 수생식물이 수중에 퇴적하여 매몰된 후 가열과 가압작용을 받아 변질하여 생성된 흑갈색의 가연성 암석을 말한다. 크게 유연탄과 무연탄으로 나뉘는데, 유연탄은 이탄, 아탄, 갈탄, 역청탄 등을 말한다. 이들의 특징은 무연탄에 비해 불이 잘 붙고 연기가 잘 난다는 것이다. 반대로 무연탄은 불이 잘 붙지 않지만 연기가 잘 나지 않고, 화력이 강하며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탄다.

- 석유와 그 종류 : 지하에서 천연적으로 생산되는 액체 탄화수소 또는 이를 정제한 것을 말한다. 종류는 LPG(액화석유가스), 휘발유, 납사, 등유, 경유, 아스팔트가 있다. 이들은 석유의 등급에 따라 나뉘지며 쓰이는 용도가 모두 다르다.

- LNG(액화천연가스) : 천연가스를 정제해서 얻은 메테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냉각시켜 액화한 것을 말한다.

3) 화석연료의 쓰임

우리생활에서 쓰이는 모든 물건, 보일러, 가스레인지 등은 거의 모두 화석연료를 이용해 만든 것이다. 화석연료가 없으면 기본적인 생활을 못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집어 말하자면, 첫 번째로 화석연료는 전기를 생산 하는 데에 쓰인다. 현재 화석연료의 무려 절반 정도를 이곳에 쓴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의 연료인 휘발유나 LPG를 만들 때에도 쓰인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이동 수단으로써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화석연료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입는 옷이나, 물건들을 만드는 공장에 필요한 것 중 하나가 화석연료이다. 화석연료가 없으면 생활에 쓰이는 도구들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화석연료는 많은 곳에 쓰인다. 우리는 한정되어 있는 양의 화석연료를 아껴 쓰기 위해서라도 절약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

2. 화석연료 소비에 의한 장 · 단점

1) 화석연료의 단점 · 문제점

먼저 자동차에 쓰이는 휘발유나 경유를 만들기 위해 석유를 연소시킨다.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여러 물질들이 산성비를 내리게 하고, 스모그 현상을 일으키고, 대기오염, 또 열오염 등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다. 이들은 모두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들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편하게 외갓집을 갈 때 사용되는 그 석유가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 스스로

41)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42)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를 아프게 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화석연료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미 오일퍼크(Oil perk)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화석연료가 고갈될 날도 머지않았다.

또 화석연료는 자원의 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가격과 공급 면에서 불안정한 요소를 지닌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의 기름이 떨어져 공급하기 위해 주유소에 가는데, 보통 휘발유나 경유를 L(리터)당 가격을 제시해 판다. 하지만 시시때때로 이 가격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종종 느낄 수 있다. 이는 바로 앞서 말했듯 매장지역, 즉 자원의 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2) 화석연료의 장점

현재 모든 가전제품과 전자제품은 전기가 없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전기가 없다면 안정적인 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로 우리에게 이미 중요해져 버렸다. 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인 석탄이 필요하다. 이는 화석연료가 없으면 안정적인 생활이 불가능 하다는 말과 같다.

또 화석연료는 우리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화석연료 중에서도 석유를 사용하는데, 보통 휘발유, 경유 등을 쓴다.

이처럼 화석연료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3. 화석연료로 인한 피해사례

1) 인간이 죽인 작은 섬나라 투발루⁴³⁾

아름다운 8개의 산호섬으로 이뤄진 남태평양의 나라 ‘투발루’는 세계에서 4번째로 작은 나라이다. 그런데 이 투발루 해안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에 모래가 휩쓸리면서 해안가에 심어 놓은 나무들이 쓰러지고, 제방과 둑이 무너지기도 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투발루는 세계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섬나라 투발루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해수면의 상승 때문이다. 해수면의 상승은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결국 지구 온난화가 섬 하나를 삼키고 있는 것이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지구온난화는 매연의 이산화탄소가 일으키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그 작은 섬나라를 삼키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현재는 아예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휩싸여 있다.

투발루의 일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첫째는 우리가 하는 일과 그 상황에 대한 결과이다. 끝내 투발루를 이 지경까지 만든 우리는 이미 반성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긴 셈이다.

두 번째는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이다. 투발루의 일은 많은 이들이 상처 입고 살아갈 터전을 잃는다는 것에 대한 뜻과 그 의미, 또 이런 사태는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 주고 있다. 앞으로도 이 일들 오랫동안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이제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2) 작은 섬나라 키리바시 공화국⁴⁴⁾

호주 동북방 남태평양 군도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키리바시 공화국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수몰될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키리바시 공화국 아노테·통 대통령(55)은 “우리나라는 조만간 바다에 가라앉을 것”이라고 지난 달 30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히며 일본 등 선진 각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국가 수몰 위기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자국민의 탈출을 위한 직업 훈련 등의 측면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한 통 대통령은 “면적이 작은 우리나라(키리바시공화국) 해수면 상승을 막을 방법 같은 것이 없다”고 말하며 국가 수몰이라는 대재앙을 피해갈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43) <http://keco.tistory.com/85> (한국 환경공단)

44)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595> (뉴스포스트)

통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지구온난화 대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2008년~2012년까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기로 한 교토의정서가 실현될 때는 이미 늦었다는 비관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4. 오일 피크⁴⁵⁾

석유는 한정된 자원이므로 언젠가는 그 수명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당장이 아니면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태양도 50억년이 지나야 수명을 다할 거라는데 석유도 당장 수명을 다 하지는 않겠지’, ‘하지만 지금 다 고갈된 것도 아니잖아.’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미 지금이 바로 석유가 고갈되어 가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

오일 피크는 석유의 생산 정점을 이야기한다. 석유가 발견된 이래로 2006년까지 석유생산량은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유전을 발견해내었고, 더 많이 추출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6년부터 지금까지는 석유생산량이 오르락내리락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이 지나면 석유의 생산량은 급격하게 감소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석유가 매장된 유전지역에서 50%를 추출해 내고 나면 그 이후에는 추출해내는 양이 점점 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추출한 석유의 양은 존재하는 석유의 49%라고 한다.

정부 정책만 봐도 우리는 석유부족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조바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대강 사업을 하는 정부가 별로 어울리지 않는 ‘그린산업’을 강조하고 있다. 8.15 연설에서도 새 발전 동력으로 그린산업을 강조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미국에서도 얼마 전 오바마 대통령이 그린산업 관련해 대대적인 계획을 발표했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또한 국내외 많은 대기업들이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의 대체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규모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이 위기를 모두 아는 것일까? 사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석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을 가장 설득력 있게 공개적으로 펼친 인물은 바로 2007년 사망한 이란 국영 석유 회사의 이사였던 알리 삼삼 박 티 아리였다. 말년에 썼던 인상 깊은 연구 논문 중 하나에서 그는 세계의 석유 생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147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해서 2006년 여름, 연일 사상 최고의 산출량인 81~82에 달했던 원유 생산량이 그 이후로 불가피하게 쇠퇴 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특별한 반전은 지구상에서의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 공급의 등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천연가스, 석유, 원자력 그리고 모든 종류의 잡다하고 재생 가능한, 특히 생물 연료와 같은 에너지원의 사용에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는 삼라만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전망에 대한 이야기는 알리 삼삼 박 티 아리만 한 게 아니다. 석유와 가스 사업으로 30억의 자산을 일군 T.분 피켄 스는 포브스 CEO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석유를 찾기 위해 우리는 전 세계를 다 찾아봤습니다. 아직까지 석유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존재하긴 하지만 과거에 봤던 것만큼 그렇게 막대한 매장량을 지닌 곳은 없습니다. 거대 유전지대는 모두 다 발견했고, 소규모 지역이 있긴 하지만 부족분을 채우기에는 모자랍니다. 내 예상이 맞는다면 지금은 이미 오일 피크입니다. 원유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직접 석유 사업을 한 본인까지도 이렇게 말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오일피크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 것에 대하여, 또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45) <http://blog.naver.com/leader0113?Redirect=Log&logNo=60113153890>

5. 화석연료와 전기

1) 내가 선택한 방향

나는 화석연료에 대한 연구를 하는 도중에 화석연료가 전기를 생산 하는 곳에 큰 비중을 둔다는 것과 이 과정에서는 특히 석탄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기생산은 화력 발전소에서 이루어지는데 나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우리가 전기에 집착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 졌다. 또 여러 가지 사례와 함께 전기를 생산할 때 자연에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물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체 또한 자연에게 큰 해를 가하지만 세세한 부분이 너무 많아 전기와 관련된 쪽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다. 그렇다고 전기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고 화석연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은 할 것이다.

2) 보령에너지월드(보령화력본부)

나는 가정학습을 이용하여 보령화력본부의 보령에너지월드를 다녀왔다. 이곳은 전시관이라고 할 수 있다.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할 때의 원리와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영상과 사진, 또 전시물 등으로 원리를 잘 알 수 있어 좋았다. 또 보령화력본부 자체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 화력발전소 안에 있는 여러 시설과 장치, 또 그것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화석연료로 생산된 열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자연에 영향을 끼친다. 이에 대비하여 발전소 안에는 그 열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만든 설비들을 갖추고 있었다. 물론 완벽하게 막지는 못한다.

보령에너지월드는 2층으로 되어져 있는데, 1층에는 정보검색실과 기본 전시관과 함께 화력발전의 원리를 살린 신기한 도구 전시물들도 있었다. 2층에는 전망대가 있었는데, 에너지월드 바로 앞에 있는 화력발전소를 코앞에서 보듯 자세히 볼 수 있었다.

나는 전시관 자체도 좋았지만, 화력발전소를 직접 볼 수 있었다는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거리도 멀고 시간도 오래 걸려 가는데 해매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이 큰 화력발전소인 보령화력본부를 직접 가서 체험하고 보았다는 것에 대하여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3) 화석연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 할 때의 영향

현재 화석연료를 캐낸 전체 양의 절반 정도를 모두 전기를 생산하는 데에 쓴다. 정말 엄청난 양이다. 전기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전기를 만드는 곳은 화력 발전소이다. 화력 발전소에서는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발생하는 열로 증기 터빈을 돌려 에너지를 생산 하는데,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과정에서는 일산화탄소와 질소 산화물, 황산화물, 탄화수소 등의 해로운 오염 물질이 발생하여 공기를 오염 시키고 우리의 건강에도 해를 끼치며,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더 설명하자면, 이 물질들은 구름 속에 있는 수증기와 만나 산성비를 내리게 하기도 하고,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열들이 대기 중으로 방출될 경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열오염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렇듯 우리는 전기에 의존하며 살고 있지만, 점점 더 줄어나갈 필요가 있다.

6. 인터뷰 자료들

송영민 선생님 인터뷰.

인터뷰 대상 : 송영민(제천간디학교 살림터 행정 담당 교사)

인터뷰 날짜 : 2011년 9월 25일

인터뷰 장소 : 제천간디학교 살림터

1. 현재 화석연료의 소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화석연료와 전기 등의 사용으로 사람들이 너무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다.
 - 화석연료에 너무 의존하여, 이젠 없으면 안 될 것이 되었다.
2. 화석연료 소비로 인하여 자연을 파괴하는 현재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자연과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현재만 중요시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 같다.
3. 언제부터 자연을 이런 식으로 무차별하게 파괴하게 되었고, 이러한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근대화, 산업혁명이 시발점이다.
 - 기계를 이용하고 의존하면서 자연에 대한 감각과 대하는 생각이 달라졌다.
 - 자연을 이용하는 것을 태연하게 생각하게 되어버렸다.
4. 언젠가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에너지(태양열에너지, 풍력에너지 등)만을 사용하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 하시나요?
 -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다.
 - 결국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서도 화석연료가 필요하다.

한국전력공사 송상민 차장님 인터뷰

인터뷰 대상 : 송상민(한국전력공사 충주지사 차장)

인터뷰 날짜 : 2011년 10월 7일

인터뷰 장소 : 한국전력공사 충주지사

1. 이곳에서 직원 분들이 하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크게 발전, 송전, 변전, 배전으로 나뉘는데 각 부서별로 맡은 일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그 외에도 복지업무(어려운 사람들에게겐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기도 한다.) 해지업무, 총무와 요금계산을 하는 부서 등이 있다.
2.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 되어서 우리학교까지 오는 과정을 말씀 해주신다면?

-발전소에서 발전한다.(전기 생산) → 각 지역으로 보낸다.(송전) → 압력이 큰 전기를 일반 가정집에서 쓸 수 있는 전기로 변화 시킨다.(변전) → 변압기로 보낸다. → 최종 목적지로 보냄.

3. 학교에서 전기소비를 줄일 수 있을 방안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대기전력을 절약한다. 콘센트를 꽂아두면 대기 전력(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전기가 제품으로 저절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때의 전기를 말함.)이 낭비되는데 콘센트를 뽑아두기만 해도 절약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4. 1000MW는 현실적으로 얼마만큼의 크기 인가요?

-약333,333 가구에게 요청한 만큼의 전기를 보낸다.(보통 한 가구당 요청 전기의 양은 3kw이다)

5. 만약 화석연료가 모두 고갈된다면 그땐 어떻게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나요?

-현재 개발하는 것 중 하나를 설명하자면 태양열 에너지에 관한 것인데, 태양이 지구에 쏘는 빛은 대기권으로 인해 오는 도중 열이 약해진다. 하지만 이 열을 대기권 밖의 우주에서 받아 전력을 생산하여 지구로 쏜다면 지구에서 받는 태양의 열보다 훨씬 거대한 열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많고 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또 축전기술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생산한 전기를 바로 쓰거나 날리지 않고 안 쓸 때에는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현재 연구하고 개발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한국전력공사 충주지사 현장사진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 인터뷰(김윤하 선생님)

인터뷰 대상 : 김윤하(제천간디학교 교사)

인터뷰 날짜 : 2011년 10월 7일

인터뷰 장소 : 제천간디학교 교무실

1. 자동차를 사용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타는 날 안타는 날 정해놓고 자동차를 쓰고 있긴 하지만 있으면 편해서 사용한다,

2. 자동차 안타는 날을 정한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연을 생각해서 안타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비용의 문제도 있다.

3. 보통 어디를 갈 때 자동차를 이용하시나요?

-평소에는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데, 가끔 충주나 서울을 가기도 한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는 선생님 인터뷰(김수자 선생님)

1. 자동차를 타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불편한 점도 같이)

-자동차가 내는 매연이 좋지 않다. 자연에 해로워 반대한다.

2. 이동 할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나요?

-출퇴근 시에는 자전거를 이용하고 멀리 갈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학교 시설 담당 선생님이신 김경수 선생님 인터뷰

인터뷰 대상 : 김경수(제천간디학교 시설담당 교사)

인터뷰 날짜 : 2011년 10월 7일

인터뷰 장소 : 제천간디학교의 계량기가 위치해 있는 곳

<태양광 발전기가 우리학교 전력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우리학교의 발전기는 해가 떠있을 때에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낮에는 따로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밤에는 해가 떠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해주는 전기를 사용해야 해서 전기요금을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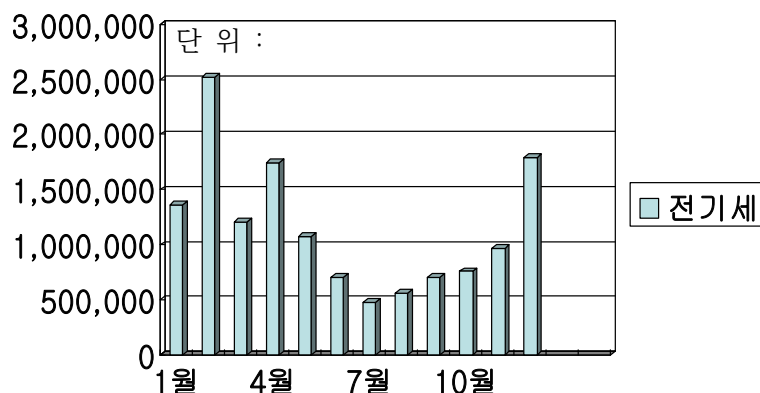
태양광 발전기해 의 특징이 있다면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흐린 날은 태양빛이 약한 만큼 생산 내는 전기량이 적어지고, 반대로 햇볕이 쨍쨍한 날에는 태양빛이 강해 전기량이 많아진다.

태양광 발전기의 관리는 학교에서 하지 않고 여행업체에서 따로 해준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발전기는 저장하는 식이 아닌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방식이라서 그때그때 쓰지 않으면 남은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에 보내진다.

7. 간디학교에서 전기가 쓰이는 곳 알아보기

1) 기숙사에서 쓰이는 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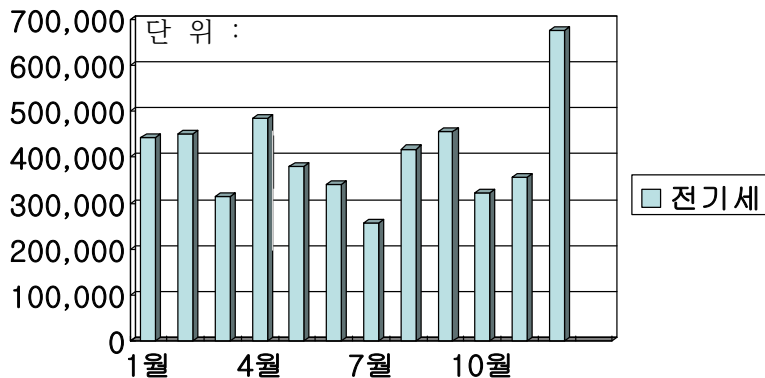
2010년 달별 기숙사 전기세



같은 기숙사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매달 쓰는 양이 같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보일러를 켜놓을 필요가 없어 전기사용량이 줄어들게 되지만, 여름과는 달리 겨울에는 추위가 너무 심해 보일러를 많이 키게 되어 전기사용량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2) 학교에서 쓰이는 전기

2010년 달별 학교건물 전기세



보통 학교에서 쓰이는 화석연료, 즉 전기라고 한다면 소강당, 식당 등이 있는데 모두 난방을 위해 사용 된다. 이곳에서도 기숙사 에서와 마찬가지로 매달 소비량과 그에 따른 요금이 달라지며, 계절마다도 바뀐다. 분명 이곳에서 쓰이는 화석연료, 전기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8. 사회에서 실천중인 전기 절약 방안 알아보기

1) 플러그 뽑기 캠페인

플러그 뽑기 캠페인이란 말 그대로 전원을 켜놓고 쓰지 않을 때에는 플러그를 뽑도록 하는 캠페인이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전원을 꺼 놓는 것. 환경도 덜 피해 입히고, 전기세도 절약하고. 1석2조의 일이다. 또 일반 가정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

2) 대안 에너지 개발

-태양열에너지 : 말 그대로 태양열을 이용한 발전이다. 축적해서 태양이 뜨지 않는 밤에도 쓸 수 있고, 한정되어 있지 않은 양 덕에, 모자라 떨어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풍력에너지 :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 거대한 풍차를 세워 바람에 돌아가게 하며 이때에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한다.

-조력에너지 : 파도의 힘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다. 조력에너지는 현재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지력에너지 : 땅속에서 화산 활동을 하는 마그마로 증기 생산을 한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총 전기 생산량의 20%를 지력에너지로 생산한다.

3) 가정에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① 대기전력 줄이기

대기전력이란 평상시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 전원을 키지 않고 콘센트에 연결만 해놓아도 제품에는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데, 이때 낭비되는 전력을 말한다. 대기전력만 절약해도 실제로 많은 전기를 절약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가정집에서는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다. 또 대기전력을 절약하면 1년 중 한 달은 전기를 공짜로 쓸 수 있다고 한다.

② 여러 가지 가전제품 청소

청소기는 필터를 자주 청소해주고, 조명도 주기적으로 청소해주는 등 여러 가전제품들을 깔끔히 해주면 전기도 아끼고 물건자체도 깨끗해지고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③ 냉방

먼저 선풍기는 더위 정도에 따라 알맞은 바람세기를 이용해야 한다. 또 잘 때에는 취침 타이머를 사용해야 한다. 에어컨 같은 경우는 냉방온도를 26~28°C로 하는 것이 좋고, 실내와 실외 온도 차이는 5°C가 적당하다. 또 에어컨은 사용 강도에 따라 30%의 전력소비가 차이 나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한다면 전기소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9. 나의주장

1)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멈춰야 한다.

자연은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또 서로를 지켜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이에 있어서 과연 바람직한 일 인걸까? 우리는 자연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다. 우리만을 위한 우리의 발전이 자연에게는 너무나 많은 피해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아마 우리는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은 채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 나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할 뿐이다.

화석연료는 여러 가지로 자연을 괴롭힌다. 화력 발전소에서 석유를 연소시켜 나오는 이산화황 등의 물질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휘발유나 경유로 인해 나오는 매연, 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들은 정말 치명적이다. 나는 이들이 결국 섬나라 투발루를 물에 잠기게 했다는 사실을 모두 알았으면 좋겠다.

사실 현재로써는 화석연료 없이는 인간들은 살 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나도 단지 자연을 생각하지 않는 인류의 미래만 생각하는 그냥 이기적인 인간들 중 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자연을 생각한다면 이미 많이 어질러지고 다쳤지만 이제부터라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적어도 피해를 적게 줄 수 있을만한 약간의 노력만이라도 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느끼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 화석연료와 전기가 없어지게 된다고 상상해보자. 과연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전기를 통해 사용되는 가전제품이나, 충전하는 식으로 사용되는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등은 일단 사용할 수 없다고 봐야한다. 하지만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화석연료로 만들어 지는 자동차의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 등도 생산할 수 없게 되고 이것은 곧 중요한 교통수단중 하나가 없어진다는 말이 된다. 정말 충격적이다. 물론 이것에 대한 대책인 대체에너지가 개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태양열 전자관 이나 풍력발전에 사용되는 풍차 등은 모두 화석연료가 없이는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화석연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얘기이다.

내가 이 논문을 쓰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고, 이에 대한 것은 계속 내가 강조하였다. 꼭 투발루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일이 많을 것이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한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파괴한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만 보아도 몇몇 사람들은 이 때문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인간이다. 아마 모두 이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나도 어쩔 수 없는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문을 쓰면서도 나는 인간에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을 하였고, ‘정말 전기나 화석연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라는 고민을 하며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이는 곧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 어떤 것인지 깨우쳐 준다. 또 자연에 대한 마음가짐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도 알려준다.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곧 화석연료 소비를 줄인다는 말이 되기도 하며, 자연을 괴롭히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인간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자연을 훼손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양을 판단하는 것은 이제까지 소비량의 최대치를 조금 넘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최대로 전기를 많이 사용한 수치가 100이라면 그보다 조금 넘게 생산해내고 있다는 말이다.

이 최대수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화석연료를 한 번에 많이 캐낼 수 있는 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현재 남아있는 화석연료의 적은 양에 상관없이 우리는 무차별 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물론 이로 인해 자연은 더욱 파괴되어 간다. 나는 인간이 너무도 어리석은 것 같다. 바로 앞의 날만 생각하고 조금 더 먼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다. 과연 우리의 자손들은 지금 우리처럼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자연이 중요한 만큼 우리의 자손의 삶도 중요하다. 자연 없이는 우리의 자손은 살아갈 수 없다.

나는 이러한 생각을 모두가 해보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자연과 자손, 가족 말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꾸려 나간다. 그 과정에서 자연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다른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후의 대처를 잘하면 된다. 잘못을 했으면 반성하고, 사과를 하면 되는 것이고, 자연에게 괴롭힘을 주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반성하며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우리 모두 각자 자연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키우고, 작은 실천이라도 하나하나 해나아 간다면 자연도 우리를 용서해 줄 것이고, 다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 우리 모두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10. 간디학교에서 전기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대안 내기

1) 대기전력 절약

대기전력 절약을 위하여 플러그 뽑기 캠페인을 하였다. 학교 곳곳에 내가 만든 캠페인 종이(시트지에 문구를 넣고 그림들을 그려 만들었다.)들을 붙여 놓았다. 식당, 살림터, 여러 교실 등에 붙여 놓았다. 또 왜 전기를 아껴야 하는지와 동시에 전기를 쓰면 자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대자보에 써서 붙였다.

2) 스위치 끄기 캠페인

전기를 쓰지 않을 때에는 스위치를 꺼놓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또한 캠페인 용지와 함께 대자보를 붙였다.

III 결론

화석연료는 자연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 그래서 나는 우리학교 안에서 화석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플러그 뽑기와 스위치 끄기 캠페인을 하였다.

앞서 말했듯 나는 이 논문을 통해 화석연료는 자연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다.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얕은 지식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나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화석연료와 전기의 관계, 또 인간, 자연과의 관계에 대하여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인간이 자연에게 이미 많은 피해를 끼쳤다는 것을 알았다. 또 자연 없이 살아 갈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자연을 파괴하는 우리들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다. 우리학교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조차 자연에게 피해 주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 했다.

나는 우리학교도 십나라 투발루를 바다 속에 가라앉힌 범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적어도 간디인에게는,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하나하나 같이 할 수 있도록 내가 설득하여 해볼 목적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마음가짐인데, 내가 그것을 움직일 힘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Thanks to

정말 고맙고 은혜로우신 송영민 선생님 혼내준 김수자 선생님, 응원해준 엄마, 아빠 도와준 다모누나



이 름 : 김현정

생년월일 : 1996년 2월 8일 새벽 5시에 부모님 번거로우시게 태어남

내 피 : A급 A형

좋아하는 것 : 한국 아이돌 밴드 중 이름이 6글자인 밴드의 여신보컬.

남들이 보는 나 : 곰, 반달가슴곰, 남자, 어떤 형, 덕산녀. 촌녀, 눈
치 없는 애, 시끄러운 애, 빵 아저씨 모여요, FT덕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 병신인

내가 보는 나 : 사람, 귀여운 소녀, 서울 냄새 poll poll 나는 여자,
속은 참신한 애, 난 밴드 부활 좋아해!!, 알건 아는 여자, 지적인
소원 : 그리워하며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 같은 일들이 이루어
저가기를 (남자친구 구함)

그냥 한마디 : 살면서 Feel과 soul을 느끼면서 살아야 이런 논문을 쓸 수
있단 말이야 비록 2차지만

무대 위의 이야기

-창작연극 만들기-

제출자 김현정
지도교사 장희숙

- 목 차 -

I. 서론

1. 논문의 동기와 목적
2. 연구 방법 및 계획

II. 본론

1. 연극 알기
 - 1-1. 연극의 정의
 - 1-2. 연극의 4요소
2. 연극 맛보기
 - 2-1. 연극을 본 소감문
 - 2-2. 나에게 필요한 연극의 요소들
3. 연극의 기획과 연출
 - 3-1. 극본 쓰기
 - 3-1-1. 주제를 잡게 된 계기
 - 3-1-2. 내가 연극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
 - 3-1-3. 주제의 대한 글짓기
 - 3-1-4. 대본쓰기
 - 3-1-5. 완성된 극본
 - 3-2. 몸으로 연극해보기
 - 3-2-1. 발성법
 - 3-2-2. 연극 연습 과정
 - 3-2-3. 연극 연습 일지
 - 3-3 연출하기
 - 3-3-1. 캐스팅 과정
 - 3-3-2. 연극을 위한 나의 연극 정리
4. 연극 발표
 - 4-1. 관객들의 연극 평가
 - 4-2. 나의 연극 평가

III. 결론

1. 연극을 끝내며

별첨자료

1. 연극연수

Thanks to

I. 서론

1. 논문의 동기와 목적

중학교 2학년 때, 숙제로 타인의 자서전을 만들기 위해 가족들의 앨범을 보고 있었는데, 내가 유치원 시절 무대 위에서 발레 하는 사진과 태권도 하는 사진을 보게 되었다. 사진을 보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옛날엔 내가 무대에 설 수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요즘의 소심한 나와 옛날에 활발한 내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었다. 더 생각해보니 초등학교 때 피아노 발표회를 나갔던 기억이 있다. 그때 정말 긴장 되었던 것이 생각났다. 하지만 무대를 끝내고 나서 정말 무대에 섰던 내 자신이 뿌듯했고, 한 번 더 무대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디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보다 지금이 더 활발해 졌겠지만, 아직도 무대에 서는 것은 두렵기만 하고 자신감이 필요했다. 하지만 간디학교에서는 ‘주를 여는 시간’ ‘기말/가을축제’등등 학교 프로그램 중에서 무대를 올라가고 주목받는 활동이 많아 무대의 기쁨을 많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대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정말 멋있어 보였고, 악기연주로 올라가든 춤을 추러 올라가든 연극으로 올라가든 뭐든 정말 그 무대와 사람이 예술 하나로 보였다. 그리고 주목받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다. 무대에 한번쯤은 올라가 본 사람은 그 느낌을 알 것이다.

나는 옛날부터 끼를 살려내어 무대에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서, 생각해 본 것이 연극이었다. 연극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한테는 어려운 장르이겠지만, 한번 도전 해보고 싶다. 나는 이번 논문을 통해서 연극 위에 배우가 되면서, 내가 연극을 연출하며 연극의 대해 자세히 연구 해 보고 싶다.

2. 연구 방법 및 계획

참고사이트

(연극의 연기/역사 자료)네이버 블로그 ‘류성의 삶과 예술’ 목록 중 ‘연극이야기’

(<http://aizzim21.tistory.com/entry/서양연극사연구1-고대-그리스-연극>)

(연극 역사 자료) 네이버 블로그 ‘그리스 로마 희곡’

(<http://blog.naver.com/kang971?Redirect=Log&logNo=80006628059>)

(발성법 자료)네이버 블로그 ‘sop_hj’

(http://sop_hj.blog.me/110110258135)

참고서적 (책, 논문, 기사 등)

1. 셰익스피어 4대 희극 (셰익스피어 지음/정홍택 옮김)
2. 선생님, 우리 연극해요 (김용심 지음/보리 출판사)
3. 문학시간에 희곡읽기 1, 2권 (전국국어교사모임 엮음/나라말 출판사)
4. 2학년 때 무빙 자료집
5. 서양 연극사 이야기 (밀리 S. 배린저 지음/ 우수진 옮김/ 평민사 출판사)
6. 쉽고 짧고 재미있는 영어 연극 놀이 대본모음1 (곽종태 엮음/ 동인 출판사)

방문 및 탐방

연극보기 - 염쟁이 유씨, 고스트라디오

연극체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름연극연수

II. 본론

1. 연극의 기본 개념 알기

1-1. 연극이란?

연극이란, 배우가 자신의 말과 동작으로 음향, 조명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의 희곡을 관객에게 보여주는 예술이다. 연극은 음악, 무용과 같이 공연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공연예술분야 또는 무대 예술분야라고도 한다.

연극(演劇)의 사전적 의미는 극(劇)이란 한자어의 뜻이 호랑이(虎)와 멧돼지(豚)의 치열한 싸움(刀)이라고 하는데, 극(劇)은 동작 (호랑이와 멧돼지가 싸우는) 으로서 행해지는 예술이다. 영어에서 연극을 뜻하는 드라마(drama)는 고대 희랍어를 어원으로 하는데 '동작'이란 뜻이다.

연극을 종합예술분야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연극은 4가지 요소(배우, 희곡, 관객, 무대) 외에도 일반적으로 무대장치(미술) · 조명 · 음향효과 · 춤이 따를 경우의 안무, 음악 등 연극은 인접하는 미술 · 무용 · 음악 등 여러 예술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연극은 다양한 방면의 예술을 합쳐 하나의 희곡을 공연하는 것에 있어서 종합예술분야라고도 불리 운다.

1-2. 연극의 4요소

연극에는 연극에서 없으면 안 되는 4가지 요소가 있다. 배우, 희곡, 관객, 무대이다.

원래 3가지 요소로 배우, 희곡, 관객이 있었는데 무대를 넣어서 4가지 요소라고 부른다.

배우는 몸짓과 언어를 하고, 무대는 공간과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희곡은 인간의 삶을 담아내고, 관객은 시각적이고 입체적인 예술이다. 이것이 연극의 4대 요소이다.

요소 1. 배우

첫 번째 요소는 배우이다. 연극의 정의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연극은 배우가 희곡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배우는 연극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연극에서 배우는 연극을 '살아있는 예술'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표시가 된다.

연극의 중심은 배우이고, 배우의 말과 행동의 따라 관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거나 긴장시키고는 한다. 연극에서 배우가 빠진다면 연극의 이야기는 흘러가지 못할 것이다.

배우를 하기 위해서는 희곡에 나오는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 훈련이 필요하다.(+희곡의 3요소 중 하나가 대사이다. 대사 없이는 희곡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사를 말 할 수 있는 배우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스타니슬라브스키라는 러시아의 연출가 겸 배우 말한 연기의 정의는 이렇다.

“느껴라! 느낀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 이해한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야 표출되는 것이 대사이다.”

이 말의 뜻은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인물이 되어 느끼는 것이다. 자신이 희곡의 인물이 되어보는 것 을 거쳐야만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소 2. 희곡

희곡이란 극본과 같은 말이며, 전체 연극의 전개나 스토리를 말하며 연극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연극은 배우들이 하나의 희곡을 표현하는 공연예술 분야이다. 때문에 연극은 하나의 희곡을 중심으로 차려진다. 배우들은 희곡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의 성격, 행동, 말 등을 표현해야 하며, 무대는 희곡에 나와 있는 장소와 상황을 바탕으로 꾸며야 한다. 그래서 희곡은 스토리의 장소, 시간, 상황, 인물의 행동과 말이 적나라하게 쓰여 있어야 한다.

희곡의 3요소가 있는데 해설, 지문, 대사이다.

첫 번째 요소인 해설은 희곡의 장소, 시간, 상황 등을 설명하기 위한 요소로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해설이 없고 배우들의 대사만 나온다면 관객들이 이해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요소는 지문이다. 지문이란, 해설이나 대사에서 쓸 수 없는 배경설명이나 조명, 등장인물의 동작이나 표정 심리를 서술하는 것을 지시하고 설명하는 ‘바탕글’ 이라고도 부르고, 현재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현정 : 아 배고파..

라는 대사가 있으면 이 대사를 한 주인공의 행동을 짧게 써 넣는다.

현정 : (얼굴을 찡그리며) 아 배고파...

이와 같이 대사 앞쪽에 가로를 쳐 놓고 가로 안에다 등장인물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표정, 심리를 써 넣는 것이 지문이다. 지문의 장점은 희곡을 봤을 때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과, 배우들이 희곡을 보고 연기를 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딱 대사만 봤을 때도 상황은 알겠지만, 어떤 기분인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 배우들이 등장인물의 느낌과 행동을 완벽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배경의 설명이나 조명 등장의 여부를 써 넣을 수 도 있으며, 공연을 준비하는 스태프에게도 도움이 된다.

요소 3. 관객

연극에서는 배우만이 연극을 하는 게 아니라, 관객과 호흡하며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연극에서 관객은 단순히 연극을 관람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연극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관객들은 연극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며 배우와 함께 연극을 만들어내며 배우와 관객 사이에 어색함을 없앤다. 관객이 영화를 보는 것 과 달리 연극은 관객이 같이 하는 것 이다. 무대와 객석의 호흡은 공연의 성과를 언제나 좌우한다.

요소 4. 무대

관객이 공연을 보는 곳이 객석이라면 무대는 말 그대로 연극을 공연하는 공간을 말한다. 무대는 연희⁴⁶⁾하는 장소로서 옥외(屋外)의 놀이판, 굿판에서 현대식 극장무대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이나 연희하는 장소로서의 개념은 연극에서 빼놓을 수 없다. 무대는 연극을 상연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 공연의 전체 색조가 어떤 느낌인지, 전체 느낌과 질감은 어떤 것인지 등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도 무대이고, 구체적인 연극 장치를 제공하는 것도 역시 무대이다. 영화로 말하자면 ‘세트’에 해당한다. 무대에서 입체적이고 창의적인 소품을 이용하여 평면적인 무대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여 매우 효과적이고 인상적인 공연으로 관객에게 깊이 각인될 수 있다.

*연출이란?

사전의 정의는 하나의 공연을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연기 ·장치 ·의상 ·분장 ·소도구 ·조명 ·음악 ·효과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공연의 총체적인 효과를 창출(創出)하는 활동이라고 한다. 앞에 설명과 같이 연출은 전체적인 공연의 분위기와 맞게 음악이나 조명 등의 효과를 넣고, 전체적으로 연극의 분위기를 맞추어 연극을 더 아름답고 생생하게 만든다.

46) 말과 동작으로 여러사람앞에서 재주를 부리다.

2.연극 맛보기

2-1. 연극을 본 소감문

1) 염쟁이 유씨

장르 * 모노드라마(1인극) 연극

출연진 * 유순웅, 임형택, 정석용

줄거리 * 죽은 시체를 염하는 염쟁이 유씨에게 어느 날 한 기자와 전통문화체험단이 찾아와서 유씨에게 염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 자신이 염쟁이가 된 이유, 아버지의 유산을 둘러싸고 싸우는 가족들의 이야기, 아들이야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이야기

-염쟁이 유씨를 본 소감문

염쟁이 유씨는 내가 처음으로 본 ‘모노드라마’이다. 모노드라마란, 배우 한명이 일인다역을 하는 어려운 장르의 연극이다. 한번도 본적 없는 장르의 연극이라 정말 기대되었다.

염쟁이유씨는 삶과 죽음의 대한 이야기이다. 삶과 죽음의 대한 이야기이면서도 무겁지 않고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라 신기했다.

맨 처음 연극을 보기 전에 궁금했던 점은 ‘일인다역이면 무대에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나오지 않을 텐데 연극이 될까?’였다. 그러나 연극을 보면서 그런 궁금증들이 해결 되어가고 있었다. 그 해답은 관객들과 같이 연극을 하는 것이었다.

연극을 보던 중 관객들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관객들에게 가끔씩 질문도 하고 퀴즈 같은 것도 내서 관객들과 같이 소통을 하며 연극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관객들이 배우의 도움을 받아서 한 장면을 재현하기도 하였는데, 관객들이 정말 적극적이어서 연극이 재미있던 것 같다.

그리고 재밌었던 장면은, 배우가 술을 한잔 먹는 장면이 있었는데 앞에 한 관객에게 술 한 잔 따라주는 모든 관객들에게 말했다.

“같이 온 친구에게 술 한 잔 주고 싶은 사람은 손들고 말해주세요.”

그러자 관객들은 하나하나 손을 들고 말했다. ‘제 친구가 오늘 생일인데 술 한 잔 따라주고 싶어요.’, ‘저희 카페에서 단체로 왔는데 회장님께 술 한 잔 따라주고 싶어요.’, ‘저희가 여행을 갔다 왔는데 술 한 잔 따라주고 싶어요.’ 등등 많은 이유를 듣고 배우가 술과 잔, 그리고 안주를 주었다(진짜 술이었다). 그리고 정말 한 술자리 같이 자연스럽게 분위기는 흘러갔다. 이렇게 관객과 같이 하는 연극의 장점은 관객도 심심하지 않고, 연극의 내용이 더욱 짝 차는 것 같다.

‘일인다역이면 무대에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나오지 않을 텐데 무대가 허전하지 않을까?’

이 질문의 해답은 관객과의 소통도 있었지만, 배우의 무대장악력이 엄청났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내가 봤던 염쟁이 유씨의 주인공은 임형택 배우였는데, 그 분의 무대 장악력은 정말 대단했다. 그 배우는 실감나는 연기와 큰 동작, 서슴없이 관객에게 다가가는 행동, 대사전달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주인공의 현실과 마음을 제대로 표출해 내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 무대를 지휘하고 장악할 수 있는 것이다. 정말 배우는 힘든 것이다..를 느낀 연극이었다. 그리고 임형택 배우가 염을 하면서 이야기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무대가 허전하기 보다는 조용한 장소에서 배우의 대사를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기했던 건 배경이었다. 연극을 하면 배경이 바뀌기 마련인데, 한 배경(소품의 위치도 바뀌지 않았다)에서 장시간의 연극을 하는데도 지장이 없다는 것이 신기했다. 배경이 그대로인데도 연극이 자연스럽게 진행된 이유는, ‘염쟁이 유씨’의 줄거리가 주인공인 염쟁이 유씨가 자신에게 찾아온 기자와 전통 문화체험단들에게 염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한 장소에서 염을 하는 일을 바탕으로 하는 거라서 한 배경으로 하는 것 이었다. 필요한 소품은 병풍 뒤에 숨겨놓고 자

연스럽게 가져올 수 있게 하였고, 일인다역이기 때문에 의상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은 병풍 뒤에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리고 과거의 장면을 재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관객과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소품을 옮기고 그 자리에서 재현을 했다. 과거의 일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 보다 그 일을 관객들에게 가깝게

처음 접한 모노드라마인 만큼 기대가 컸었는데, 정말 만족스럽고 재미있었던 연극인 것 같았다.

2)고스트 라디오

장르 * 청소년 뮤지컬

출연진 * 공재민, 방미연, 배은지, 이태형, 윤영일, 장인혁, 조하늘

줄거리 * 삶에 지루함을 느끼는 청소년들을 위한 뮤지컬!

진동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귀신 DJ의 방송을 듣는다. 학교의 명예를 위해 교장이 짜준 대본으로 하는 방송부와 달리, 귀신방송은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의 마음을 담아 방송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이야기하고, 사건과 갈등이 일어나는 청춘의 이야기이다.

-고스트라디오를 본 소감문

맨 처음 고스트라디오를 본 이유는 하늘언니가 속해있어서 한번 보고 싶었다. 정말 기대를 가지고 친척이랑 같이 갔는데, 늦어서 하늘언니가 하는 것을 못 봤다.

뮤지컬이 처음 시작할 때, 배우들은 관객들에게 번호를 알려주어 메시지와 트위터를 이용하여 노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목처럼 라디오의 노래신청을 하여 관객들에게 듣는 쏠쏠함을 주고, 관객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였다.

뮤지컬의 장점은 노래가 들어있어 소리를 풍성하게 하여 귀를 즐겁게 하며, 춤과 율동이 들어있어 보는 재미를 쏠쏠하게 한다. 음악의 웅장함이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만들어서 더욱 긴장되었다. 그리고 청소년에 맞게 화려한 비보이 춤과 멋진 랩을 해서 더 젊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연극에서 정말 힘든 것 중 하나가 암전된 상황에서 다음 장면의 맞게 소품을 각각의 위치에 놓는 것인데, 고스트라디오에서는 소품을 움직일 때 바닥에 아주 작은 후레쉬가 일정한 간격으로 있어서 위치를 알려주어 깜깜한 상황에서도 소품을 옮기고 자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

청소년이 나오는 영화나 청소년 드라마를 보면 청소년들이 일탈을 하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있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라디오라는 키워드로 학생들의 자유와 연관성을 찾아 귀신 DJ를 만들어 낸 아이디어가 너무 신선했다. 그 고스트라디오를 보고 정말 학생들을 위한 라디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뮤지컬 ‘고스트라디오’는 라디오라는 키워드로서 학생들의 자유로움을 관객에게 느끼게 해주었다. 정말 신선한 소재와 뜨거운 기를 받고 온 것 같다.

2-2. 나에게 필요한 연극의 요소들

2가지의 색다른 연극을 보고, 나는 연극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연극을 보고 나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있었다.

첫 번째는 적은 인원에서도 연극을 꼭 차게 만들게 하며 관객과 함께 하는 점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너무 연극이라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다.

세 번째는 고스트라디오처럼, 연극 안에 음악을 많이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고스트 라디오를 볼 때 마다, 음악에 춤추는 배우들이 너무나도 자유롭게 보였기 때문이다. 음악이란 요소를 첨가하면 더욱 더 자유롭고, 틀에 박히지 않은 연극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는 대본이란 틀이 있되, 틀 안에서 다른 사람이 되어 그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해야겠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그리고 희곡의 주제를 크게 하면 연극에다 교훈이나 의미를 넣기가 힘들므로 주제를 좁혀야겠다.

3. 연극의 기획과 연출

3-1. 극본 쓰기

3-1-1. 주제와 이 주제를 잡게 된 계기

연극의 주제를 정하는 건 어려웠다. 일생 한번 있는 나의 논문의 주제인 연극의 주제를 무엇으로 할까 마인드 맵 도해보고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도 해보았다. 내가 연극을 통해 관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주제를 어려워하다 연극을 좋아하던 졸업생인 최용현(20) 님의 연극이 생각났다. 은폐공작단 이라는 연극 이었는데, 그 연극을 정말 감동적으로 보았다. 그래서 난 최용현 오빠에게 논문을 위해 은폐공작단 극본을 보고 싶다고 부탁을 드렸더니 은폐공작단 극본과 만든 과정 설명, 그리고 은폐공작단을 만들기 전에 제작한 은폐공작단 소설도 보내주었다. 은폐공작단을 보면 학교 안에서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많아 늘어나는 가족회의와 스태프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은폐공작단이 학교를 평화롭게 하려는 취지로 규칙을 어기면 그 사건을 은밀히 처리해 주는 내용이다. 난 이 극본을 보고 ‘학교의 문제를 주제삼아 해도 좋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생각난 주제가 ‘자발성’ 이다.

장희숙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간디철학 수업을 듣다가 ‘사랑과 자발성’ 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었는데 학교 안에서의 사랑과 자발성의 대해서 토론을 하였다. 수업 중 장희숙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우리 학교에서 사랑과 자발성을 붙여서 부르는 이유는 상대방을 사랑해야 상대방에게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 학교를 사랑해야 학교의 대한 애정이 생기고, 자발적인 마음이 생긴다. 자발적인 것은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학교 학생들이 더욱 더 학교를 사랑하면, 학교생활 안에서 자발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와 동시에 학교를 좀 더 사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난 이 주제로 연극을 만들 것이다. 난 내 연극을 통해 학교사람들이 사랑과 자발성의 연관성을 알고, 학교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자발성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3-1-2. 내가 연극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

나의 연극을 통해 학생들이 사랑과 자발성의 의미를 알고 마음속에 새겨 넣었으면 좋겠다.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하는 것 들을 보며 학교 안의 자발성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알고 얼마나 학생들이 얼마나 학교를 사랑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3-1-3. 주제에 대한 글짓기

극본을 쓰기 전에 주제의 대해 글짓기를 해보았다.

주제: 자발성

우리 제천간디학교의 철학은 많다. 사랑과 자발성, 비폭력, 불복종,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등의 생태적인 철학들이 있다. 그중에서 우리학교 철학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사랑과 자발성은 우리 학교에서 중요한 철학이다. 하지만 우리 학교 안에서 사랑과 자발성은 많이 보이지 않고 있다.

자발성이란, 타인의 강요 없이 오로지 자신의 의지로 행동, 일을 하는 것이다. 학교 안에는 자발성이 충만한 학생이 있고, 자발성이 부족하여 학교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

하나를 예로 들자면, 매점을 가는 것도 자발적이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지만, 매점을 가도고백을 안하는 것도 자발적이지 못한 행동이다. 그 외에 음주, 흡연, 식당털이, 새컴⁴⁷⁾, 4시 전에 기숙사 올라가기, 이유 없이 주말 전에 빨리 집에 가기 등도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이 일탈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발적이지 못하며, 규칙을 어겨도 고백하지 않는 것도 자발적이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듣는 ⁴⁸⁾놀작이나 문화의 밤. 하지만 요즘에는 놀작이 학점 없는 필수형태로 가고 있고, 문화의 밤도 소감 평이라고 하면서 출석체크를 하고 있다. 과연 자발성 이 충만한 학교에서 이런 행동을 할까.

학생들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권리가 있다. 그것이 자발성의 특징이며 단점이다. 자발성을 강요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교 철학에 어긋나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억지로 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더욱 더 학교 일에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강요를 할 수는 없다. 자유학교 안에서의 자발성은 많이 힘든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학생들이 자발성 있게 해야 더 의미 있는 것이고 자발성으로 인해 학생들은 더 성장하기 때문이다. 난 학생들의 자발성 때문에 이 학교가 돌아가고 굴러간다고 생각한다.

‘사랑과 자발성’ 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이유는 사랑을 하면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 자발성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고, 친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과 같다. 이런 예와 같이 학교에서 사랑이 싹트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면 저절로 자발성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과 자발성이다.

난 학생들이 서로 사랑하고 학교를 사랑하며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면 저절로 자발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3-1-4. 글로 연극해보기

글짓기를 바탕으로 대본을 쓰기 전에, 이야기의 순서를 크게 나누어 봤다.

이야기의 발단 - 이야기 전개 - 이야기의 위기 - 이야기의 절정 - 이야기의 결말⁴⁹⁾ 순서이다.

1) 이야기의 발단

프롤로그: 프롤로그에는 연극의 들어가기 전 인사와 이야기의 진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관객에게 알려준다. / 인사와 학생들이 자발성 없이 행사를 빠지려는 것이 나온다.

1장: 프롤로그와 같이 이야기의 시작을 암시하도록 한다. / 학생들이 행사를 빠지면서 이야기 안에 학생들의 자발성의 한계가 나온다.

2장: 사건이 시작되기 전, 문제를 확실히 관객에게 알려준다. / 자발적이지 않은 학생과 자발적인 학생이 나와 대화를 하며 불만을 말한다.

2) 이야기의 전개

3장: 문제를 알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건이 시작된다. / 학생들의 자발적이지 않은 사태들의 대한 학생회 대책회의가 열린다.

4장/5장/6장: 사건이 진행된다. / 내용 안에는 학생회의 계획이 진행된다.

3) 이야기의 위기

7장 - 사건이 발각되고, 분열이 일어난다. / 학생회의 계약이 들키고 한 학생의 화로 인해 이 계획을 한 의도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47) 간디학교 용어 - 새벽에 컴퓨터한다는 뜻이 담겨있는 호칭이다.

48) 간디학교 용어 - 즐기면서 일을 하자는 뜻이 담겨있는 제천간디학교의 노작수업이다.

49) 소설의 구성단계. 발단 - 전개 - 위기 - 절정 - 결말로 되어있다.

4) 이야기의 절정

8장 - 사건은 끝이 나고, 의미를 깨닫는다. / 학생회들은 이 계략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생각해본다.

5) 이야기의 결말

9장 -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시간이 흐른 뒤 과거를 회상한다. / 시간이 흐른 뒤, 쌤과 학생회장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며 과거의 숨겨진 진실을 안다.

이야기의 틀과 과정을 정하고 이야기를 만들어갔다. 극본은 5번 정도 수정을 하여 완성이 되었고, 연습을 하면서도 콘티를 짜며 수정작업이 필요하였다.

3-1-5. 완성된 극본

추석이 같이 있었던 가정학습 때 연극의 주제를 잡고, 3주 정도 썼다.

시놉시스⁵⁰⁾

제천 간디학교의 철학인 사랑과 자발성. 학교 안에서는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 하지만 자발적이지 못한 아이들은 늘 학교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을 즐기지 않고, 일정을 빼먹고 기숙사로 올라가고 놀작, 문화의 밤 같은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은 자발적인 아이들은 참여하고, 자발적이지 못한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철학과 맞지 않는 이 사태를 보다 못한 학생회는 억지로라도 학생들을 열심히 할 수 있게 유도한다. 하지만 슬슬 한계가 온 학생회는 의문이 생긴다. ‘왜 아이들은 자발성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고민을 하다 학생들은 ‘사랑과 자발성’은 학교를 사랑해야 학교 안에서 저절로 자발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마치 상대방을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본능적인 마음처럼..

등장인물

학생1,2

후배

평범

학생회장

학생회1,2

쌤

<프롤로그> 인사

학생1,2가 나온다.

학생회2 안녕하세요! 다른 학교에서 오신 분들이죠? 저는 제천간디학교 학생회 조하한 이라고 합니다. 학교에 처음 오셔서 저희 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학교의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저희 학교는 사랑과 자발성을 중요시 하는 학교입니다. 학교의 대부분의 행사나 규칙은 학생들의 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처럼 저희학교 학생들은 시키지 않아도... 뭐... 잘 하는 편입니다. 네, 천천히 구경하시다 가세요!

50) 대략의 줄거리

학생2 어! 손님 오셨나보다. 범수야 보여? 저기 예쁜 여자가 날 보고 있어.

학생1 우와. 완전 대박. 스타일 짱어. 완전 김태희인데? (아쉬워 하며) 근데 왜 우리학교엔 저런 여자가 없지?

학생2 범수, 우리 학교에서 뭘 바래?

학생1 그래... 아! 맞다. 한새 너 오늘 문화의 밤 볼 거야?

학생2 오늘? 아 그냥 올라가고 싶은데. 오늘 문화의 밤 뭔데?

학생1 한새야, 생각해봐. 학교에서 문화의 밤 이래봤자 하는 게 뭐있겠어? 그냥 강의 같은 거 하겠지. 저번에 한 박원순 선생님의 천개의 직업 같은 거 말이야.

학생1 우리 그냥 기숙사 올라갈까?

학생2 근데 그냥 올라가면 쌤이 뭐라 할지도 모르잖아. 그 사투리 쓰시고, 태평소 잘 부시는 쌤 있잖아. 또 뭐라 할지 모르니까 앞부분 조금 듣다가 출석체크 하고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올라가자.

학생1 그럼 앞쪽만 보고 출석체크만 하고 올라가자! 아, 배고파. 오늘 저녁 뭐야?

학생2 오늘 채식식단인데. 범수야, 매점가자!

학생1 그래! 뭐 걸리면 까짓 거 고백 해버리지 뭐. 야! 라면 먹자, 라면. 그거 유해성 나 다 알아.

학생2 너가 쏘는 거지? 아싸! 가자. (관객석을 지나가며) 거기 예쁜 누나! 다음에 봐요!

퇴장.

<1장>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발성?

문화의 밤 시간. 쌤이 나온다.

쌤 지금부터 문화의 밤이 시작되니까 학생들은 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관객석을 가리키며)/ 야! 앉아!!!

쌤도 앉고, 학생1,2는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앉는다. 쌤은 학생들을 째려본다.

학생1 한새야 우리 지금 가자.

학생2 조금 있다가 가자. 지금 쌤 눈초리가 느껴지니까.

문화의 밤 지금부터 문화의 밤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 시작하겠습니다.

지루한 노래가 들리고, 학생1,2는 지루하게 문화의 밤을 본다.

학생1 야! 지금 기숙사 올라가자!

학생2 기다려봐. 옆에서 쌤이 쳐다보고 있어.

노래가 끝난다.

문화의 밤 감사합니다. 다음 곡 준비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학생2 아... 나 빨리 가서 자야 하는데 왜 2곡이나 하는 거야?

학생1 이제 올라가자. 애들 다 올라갔어.

학생2 그래! 범수, 저쪽으로 가자.

학생1,2는 도망 갈 시도를 하다 붙잡힌다.

쌤 어디 가 이 자식아.

학생1 화.. 화장실이요.

쌤 그래? 그런 자식들이 왜 가방을 들고 가 이 자식아.

학생1은 학생2를 위급하게 쳐다본다.

학생2 볼.. 볼일 보면서 책 보려고요!

쌤 그래.. 잘 싸고 책도 잘 보고 갔다 와라. 난 너희들을 아끼고 믿으니까. 갔다 와 이 자식아.

학생1,2는 안심을 하고 퇴장.

<2장> 학교의 자발성의 실태

목학 중 학생1은 과자를 먹으며 놀고 있다. 그때 학생2가 들어온다.

후배 아이고, 착신이야.

학생1 아이고, 아이고... 어린 게 무슨 착신은 착신이야. 너 왜 이리 늦게 와? 너 땀에 간식통 내가 냈잖아!

후배 나 행사 부라서 문화의 밤 보고 왔단 말이야. 형, 문화의 밤 빠졌지? 왜 그 재미있는 걸 빠졌어? 난 정말 유익한 문화를 보고 왔는데.

학생1 귀찮잖아. 차라리 기숙사에서 빈둥빈둥 거리는 게 훨씬 더 유익해.

후배 아 형! 우리 학교 철학은 품으로 있나? 사랑과 자발성! 형,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발성을 길러 보는 게 어때?

학생1 아이고.. 그런 생각은 너만 하지, 학교 학생들은 생각도 안 해. 그리고 채은, 학교에서 자발성으로 하자, 열심히 참여하자 계속 말한다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나? 문화의 밤이나 놀작 같은 자선해서 하는 것도 학교 돌아가게 하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후배 참내, 아무튼 형, 다음 주에 문화의 밤은 꼭 들어야 돼! 무려 카페이용권도 준다고.

학생1 하, 매점이 코앞인데... 이해가 안가(후배가 애원하는 눈빛을 보낸다). 알았어! 까짓거 문화의 밤 착한 형이 들어줄게! 대신 허파 좀 받아와. 돼지는 많은데 허파가 없네.

후배 싫어! 형한테 먹히는 돼지가 더 불쌍해!

학생1 (아무 말 없이 짜려본다)

후배 다녀올게.

학생1은 퍼질러 누워있고, 후배는 앞쪽으로 나간다.

후배 승룡쌤! 허파 좀 더 받아도 돼요? 감사합니다. (허파를 푸다가 하나 먹으면서) 음.. 우적우적. 우리학교 학생들은 왜 이렇게 스스로 하려는 자발성이 없지? 아.. 맛있네? 으헤헤

학생1 아니 자발성이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지. 야! 난 자유롭고 싶어! 이제 열심히 잘 거야!

<3장> 계획의 시작

수요일 6교시 학생회 회의. 학생회 장관3명이 모여 앉아있다. 회의는 마치 재판과 같이 엄숙하게 진행된다.

학생회장 (책상을 툭 친다)요즘 학교 학생들 안에 자발성이 사라진 것 같다고 안건이 나왔소.

다른 학생들은 한숨을 푹 쉬고 고개를 밑으로 숙인다.

학생회장 몇몇의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규칙을 어기고, 학교 행사를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오. 이에 대해 우리 학생회 조직은! (책상을 한번 치고) 대책방안이 필요하다고 느껴 이 안건의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아야겠소.

침묵 분위기.

학생회장 흠... 요즘 들어서 학생들의 자발성이 많이 사라진 건 나도 느꼈소. 문화의 밤을 참석하지 않고, 맨날 기숙사에 올라가지 않나! 학점 없는 수업인 놀작은 아이들의 자발성이 필요한 것인데 참으로 실전을 하지 않고 있소. 소인의 생각엔 학생들이 학교의 철학을 머릿속에 새겨 넣지 않기 때문인 것 같소.

학생회1 (손을 들며) 소인 생각도 같습니다. 자발적이든, 자발적이지 않은 학생들의 마음이니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장 말씀처럼, 학교의 철학인 자발성의 대해서 학생들에게 잘 알려주어 머릿속에 새겨 넣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회2 (벌떡 일어나며)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준다 해도 학생들은 (왼쪽가슴을 톡톡 친다) 이 가슴속에 새겨 넣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우리가 녀 놓고 학생들의 자발성만 바라고 있다면 절대 학생들에게서는 자발성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대책이 필요 합니다!

학생회1 (책상을 툭) 그럼, 어찌한단 말입니까!

학생회2 저에게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회장 오. 그게 무엇이오?

학생회1 흥, 보나마나 억지로 학생들의 자발성을 시킨다는 바보 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학생회2 바로 그것입니다.

학생회장.1 (놀란다)

학생회2 지금은 우리가 학생들의 자발성을 바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 방법은 하나, 학생들을 다른 방법으로 유혹하여 억지로라도 자발성을 발휘하게 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회1 하지만 .. 아무리 학생들이 자발성이 없다 해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회2 그럼 학교가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대로 간다면 학교는 굴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회1 음...

학생회장 하지만, 교사들과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이 분명한데, 어찌할 것이오?

학생회2 소인의 생각엔 학생들한테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우리가 비밀 조직으로 뒤에서 움직이는 것이오. 당연히 가족회의에도 이 내용은 밝히지 않고 말입니다.

학생회장 (학생회1을 보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학생회1 음.. 한번 실행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군요.

학생회장 (조심스럽게)그럼 이 계획을 실행해 봐도 되겠소?

학생회2 네!

학생회장 하지만 학생회들이 많이 수고를 해 주셔야 할 것이오. 괜찮겠소?

학생회1 괜찮습니다!

학생회2 학생들을 위한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회장 알았소.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소. 우리는 학생회의 이름을 걸고 절대로 이 일을 입 밖으로 내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모두 네에!

<4장> 학생회의 강요 / 수업

학생2가 나가다 교실을 슬쩍 본다.

학생2 어, 맞다. 수업 있었네? (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쌤! 제발 나를 잊어 먹어주세요! / 끼약~ 이제 뭐하지? 아! 전산실 가야지!

썩썩 비는 것부터 다 본 학생회1이 학생2에게 말을 건다.

학생회1 야! 한새! 어? 너 딱 보니까 수업 빠지려는 것 같다? 맞지?

학생2 응? (헤드폰을 빼고) 너 그걸 어떻게 알아?

학생회1 아무튼! 너 왜 수업 안 들어?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들어가!

학생2 야, 내가 수업을 듣든 말든 넌 무슨 상관이야?

학생회1 야! 니가 선택한 수업이야! 한새 너 수업은 듣든 말든 자유니까 한번쯤은 안 들어도 된다는 거야? 너가 선택한 수업인데도? 니 그렇게 안 봤는데...이기적이구나?

학생2 (황당한 듯이) 가..갑자기 왜 그래? 그렇게 잘못된 거야?

학생회1 (학생2를 때리며)어떻게 그렇게 무심하니? 저길 봐! 쌤이 얼마나 열심히 수업을 하시는지. 결석한 너를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뒷목을 살포시 잡는다) 내가 직접적으로 수업 들으라고는 못하겠지만, (학생2의 머리를 교실쪽으로 돌린다) 저렇게 노력하시는 쌤을 한번 봐라!

쌤 그래서 이걸 이렇고 쿨럭!! 쿨럭!! 어제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 너무 피곤 쿨럭쿨럭!! 아, 오늘 결석한 애가 누구지? 오호.. 한새였군. 난 한새에게 아주 좋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아쉽구나. 아쉬워. 아파서 결석을 한건 아닐지 걱정이 되는 구나. (하늘을 보며) 돌아 오거라, 한새야.

학생2 아.. 쌤이 날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아... 쌤! 귀찮다는 이유로 쌤에게 아무 말도 안하고 결석을 해서 정말 ... 정말 죄송해요. 뜨흑, 난 이 수업을 듣겠어! (문을 연다) 쌤! 수업하러 왔어요!

쌤 (정적 뒤) 자이 자이 자식아! 넌 죽었어, 이리와 이 자식아.

학생2는 문을 연다. 학생은 쌤께 가서 빌지만, 쌤은 학생2의 귀를 잡고 끌고 간다. 학생회는 그것을 보고 전화를 한다.

학생회1 회장, 작전에 성공했습니다.

학생회장 수고했다. 다음 작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학생회1 알겠습니다!

<5장> 학생회의 유혹/놀작

평일 6교시. 학생들은 김매기 놀작을 하고 있다. 그중에 평범은 제일 열심히 한다.

평범 (호미질을 막 하다가 들고 일어나며 땀을 닦는다) 아... 이 세상엔 이렇게 뿌듯한 일은 없을 거야. 정말 놀작을 하며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아가고 내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며

마음도 성숙해지고 1석2조라고 하나? 이제부터라도 농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겠다. 농부님! 당신을 항상 존경하는 절 보고 계시나요?

학생1 야!! 확마 니 주둥이를 주! 차비까!?(기지개를 편다) 야, 기숙사갈래?

평범 아, 아니야! 난 놀작 하고 밥 먹고 갈래.

학생1은 평범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도망가려다가 학생회2한테 붙잡힌다.

학생회2 야! 니 설마 기숙사 가게? 애들 다 하고 있잖아.

학생1 췌-! 애들이 다 하겠지. 나 하나 빠진다고 /뭐,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

학생회2 범수!! 그래도 한번 해라(친한척하듯이 어깨동무를 한다). 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놀작 좀 해라, 응?

학생1 뭐? 진짜? 갑자기 너 왜 그러냐? 부담스럽게.

학생회2 음.. 어, 아무튼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놀작 꼭해!

학생1 진심? 그래! 나야 고맙지! 야, 이따 매점 콜?

학생회2 야야, 주말에 덕산 가서 사줄게.

학생1 올~ 매점도 안가? 피식, 학생회인거 티내기는. 알았어! 놀작 할 테니까 꼭 사줘!

학생1은 호미를 들고 뛰어간다.

학생1 농부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 그지?

평범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며) 맞아! 너도 아는구나??

학생회1은 선글라스를 쓰고 수화기 흉내를 내며 전화를 한다.

학생회2 회장, 먹을 것으로 유혹하여 놀작을 하게 했습니다.

학생회장 아니, 먹을 것에 그렇게 쉽게 넘어오던 사람이 있소?

학생회2 네, 역시 김범수는 먹을 것에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학생회장 알겠소. 다음에도 수고를 해주시오.

학생회2 네, 알겠습니다.

수화기를 끊는다.

학생회2 아.. 다행이다. 돈이 아깝긴 하지만, 애들이 자발성 있게 할 수 있으면 됐지 뭐. 아..근데 이게 맞는 걸까? 아닌가? 어? 놀작 끝났다! 와야!

암전

<6장> 학생회의 협박 / 매점

학생1,2가 매점을 가고 있다.

학생1 야! 한새, 오늘 너 식사당번 아니냐?

학생2 식사당번? 그딴 거 잊어버린 지 꽤~ 오래야. 가자가자. 앗, 범수. 너 법무부 아니냐? 혹시 내가 매점 간 거 불러 버리는 거 아니지?

학생1 야, 요즘엔 법무부 장관도 매점 가는 시댄데, 뭘 소리야? 안 불러, 안 불러.

학생2 너 장관이잖아.

학생1 그니까~ 아무튼 가자! 후조쌤 눈에 찍히면 밥도 국물도 없어.

학생2 야! 숨어!

학생1,2는 조각상인 척 한다. 쌤은 지나가다 학생1,2를 본다.

쌤 뭐야 이건? 몸매도 팍이고 얼굴은... 아휴! 누가 이런 걸 가져다 논거야?

쌤이 지나가고 학생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매점에 간다.

학생2 가셨다. 이제 가자.

학생회장 등장

학생회장 야 너희 뭐야!

학생1 어! 효원이 형! 안녕! 형도 혹시 매점 가는 거야?

학생회장 너희 지금 매점 가는 거냐? 가는 거냐고.

학생2 /(쫄다)/ 형도 맛있는 거 사줄까? 나 돈 많은데...

학생회장 (머리한번 잡는다)

학생1 아니... 왜 그래 형?

학생회장 야, 뻔쳐

학생1,2는 눈치를 보다가 뻔친다.

학생회장 야, 니네 여기서 산지가 몇 년 됐는데 니들이 잘못을 한 지도 모르냐?

학생회1,2 (어쩔 줄 몰라 한다)

학생회장 너희는 가족들의 약속을 어겼어. 맛있는 것을 참을 수 있었는데 참지 못한 잘못. 그건 아냐?

학생1, 으, 응.

학생회장 후조쌤의 따듯한 마음이 피어오르는 밥을 피했어. 후조쌤의 밥보다 매점의 까까를 선택한 것. 인정?

학생2 인정.

학생회장 게다가 니들이 해야 할 일도 어긴 거 아냐?

학생1,2 (한숨)

학생회장 (학생1,2에게 다가간다) 야, 너희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학생2 어. 형 미안. 그래도 우리 고백 할 거

학생회장 (말을 가로막는다) 그래? 할거지?

학생1,2 (서로를 바라본다)

학생회장 너희 고백 안하면 (주먹을 든다. 학생1,2는 쫄다) 알겠어?

학생1 응, 알았어. 고백 (학생2에게 속삭이듯이) 야, 왜 그런 말을 했어! (학생회장 눈치보고) 고백할게.

학생회장 알았다. 가!

학생1,2는 도망간다. 학생회는 손으로 전하기 모양을 만들어 전화를 한다.

학생회장 아싸 성공했다!! 하지만.. 그저 작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을 하다니.

이 연약한 내가 말이야. 정말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선글라스를 쓴다.) 어쩔 수 없어. 우리는 학생들의 자발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 이렇게라도 해야 학생들이 매점을 안 갈 수 있다! 우오오오! 힘내야겠어!

퇴장. 그리고 학생1,2는 달려 나온다.

학생1 헉헉, 저 형 왜 저래? (울먹거리며) 완전 무서워!

학생2 그러니까. 야, 진짜 왜 갑자기 그러지? 저게 학생회장이 해야 하는 일이야? 아 완전 짜증나네.

학생1 이건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규칙을 어겼어도, 협박을 하는 게 맞는 건 아니잖아!

학생2 요즘 이상해. 요즘에 무언가에 억압 받는 기분도 들고, 누군가에게 낯이는 기분도 들어. 내가 왜 그런지 알아볼게. 기다려줘, 범수!

학생1 (손을 잡으며) 한새! 부탁해!

<7장> 계획의 의도

학생회 2명이 만광에서 진지한 고민에 빠져 있다.

학생회2 응 할 말이 뭔데?

학생회1 하...우리 솔직하게 말하자. 넌 우리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학생회2 (머리를 긁적거리다)요즘 내가 양심이 찢리는 느낌이 많이 들어. 저번에 놀작을 하는데 애들한테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놀작 꼭 하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학생들을 못 믿는 걸까?

학생회1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 하지만 우리들의 계획들 할 때마다 학생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자발성을 위해 한 일이라고 단정 짓고 말았어. 저번에 후배들에게 혼낼 때 도 생각했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 걸까?

학생회2 근데. (궁리를 한다)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도 학생들이 자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학생들은 고민한다. 머리로 쥐어뜯는데 학생2가 나온다.

학생2 저기, 너희 학생회지?

학생회2 왜 그래? 한새야, 갑자기 우리한테 무슨 일로.

학생2 너희 학생회들이 학생들한테 자발성이 없네 뭐라고 하고 다닌다며? / (학생회1,2는 들켰다는 표정) / 넌 저번에 나한테 수업 들으라고 강요 했지? 너희가 뭔데, 무슨 권한으로 학생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학생회1 그게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학교 학생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학생2 그걸 누가 좋으라고 하는 거야?

학생회1 그거야! 당연히.

학생2 우리들을 못 믿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냥 귀찮으면 안한다고 생각하는 거 맞잖아! 너희들에 의도는 좋지만 그건 인권침해라고!

학생회2 야! 너를 못 믿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한새 너가 믿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할 것 아니야.

학생2 학교는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유학교지, 학생을 속이고 억지로 시키고 협박 한다고 자유학교가 아니잖아. 우린 학교 안에서라도 압박을 받고 싶지 않다고. 너희가 하는

일은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야.

학생2는 퇴장한다. 학생회1,2는 병 찜있다.

<8장> '사랑'과 자발성

학생회장이 회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학생회장 회의요 회의! 어서들 오시오!

학생회장 1,2가 비틀비틀 거리면서 나온다.

학생회장 (광)왜... 왜 쌤이 아시는 거지? 누가 말한 거지? 계획은 잘 되어가고 있었는데! 누구요!

학생회1 회장님. 사실, 제가 말하였습니다. 저희의 계획의 대해서 쌤들께 말하고, 이 계획을 중단하고 싶었습니다.

학생회장 뭐라고? 어째서 배신을 한 건가!

학생회1 우리의 계획은 쓸모없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학생회2 맞습니다! 저희들은 학생들이 학교에 자발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든 상관 않고 학생들에게 행했습니다.

학생회장 (머리를 숙이고 침묵)

학생회1 단지 학생들의 자발적인 마음만을 바라고 어떤 것이든 상관 않고 한 것이 우리였지요. 하지만 학생들의 인권, 자유를 저희가 막아버렸어요!

학생회2 우리가 학생들에게 한 강요와 유혹, 그리고 속임수들. 그것들은 우리가 학생들의 자발성을 믿지 못한 것을 뜻해요!

학생회1 우리들의 방법은 학생들에게 독이 되었던 거예요!

학생회장 그저, 문제없는 학교를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학생회1 저희들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나빴을 뿐이에요. 회장님. 우리 학교의 철학이 그냥 자발성이 아니에요. 사랑과 자발성이예요! (학생회1은 서서히 일어나고 학생회장, 학생회2는 학생회1을 쳐다본다.) 상대방을 사랑하면 자신에게 자발성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발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학교 안에 사랑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학생회2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바꿔야 합니다. 친구끼리 나 쌤들의 관계가 편안해지고 선후배 안에 위계질서가 없어지는 것. 학교를 위해서가 아닌 학생을 위해서 말입니다.

<9장> 후에

10년 후, 테이블에 쌤이 술을 마시고 있고, 학생회1이 두리번두리번 거리며 나타난다.

쌤 야! 오랜만이다. 이게 몇 년 만이냐... 14년 됐지?

학생회장 벌써 그렇게 됐나? 애들 연락처도 아는데 없어서 쌤한테 연락 드렸어요! 한번 보고 싶어서.

쌤 그래! 야 한잔 하자.

학생회장 오늘은 끝까지 달릴 거예요!

학생회는 잔에다가 술을 따르고 헛바닥을 잠시 담갔다가 뺀다.

학생회장 으에. 내가 주량이 이렇게 밖에 안 됐나? 나 중학교 때는 진짜 잘 마셨는데.

쌤 그건 술의 대한 예의가 아니야 이 자식아. 마셔마셔! (안주를 씹으며) 맞다, 00이 너 고등학교 때 나한테 술 먹다 걸렸지? 기억나?

학생회장 맞아요! 승룡 쌤 한테 안 들키게 먹으려고 했는데 하필 쌤이 있어가지고. 제 술 뺏어 으셨죠, 아마?

쌤 맞아! 올~ 용케도 기억을 하네.

학생회장 쌤, 학창시절에는 자유롭고 싶었다고요. 아! 생각해보니 저 우등생 시절도 있었어요! 생각나세요? 나 학생회장 했을 때, 학생회끼리 사건 일으켜서 막 혼났는데.

쌤 그게 우등생이나 이 자식아. 그 자발성이 사람 맘이지 귀찮게 그런 걸 왜 했냐?

학생회장 처음부터 자발성 없는 애들에서는 자발성이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한 저희가 잘못이었어요. 학생들을 믿지 못한 것도 잘못이고.

쌤 그게 그거야 임마. (한잔 마시고) 솔직히 어릴 때는 그걸 하는 것 자체가 자발성이 넘치는 거지. 뭐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학생회가 자발적으로 한 거니까 말이야. 잘못 한 건 아니야 임마. 힘내 임마! 에이 술 맛 떨어지게.

학생회장 (한숨) 솔직히 자유와 자발성은 참 애매한 관계예요. 하고 싶은 걸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자유, 하기 싫어도 내가 먼저 하는 자발성. 사실 마음이 넓지 않은 이상, 마음내서 자발적으로 할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자발성은 자유에 포함되고. 억지로 하는 게 자발성 이예요?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게 자발성 이예요?

쌤 (우물쭈물하다)하, 이 자식 무슨 옛날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 자, 자! 마셔!

학생과 학생회는 건배하고 한잔 하고를 3번 반복한다.

쌤 하나 물어봐도 되냐?

학생회장 뭔데요?

쌤 아까 이야기 한 거 있잖아. 학생회 사건 이야기. 그때 너희 학생회는 그렇게 사건을 끝냈냐? 뒤에 학생들이 좀 활발해 진 것 같아서 그대로 계획을 끝낸 건 아닌 것 같다는 사 나이의 감이다.

학생회장 쌤, 저희가 힘들게 진행했던 계획을 실패했다고 그냥 물어버리기엔 너무 큰 사건이었어요. 깨달은 것도 많고. 당연히 마무리는 깔끔히 했다고요.

쌤 그래? 뭘 했는데?

학생회장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또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학교 안에 사랑을 키워 자발적인 학교를 만들고 싶어서요. 그저 학생들끼리의 끈 끈해지는 것을 옆에서 도와줬을 뿐이에요. 친구끼리의 일을 풀어준다든가, 고민 상담을 해 준다든가. 아주 작고 사소한 일 부터 말이에요.

쌤 와. 잘했네. 근데 그런 건 왜 알리지 않았어? 귀찮게 그런 것 까지 하는 걸 알았으면, 칭찬 해줬을 텐데.

학생회장 그때, 우리는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아서 그랬어요. 쌤, 누가 자발적으로 하는 데 대가를 바라요?

쌤 조금 멋진데?

학생회장 해했.

쌤 (책상을 광 치고) 철없을 때 이야기는 다음에 심심풀이로 하고. 이제 그만 가자.

학생회장 그래. 이번 건 내가 쓸게요! 자발적으로.

쌤 당연한 거 아니냐? 선생님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학생회장 아. 그런가? 아하하 가요!

암전

3-2. 몸으로 연극해보기

3-2-1. 발성법

대본을 다 쓰고 무대 위에서 연습하기 전, 연극의 기초적인 발성법을 배우기 위해 김윤하 선생님을 찾아가서 발성법과 복식호흡⁵¹⁾을 배웠다.

<연습하기 전 발성 연습>

1. 10초 동안 조금씩 쉬지 않고 숨 들이마시기.
2. 목을 열어놓고 단전에 힘을 주고 길게 소리내기(이때, 몸이 울리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
3. 목을 열어놓고 단전에 힘을 주고 스타카토 같이 짹짹 소리내기.
4. 한 숨에 짧은 대사 읊어보기.
5. 한 숨에 긴 대사 읊어보기.
6. 다리운동을 하며 단전에 힘을 주고 ‘쿵- 파리- 쿵- 따!’ 하기.

3-2-2. 연극 연습 과정

연습하기 전에는 극본을 배우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연습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무대 위치와 대사를 맞추면서 콘티를 짜고, 나머지 연습 때는 그 콘티를 바탕으로 연습하였다. 배우들의 시간을 생각해서 시간 있는 사람만 파트별 연습을 하고 다 같이 모였을 때 전체연습을 하였다.

3-2-3. 연극 연습 일지

<첫 번째 연극연습 일지>

2011.10.4.화요일. 3:00~4:00 강당.

배우들과 시간이 안 맞아서 끌어 모으는 게 힘들었다. 힘들게 모여서 대역을 설명해 주고 무대 위치에 맞추어 대사를 읽는 연습을 했다. 정말 캐스팅을 잘했다고 생각한 것이 진지하기만 한 연극을 배우들은 재밌고 코믹하게 바꿔버린다. 또 알게 된 것은 내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같이 대사를 받고 치는 배우와 다르게 신나게 날뛰면서 연극을 했는데 다른 배우에게 ‘너무 다른 배우들의 비해 튀고 산만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때, 연극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맞추면서 하는 것을 느꼈다. 콘티는 4장까지 짰다.

<두 번째 연극연습 일지>

2011.10.6.목요일. 6:30~8:00 강당

배우 중 한명이 빠져서 마지막까지 콘티를 다 못 짰다. 나의 실수인지, 그 배우의 불 협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 논문의 위기를 느꼈다. 너무 무기력했지만, 배우들의 활기가 넘쳐서 열심히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극에서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연극이 조잡해지는 것도 있고, 관객에게 확실한 의사 전달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 같이 모이는 시간도 짰다. 콘티는 7장까지 짰다.

<세 번째 연극연습 일지>

2011.10.7.금요일 3:00~3:30 국어과교실

배우들이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 몇 명은 수업을 가고, 개인생활을 한다. 그래서 오늘은 일찍 온 후배를 파트 연습을 시키기로 했다. 후배에게 콘티대로 알려주고 어떤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한 뒤 대사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줬다. 잘 따라와서 좋았지만, 늦는 사람들에게 정말 화가 났다. 대본도 다 못 외우는데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정말 늦게 온 사람들에게 화가 났지만, 열심히 하자고 빵을 사줘서 기분이 사르르르르르 풀렸다. 하지만 다 모이지 못해서 기숙사에서 연습을

51) 아랫배를 이용한 호흡방법.

하기로 했다. 콘티 6장까지 짰다.

<네 번째 연극연습 일지>

2011.10.7. 금요일 10:00~12:00 기숙사 다목적실

오랜만에 배우들이 다 모였다. 초반에 회의를 하다가 연습에 들어갔다. 콘티대로도 맞추는 것을 중심으로 했다. 어색한 부분은 고치고 나오고 들어가고 위치 잡고 대사를 외워서 하면서도 해봤다. 한번 맞추어 보니 시간이 다 돼서 평가 하고, 연습시간을 잡고 끝냈다. 공연발표 날짜를 정하지 못해서 최종발표를 목표로 빠르게 연습을하기로 했다. 배우들에게 맛있는 거 사줘야겠다.

<다섯 번째 연극연습 일지>

2011. 10.9. 일요일 1:10~2:15 강당

배우들이 다 모이는 시간으로 정했다. 새로 캐스팅 한 이정상 선생님과 함께 7명이서 했다. 대사만 조금 더 외우고, 관객들에게 대사전달만 잘하면 완벽할 것 같다. 스위치를 조명으로 해서 조명과도 맞추어서 어느 부분에서 암전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 불이 켜지는지 알고 무대와 맞추어 보았다. 그리고 배우 중 1명이 덕산에 나간 사이에 쉬는 시간을 가졌다. 그때 김수자 선생님을 만났는데 최종발표 때 까지 연극을 못 올리니 한 파트를 연습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지금의 연습 상황과 공연발표 날짜를 최종발표 때 발표를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4시부터 2파트만 연습하고 동영상으로 찍었다.

3-3. 연출하기

3-3-1. 캐스팅 과정

연극의 배우를 캐스팅을 하기 전에, 원래 목소리 성량이 큰 사람으로 하려고 했다가 배역과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 더 연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극본을 읽고 또 읽어서 등장인물과 어울리는 사람으로하기로 했다. 학교 학생들 중 4학년은 필리핀에 가 있었고, 6학년은 인턴십을 가 있었고, 3학년은 논문을 쓰느라 바쁘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4학년 중에서 정해야 했다.

먼저 등장인물 중 규칙을 안 지키고, 불량학생 역할인 학생1과 학생2를 생각해 보았다. 규칙을 안 지킬 것 같은 사람이면서, 꿈을 쓸 것 같은 이미지의 사람을 생각해보다가 원래 문화의 밤 역할로 하려고 했던 김한새(2학년 남)학생이 너무 불량학생 이미지에 어울려서 학생2로 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학생1은 원래 여자로 하려고 하다가 지나가던 김범수(5학년 남)학생을 보고 김한새 학생과 콤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았고, 옛날에 연기 하는 것을 보고 잘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학생1 역할로 정해졌다.

그리고 전효원(5학년 남)학생을 극본이 완성되기 전 먼저 캐스팅을 해 놓았다. 전효원 학생은 예전에 연극을 하는 동아리 소속이었고, 목소리 성량도 좋으며 감정 표현을 잘 하는 학생이라서 연극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면서 흥미진진한 연기를 할 것 같았다. 연극의 중심이면서 진지한 역할의 학생회장 역할로 정했다.

쌤 역할은 원래 다른 배우들에게 다역을 시키려고 했는데, 나오는 횟수도 많았고, 쌤이란 역할을 학생이 소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쌤 역할을 정하던 중 개성이 뚜렷하고 표현이 약간 거칠지만 확실한 이정상 쌤(선생님 남)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정상 선생님은 약간 개그요소로 사용될 듯하다.

그리고 학생회역을 생각하다가 학생회는 학생들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연극에서 본보기라고 하면 학교 안에서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것을 열심히 한다는 것 과 자발성 있게 하는 학생이며 무엇보다도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는 학생이다. 내가 생각하는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 조하한(2학년 남)학생회2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학생회1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역할인 후배 역할과 평범 역할은 1인2역 할 배우를 찾아야 했는데 생각해 보니 지

금까지 나온 배우들만 한다면 칙칙하다는 생각을 하여 1학년 중에서 고르게 되었는데 후배 역할은 모범생이며 자발성이 넘쳐나고, 선배에게 종알종알 되는 역할이었다. 그리고 평범 역도 모범생 역할이었다. 난 그 역할에 어울리는 손채은(1학년 여)학생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

캐스팅은 배역과 성격이 비슷한 사람, 무대를 장악할 수 있는 사람, 자연스러운 연기가 가능한 사람으로 하였다. 캐스팅을 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하기도 했지만 사정사정 말해서 허락을 맡아서 한 학생도 있고, 흔쾌히 허락한 학생들도 있고, 먼저 도와주겠다고 한 학생들도 있었으며, 단원들과 회의를 하여 어울리는 사람을 결정하기도 했다. 다양한 계기로 캐스팅을 하였고, 힘든 과정 속에서 캐스팅을 하였다.

3-3-2. 연출을 위한 나의 연극 정리

1)주제

자발적인 것은 남이 강요와 압박을 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해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이다.

2) 캐스팅

극본을 보고 배역에 어울리는 사람들을 캐스팅 하고 극본을 나누어주었다. 원래 혼자 하려고 했던 연극인만큼 배우들의 수를 최소화를 시키기로 하였고, 그래서 1인2역이 나오게 되었다.

학생1 - 김범수(5학년 남)

학생2 - 김한새(2학년 남)

학생회장 - 전효원(5학년 남)

학생회1 - 김현정(본인 여)

학생회2 - 조하한(2학년 남)

후배&평범 - 손채은(1학년 여)

쌤 - 이정상(선생님 남)

2) 콘티

연출을 하기 위해 나의 연극을 정리했다.

처음 연습을 할 때, 인물들이 어떤 무대의 위치에 서야 하고 움직여야 하는지 정리하기 위해 무대에 맞게 콘티를 짰다. (관객석을 바라보는 배우의 입장)

등장인물	성격	의상&분장	소품
학생1,2	규칙을 안 지키고 학교 일에 흥미를 갖지 않고 자유를 원하는 평범한 학생들.	불량스러운 복장 불량스러운 분장	책가방
후배	학교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규칙을 잘 지킨다.	편안한 복장	책가방
평범	뭐든지 열심히 하고 재밌어 한다.	손수건, 츄리닝 흙이 묻어있는 분장	호미
학생회장	엄격하고 명령을 하는 사람이다. 학생들을 위하지만 때로는 엄격한 사람이다.	단정한 남방 / 9장: 어른스러운 복장	선글라스
학생회1,2	학생들의 자발성을 위해서 학생들을 속이고 유혹한다.	단정한 남방	선글라스

썸	학생들의 자발적이지 못한 행동들을 눈치 채지 못하는 순둥이 썸.	편한 옷 /9장: 어른스러운 복장	특징적인 것: 예)농구공
---	-------------------------------------	--------------------	---------------

3)등장인물 설명과 소품

4). 무대의 조명, 소품, 음향 .

5) 공연 소요시간

약 30분

6) 공연날짜

공연일시 : 2011. 10. 19. 수요일

프롤로그	1. 왼쪽에서 학생회2가 천천히 나온다. 2. 무대의 중심에 서고, 무대 앞쪽 주변을 돌아다니며 대사를 한다. 3. 대사가 끝나면 학생회2는 무대를 돌아서 오른쪽으로 사라진다. 4. 오른쪽에서 학생1,2가 이야기하며 나오고, 관객석에서 시선을 두었다가 대사가 시작되고 앞쪽의 왼쪽에 나와서 대사를 한다. 5. 대사가 끝나고, 마지막 대사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관객석을 향해 대사를 하고 오른쪽으로 사라진다.	<처음 자리> 원: 학생회2 오: 학생1,2 <끝날 때 자리> 원: 학생회2 오: 학생1,2
1장	1. 왼쪽에서 썸이 나오고 무대 정 중앙에서 대사를 치고 그 자리에서 앉는다. 2. 학생들은 오른쪽에서 살금살금 나오며 썸 뒤에서 주먹질을 관객석 앞 왼쪽에 앉는다. 3. 뒤에서 노래가 나오고, 썸은 박수를 치며 환호하며 듣고, 학생들은 지루하게 듣는다. 4.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곡 준비할게요.’ 라는 말과 함께 노래가 끝나고 학생들은 대사를 친다. 5. 대사가 끝나고 학생들은 조심이 일어나 썸 뒤로 도망치다 걸리고 서로 대사를 치고 학생들은 오른쪽으로 도망친다. 암전	<처음 자리> 원: 학생회2(마이크)/썸 오: 학생1,2 <끝날 때 자리> 원: 학생회2(마이크) 오: 학생1,2 무대: 썸
2장	1. 불이 켜지고 학생1은 무대 왼쪽에서 사선으로 누워서 만화책을 보고 있다. 2. 왼쪽에서 후배가 나오면서 학생1을 한심하게 쳐다보고 오른쪽 무대 중앙에 앉으면서 대사를 친다. 3. 학생1과 후배는 가끔씩 일어나면서 대화를 하다가 일어나 있을 때 후배는 대사를 치고 관객석 앞쪽으로 나와서 간식을 푸는 시늉을 한다. 4. 학생1은 대사를 치고 누워서 자고, 후배는 대사를 치고 간식을 하나 먹는 시늉을 하고 대사를 친다. 일어서 있으며 암전	<처음 자리> 원: 후배 무대: 학생1 <끝날 때 자리> 무대: 후배/학생1
3장	1. 불이 켜지고 무대 정중앙에 책상과 책상을 둘러싼 의자3개에 학생회장, 학생회1,2가 앉아있다. 2. 엄숙한 분위기에서 학생회장은 책상을 쿵 치고 엄숙하게 대사를 시작한다(대사를 치면서 관객석을 한번 훑으면서 대사를 친다). 3. 마지막에는 다 앉아있는 상태에서 암전.	<처음 자리> 무대: 학생회장/학생회1,2 <끝날 때 자리> 무대: 학생회장/학생회1,2
4장	1. 불이 켜지고 썸은 수업을 하고 있다.	<처음 자리>

	2. 쌤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가 왼쪽에서 학생2가 나와서 무대의 중앙쯤에서 멈추면 쌤은 무음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3. (수업을 하시는 쌤을 보고 들킬까봐 걱정하는 표정을 짓는다)학생2는 무대중앙에서 쌤을 향하여 살짝 빌고 대사를 친다. 그리고 돌아서 표정을 180도 바꾸고 행복한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간다. 4. 학생2가 살짝 빌 때 학생회1은 오른쪽에서 나와 쌤과 인사하고 학생2를 발견해서 학생2에게 슬그머니 대사를 친다. 5. 대화를 하며 학생회1은 일방적으로 학생2를 치면서 대사를 하고, 대사가 끝나고 학생회1은 눈물을 닦으며 도도하게 왼쪽으로 나간다. 6. 학생2는 잠시 어이없어 하다가 교실을 훑쳐본다. 7. 그때부터 쌤은 목소리가 나오면서 수업을 하다 대사를 친다. 8. 쌤의 대사가 끝날 때 학생2는 대사를 하고 쌤에게 달려가고 쌤은 학생의 귀를 잡고 같이 오른쪽으로 퇴장. 9. 둘이 퇴장하기 바로 전에 왼쪽에서 학생회1은 퇴장하는 걸 보면서 중앙으로 온다. 학생회1은 선글라스를 쓰고, 손으로 전화기 모양을 만들고 대사를 치고 목소리로만 학생회장은 대사를 치고 학생회1이 중앙에 있는 채로 암전.	오: 학생2 원: 학생회1 무대: 쌤 <끝날 때 자리> 원: 오: 학생, 쌤 무대: 학생회1
5장	1. 불이 켜지고 학생들은 오른쪽 사선으로 호미질을 하고 있다.(평범-학생1-학생회2) 2. 평범은 더 열심히 호미질을 하고, 일어나서 땀을 닦으며 대사를 친다. 3. 학생1이 듣다듣다 못 참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평범을 향해 대사를 치고 왼쪽으로 간다. 4. 좀 떨어져 있던 학생회2가 붙잡고 대사를 친다. 5. 학생회2가 제안을 할 때, 학생회는 일어나서 대사를 한다. 6. 대화가 끝나고, 학생1은 기분 좋게 뛰어가서 평범과 대화를 한다. 7. 학생회2는 선글라스를 쓰고 전화를 하고 학생회장과 대화를 한다. 학생회장은 오른쪽에서 머리만 살짝 내밀고 대사를 한다. 8. 학생회장과의 대화가 끝나고, 학생회2는 여린 소녀처럼 대사를 치고 암전.	<처음 자리> 원: 학생회장 무대: 평범/학생1/학생회2 <끝날 때 자리> 원: 학생회장 무대: 평범/학생1/학생회2
6장	1. 불이 켜지고 왼쪽 앞에서부터 학생1,2가 걸어간다. 중앙에서 왼쪽쯤에 멈춰서 학생1,2는 대화를 한다. 2. 대화가 끝날 때, 쌤이 오른쪽에서 천천히 지나간다. 학생1,2는 점프를 해서 뒤에서 납작 엎드린다. 3. 쌤은 두리번두리번 거리며 대사를 치고, 학생들은 1,2는 일어나서 학생회1,2가 오른쪽 까지 갔을 때, 왼쪽에서 학생회장이 나오고 대화 시작. 4. 대사가 끝나고, 학생1,2는 왼쪽으로 퇴장. 5. 학생회장은 무대 가운데에서 대사를 치고 오른쪽으로 퇴장. 6. 왼쪽에서 학생1,2가 뛰어나오고 무대 중앙에서 대화. 그리고 암전.	<처음 자리> 원: 학생회장 오: 쌤 무대: 학생1,2 <끝날 때 자리> 원: 쌤 오: 학생회장 무대: 학생1,2
7장	1. 불이 켜지고 무대 중앙에 학생회1과 학생회2가 책상과 의자에 각각 걸터앉아있다. 2. 학생회2는 활기차게 대사를 치지만, 학생회1은 엄숙하게 대사를 치며 시작한다. 3. 학생회1,2는 일어서서 생각을 하고 앉아서 생각을 하고 누워서 생각을 한다(애드리브). 4. 오른쪽에서 학생2가 등장하고 학생회1,2는 어리둥절하며 대사를 시작한다. 5. 대사가 끝나고 학생2는 왼쪽으로 퇴장. 학생회1,2는 병 찜 있고 암전.	<처음 자리> 오: 학생2 무대: 학생회1,2 <끝날 때 자리> 원: 학생2 무대: 학생회1,2

8장	1. 불이 켜지고 학생회장이 가운데 의자에 앉아있다. 2. 학생회장이 ‘회의요! 회의!’ 라고 대사를 치고, 학생회1은 왼쪽에 학생회2는 오른쪽에서부터 축 쳐져서 천천히 나와서 의자에 앉는다. 3. 학생회장과 학생회2는 책상에 엎드려서 울고, 학생회1은 우물쭈물하다가 대사를 친다. 4. 학생회1은 대사를 치면서 왼쪽 대각선으로 앞으로가서 관객석 앞까지 간다. 학생회2는 대사를 치면서 오른쪽 대각선으로 앞으로 가서 관객석 앞까지 간다. 5. 마지막으로 학생회장은 책상을 치로 일어나서 대사를 친다. 6. 학생회1,2는 대답을 하고 암전.	<처음 자리> 원: 학생회1 오: 학생회2 무대: 학생회장 <끝날 때 자리> 무대: 학생회장
9장	1. 무대 가운데에 카페같은 책상에서 학생회장은 책을 보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쌤이 나오고 대사. 2. 대사가 끝나고, 쌤과 학생은 오른쪽으로 들어간다. 암전	<처음 자리> 오: 학생회장 무대: 쌤 <끝날 때 자리> 오: 학생회장, 쌤

4. 연극 발표

4-1. 관객들의 연극 평가

공연을 끝내고 관객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 대자보를 붙여 냈다.

관객들이 나와 배우들에게 응원하는 글이 대부분 이었고, 내용이 재밌다 거나 흥미진진했다는 호평이 있었다. 그리고 몇 개의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다.

- 결말이 흐지부지하게 끝난 것 같아 미흡했다.
- 암전 시간이 길었다.

이 외에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대부분의 지적들은 결말이 미흡했다는 의견이었다.

4-2. 나의 연극 평가

결과가 많이 미흡했고, 소품 스텝을 정하지 않아서 소품을 옮길 때 꼬여서 아쉬웠다. 그리고 관객들과의 소통을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해 많이 아쉽다. 하지만 이런 실수들로 인해 연극의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간디인 들이 응원을 해줘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순서	등장인물	무대소품	조명	음향
프롤로그	학생회2 학생1,2	x	노래가 나오기 전부터 조명은 켜져 있다.	시작 BGM - 경쾌하게 나레이션과 함께 나온다. (나레이션보다 빨리 틀고, 나레이션의 대사가 중간쯤 뒀 을 때, 소리는 점점 줄어든다.) 마이크 - 나레이션
1장	학생1,2 쌤	x	학생1,2가 들어가고 암전 된다.	문화의 밤 - 지루한 노래 /하한이 의 노래 (짧게 20초 정도) 마이크 - 학생회2
2장	학생회1 후배	배게, 간식통	불이 켜지고, 학생1이 마지막 대사를 하고 암전이 된다.	X
3장	학생회장 학생회1,2	책상1, 의자3개	소품 세팅이 다 되면 불이 켜지고, 학생회1,2가 같이 대사를 하고 불이 꺼진다.	회의 시작 BGM *불멸의이순신 - 칼의 노래 사극의 노래로 해서 진지한 학생회 회의를 연출한다.(초반에만 나오다 가 줄어든다.)
4장	학생2 학생회1 쌤	칠판	소품 세팅이 다 되면 불이 켜지고, 학생회1이 대사를 끝내고 암전.	X
5장	학생1 학생회2 평범	호미3개	불이 켜지고, 학생회2가 혼잣말을 할 때 불이 꺼진다.	배경 BGM *타루 - 예뻐할게 산뜻한 노래로 하여 행복하게 일을 한다는 의미로 쓰여지는 배경노래 이다. (평범이 말을 할 때 나오고, 학생1 이 소리 지를 때 멈춘다.)
6장	학생1,2 학생회장 쌤	x	불이 켜지고, 학생1,2가 대사를 끝내고 암전.	학생회장 등장 BGM *2ne1 - 내가 제일 잘나가 학생회장이 제일 잘나간다는 뜻으 로 쓰여진 학생회장 등장노래. (학생회장이 말을 시작하고 노래가 틀여진 후 학생회장 등장 그리고 서서히 줄어들음)
7장	학생회1,2 학생2	의자2개	불이 켜지고 학생회1,2의 대화가 끝나면 암전.	x
8장	학생회장 학생회1,2	책상, 의자3개	소품 세팅이 다 되면 불이 켜지고, 학생회1,2의 대사를 마지막으로 암전.	회의 시작 BGM *불멸의 이순신 - 칼의 노래 (사극의 노래로 진지하게 시작 됐다 가 학생회1,2가 등장하고 나서 노 래는 똑 꺼진다.)
9장	학생회장 쌤	카페책상, 의자3개, 술병과 잔들	소품 세팅이 다 되면 불이 켜지고, 쌤, 학생회장이 나가면 불이 사르르 꺼진다.	술집 노래 BGM *빅뱅 - cafe 분위기 있는 노래로 학교와 다른 분위기를 보여준다. (처음부터 착 깔고 틀다가 줄어들음)



Ⅲ. 결론

1. 연극을 끝내며

나는 연극을 많이 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다. 단지 지금의 내 성격에 어렸을 때처럼 내가 무대에 서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 이 논문을 시작하게 되었다. 논문을 쓰면서 연극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줄 몰랐다. 연극을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아는 선배님이 한 극본을 참고하며 쓰다가 모방인 것 같다는 지적을 받아 며칠 동안 슬펐었다. 난 정말 극본의 기본적인 형식을 참고 한 거지만, 그런 말은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 같아 더욱 더 슬펐다. 그리고 배우들도 시간이 있는데 내 논문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것도 미안했고, 고생하면서 연습하는 거 보면 ‘내 논문이 배우들의 에

너지를 쏟아 부을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났다. 배우들 시간 맞추는 것도 힘들었고, 하기 싫다는 배우들을 연습시간에 끌고 오는 것도 힘들었다. 그저 연습시간에 연습을 하지는 게 나의 욕심인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다.

정말 나쁘게도 나는 힘들 때 배우들 탓을 했다. 배우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욕심이 과했던 나는 배우들이 힘들 정도의 스케줄을 짜고, 배우들이 시간대로 안 오면 정색을 하고, 배우들도 개인적인 시간도 필요했는데, 급했던 나는 배우에게 설득을 하지 않고 조르는 듯이 해 버렸다. 저번에는 배우가 내 극본에 대해 지적을 해 줬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쌓였던 나는 그냥 물어버렸다. 정말 같이 하는 건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연극을 써보며 힘들었던 점이 만만치 않게 많았지만, 재밌었던 점도 있었다. 극본에 대해 칭찬을 받았을 때도 좋았고, 배우들과 같이 열심히 맞추어 보는 것도 재밌고 뿌듯했다. 그리고 생전 안 해 본 ‘내가 지휘하는’ 연습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신기하고도 좋았다. 같이 하는 게 힘든 점도 있지만, 재밌는 점도 있는 것 같다. 원래 나서지 않던 내가 연극의 총 책임자로서 배우들, 스태프와 같이 움직여야 했으니 많이 애먹었다. 하지만 총 책임자로서 더 강해져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책임감이 생겼다.

한 번도 안 접해본 연극의 시작은 많이 힘들었지만,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거친 과정을 지나 비로소 내 논문이 완성 됐다니,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별첨자료

전국교사연극모임 연극연수 참가기

나는 8월 10일부터 8월 16일 까지 하는 전국교사연극모임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연극연수에 다녀왔다. 원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인데 엄마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서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연수를 갈 수 있게 되었다.



<첫 날에 한 즉흥연기 사진>

첫날에는 인사와 연극놀이를 하였다. 연극을 하기 전에 몸을 푸는 것이다. 1주일 안에 연극 만드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연극놀이 같은걸 2틀씩이나 한다니. 황당했었다. 하지만 그 며칠 뒤에 연극을 연기할 때 술술 잘 나왔다. 난 그것이 연극놀이덕분이었다.

연극놀이는 돌아가면서 즉흥연기, 예술적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기, 괴물 난쟁이 마녀 가위바위보 등의 별별 몸 움직이는 놀이는 다 했다. 재미있기도 했지만, 몸에 있던 무언가가 풀어지는 기분이 들어 좋았다.

둘째 날에도 어김없이 연극놀이를 했다. 셋째 날에는 팀 별로 했다. 연극 팀 중에서는 대본 팀, 문학 팀, 옛이야기 팀, 우리이야기 팀이 있었다. 난 그중에서 문학 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첫 날에는 윤홍길씨의 문학작품인 '종탑아래에서' 라는 책을 다 같이 읽었다. 그 문학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문학 팀 안에서는 소품으로 그 시대 배경을 만들어보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한 인물이 되어서 시간을 살아보았다. 난 주인공인 명은이 역을 맡았는데 마치 책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감정몰입이 잘 되었다. 마지막에 명은이가 소원을 빌며 종을 치는 장면이 있는데 정말 '내가 그랬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서 더욱 더 슬펐다. 주인공들의 프로필을 써 보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인터뷰를 해 보아서 인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았다. 그리고 5째날 역할을 정했는데 고양이 역을 맡게 되었다. 고양이 역할은 작고 볼품없는 거 인줄 알고 슬펐는데 의외로 관객에게 주목이 되었다. 연극 사이사이에 개

그코드도 넣어봤고, '고양이가 어떤 행동을 하지?' 하며 생각도 해 보았다. 아주 작은 역할이었지만 너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이 연극연수에 특징은 대본이 없다는 것이었다. 나야 대사가 야옹밖에 없었지만 행동이나 등장 퇴장이 틀에 박히지 않고, 철저히 그 소설 안에 인물이 되어 자연스럽게 '지금은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구나' 하고 느껴졌다. 대사를 외우는 시간 보다는 등장인물들의 상황, 성격을 이해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제일 좋았던 것은 대본에 의지하지 않고 소설 안에 인물을 파악하며 무대 위에서 다른 사람이 되어본다는 것이 정말 재미있었다.



<연극연수 문학팀 포스터 - 연극 '내 귀에 종소리' >

연수를 다녀와서 사람들과 친해져서 좋았고 무엇보다 틀에 박히지 않은 즉흥연기를 해보아서 좋았다.

Thanks to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맙지만 조금, 아주 조금 더 고마운 사람들. 아니 조금 많이 고마운 사람들!★

★내 사춘기 짜증 파워를 다 받아준 엄마★옆에서 엄마편만 들어준 아빠★컴퓨터 빼앗겨도 쿨하게 넘겨주고 연극까지 도와준 범수오빠★나한테 은폐공작단 극본을 보내준 용현 오빠★내 연극 도와주고 충고 막 해준 효원 오빠★트로트는 안 했지만 연극 도와준 한새★바로 콜 해준 하한이★내 연극도 도와주고 내 대본 파트너까지 해준 채은이★발성법 가르쳐주시고 내가 막 찡찡했는데 화 안내신 윤하 쌤★기숙사에서 올 때 나의 어린 눈물을 닦아준 사람들★수정★지은★민지★혜린★소은★홍★현영★록리★지영★세영★채현★한솔★상연★수용★수열★진규★민현★기중★종화★현준★한희★우리 반 애들 그냥 그냥 다 좋고 완전 고생했고 수고했어^_^



이 름 : 김혜린

성 별 : 여

혈액형 : OB

한마디 : 잘 살.

그 외 하고 싶은 말 : 논문... 으악

천 리사이클하기

자투리 천으로 생활용품 만들기

제출자 : 김 혜린

지도교사 : 김현숙, 김 정환

- 목 차 -

I. 서론

1. 논문의 동기
2. 논문의 목적
3. 논문의 연구 방법
4. 용어정리

II. 본론

1. 에코 디자인
 - 1) 에코 디자인
 - 2)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
 - ① 에코파티메아리
 - ② 프라이탁
 - 3) 간디학교에서의 에코 디자인
2. 작품
 - 1) 작품구상
 - 2) 작품제작
 - 3) 작품의 소개
3. 간디인은 내 작품을 어떻게 생각할까?
 - 1) 설문방식
 - 2) 설문을 토대로 한 나의 생각 및 보완점

III. 결론

도안집

Thanks To

I. 서론

1. 논문의 동기

나는 어릴 때부터 바느질을 좋아했다. 엄마가 뜨개질, 자수, 퀼트, 인형, 규방공예 등 여러 방면에서 손을 뻗은 엄마를 매일 지켜보다보니 모든 엄마들이 하는 당연한 것인 줄 알았다. 초등학교에 들어오면서 집중식 수업 같이 퀼트와 뜨개질을 배우니까 웬만한 바느질은 그냥 할 수 있었다. 간디학교에 들어와 먼 생리대를 만들면서 바느질에 대한 나의 관심을 알게 되었고 거의 자기만족으로 밖에 하지 않던 바느질을 조금 더 쓸모 있는 곳에 쓰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옷 만들기 수업을 하는 도중, 본을 자르고 남은 자투리 천이 너무 아까워 현숙 쌤과 이야기를 해 보다가 이것으로 뭘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 또, 학교 행사 때 마다가방을 만들어 파시는 분들이 자투리 천을 사용하신다고 들었다. 그 가방 팀이 큰 수익을 낸 것을 보고 '아... 진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 주제는 재활용이라는 큰 의미도 있고, 내 취미를 살리는 것이 좋았다.

관심이 있던 재활용과 바느질, 학교가 접목되어 이런 주제의 논문을 쓰게 되었다.

2. 논문의 목적

학교에서 활용되지 않는 천, 다른 곳에서 버리는 천을 가져다가 학교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만들어 간디 인들이 편의를 느끼게 한다.

논문 부록에 도안을 첨부해 자투리 천 사용방법을 제안한다.

학생들에게 재활용의 의미, 더 나아가서는 물건과 자원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한다.

3. 논문의 연구 방법

① 참고서적

- 처음 만드는 에코백 | 부티크사 편집부 저 | 김현영 역 | 즐거운 상상
- 너무 늦기 전에 알아야 할 물건 이야기 | 애니 레너드 | 김승진 옮김 | 김영사
- 즐거운 배색 | 시각디자인연구원 저 | 윤혜림 역 | 국제

② 참고 사이트

<http://cafe.naver.com/love4rain.cafe> - 네이버 카페 | 심플 소잉 NNC
<http://cafe.naver.com/junkart.cafe> - 네이버 카페 | 재활용 연구소 리폼 연구실
<http://www.dicer.org/> - DICER 환경연구정보시스템
<http://ecodesign.koeco.or.kr/> - 친환경제품설계기법 | 에코디자인 |
<http://cafe.naver.com/ecowd.cafe> - 네이버 카페 | 환경과 에너지 (E&Eco)
<http://etips.me.go.kr/> - 코네틱 | 환경정보

③ 방문 및 탐방

◆ 에코파티메아리

에코파티메아리는 '버려지는 것'들을 다시 재창조하는 기업이다.

'버려지는 것'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을 창조하고, 제품은 하나의 소비 제품으로 그치지 않고 친환경 캠페인을 확산시키기 위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지향하는 비영리단체이다.

◆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가게는 물건을 재사용, 재순환 하여 우리 사회의 생태적-친환경적 변화를 추구하며, 사람과 자연이 아름답게 공존하게 하는 '조용한 생활의 혁명' 을 추구한다.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재사용과 재순환의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 한다.

④ 설문조사

◆ 간디인은 내 작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상 : 식당선생님, 일상다반사 기자, 세척실 이용 학생

방식 : 인터뷰를 통한 심층조사

4. 용어정리

recycle(재활용) : 폐기물의 재활용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가운데 수집, 운반, 처리 과정에서 물질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 공정에 재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폐기물을 제품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원래는 포괄적으로 모든 재활용을 통틀는 말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물리·화학적 재활용을 의미한다.

reuse(재사용) : 버리는 폐기물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별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재생(Recovery)과 구분된다. 이 논문에서는 원래의 재사용의 의미로 사용될 것이다.

reduce(감량화) : 폐기물의 중량, 용량 모두를 감소하는 것. 이 논문에서는 원래의 감량화의 의미 그대로 사용될 것이다.

upcycling : 단순한 재활용인 리사이클에서 한 단계 뛰어넘는 업사이클은 재활용에 디자인을 입혀 폐품을 가치 높은 상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논문에서는 에코 디자인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될 것이다.

downcycling : 원래의 제품에서 필요한 원료를 추출해 그 원료를 재활용하는 것.

II. 본론

1. 에코 디자인

1) 에코 디자인

* 에코 디자인[Eco design]이란?

원료의 추출, 제품의 설계, 생산, 유통, 소비, 폐기처분 전 과정(Life Cycle)에서 생길 수 있는 환경 피해를 줄이면서 제품의 기능과 가격, 품질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환경 친화 디자인이다. 환경 영향 및 비용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이는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즉, 환경경제효율성(Eco-Efficiency⁵²⁾)을 극대화하는 것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 에코디자인 효과

- 재활용가능성 향상

일반 재료들로 만들어진 물품이 폐기되고 나서 다시 가공하여 용도를 바꾼 소재를 이용하여 에코디자인 제품에 쓰임으로 재활용가능성 향상 효과가 있다.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재활용의 선순환이 행해진다.

- 유해물질 감소

일반적으로 에코디자인의 특성은 친환경,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이기에 오염물질을 소재나 기능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해물질 감소 효과가 있다.

- 에너지 절약

에코 디자인으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또는 소비의 절감으로 그 양을 줄일 수 있다. 에코디자인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기에 에너지 절약 효과 또한 나타난다.

52) Eco-Efficiency : 경제적효율성(economic efficiency)과 생태적효율성(ecological efficiency)이 합쳐진 말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투입된 자원 양에 비해 부가가치가 얼마나 나오나 하는 것이 있다.

* 에코디자인 사례

			
옥수수 플라스틱으로 만든 라디오	포장박스 부피 및 중량감소	프라이탁 컴퍼니 가방	PET 재활용 의류
·토양의 미생물과 함께 이산화탄소, 물, 무기질로 이루어져 자연분해가 됨. ·내구성과 열의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유연성이 좋음.	·포장박스 내부 구조 변경 ·복합 포장방법을 배제하면서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박스 구조 적용. ·골판지 사용량 절감	·모든 재료는 트럭, 자동차, 자전거에서 나오는 폐기물. ·다른 가방들에 비해 기능성, 견고함이 튼튼함.	·ECOCIRCLE(EC)라는 재활용 브랜드 ·기존 합성섬유 기능을 유지하면서 원부자재 가격 절감 실현 ·일본 환경마크 획득

* upcycling

단순한 재활용인 리사이클에서 한 단계 뛰어넘는 업사이클은 폐품에 디자인을 입혀 가치 높은 상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을 말한다.

에코 디자인이란 비슷한 뜻으로 쓰이지만 에코디자인은 제품기획, 생산부터 시작하지만 업사이클은 버려진 것들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범위가 줄어든다.

업사이클의 예를 들자면, 여행 가방을 소파로 만들기, 청바지로 발매트 만들기 등이 있다.



2)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

ㄱ. 에코파티메아리

ECO PARTY MEARRY

GREEN LIFE & STYLE DESIGN

◆ 에코파티메아리

에코파티메아리는 '버려지는 것'들을 활용해 에코 디자인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한다. 제품은 하나의 소비 제품으로 그치지 않고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친환경 캠페인을 확산시키기 위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지향하는 비영리단체이다.

* 제품

	마름모 백	버려지는 가죽 자켓으로 만들어 세상에 단 한 벌 밖에 없다.
	지갑	버려지는 소파 가죽으로 만들어 색이 다 다르다.
	릴라씨	자투리 천을 이용해 만들어 무늬가 다 다르다.
	양말	버리는 실로 만든 양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신문지로 만든 연필, 폐 종이로 만든 연습장, 안전벨트로 만든 필통 등)	

* 제품 생산과정

01. 재료수거

순환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들과 판매되지 못하는 기증품의 재활용 방안을 찾고 안정적인 기증 물량을 확보한다.

02. 분류손질

수거된 재료를 분류, 세탁하거나(패브릭 류) 원재료에 가까운 상태로 복원(가죽 류)하는 1차 가공 작업이다.

03. 디자인

1차 가공을 끝낸 원재료로 생산 가능한 제품의 디자인 방향을 결정한 후 샘플제작, 시제품 테스트를 거쳐 최종 디자인을 확정한다.

04. 제품생산

30년 경력의 봉제 전문가와 자활공동체가 함께 제품을 생산한다.

05. 유통판매

인사동 직영 매장과 위탁매장(mmmg 등)을 통한 오프라인 판매와 에코파티메아리 홈페이지, 온라인 유통업체를 통한 온라인 판매를 병행한다.

06. 캠페인

에코파티메아리 제품의 구매/사용을 통한 소비자 의식 변화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에코 라이프스타일을 정착시킨다. 사회구성원의 의식 변화를 통해 '버려지는 것'을 최소화하고, 그 활용 방안의 적극적 모색을 활성화 시킨다.

ㄴ. 프라이탁



* 재활용 소재의 사용

프라이탁에서 가방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재료는 다 폐기물이다.

주재료는 트럭 커버인 타폴린⁵³⁾이고 부재료는 자전거 이너 벨트와 안전벨트로 만든다.

설립한 1993년부터 지금까지 200t의 트럭 방수포, 25,000개의 자전거 내부 튜브, 75,000개의 안전벨트를 사용했다.



Truck tarpaul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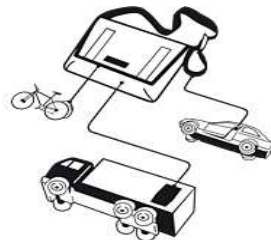
Car Seat Belts



Airbag



Bicycle inner tube



3)간디학교에서 에코디자인

자연을 아끼고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자연친화적 교육을 지향하는 간디학교는 학교 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생태화장실

푸세식 화장실을 기반으로 한 생태화장실에서는 대변은 거름으로 쓰고 소변은 BMW⁵⁴⁾로 만들어 밭에 거름으로 쓴다.

* 닭장모이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닭 모이로 활용한다.

* EM⁵⁵⁾

매 끼니 마다 쌀을 씻은 쌀뜨물을 모아 발효시킨 다음 밭에 퇴비로 주거나, 청소할 때 희석해서 사용한다.

53) 타폴린[tarpaulin] : 타르를 칠한 방수 천.

54) BMW : Bio Mineral Water

55) EM : EM은 Effective Microorganisms의 줄임말로 '유용한 미생물균'이라는 뜻이다.

2. 작품

1) 작품구상

학교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혼자서 구상해보다가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몇 분께 조언을 구해보았다.

먼저 지도교사인 정환 쌤에게 여쭙보니 일상다반사 기자실에 있는 책꽂이를 가릴만한 책장 덮개를 부탁하셨다.

또 영양사인 후조 쌤께 여쭙보니 새로 리모델링한 주방 스테인리스 수납장 위에 빈 공간을 가릴 수 있는 바란스 커튼과 배식 대를 덮을 수 있는 식탁보를 부탁하셨다.

마지막으로 담당교사인 현숙 쌤과 이야기를 해보니 발 매트와 축제 때 쓰일 식탁보, 2층 교무실 커튼을 만들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나왔다.

물론 많이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투리 천과 내 능력을 생각해 몇 개로 추렸다.

· 일상다반사 기자실 책장덮개 3개

여러 가지 모양을 생각해 보았지만 책장 크기가 하나에 100*160 정도 되는데 그걸 3개를 만들려면 다 덮는 건 자투리 천의 특성상 좀 무리가 있어서 위에만 살짝 덮는 바란스같이 했다.

· 발 매트 3~5개

아침부터 비가 오는 날이면 온 몸이 다 젖고 특히 발이 많이 젖는다. 현관에 발수건도 없고 질척 질척해서 꼭 만들고 싶었다.

· 식탁보 2개

후조 쌤의 특별 주문인데, 배식대 위에 있는 식탁보가 너무 낡고 해서 만들었다. 후조 쌤 취향으로 레이스도 달고 리본도 달아 예쁘게 만들었다.

· 방석 1~2개

천 가게에 가면 꼭 있지만 잘 버려지는 천 샘플 묶음을 하나 받았는데 그게 옥스퍼드 원단이였다. 그 천으로 도대체 무엇을 만들면 좋을까 생각해 보다가 방석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방석을 생각했다.

2) 작품제작과정

< 발매트 >



[재료]

- 퀼팅 실, 바늘, 재단용 가위, 수성 펜, 50cm 자, 시침핀, 다리미
- 바이어스 165cm (±1~2cm)/ 폭 5~6cm
- 미끄럼 방지 천 50*30cm (시접(바느질에 필요한 예비 공간) 필요 없음)
- 수건 천(못 쓰는 수건) 50*30cm (시접 필요 없음)
- 누비 천 50*30cm (시접 필요 없음)
- 패치워크(조각보) 용 자투리 천 15장 11cm * 11cm(0.5cm 시접 포함)

[만드는 법]

① 11*11cm로 잘라놓은 자투리 천을 보기 좋게 배색한다.



② 배색해 놓은 천에 시접을 0.5cm로 잡고 서로서로 이어 다리미로 다려 놓는다.



③ 제도 해 놓은 천을 밑에서부터 미끄럼방지 천 → 누비 천 → 수건 천 → 패치워크 해 놓은 자투리 천을 겹쳐 가 시침질(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고정시키는 임시 작업 : 흠질)을 해 놓는다.



④ 바이어스는 폭이 5cm를 맞추어 길이 165cm로 재단해 놓는다.



↑ 모서리 처리



↑ 박음질 - 3cm에 한 번씩 맨 밑에 박는다. 나머지는 위에만 살짝 뜨는
으로 한다.



⑤ 가 시침질 해놓은 ③번에 바이어스를 시접 1cm로 단다.

↑ 윗면에 박음질을 하고 뒤집어 1cm시점으로 1번 접어 공그르기를 한다.



<-공그르기

⑥ 천이 겹쳐져있기 때문에 따로 놀 수도 있으니 십자수 실로 스티치(자수 : 흠질)를 한다.



⑦ 완성!



<식탁보>



[재료]

- 퀼팅 실 or 십자수 실, 바늘, 재단용 가위, 수성 펜, 50cm 자, 시침핀
- 레이스 70cm * 2개 (폭 2cm~3cm)
- 쉬폰 천 70cm * 100cm

[만드는 법]

① 쉬폰 천 꼬트머리 4쪽을 시접 1cm로 2번 접어 흠질한다.



② 잘라놓은 레이스를 70cm 쪽에 시침핀으로 고정해 반박음질한다.



③ 양쪽 다 레이스를 달았으면 끝에 리본이나 단추로 포인트를 주어 마무리한다.



④ 완성!



<책장덮개>



[재료]

- 재봉틀, 오버로크 기계, 시침핀, 수성 펜, 재단용 가위, 50cm 자
- 광목 110*10cm
- 패치워크 용 자투리 천 11장 11cm * 11cm(0.5cm 시접 포함)

[만드는 법]

① 패치워크 용 자투리 천 11장을 나란히 배열한다.



② 오버로크를 박음질할 선에 처리한다.



③ 패치워크 용 천을 다 이었으면 밑단과 윗단에 오버로크 처리를 한다.

④ 패치워크한 천은 밑에 광목은 위에 놓고 시접 1cm를 두고 박는다.



⑤ 밑단에 시접을 1cm 두고 박는다.



⑥ 양 옆에 시접을 2.5cm 씩 두 번 접어 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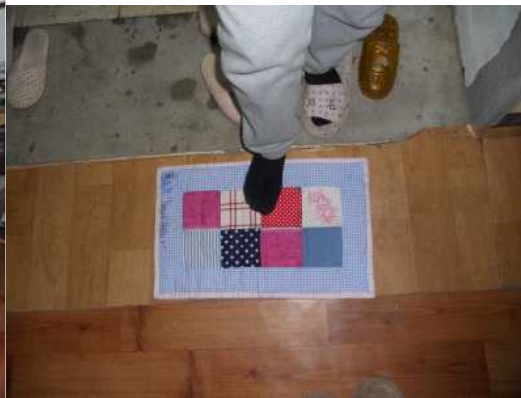


⑦ 재단한 광목 위에 시접을 1cm 두고 2번 말아 재봉틀로 박는다.



⑧ 완성

3) 작품의 소개



작품명 : 여름젤리

위치 : 세척실 앞



작품명 : 봄바람

위치 : 주방 입구



작품명 : 봄

위치 : 1층 정수기 앞



작품명 : 가을 밤(울)

위치 : 2층 정수기 앞



작품명 : 겨울



위치 : 배식대

작품명 : 화사

위치 : 일상다반사 기자실

3. 간디인은 내 작품을 어떻게 생각할까?

1) 설문방식

* 설문주제 : 간디인은 내 작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상 : 식당선생님, 일상다반사 기자, 학생

방식 : 심층 인터뷰

<질문지>

1. 외양
2. 실용성
3. 부족한 점
4. 10점 만점에

2) 설문을 토대로 한 나의 생각 및 보완점

<설문 결과>

* 일상다반사 기자

최소은

1. 산뜻하다. (일상다반사 기자실) 분위기가 살아난다
2. 실용성보다는 인테리어에 중점을 둔 듯.
3. (책꽂이 보다) 한 개가 부족하다.
4. 8.4점

조하한

1. 편안한 색감이 좋다.
2. 너무 짧아서 쓸데가 없지만 있으니까 예쁘다.
3. 안 만들어봐서 모르겠지만 더 컸으면 좋겠다.
4. 7~8점

* 학생

한상혁

1. 알록달록하다.
2. 있음
3. 없음
4. 10점

전효원

1. 평소에 낚두는 걸레보다 훨씬 이뻐서 좋다
2. 잘모름
3. 없음
4. 9점

* 교사

미리강

1. 예뻐 색감 좋음.
2. good 실용성 좋음.
3. 학교에서 많은 인원이 쓰기에는 사이즈가 작음
4. 8.9점

* 식당쌤(진옥쌤, 국희쌤, 은아쌤)

1. 아주 정성이 많이 든 것 같다. 예쁘고 세련되고 배색이 좋다.
2. 정수기 앞의 물을 흡수해서 좋다.
3. 때가 좀 잘 탈 것 같다.
4. 10점

나의 생각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크기가 작다는 얘기인데, 나도 그 이야기에 동감하지만, 자투리 천의 특성 상 사이즈가 클 수가 없어서 사이즈가 작은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다들 색감이 좋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방학 때 배색에 관해 공부한 게 도움이 된 것 같다.

책장덮개가 실용성이 부족하다는 말도 나왔는데 원래 그 곳은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알맞게 나온 것 같다. 일상다반사 기자실이 좀 어두침침하고 분위기가 밝지 않아서 일부러 화사한 색으로 했다.

작품 배치를 해보니까 굉장히 뜬금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좋은 점수가 나와서 다행이었다.

Ⅲ. 결론

작품을 만드는데 담당선생님이 필리핀에 가서서 만들 수 있는 종류도 적었고 내 능력이 부족해 숫자는 많지만 종류가 적어서 아쉬웠다.

에코 디자인이란 개념 자체가 워낙 최근에 나온 말이라 1993년도에 발간된 브리태니커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 정도로 자료를 찾기 어려웠고 재활용의 개념과도 많이 헷갈려 논문의 갈피를 잡는 시간도 오래 걸렸다.

논문이 이정도로 나온 것은 자료가 없었다는 변명도 있지만 내가 미루고 미뤄서 이 정도까지 오게 된 것이다. 시간이 더 있었다면 만들고 싶었던 것 다 만들고 쓰고 싶은 거 다 썼을 테지만 나의 나태함 때문에 부족한 것을 지금 와서 탓해봤자, 시간이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니까 이번 논문을 계기로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Thanks To

모든 간디인들에게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반과 수자&정상쌤이 짱

그리고 우리 방도 수고했음

현숙쌤, 정환쌤 사랑합니다.

한울오빠가 식사당번 바뀌워서 고마워.



이 름 : 나현준

성 별 : 남

혈액형 : A

제천간디학교와 타 간디학교의 학생 생활규칙에 대한 비교 연구

발표자 : 나현준
지도교사 : 손진근

-목차-

I 서론

1. 동기 및 목적
2. 연구 방법

II 본론

1. 제천간디학교 학생생활 규칙
 - 1-1 논의가 많은 학생생활 규칙
2. 타 간디학교의 학생 생활 관련 규칙
 - 2-1 산청간디 마을학교[중등]
 - 2-1-1 산청간디 마을학교의 학생 생활 규칙
 - 2-1-2 산청마을학교[중등]의 핸드폰, 매점, 전자기기, 외출외박 관련 학생 생활 규칙
 - 2-2 산청간디학교[고등]
 - 2-2-1 산청간디학교의 학생 생활 규칙
 - 2-1-2 산청간디학교 [고등]의 핸드폰, 매점, 전자기기, 외출외박 관련 학생 생활 규칙
 - 2-3 금산간디학교[중등]
 - 2-3-1 금산 간디학교[중등]의 학생 생활 규칙
 - 2-3-2 산청마을학교[중등]의 핸드폰, 매점, 전자기기, 외출외박 관련 학생 생활 규칙
 - 2-4 금산간디학교[고등]
 - 2-4-1 금산 간디학교[고등]의 학생 생활 규칙
 - 2-4-2 금산 간디학교[고등]의 핸드폰, 매점, 전자기기, 외출외박 관련 학생 생활 규칙
3. 논의가 많은 제천간디학교의 학생생활규칙과 타 간디학교의 규칙 비교
 - 3-1 핸드폰 관련 규칙 비교
 - 3-2 매점 관련 규칙 비교
 - 3-3 전자기기 관련 규칙 비교
 - 3-4 외출, 외박 관련 규칙
4. 제천간디학교와 규합하는 학생 생활 규칙 제시

III 결론

1. 논문의 한계
2. Thanks to

I 서론

1. 동기 및 목적

내가 3년 동안 간디에 살면서 규칙에 대한 불만이 여러 가지로 생겼고, 내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다. 때마침 논문을 쓸 때가 되어 논문을 통하여 사람들이 규칙에 대해 이해 했으면 하고, 간디학교에 규합하는 규칙을 제시하고 싶다. 그리고 혹시 규칙에 대한 불만이 평소에 있던 학생이라면 이번계기를 통해 간디규칙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2. 연구 방법

일단 제천간디 학교의 학생 생활 관련 규칙을 알아보고 제천간디 학교생활 규칙 중 학생들 사이에서 논의가 가장 많이 되는 규칙을 설문 조사나 회의록 조사를 통해 알아본 다음 그 규칙이 다른 학교에는 어떻게 정립되어 있으며, 어떤 식으로, 왜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는지 알아본 다음 제천간디 학교의 논의가 많은 규칙과 타 간디학교의 규칙을 비교 연구 하여 본다.

II 본론

1. 제천간디학교의 학생 생활 규칙

지금 필자는 제천간디학교와 타 간디학교의 학생 생활규칙에 대한 비교 연구를 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천 간디학교의 규칙을 아는 것이 필수이므로 2011년 제천간디학교의 규칙을 게시해 보겠다.

[현재, 2011년 학생회의 규칙이다.]

제천간디학교 규칙 & 벌칙 정리

매점 규칙 - 학교 주변 매점 이용 할 수 없음. (주말에도 못갑니다.)

이유는? - 현금소지로 인한 도난 위험, 쓰레기 처리,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건강에도 안 좋아
갔을 경우

1단계 : 사과문, 마을청소1회(쓰레기봉투 50L), 먹은 과자 유해성 조사 게시판에 붙이기

2단계 : 사과문, 마을청소1회(50L), 매점에 가면 안 되는 이유 써서 붙이기, 식기 10개 닦기

3단계 : 사과문, 마을청소1회(50L), 식기 20개 닦기

4단계 : 사과문, 마을청소1회(50L), 식기30개 닦기, 책 발제(쌤과 이야기해서 정해야 함.)

5단계 : 마을청소1회(100L), 식기 40개 닦기 → 1학기 기준

* 매점이 아닌 교육 공간 안에서 인스턴트 식품을 먹었을 경우에 1단계 규칙과 같다.

식당털이 - 식사 시간 외에 식당 음식 몰래 먹는 것 금지

이유는? - 식당운영에 차질생김, 뒷정리 안함, 밤늦게 내려오면 위험함.

털었을 경우 - 사과문, 식당 대청소 (후조 쌤 관리.)

무단외출 - 평일에 선고 2구 이상, 도기까지 나가면 안됨.

주말 외출은 12시부터 가능 입소는 7시 30분까지 기숙사로

이유는? - 수업에 지장, 사고나 실종의 위험

갔을 경우 - 외출·외박 2주 금지

무단외박 - 평일·주말(종이에 안 쓰고) 기숙사 외에서 외박하는 것.

이유는? - 사고나 실종의 위험

갔을 경우 - 전교생에게 개개인별로 사과·싸인 받기 (종이는 학생회에게 받고), 외출외박 3주금지

** 외출, 외박 금지 벌칙을 받는 학생들은 평일, 주말에 못나갑니다.

개인적인 일, 수업 체험학습, 등산 모두 포함됩니다.

판례로는 전교생 싸인을 받고 나가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싸인을 받고 나가게 될 때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 1주일 밀리게 됩니다.

핸드폰 규칙 - 휴대폰 소지 금지 (사감쌤께 맡기는 것, 주변 학생들 집에 맡기는 것 포함)

이유는? - 공동체 생활에서 소통이 안 됨. 수업시간 방해

가져왔을 경우 (한 학기 기준)

1단계 - 귀가조치 (집에 두고 오세요. 양식종이를 가져가서 작성해서 와야합니다.)

2단계 - 학생회에서 무료 보관 해드립니다. (2달)

음주·흡연 규칙 - 학기 중 교육 장소에서 음주 또는 흡연 금지

했을 경우 - 마술학교 입학 또는 건강관리 위원회 가입.

전자기기 규칙

노트북

- 교사회, 학생회 의 동의를 받은 후 사용 가능합니다.

- 공공장소, 수업, 기타 등등 모임에서는 사용하지 맙시다. (다른 전자기기들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들.

- 게임, DMB, TV 프로그램 다운 / 닌텐도, PSP 소지 안 됩니다. / 고데기 사용도 금지

모든 벌칙은 2주 안에 하셔야 합니다. 함께 정한 규칙과 벌칙들이니깐 모두들 잘 지켜주세요♥

전산실 사용 규칙 (전산실 근로장학생 아니죠~ 전산실 장학생 맞습니다!)

1. 사용 시간은 최대 1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개인적인 사유)

2. 사용 시간 외에는 컴퓨터 사용 금지

3. 사용 시간 외 장학생 동의 없이 사용 할 경우 → 출입 10일 금지

공적인 사유 컴퓨터 허락, 관계없는 개인사유로 컴퓨터 사용 → 출입 2주 금지 (MP3허용)

* 사용 외 시간이 저녁 10:00 정각을 지나는 경우 가족회의에 회부 됨.

4. 묵학 시간에 공부&숙제 등의 사유로 전산실 사용하려면 미리 용지에 신청해야함.

- 신청하지 않았는데 사용 → 전산실 출입 10일 금지

- 신청 마감 후 갑작스럽거나 중요한 사유가 생겼을 때만 장학생 판단 하에 사용 가능.

장학생 없다면 근무 중인 선생님(인턴x) 둘 이상의 동의 받고 8:50까지 사용

5. 전산실 컴퓨터에 게임 설치 및 다운·실행 → 한 달 금지, 그 즉시 전산실에서 퇴실

옆에서 방관한 사람도 → 일주일 금지, 전산실에서 퇴실

6. 스캔만화·스캔소설 → 전산실 사용 3주 금지, 발견 즉시 전산실에서 퇴실

7. 웹에 올려져 있는 동영상은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10분 이하 것만 볼 수 있음

8. 전산실에는 어떠한 음식물도 들고 들어올 수 없다.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것도 안 된다.

9. 함부로 마우스와 키보드를 바꾸거나 본체에서 빼면 안 된다. 고장의 원인이 된다.

10. 전산실 개방 때 수업 진행 중.

음악을 너무 크게 하거나 소란 피우면 전산실 출입금지를 시킬 수도 있다.

11. 전산실 비밀번호를 멋대로 바꿀 경우 → 가족회의에 올라감, 한달 전산실 사용 금지

*예외는 언제나 있습니다.

위 규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장학생과 상의 해봅시다.

통학생 규칙

- 휴대전화는 가져오면 안 된다.

- 토요일에는 재학생과 함께 12시부터 외출 가능 / 평일에는 4시부터 가능

- 현금소지는 3000원 까지 가능 / 기숙사에 올라올 경우 사전에 이야기 하고 올라온다

*** 기숙사 규칙은 따로 정리 안할게요. 기숙사에서 브리핑 부탁!

식사당번 규칙

- 식사당번은 일주일에 한 번!

- 식사당번 끝난 후에는 꼭 식사당번 일지를 써주세요.

- 아침식사 당번 → AM 8 : 20 / 점심식사 당번 → PM 1 : 10 / 저녁식사 당번 → PM 6 : 10

- 10분 이하는 지각처리 / 10분 이상은 불참 처리 됩니다.

- 당번 바꿨는데 빠졌을 경우 → 원래 당번과 바꾼 사람 모두 불참 처리 됩니다.

- 그 주 식사당번 불참자 (목요일 저녁~ 목요일 점심) 는 그 주 주말 식사당번으로 정해져요

* 그 주 식사당번 불참자는 매회 가족회의 끝나고 모여 결정합니다

- 주말식사 당번 불참자도 그 주 식사당번 불참자에 포함됩니다.

[일단 필자가 정의 하는 규칙은 매년 학생회가 정하고 매년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많은 규칙들이 매년 새로 정해지고 또 이어져서 온다.

1-1 논의가 많은 규칙 찾기

필자는 제천간디 학교의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제천간디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논의가 많이 되는 규칙을 찾아보고자 한다. 필자는 논의가 많은 규칙을 찾을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학생들의 제천간디학교 규칙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 또 제천간디학교 회의록 자료를 토대로 어떤 규칙이 많이 논의가 되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필자는 제천간디학교와 타 간디학교와의 규칙을 비교하기위해 제천간디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제천간디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는 규칙을 찾아보았다.

[설문지 내용]

안녕하십니까. 3학년 나현준입니다.

논문 때문에 이렇게 설문지를 돌립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성심성의껏 꼭 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 **타 간디학교와 제천간디학교의 규칙을 비교하여 제천간디학교에 규합하는 규칙 제시.** 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천간디학교의 학생들이 지금 제천간디학교의 규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심성의껏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남, 여]

학년 [1, 2, 3, 5, 6,]

1. 혹시 지금 학교 규칙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요]

1-1 [예 하신분은 여기]

어떤 규칙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1-2 [아니요 하신분은 여기]

우리 학교 규칙이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

56) 현 2011년 제천간디학교 학생회의 이름.

[설문 결과]

위 설문 결과를 보면 학교 규칙에 불만이 있는 학생이 50% 불만이 없는 학생이 50%이다. 이것으로 봤을 때 학교 학생들 중 50%가 학교 규칙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불만이

혹시 지금 학교 규칙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십니까?



■ 불만 있음, ■ 불만 없음

어떤 규칙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계시죠?



■ 매점 ■ 휴대폰 ■ 외출

있다고 말한 학생들이 말한 규칙은 외출에 관한 규칙이 8명으로 전체 30명에 27%에 해당했고. 휴대폰에 대한 규칙이 9명으로 30%에 해당 했으며 매점에 대한 규칙이 13명에 43%에 해당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 규칙에 불만이 없는 사람들도 규칙이 마음에 든다고 대답한 사람이 12명 40%밖에 나오지 않았으며 좋은 건 아니나 딱히 불만이 없다고 답해준 사람이 18명 60%에 해당하였다. 이 결과를 정리해 보면 학교 규칙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학교 전체 50%에 속하며 그중 불만이 되는 규칙 1위가 매점에 관련된 규칙 2위가 휴대폰에 관련된 규칙 3위가 외출에 관련된 규칙으로 약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었고, 학교 규칙에 불만이 없는 사람 50%중 학교 규칙이 좋은 건 아니나 딱히 불만이 없다는 사람이 60%에 해당 하였으며 학교 규칙이 마음에 든다고 대답한 사람 40%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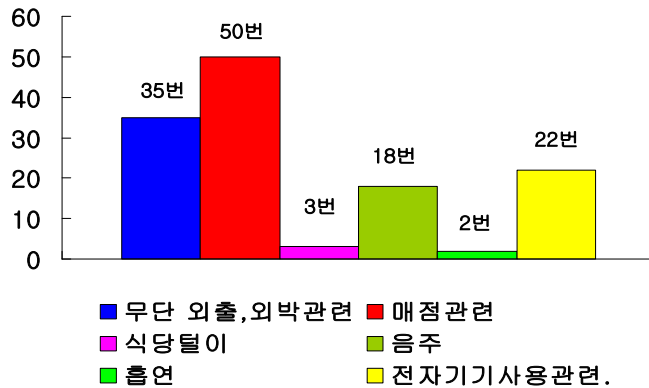
우리 학교 규칙이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 좋은건 아니나 딱히 불만이 없다.
■ 규칙이 마음에 든다.

설문지 조사를 통한 논의가 많은 규칙 찾기에서는 약 3가지 정도로 논의가 많은 규칙이 도출 되었다. 매점에 관련된 규칙, 휴대폰에 관련된 규칙, 외출에 관련된 규칙이 그것이다.

필자는 제천간디 학교에 논의가 많은 규칙 을 찾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회의록 조사를 통한 학교에서 논의가 많은 규칙을 찾았다.



[위 자료는 2008년 ~ 2011년까지의 회의록을 분석해본 결과이다.]

위 그래프를 보면 2008년~ 2011년까지의 회의 내용에서 매점 관련된 내용이 약 50번 정도 나왔으며 무단외출, 외박 관련 내용이 35번 나왔다. 전자기기 사용에 관련된 내용이 22번, 음주가 18번 나왔으며 식당털이 3번, 흡연에 관해서 2번 나왔다. 이 내용을 보면 역시나 매점 관련된 내용이 1위를 차지했으며 무단 외출.외박관련이 2위, 전자기기 사용에 관련된 내용이 3번째로 많이 나온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때까지 의 자료를 통해 제천간디학교에 논의가 많은 규칙을 몇 가지 정해 보겠다. 일단 설문지 에서도 그렇고 회의록 조사를 통해서도 많이 논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규칙인 매점 관련된 규칙과 외출, 외박 관련 규칙, 핸드폰 사용관련 규칙. 그리고 전자기기 사용 관련 규칙 에 관해서 필자는 제천간디학교에 논의가 많은 규칙이라고 정의 하겠다. 그럼 이제 필자는 이 논의가 많은 규칙 이 타 간디학교에는 어떻게 정해져 있고 왜 그렇게 정해 졌는지 알아보겠다.

2. 타 간디학교의 학생 생활 관련 규칙

자 그럼 이제 필자는 타 간디학교와 제천간디학교의 학생 생활 관련 규칙을 비교 해보자. 나는 산청 마을학교, 산청 간디학교, 금산간디학교 [중등, 고등]의 학생 생활 관련 규칙을 조사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내가 조사 하려고 한 학교들은 다 ‘사랑과자발성’이라는 학교 철학을 가지고 있는 간디 학교들 이며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들 이다. 그리고 중, 고등학생 들이 다니는 학교 인 이유에서 이 네 군데를 조사하려고 한다. 또 타 간디학교의 논의가 되는 규칙을 찾기 전에 먼저 타 간디학교의 전체적인 규칙이 어떤지 한번쯤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타 학교 의 규칙을 게시 한다. 그리고 타 간디학교 학생 생활 규칙 중에서 필자가 뽑은 제천간디 학교에 논의가 많은 생활 규칙에 해당하는 타 간디학교 규칙을 찾아보겠다.

2-1 산청간디 마을학교[중등]

2-1-1 산청간디 마을학교의 학생 생활 규칙.

앞에서 이야기한데로 산청마을학교[중등]의 전체적인 규칙이 어떤지 한번쯤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산청간디마을학교의 학생 생활관련 규칙을 게시 하겠다.

○ 음주, 흡연, 폭력

1. 술, 담배는 하지 않는다.

-흡연 1차, 2차 적발 시 학부모 면담 후, 완전 금연이 확인 될 때까지 금연프로그램을 받는다.

- 흡연 3차 적발 시 학부모 면담 후, 최소 일주일 이상 외부활동을 합니다. 완전 금연이 확인 될 때까지 입교 할 수 없으며, 이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 된다. 입교 후에도 금연 프로그램을 계속 받아야 한다.

2. 도난을 제외한 폭력, 음주, 흡연, 생활규칙위반 등 벌칙관련 안건은 모두 <하쿠나 마타타>에서 처리한다. <하쿠나 마타타>는 식구총회의 하위 기구이며, 벌칙을 적용하기 전에 식구총회에 보고하고, 새로운 규칙, 벌칙의 원칙, 혹은 그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는 식구총회에 건의하여 그 결정을 따른다. <하쿠나 마타타>의 구성은 교사대표, 학생대표, 평화부부장, 목격자, 변호인, 학생 및 교사 각 참관인으로 한다.

○ 외출외박

1. 외출을 갈 경우에는 외출 일지를 꼭 써야한다.(통학생은 자신의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는다)

2. 외박을 할 경우에는 외박을 할곳을 자신의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허락된다. (홈페이지 '바깥나들이' 란 사용)

3. 무단으로 외출을 할 시에는 원지까지 주말 도보 4회 (편도) 를 실시한다.(포인트를 정해서 사진을 찍어온다) 단, 무단 외박 시에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교사회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4. 모든 학생은 원칙적으로 평일에는 외출외박을 할 수 없고 주말에만 가능하다. 다만 집안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평일 외출외박이 가능하다.

5. 평일 일과시간 중에는 숙소(기숙사, 홈스테이)로 갈 수 없다. (교사의 허락을 받은 뒤에는 가능함)

6. 외출 시 교무실로 와서 당직교사에게 입교 확인을 한 후 기숙사로 들어간다.

○ 물건의 사용

1. 허락 없이 남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다. 옷은 빌리지 않는다.

2. 학교 기물(학교 건물 내의 모든 집기)은 사단법인 (사)숲속마을 청소년학교의 재산이므로 파손 시 개인이 배상한다.

○ 식사당번

1. 식사 당번으로 정해진 시간에 식사당번을 1번 하지 않았으면 식당 샘의 일을 도와드린다.

2번 하지 않았을 경우도 식당 샘의 일을 도와 드린다. 3번 하지 않았을 경우 식구들 모두의 식기 설거지를 2번 한다. (4번째부터 다시 1번부터 적용된다.)

○ 간식

1. 간식반입금지

- 모든 간식은 학내(카페)와 마을에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내에서 음식을 요리해 먹을 수 있다.

- 반입 금지 간식을 먹을 경우에는 식구들을 위한 식구들을 위해 간식을 2번 만들어 준다.
- 간식만들기를 할 경우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 되는 것은 장소와 요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식기들 외에는 간식을 만드는 팀원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며, 도우미(교사)를정 해서 함께 하되 역할은 최소한의 안전을 봐주는 역할까지로 한다.

○ 산책범위

1. 교내 산책범위는 학교 건물 앞으로는 산골농장 앞 큰 비석까지, 건물 뒤로는 둔철 간디어린이 학교까지이다. 사전에 허락 없이 이 범위를 넘어 가면 산책이 아닌 무단 외출로 간주한다.
2. 일과시간 중 산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사에게 이야기한다.

○ 전자기기 사용과 오락

1. 정보실의 컴퓨터를 제외한 모든 컴퓨터(개인 노트북 등)의 학내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2. 개인 전자기기로 게임이나 DMB 시청을 할 수 없다.
 - 게임을 할 경우 포맷한다.
 - DMB시청을 할 경우 72시간동안 사용할 수 없다.(담당 교사가 보관함)
3. 핸드폰은 사용할 수 없으며 몰래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1학기 담임이 보관한다.

○ 정보실 이용 규칙

1. 정보실 이용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컴퓨터를 이용해야 한다. 정보실 사용시간은 조별마다 다르다, 정보실 개방시간은 평일은 아침 10시부터 저녁8시까지 평일 오전은 학습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복도에 배치된 컴퓨터 2대는 누구나 사용가능하다. 휴일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30분 까지로 한다.
2. 컴퓨터 관리에 관한 벌칙
 - (1) 자신이 속한 조의 컴퓨터가 아닌 다른 컴퓨터를 사용한 경우 1회 경고시 일주일동안 사용을 금한다.
 - (2) 자신의 컴퓨터 시간외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일주일 동안 사용을 금한다.
 - (3) 컴퓨터(모니터) 안 끌 때 3회 경고시 조원들 모두 일주일 동안 컴퓨터 사용을 금한다.
3. 컴퓨터에 대한 절제와 자기관리의 힘을 기르기 위해 다음을 정보실 사용 금지 사이트로 정한다. - 만화, 드라마, 야동, 영화, 야사, 게임 및 게임관련 물(단 주말에는 만화, 영화는 허용)
4. 정보실을 이용할 때에는 스피커 사용을 자제하며 사용할 시에는 정보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5. 컴퓨터의 시스템이나 제어, 사용자 추가, 복원에 관련해서는 정보부원과 정보부 담당교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접근을 일체 통제한다. 이를 위반할 시 정보실을 1주일 폐쇄한다.
6. 컴퓨터가 고장났을 시에는 변상한다. 고장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을 때는 그 주에 해당 컴퓨터를 썼던 조 가 변상해야한다.
7. 정보실 안에서는 음식반입을 금지한다.
8. 쓰레기 3번 발생시 정보실을 1주일 폐쇄한다.
9. 모여서 시끄럽게 떠드는 경우 같이 떠든 사람들 모두 일주일동안 컴퓨터 사용을 금한다.

○ 도서관 이용규칙

1. 도서관 개방시간은 아침 9:00 - 저녁 9: 00 로 한다. 도서 대출, 대납 시간은 점심시간 (1시30분~2시)까지 (목학시간은 목학하는 친구들이 도서관을 이용한다)
2. 도서 대여기간은 1인 일주일, 가능 도서대여권수는 1인 최대 3권으로 한다.
3. 개인의 게으름이나 다른 이유로 연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친구들이 볼 수 있는 기회, 선택의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
4. 잡지는 대출이 되나, 도서부원이나 담당 선생님께 말하고 대출해야 하며 최근 잡지 2권은 대출이 되지 않는다.
5. 책이나 잡지를 대출하지 않고 밖으로 가져갈 경우 경고.
6. 도서 파손 시 물어내야 함.

○ 무단침입

1. 무단침입 및 무단 이탈시 학교장의 권한으로 교사회에서 논의한다.

○ 벌칙관리

1. 벌칙수행 기간은 2주 안에 수행해야 한다. 벌칙은 평화부가 학생게시판을 통해 게시하고 확인한다. 벌칙 수행을 다 한 다음 댓글로 간단하게 소감을 적으면 벌칙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 한다. 모든 일정을 중지하고 벌칙을 수행해야한다.
 - 2주 안에 벌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수업이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결석으로 처리되며 학점 미 취득 등의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2주 안에 벌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원지 도보는 평일에 갈 수 있으며 4시간 30분안에 왕복해야 한다. (시간을 넘을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생활규칙 기타

1. 자기주도 학습시간이나 수업시간에는 악기나 탁구 등을 치지않는다 (옆 교실 에서도)
2. 매 달 19일은 식기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 수저 없이 손으로 밥을 먹는다.

2-1-2 산청마을학교[중등]의 핸드폰, 매점, 전자기기, 외출외박 관련 학생 생활 규칙

필자는 산청간디마을학교의 규칙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산청간디마을학교 에서는 제천간디학교의 논의가 많은 규칙인 핸드폰, 매점, 전자기기, 외출외박 관련 규칙들이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

[산청마을학교[중등]의 핸드폰, 매점, 전자기기, 외출외박 관련학생 생활 규칙]

핸드폰 관련 규칙	핸드폰 관련 규칙은 딱히 없으나 외박을 갈 때는 사용가능.
매점 관련 규칙	매점에 관련된 규칙은 딱히 없다.
전자기기 관련 규칙	○ 전자기기 사용과 오락 1. 정보실의 컴퓨터를 제외한 모든 컴퓨터(개인 노트북 등)의 학내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2. 개인 전자기기로 게임이나 DMB 시청을 할 수 없다. - 게임을 할 경우 포맷한다. - DMB시청을 할 경우 72시간동안 사용할 수 없다.(담당 교사가 보관함)

	3. 핸드폰은 사용할 수 없으며 몰래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1학기 담임이 보관한다.
외출, 외박 관련 규칙	○ 외출외박 1. 외출을 갈 경우에는 외출 일지를 꼭 써야한다.(통학생은 자신의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는다) 2. 외박을 할 경우에는 외박을 할곳을 자신의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허락된다. (홈페이지 ‘바깥나들이’란 사용) 3. 무단으로 외출을 할 시에는 원지까지 주말 도보 4회 (편도)를 실시한다.(포인트를 정해서 사진을 찍어온다) 단, 무단 외박시에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교사회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4. 모든 학생은 원칙적으로 평일에는 외출외박을 할 수 없고 주말에만 가능하다. 다만 집안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평일 외출외박이 가능하다. 5. 평일 일과시간 중에는 숙소(기숙사, 홈스테이)로 갈 수 없다. (교사의 허락을 받은 뒤에 는 가능함) 6. 외출 시 교무실로 와서 당직교사에게 입교 확인을 한 후 기숙사로 들어간다.

이렇듯 산청간디마을학교의 경우 제천간디학교에서의 논의가 많은 규칙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2-2 산청간디학교[고등]

2-2-1 산청간디학교의 학생 생활 규칙.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산청간디학교[고등]의 전체적인 규칙이 어떤지 한번쯤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산청간디마을학교의 학생 생활관련 규칙을 게시 하겠다.

[산청간디학교 [고등] 의학생 생활관련 규칙.]

우리들의 공동체 약속

교육공간

교육공간은 식구들이 생활하는 학교와 기숙사를 포함해 송강침터부터 정취암 까지 이며, 우리가 정한 공동체 약속이 적용되는 범위라고 할 수 있어요.

흡연은 안돼요

교사회가 식구총회에 위임한 선도권을 유지하되 흡연의 경우 3번째 이상의 흡연 사건에 대해서는 식구총회는 사실관계의 확인 및 질의응답,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처리하고(공동체 약속 위반 여부 판단), 최종적인 선도의 내용(벌칙의 내용 결정)은 교사, 학생,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선도위원회에서 결정해요.

학생들은 장소와 관계없이 흡연 할 수 없으며, 교사 및 학부모는 교육공간 안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어요.

선도대상

- (1) 교내/외에서 흡연 중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 (2) 교내/외에서 담배를 소지/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소명기회부여)
- (3) 교내/외에서 손과 입 등에서 담배냄새가 나는 경우(소명기회부여)

선도수위

- 1회 적발 시 : 금연학교 프로그램(외부기관) 이수 후 이수증 제출 (1주일 이내)
- 2회 적발 시 : 교사회가 지정한 기관에 위탁교육(2주 이내)
- 3회 적발 시 : 선도위원회를 소집해 결정(해당 학부모 참석하되 의결권은 없음)

선도위원회

(1)구성 : 교사3(교장(감), 학생부장, 담임) +학생3(식구총회에서 결정)

+ 학부모3(학교운영위원)

(2)선도위원회의 장은 교장(감)이 겸임

(3)선도위원회는 2/3이상의 참석으로 개최되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2006년 12월 28일)

음주는 안돼요

학생들은 교육공간 안에서 음주를 할 수 없으며, 외부에서는 보호자와 함께 할 경우 허용 됩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교육공간 안에서 음주를 할 경우 식구들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선도수위

1회 적발 시 : 책임위원회‘오빠민지’를 소집해 해당 학생과 함께 책임을 결정

2회 적발 시 : 교사회가 지정한 기관에 위탁교육(2주 이내)

3회 적발 시 : 선도위원회를 소집해 결정(해당 학부모 참석하되 의결권은 없음)

책임위원회‘오빠민지’

(1)구성 : 교사1 + 학생2 을 식구총회를 통해 구성

(2)책임위원회가 구성된 다음 회 식구총회에서 결정된 책임을 알림

(2009년 9월 17일)

선도위원회

(1)구성 : 교사3(교장(감), 학생부장, 담임) +학생3(식구총회에서 결정)

+ 학부모3(학교운영위원)

(2)선도위원회의 장은 교장(감)이 겸임

(3)선도위원회는 2/3이상의 참석으로 개최되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2006년 12월 28일)

폭력은 안돼요

언어폭력을 포함한 신체적 폭력은 금지되어 있으며, 폭력이 일어날 경우 식구총회 안건으로 상정 됩니다.

환경제품을 사용해요

환경제품(치약, 샴푸 등)이 아닌 제품과 왁스, 스프레이, 폼 클렌저, 거품이 많이 나는 비누(ex:도브), 섬유유연제, 일반세제, 린스, 헤어 에센스, 바디 클렌저 등 환경보호를 위해 금지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지극특공대가 수거하고 있어요. 또 학교에서 같이 사지 않은 환경 치약과 환경 샴푸를 쓰려면 지특에게 성분검사를 맡고 허락받아야 사용할 수 있어요.

히치하이크 하지 말아요

단, 신변의 안전이 보장된 택시, 교사, 학부모가 태워 줄 경우 탈 수 있다.

(2007년 5월 10일 개정 291회)

무단외출외박은 안돼요

-외출 : 1개월 + 주말에 노동작업 20시간 + 에세이

-외박 : 3개월 + 주말에 노동작업 40시간 + 에세이

-책임이행 기간 중 다시 한번 규칙을 어긴다면

외출 시 3개월 추가 및 외출 시 주말에 노동작업 40시간 추가 + 에세이

외박이 3개월 추가 및 외박 시 주말에 노동작업 80시간 추가 + 에세이

(2008년 3월 27일 개정 315회)

+ 선생님의 허락 없이, 평일 혹은 주말에 무단으로 외출/외박 하는 것 포함

+ 식구총회를 기준으로 적용, 방학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요.

+ 학사일정 및 대학입학관련의 경우에는 이 벌칙에 저촉되지 않으며, 식구들 앞에서 알려야 해요.

+ 기타 특수한 상황 발생시는, 안건으로 상정해서의결합니다.

라면 먹지 말아요

홍화원을 포함한 교내 공간에서는 라면을 먹지 말아요. (급식 제외)

배달음식 시켜 먹지 말아요
(단, 사오는 경우 제외)

식기유출 하지 말아요
식당과 강당 외의 공간으로 식기를 유출하지 말아요. 단, 영양사 선생님의 허락을 받을 경우는 허용 됩니다.

설거지 가위바위보 하지 말아요

식사당번 제도
일주일에 한번, 식사당번을 해야 해요. 식사당번은 분기별로 바뀌고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요.

- + 식사당번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식구총회 때 식구들에게 사과하고 다음 식구총회 전까지 추가로 3번 책임이행
 - 한주에 책임을 3회 이상하면 추가되지 않고 안하면 남은 양에 +3
 - 별칙식사 당번이 30회가 넘어가는 순간 별칙식사당번은 사라지고 노작 10시간이 된다.

- + 주말식사당번
 - 놀.토가 아닐 때 → 반에서 정한 당번
- (안할 경우 식사당번 책임과 동일하게 적용 돼요)
(여섯 학급 돌아가면서 하고 집행부 식사당번 팀이 알림해요)
- 놀토 일 때 → 별칙 식사당번 (2회 적용)

휴대전화 사용
휴대전화로 실내에서 통화를 하거나 소리가 나면 72시간 동안 학생회 집행부가 보관합니다. 모든 건물(복도와 신발장 포함) 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단, 같이 있는 식구들의 동의를 얻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 + 선생님들은 교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72시간 동안 선생님이 보관해요.
- +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면 안돼요.

전자기기 사용
1학년 2학기 이후부터 정보부 선생님들께 신청하고 식구총회 때 식구들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어요. 용도 외 사용시 경고를 주고, 2번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집으로 돌려보내요.

- +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전자기기 - 노트북, PMP, PSP, DMB등의 영상기기
- + 동영상기능이 MP3, DMB폰 있는 영상기능을 사용하면 안돼요.

주를 여는 시간
자기 시간에 발표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한 번 더 발표해야 해요.

식구총회
식구총회에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을 경우 운동장 50바퀴를 돌아야 해요.

도서관, 전산실 이용
공간 관리자인 유도탄과 블루스크린이 정한 약속에 따라요.

도서관 사용수칙

1. 도서관에서는 떠들지 말아요.
2. 도서관에서 보드게임 하면 안돼요.
3. 도서관에서 양치질 하면 안돼요. 화장실 가서 하세요.
4. 책을 읽고 책장에 넣지 말고, 도서관 북카트에 놔둬요.
5. 도서관 검색용 컴퓨터에서 게임하다 걸리면 1개월 동안 출입 금지예요.

6. 도서관 검색용 컴퓨터에서는 싸이월드, 쇼핑, 만화를 볼 수 없고, 10분 이상 사용할 수도 없어요.
7. 도서관에서는 한 사람이 최대 3권까지 1주일까지 빌릴 수 있고, 연장하면 13일 동안 빌릴 수 있어요.

전산실 사용수칙

1. 전산실에서 음식물을 먹으면 안돼요.
2. 수업시간에는 전산실 사용을 하면 안돼요.
3. 인강용 컴퓨터에서는 인강만 들어요.
4. 게임 하면 안돼요.
5. 프린트를 하기 전에 프린터가 켜져 있는 지, 용지가 있는 지 확인하고 사용해요.
프린터에 빨간불이 들어와있으면 블루스크린에게 전화해요.
6. 토요일에는 자료를 삭제하니까 자기 자료는 USB나 이메일에 저장해요.
7. 선생님 좌석, 블루스크린 좌석은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어요.

사과해요

우리들이 정한 공동체 약속을 어기면, 먼저 식구총회에서 알리고 사과해요.

책임이행 후 알림

책임이 끝나면 식구총회에서 알림을 하고 나뉘요.

2-2-2 산청간디학교[고등]의 핸드폰, 매점, 전자기기, 외출외박 관련 학생 생활 규칙

필자는 산청간디학교 [고등]의 규칙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산청간디마을학교 에서는 제천간디학교의 논의가 많은 규칙인 핸드폰, 매점, 전자기기, 외출외박 관련 규칙들이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

[산청간디학교 [고등]의 핸드폰, 매점, 전자기기, 외출외박 관련학생 생활 관련규칙]

핸드폰 관련 규칙	휴대전화 사용 휴대전화로 실내에서 통화를 하거나 소리가 나면 72시간 동안 학생회 집행부가 보관합니다. 모든 건물(복도와 신발장 포함) 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단, 같이 있는 식구들의 동의를 얻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 선생님들은 교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72시간 동안 선생님이 보관해요. +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면 안돼요.
매점 관련 규칙	[매점 관련 규칙 딱히 없음] 라면 먹지 말아요 홍화원을 포함한 교내 공간에서는 라면을 먹지 말아요. (급식 제외) 배달음식 시켜 먹지 말아요. (단, 사오는 경우 제외)
전자기기 관련 규칙	전자기기 사용 1학년 2학기 이후부터 정보부 선생님들께 신청하고 식구총회 때 식구들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어요. 용도 외 사용시 경고를 주고, 2번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집으로 돌려보내요. +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전자기기 - 노트북, PMP, PSP, DMB등의 영상기기 + 동영상기능이 MP3, DMB폰 있는 영상기능을 사용하면 안돼요.
외출, 외박 관련 규칙	무단외출외박은 안돼요 -외출 : 1개월 + 주말에 노동작업 20시간 + 에세이 -외박 : 3개월 + 주말에 노동작업 40시간 + 에세이

	-채임이행 기간 중 다시 한번 규칙을 어긴다면 외출 시 3개월 추가 및 외출 시 주말에 노동작업 40시간 추가 + 에세이 외박이 3개월 추가 및 외박 시 주말에 노동작업 80시간 추가 + 에세이 (2008년 3월 27일 개정 315회) + 선생님의 허락 없이, 평일 혹은 주말에 무단으로 외출/외박 하는 것 포함 + 식구총회를 기준으로 적용, 방학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요. + 학사일정 및 대학입학관련의 경우에는 이 벌칙에 저촉되지 않으며, 식구들 앞에서 알려야 해요. + 기타 특수한 상황 발생시는, 안건으로 상정해서의결합니다. 무단외출외박은 안돼요 -외출 : 1개월 + 주말에 노동작업 20시간 + 에세이 -외박 : 3개월 + 주말에 노동작업 40시간 + 에세이 -채임이행 기간 중 다시 한번 규칙을 어긴다면 외출 시 3개월 추가 및 외출 시 주말에 노동작업 40시간 추가 + 에세이 외박이 3개월 추가 및 외박 시 주말에 노동작업 80시간 추가 + 에세이 (2008년 3월 27일 개정 315회) + 선생님의 허락 없이, 평일 혹은 주말에 무단으로 외출/외박 하는 것 포함 + 식구총회를 기준으로 적용, 방학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요. + 학사일정 및 대학입학관련의 경우에는 이 벌칙에 저촉되지 않으며, 식구들 앞에서 알려야 해요. + 기타 특수한 상황 발생시는, 안건으로 상정해서의결합니다.
--	--

이렇듯 산청간디학교 [고등]의 경우 제천간디학교에 논의가 많은 규칙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2-3 금산간디학교[중등]

2-3-1 금산 간디학교의 학생 생활 규칙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금산 간디학교[중등]의 전체적인 규칙이 어떤지 한번쯤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금산 간디학교[중등]의 학생 생활관련 규칙을 게시 하겠다.

[금산간디학교[중등]의 학생 생활 관련규칙]

우리들의 공동체 약속 (2010년 11월 5일)

1) 교육공간 : 교육공간은 식구들이 생활하는 학교와 기숙사를 포함해서 보석사까지입니다.

2) 무단외출, 무단외박, 무단침입은 안돼요.

① 무단외출 : 봉사 5시간(일주일 내 실행하지 못하면 남은 시간의 2배)

- 무단외출은 외출일지를 쓰지 않거나, 약속시간 내에 기숙사에 들어 가지 않을 경우
- 주말외출이나 외박시 오후 5시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학교에 들어오지 않으면 무단외출
- 기숙사에 오후 8시 30분 넘어 10시까지 시간에 들어오면 무단외출

② 무단외박 : 봉사 10시간(2주일 내 실행하지 못하면 남은 시간의 2배)

- 부모님과 학교에서 동의되지 않고 무단으로 외박하는 경우
- 기숙사에 오후 10시 이후에 들어오는 경우
- 새벽 6시 이전에 허락없이 기숙사를 나가는 경우

③ 무단 침입 : 저녁설거지 (인원수와 동일한 횟수만큼 하기- 2명이면 이틀)

- 무단침입은 잠겨져 있는 공간을 임의로 열고 들어가는 경우

④ 남녀 기숙사침입에 대해서 봉사 3시간을 합니다.

* 기숙사 입소는 오후 8시30분 (동절기, 하절기 동일)

* 생활관위원회 : 무단외박 2회 발생시, 그리고 생활이 계속 개선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때 생활관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사감샘과 담임, 기숙사장이 함께 자리를 만듭니다.)

3) 폭력(언어, 몸싸움, 왕따) 안돼요

언어폭력을 포함한 신체적 폭력은 금지되어 있으며, 폭력이 일어날 경우 평화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식솔회에 결정사항과 결과를 보고합니다.

4) 흡연은 안돼요

학생들은 장소와 관계없이 흡연할 수 없으며, 교사 및 학부모는 교육공간 안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어요.

* 금연위원회 규칙

- ① 금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② 흡연욕구가 있을 때 선생님과 솔직하게 상의하겠습니다.
- ③ 주위 친구들에게 담배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 ④ 수시로 담배에 대한 검사를 받겠습니다. (일산화탄소, 소변검사)
- ⑤ 1주일에 한번 금연위원회 모임에 참석합니다.
- ⑥ '아름다운 고자질'을 통해 학교내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⑦ 2달이상 금연확인시 금연위원회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 ⑧ 금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중 일부를 책임지겠습니다.

* 흡연시 규칙

	적발시	고백시	금연위원회 참여
1차	3박4일 봉사활동 또는 가정학습	주말 가정학습	금연위원회 참여 (1주일 1회) 부정기적인 흡연검사
2차	3박4일 봉사활동 (부모님과 함께)	2박3일 봉사활동 (부모님과 함께)	
3차	전문적인 상담	전문적인 상담	
4차	권고휴학	권고휴학	

- 2달이상 금연확인시, 금연위원회에서 탈퇴

5) 음주는 안돼요

학생들은 교육공간 안에서 음주를 할 수 없으며 외부에서는 보호자와 함께 할 경우 허용됩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교육공간 안에서 음주를 할 경우 식구들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음주의 경우, 봉사시간 10시간 (2주일 이내)과 담임상담을 진행합니다.

6) 안전

- ① 히치하이크 안돼요 : 신변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 ②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 1박2일 가정학습
- 2층 창밖에 나가거나 1학년 기숙사 봉타고 올라갈 경우
- ③ 자전거타기
- 헬멧없이 다닐 수 있는 장소(하지만 헬멧쓰기 권장)는 보석사 길, 운동장, 학교 앞 다리 건너 왼쪽길이고, 헬멧을 꼭 써야 갈 수 있는 장소는 위 학교쪽 기숙사길입니다.
- 그 이외의 곳은 교사 동행없이 다닐 수 없습니다.

7) 음식규정

- ① 배달음식은 안돼요 : 사가지고 와서 데크에서 먹는 것은 가능해요. 그리고 제대로 정리해요.
* 치킨을 배달시켜서 먹으면 봉사시간 3시간
- ② 학교와 기숙사 실내에서 과자먹으면 안돼요. : 과자는 카페나 데크에서만 가능해요.(실내에서 차나 과일을 먹는 것은 괜찮고, 뜯지않고 보관도 가능합니다.)
* 실내에서 과자를 먹은 경우 운동장 10바퀴를 뛰어야 합니다.
- ③ 학교나 기숙사에서 라면먹는 경우 : 봉사시간 3시간

8) 실내화 규칙

- ① 운동장에 실내화는 안돼요. 슬리퍼신고 내려오면 안돼요.
- 먼지 묻은 실내화를 밖에 나가거나, 실외화를 신고 공간 안으로 들어오면 학교가 더러워져요.
- 기숙사에서 아래학교까지 슬리퍼신고 내려오면 안돼요. 위험합니다.
* 위반시 그날 학교전체 쓰레기통 물청소하기
- ② 강당에 들어갈 때는 실내화를 신발장에 넣어야합니다.
* 위반시 복도 물청소합니다.

9) 전자기기 사용

- 1학년 2학기부터 MP3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업시간이나 공동으로 모였을 때는 안 됩니다. PMP나 전자수첩도 뮤직비디오만 볼 수 있어요. 인터넷이 되는 아이팟같은 기기도 사용이 안 됩니다.
- 노트북 사용도 금지입니다.
- * 무단사용시에는 일주일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휴대폰규칙

- ① 휴대폰은 주말(금요일 오후 5시부터 일요일 간식시간 7시반까지)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금요일 담임시간 마치고 찾아가고 일요일 간식먹으며 반납합니다.
- ② 1학년은 1학년 1학기는 교육적 의미에서 휴대폰없이 생활하고, 1학년 2학기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 1학년 1학기는 서로 친해지는 시기로 휴대폰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 ③ 스마트폰은 안되며, 학생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④ 사용규칙

*사용시간을 어기는 경우

- 1차 반납이 늦은 일수 * 2시간 봉사활동 + 일주일 압수
- 2차 휴대폰 한달간 압수
- 3차 휴대폰을 종전 규칙대로 사용 (외박시만 사용)

* 게임이나 인터넷, DMB을 하는 경우

- 1차 휴대폰 한달간 압수
- 2차 휴대폰을 종전 규칙대로 사용 (외박시만 사용)

* 휴대폰 부정사용시 (안전 등 중대한 문제) 한달간 압수

- 새치를 시키는데 휴대폰을 사용한 경우 적용
- 한달간 압수는 주말에도 주지 않고, 가정학습이나 방학때는 그 기간은 사용하고 이후 적용하기로 함

⑤ 이상을 바탕으로 시행하며 휴대폰위원회, 식솔회, 교사회를 통해 규칙을 조율합니다.

11) 기타

- 카드게임 과하면 식솔회 안건으로 다루어지고,
- 설거지 (가위,바위,보) 하지 않기
- 환경제품 사용하기가 있습니다.

12) 봉사시간 초과제 : 봉사시간을 정해진 기간에 마치지 못했을 경우, 남은시간의 2배를 한다.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다 마칠 때까지 외출과 외박은 금지된다.

* 다음과 같이 봉사시간을 대체할 수 있다.

- 파리 : 1마리 2분, 설거지 : 전체 3시간 * 1/n, 간식당번 1회 30분, 마을청소-학교청소 : 1봉지 30분, 산책 : 거부권+1/3사용가능

우리가 정한 공동체 약속을 어기면 먼저 식솔회에 알리고 사과를 한 후, 책임이행 후 다시 알림을 합니다.

2-3-2 금산간디학교[중등]의 핸드폰, 매점, 전자기기, 외출외박 관련 학생 생활 규칙

필자는 금산간디학교 [중등]의 규칙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금산간디학교 [중등]에서는 제천간디학교의 제천간디학교에서의 논의가 많은 규칙인 핸드폰, 매점, 전자기기, 외출외박 관련 규칙들이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

핸드폰 관련 규칙	10) 휴대폰규칙 ① 휴대폰은 주말(금요일 오후 5시부터 일요일 간식시간 7시반까지)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금요일 담임시간 마치고 찾아가고 일요일 간식을 먹으며 반납합니다.
-----------	--

	② 1학년은 1학년 1학기는 교육적 의미에서 휴대폰없이 생활하고, 1학년 2학기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 1학년 1학기는 서로 친해지는 시기로 휴대폰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③ 스마트폰은 안되며, 학생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④ 사용규칙 * 사용시간을 어기는 경우 - 1차 반납이 늦은 일수 * 2시간 봉사활동 + 일주일 압수 - 2차 휴대폰 한달간 압수 - 3차 휴대폰을 종전 규칙대로 사용 (외박시만 사용) * 게임이나 인터넷, DMB을 하는 경우 - 1차 휴대폰 한달간 압수 - 2차 휴대폰을 종전 규칙대로 사용 (외박시만 사용) * 휴대폰 부정사용시 (안전 등 중대한 문제) 한달간 압수 - 새치를 시키는데 휴대폰을 사용한 경우 적용 - 한달간 압수는 주말에도 주지 않고, 가정학습이나 방학때는 그 기간은 사용하고 이후 적용하기로 함
매점 관련 규칙	[매점 관련 규칙 딱히 없음] 음식규정 ① 배달음식은 안돼요 : 사가지고 와서 데크에서 먹는 것은 가능해요. 그리고 제대로 정리해요. * 치킨을 배달시켜서 먹으면 봉사시간 3시간 ② 학교와 기숙사 실내에서 과자먹으면 안돼요. : 과자는 카페나 데크에서만 가능해요.(실내에서 차나 과일을 먹는 것은 괜찮고, 뜯지않고 보관도 가능합니다.) * 실내에서 과자를 먹은 경우 운동장 10바퀴를 뛰어야 합니다. ③ 학교나 기숙사에서 라면먹는 경우 : 봉사시간 3시간
전자기기 관련 규칙	전자기기 사용 - 1학년 2학기부터 MP3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업시간이나 공동으로 모였을 때는 안 됩니다. PMP나 잔자수첩도 뮤직비디오만 볼 수 있어요. 인터넷이 되는 아이팟같은 기기도 사용이 안 됩니다. - 노트북 사용도 금지입니다. * 무단 사용 시에는 일주일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출, 외박 관련 규칙	무단외출, 무단외박, 무단침입은 안돼요. ① 무단외출 : 봉사 5시간(일주일 내 실행하지 못하면 남은 시간의 2배) - 무단외출은 외출일지를 쓰지 않거나, 약속시간 내에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 주말외출이나 외박시 오후 5시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학교에 들어오지 않으면 무단외출 - 기숙사에 오후 8시 30분 넘어 10시까지 시간에 들어오면 무단외출 ② 무단외박 : 봉사 10시간(2주일 내 실행하지 못하면 남은 시간의 2배) - 부모님과 학교에서 동의되지 않고 무단으로 외박하는 경우 - 기숙사에 오후 10시 이후에 들어오는 경우 - 새벽 6시 이전에 허락없이 기숙사를 나가는 경우 ③ 무단 침입 : 저녁설거지 (인원수와 동일한 횟수만큼 하기- 2명이면 이틀) - 무단침입은 잠겨져 있는 공간을 임의로 열고 들어가는 경우 ④ 남녀 기숙사침입에 대해서 봉사 3시간을 합니다. * 기숙사 입소는 오후 8시30분 (동절기, 하절기 동일) * 생활관위원회 : 무단외박 2회 발생시, 그리고 생활이 계속 개선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생활관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사감샘과 담임, 기숙사장이 함께 자리를 만듭니다.)

[금산간디학교[중등]의 핸드폰, 매점, 전자기기, 외출외박 관련 학생 생활 규칙]

이렇듯 금산간디학교 [중등]의 경우 제천간디학교에서 논의가 많은 규칙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2-4, 금산간디학교[고등]

2-4-1 금산 간디학교의 학생 생활 규칙.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금산 간디학교[고등]의 전체적인 규칙이 어떤지 한번쯤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금산간디학교 [고등]의 학생 생활관련 규칙을 게시 하겠다.

[금산간디학교[고등]의 학생 생활관련 규칙]

생활관 약속

●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들 (안전, 건강, 학칙의 사항)

- 1) 음주와 흡연은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 2) 흡연자가 있을 경우, 금연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피해사례 접수시 이에 해당하는 교육과 처벌을 받는다.
- 3) 음주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교사회를 통해 사전에 합의된 경우와 주말외박시 부모님의 허락을 얻은 경우에 가능하다. 허락받지 않은 음주를 했을 경우에는 전체모임에서 고백하고 책임활동제도에 따라 자기 책임을 진다.
- 4) 폭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위반할 경우 식솔회에서 논의한다.
- 5) 주중외출 가능시간은 12:30~17:00까지이며 담임 교사에게 이야기하고, 주말에는 당직교사에게 이야기하고 일지작성 후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무단외출로 간주한다.
(늦어질 경우 주중에는 담임교사, 주말에는 당직교사에게 연락해야 한다.)
(자유로운 외출허용 구간 : 학교주변의 산책로와 보석사길, 매곡리 정자까지)
- 6) 주말 외출은 6시 이후로 자유롭게 나가되 학교로 돌아오는 시간은 20:00까지이다.
- 7) 외박은 담임 쌤과 논의 후 부모님의 허락을 얻고 사감 쌤에게 알리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 기타 생활규칙

- 휴대폰 / 음악기기 : 수업, 회의, 지혜마루, 헤민서에서 사용하거나 소리가 나지 않도록 노력한다. (처벌조항은 2008년에 삭제)
- 배달 음식 : 평일은 금지이고,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일요일 저녁 6시까지 가능하며, 밤 11시 이전까지 마치도록 한다. 장소는 맞춤바라와 기숙사 거실에서 음식 배달은 가능하다. 어길 경우에는 식솔회에서 논의한다.
- 컴퓨터사용 : 학교컴퓨터와 개인노트북으로 게임을 하지 않는다. 사용시간은 기숙사 혹은 방별로 정하여 사용한다. 이를 어길 경우 72시간동안 컴퓨터를 압수하며, 주인이 아닌 사용자의 경우 3일 이내 3시간 봉사활동을 한다. / 학교 컴퓨터는 문서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준다. / 노트북은 지혜마루와 헤민서에서 사용할 수 없다. / 노트북 사용자들은 노트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 히치 하이크 : 학교 외부로 나가기 위해 지나가는 차를 얻어타는 경우, 반드시 2명 이상의 동행자가 있어야 한다. (학생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
- 자전거 규칙 : 탈 수 있는 구간 : 마을 내 모든 구간, 매곡리 정자까지 / 아래학교에서 보석사까지 / 아래학교 넘어 큰도로까지 갈 수는 없다. / 중학기숙사에서 아래학교까지 내리막길은 자전거에서 내려서 가지고 간다.(사고 위험) / 자전거 보관은 기숙사나 학교 뒤뜰 활용(학교 데크 보관 금지) / 헬멧은 가능한 착용하도록 한다. / 학교를 나가서 큰도로나 읍내를 갈 경우 교사의 인솔하에 가능하다.

1. 생활관에서 음주, 흡연, 돈을 거는 도박, 폭력, 절도, 무단 침입 등의 불건전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 배달음식의 경우 금요일저녁부터 일요일저녁까지 가능하다. (모든 종류의 라면은 금지)
2.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외부출입은 하지 않는다. (무단 외박)
3. 자기 물건이 아닌 것에는 허락 없이 손대지 않는다.
4. 환경을 오염시키는 합성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제품(세탁세제, 샴푸, 린스, 폼 클렌저, 치약 등)

은 사용하지 않는다. (위반하면 보관했다가 귀가할 때 돌려줍니다. 화장품은 친환경제품 사용을 권장합니다.)

5. 취침시간 이후 다른 방의 출입, 전화사용, 큰 목소리의 대화, 음악을 크게 트는 등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악기 사용시간은 기숙사별로 결정한다)
6. 묵학 시간에는 개인이 필요한 학습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한다.
7. 생활관 시설을 아끼고 소중하게 사용하며 파손할 경우, 개인이 변상 한다.
8. 생활관 청소와 빨래 등의 운영은 생활관 회의를 통하여 정하고 따른다.
9. 생활용품 사용에 대하여 : 각 생활관 별 매월 세제, 화장지, 비누(고등학교 동아리에서 만든 비누를 공동구매. 학교에서 일부 지원)를 지급한다.
10. 소등을 생활화 한다. (11시 이후)

※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배려의 마음입니다. 더불어 쾌적하고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요.

※ 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생활관에서 공동생활이 어렵다는 판단이 되면, 생활관 위원회에서 충고, 부모님 면담 등을 통하여 개선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활관에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 생활관 위원회 소집 규정(횟수는 1년간 유효합니다.)

무단외박 2회 : 1차 생활관 위원회 (생활관 교사, 담임교사, 해당학생)

무단외박 3회 : 2차 생활관 위원회 (생활관 교사, 담임교사, 해당학생, 해당학생 학부모)

무단외박 4회 : 생활관 퇴소

* 책임활동 안내

	기준	공공청소/ 식당도우미	걸기	외출금지	글쓰기	쌤들과 대화	행복나눔
라면	3시간	3시간	기준시간 5시간 이하는 외출금지 2주 5시간 이상은 외출금지 3주로 한다.	A4 한 장 이상 작성하여 책임제도 관리 쌤에게 제출한다.	면담 쌤 재량	결정 후 책임관리자에게 알리고 시행 후 가,부 판단은 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치킨 (배달음식)	5시간	주중, 주말 허용시간 이후(10시 이후)					
	10시간	주말 11시 이후 (새벽치킨 적용)					
무단외출	5시간	5시간					
무단외박	10시간	10시간					
음주	10시간	10시간					

*모든 실행기간은 발생 시점에서 2주 이내 마무리해야 합니다.

* 책임 선택을 2, 3가지 복수로 할 수 있습니다.

예) 무단외박 시 공공청소 3시간/글쓰기/걸기 1시간 등

* 식당도우미는 식당청소가 아니라 조리사쌤을 도와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 식당청소와 우유팩분리수거는 이제 책임제도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합니다.

* 걸기는 혼자하며 쌤과 면담을 하며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보석사 은행나무까지 왕복 1시간으로 합니다.

* 글쓰기는 분량에 따른 책임 중량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며 완료 여,부

는 책임제도 관리자(담당샘)가 합니다. 글쓰기를 하고 담당샘에게 냅니다.

* 행복나눔은 그림, 농사, 도예 등 자신의 재능을 기부해서 모두의 행복을 위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 위 책임제도 내에서 문제의식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조정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 2주 이내 자기 책임을 하지 않으면 시간 초과로 완료시까지 외출금지이며 일주일 간 완료시간을 더 주고 그 기간 사회봉사활동을 합니다.(예외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못할 경우 조정위원회를 거쳐 교내 공공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구성원

-5명 교사대표 (1인) 학생대표 (2인) 책임제도 관리자 (2인) : 5인이 의결권을 갖는다.

-조정위원회 소집은 사건발생 최대 1주일 이내에 열려야 합니다.(단, 주말은 제외 예: 토요일에 일어난 경우 금요일까지는 조정위원회 소집). 이 시간 안에 조정위원회 소집을 하지 않았을 시 기존의 책임제도 대로 책임을 진다.

-조정위원회에 참석을 할 때는 자신을 변론 해 줄 수 있는 교사나 학생과 함께 들어 올 수 있습니다.

2-4-2금산간디학교[고등]의 핸드폰, 매점, 전자기기, 외출외박 관련 학생 생활 규칙

필자는 금산간디학교 [고등]의 규칙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금산간디학교 [고등]에서는 제천간디학교의 논의가 많은 규칙인 핸드폰, 매점, 전자기기, 외출외박 관련 규칙들이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

[2-4-2금산간디학교[고등]의 핸드폰, 매점, 전자기기, 외출외박 관련 학생 생활 규칙]

핸드폰 관련 규칙	- 휴대폰 / 음악기기 : 수업, 회의, 지혜마루, 헤민서에서 사용하거나 소리가 나지 않도록 노력한다. (처벌조항은 2008년에 삭제)
매점 관련 규칙	[딱히 매점 관련 규칙은 없다.] - 배달 음식 : 평일은 금지이고,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일요일 저녁 6시까지 가능하며, 밤 11시 이전까지 마치도록 한다. 장소는 맛좀봐라와 기숙사 거실에서 음식 배달은 가능하다. 어길 경우에는 식솔회에서 논의한다.
전자기기 관련 규칙	- 컴퓨터사용 : 학교컴퓨터와 개인노트북으로 게임을 하지 않는다. 사용시간은 기숙사 혹은 방별로 정하여 사용한다. 이를 어길 경우 72시간동안 컴퓨터를 압수하며, 주인이 아닌 사용자의 경우 3일 이내 3시간 봉사활동을 한다. / 학교 컴퓨터는 문서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준다. / 노트북은 지혜마루와 헤민서에서 사용할 수 없다. / 노트북 사용자들은 노트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외출, 외박 관련 규칙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외부출입은 하지 않는다. (무단 외박) 이를 어길 경우 무단 외출 : 노작 5시간 외출금지 2주 A4한장 이상 작성하여 책임제도 쌤에게 제출 무단 외박 : 노작10시간 외출금지 3주 A4한장 이상 작성하여 책임제도 쌤에게 제출.

이렇듯 금산간디학교 [고등]의 경우 제천간디학교에 논의가 많은 규칙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3. 논의가 많은 제천간디학교의 학생생활규칙과 타 간디학교의 규칙 비교

자 이제 필자는 제천간디학교의 논의가 많은 학생 생활 규칙과 타 간디학교의 학생 생활 규칙을 비교해 보겠다.

3-1 핸드폰 관련 규칙 비교

핸드폰 관련 규칙	
제천간디 학교	핸드폰 규칙 - 휴대폰 소지 금지 (사감쌤께 맡기는 것, 주변 학생들 집에 맡기는 것 포함) 이유는? - 공동체 생활에서 소통이 안 됨. 수업시간 방해 가져왔을 경우 (한 학기 기준) 1단계 - 귀가조치 (집에 두고 오세요. 양식종이를 가져가서 작성해서 와야합니다.) 2단계 - 학생회에서 무료 보관 해드립니다. (2달)
산청 마을학교	핸드폰 관련 규칙은 딱히 없으나 외박을 갈 때는 사용가능
산청 간디학교[고등]	휴대전화 사용 휴대전화로 실내에서 통화를 하거나 소리가 나면 72시간 동안 학생회 집행부가 보관합니다. 모든 건물(복도와 신발장 포함) 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단, 같이 있는 식구들의 동의를 얻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 선생님들은 교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72시간 동안 선생님이 보관해요. +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면 안돼요.
금산 간디학교[중등]	10) 휴대폰규칙 ① 휴대폰은 주말(금요일 오후 5시부터 일요일 간식시간 7시반까지)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금요일 담임시간 마치고 찾아가고 일요일 간식먹으며 반납합니다. ② 1학년은 1학년 1학기는 교육적 의미에서 휴대폰없이 생활하고, 1학년 2학기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 1학년 1학기는 서로 친해지는 시기로 휴대폰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③ 스마트폰은 안되며, 학생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④ 사용규칙 * 사용시간을 어기는 경우 - 1차 반납이 늦은 일수 * 2시간 봉사활동 + 일주일 압수 - 2차 휴대폰 한달간 압수 - 3차 휴대폰을 종전 규칙대로 사용 (외박시만 사용) * 게임이나 인터넷, DMB을 하는 경우 - 1차 휴대폰 한달간 압수 - 2차 휴대폰을 종전 규칙대로 사용 (외박시만 사용) * 휴대폰 부정사용시 (안전 등 중대한 문제) 한달간 압수 - 새치를 시키는데 휴대폰을 사용한 경우 적용 - 한달간 압수는 주말에도 주지 않고, 가정학습이나 방학때는 그 기간은 사용하고 이후 적용하기로 함

금산 간디학교[고등]	- 휴대폰 / 음악기기 : 수업, 회의, 지혜마루, 헤민서에서 사용하거나 소리가 나지 않도록 노력한다. (처벌조항은 2008년에 삭제)
-------------	---

일단 규칙을 딱 보았을 때 제천 간디학교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사용이 완전히 금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대안학교들은 모두 다 휴대폰 사용이 부분적으로나, 아니면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제천간디 학교만은 유독 휴대폰사용에 대해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그것은 왜 그럴까?

제천 간디학교의 경우, 휴대폰 문제 때문에 2007년부터 많은 토론회와 회의를 통해 휴대폰 사용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휴대폰사용에 대한 금지가 되었고 타 간디학교와는 차별된 규칙이 제정이 된 것이다. 현재는 휴대폰 사용관련 금지 규칙이 있다. 필자는 이러한 규칙이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고 그 부분을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인터뷰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몇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부 우리들 안에서의 소통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였고 게임, 인터넷 사용 등 우리들의 자제력 문제도 있으며 안 가질 사람이 느낄 소외감, 도난 문제, 금전적 문제, 정답과 딱딱한 것들이 사라진다. 등 때문에 휴대폰 사용이 금지 되었다고 답하였다.

그렇다면 타 대안 학교 사람들은 왜 휴대폰 사용을 부분적으로 아니면 완전히 사용을 하는 것일까? 그 부분은 타 간디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인터뷰해 보았다.

타 간디학교의 휴대폰 사용	
산청 마을학교	핸드폰 사용을 외박을 할 경우 휴대폰을 돌려주며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 휴대폰을 보관
산청 간디학교	휴대폰 사용이 공동체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
금산간디학교[중등]	1학년 1학기 때는 사용불가 2학기 때부터 휴대폰은 주말만 사용 가능 1학기 때는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친구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다
금산간디학교[고등]	1학년 1학기 때는 사용불가 2학기 때부터 자유사용. 1학기 때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의 의미는 학교에 들어와서 친구들과 만나고 적응하는 시기에 휴대폰 없이 사람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자는 의미도 있고, 학교 오기 전 늘 옆에 두고 살았던 휴대폰에서 해방되어 지내보자는 의미가 있다.

타 간디학교의 휴대폰 사용 규칙 제정 배경	
산청 마을학교	산청 마을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교를 할 당시에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 배경에는 우선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앞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맞대며 대화하고 뛰어노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럴만한 기회를 만들어 주는 공간이 학교라고 생각해서, 또한 전자파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평소에 가지고 있으면 배달음식이나 소통의 단절을 가져 올수 있기 때문에 산청 마을학교의 경우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한다. 하지만 안전의 문제로 집에 갈 때와 올 때는 휴대폰 사용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산청 간디학교	산청 간디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공중전화가 있었다. 학생들이 집에 부모님과 통화를 하려고 하면 초창기에는 학교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공중전화 보다는 휴대폰이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깐 부모님들이 휴대폰을 많이 구입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중전화 사용이 잘 안되니깐 식구 총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휴대폰 사용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
금산간디학교[중등]	금산 간디[중등]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휴대폰 사용이 금지 되어 있었지만 학생들의 지속적인 휴대폰 사용 요구에 [외부와의 소통의 단절, 시내에 나갈 경우 안전문제를 이유로] 교사회에서 휴대폰 위원회를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고 지켜지지 않을시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모색해 오라고 하였고, 학교 자체적으로 교사, 아이들 모두가 참여하여 휴대폰 사용에 대한 열띤 토의가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폰은 주말만 사용이라는 절충안이 나오게 되었다.
금산간디학교[고등]	금산 간디학교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학생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식솔회 에서 자주 논의를 하였고 교사와 학생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된 것이 1학년 1학기 때는 사용하지 않고 2학기 때부터 사용하는 것이다.

타 간디학교의 휴대폰 사용 문제, 해결방법	
산청 마을학교	휴대폰을 평일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외부와의 소통 문제를 이야기 한다고 한다. 그리고 휴대폰을 외박이나 가정학습을 다녀와서 그냥 입교를 해서 그날 저녁에 몇 시간뿐인 그 휴대폰 사용 시간에도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산청 간디학교	학교에 공중전화 사용이 잘되지 않고 현실적인 편리성 때문에 사용을 하기로 했던 것인데 이제는 이 휴대폰 사용이 자연스러워 지다 보니깐 휴대폰으로 인해서 간디학교 철학과 맞지 않는 부분, 위화감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 해왔다고 한다. 산청 간디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제어한다는 전제하에서 사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삼각 한 경제적인 위화감 조성이라던 지 소통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산청 학생들의 생각은 그 문제들의 계기를 핸드폰이 만들어 줄 수 있어도 그것이 주가 되진 않기 때문에 핸드폰을 쓰면서 고립이 되거나 할 순 있지만 핸드폰을 쓰면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거 같다는 산청 학생들의 생각이다. 진짜 산청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다른 곳에서 나왔다. 옛날 휴대폰은 단순한 통화 기능이었고 기껏해야 문자 정도였는데 지금은 훨씬 뛰어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이것이 과연 노트북과 다른 게 뭐냐 해서 이야기가 붙어지고 있다고 한다.
금산간디학교[중등]	소외감, 소통의 문제, 도난의 문제와 금전적 문제를 소외감 부분의 경우, 금산은 서로 필요시에 기꺼이 빌려주기로 하였으며 도난의 문제의 경우, 사감샘들의 일괄적인 수거로 인하여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금전적 문제 같은 경우, 직접적인 사례가 없다고 한다. 요금제는 학생 요금제를 통일하기로 했으며 게임,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금산 간디학교 학생의 말로는 실제로 주말만 사용하니 소외감, 도난, 금전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로 인터뷰를 한 많은 학생들이 휴대폰의 주말만 사용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게 생각하는걸 알 수 있었다.
금산간디학교[고등]	휴대폰과 전자기기의 사용이 잦고,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학생들의 문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만큼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식솔회를 통해 함께 이야기를 해서 우리의 휴대폰과 전자기기 사용 문화를 한번 재점검하며 휴대폰 등을 자주 사용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어본다고 한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학생회 자치적으로 전자기기 없는 날을 만들어 자신이 하고 싶은 사람 안에서 전자기기 없이 하루를 지내보기를 실천하여 하나의 학교 문화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휴대폰 사용에 긍정적이진 않다. 작년부터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시작되어 대부분의 사

	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추세이다. 금산 같은 경우 2011학년 1학기에 알아본 스마트폰 사용자가 채 10명도 되지 않았으나, 2학기에는 사실상 학생 수 절반이 스마트폰 사용자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매일 귀에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 학생, 자주 게임을 하는 학생, SNS를 이용하는 학생 등으로 학생사이의 소통이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 학생들이 학생총회에 발제를 해서 회의를 한 결과 ‘자중하자’라는 방향으로 해답이 제시되었으나 2~3주 내로 다시 무심하게 변해버린 학생들이 대다수였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천 간디학교가 여러 부분에서 불편하겠지만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행복(여러 동아리활동, 학생들과의 어울림 등)을 부러워하는 학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필자는 이 인터뷰를 통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었다. 산청 마을학교나 금산 간디학교[중등] 같이 중등 만 생활 하는 간디학교의 경우 휴대폰 규칙이 제한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산청간디학교, 금산간디학교[고등] 같은 경우는 평일에도 완전히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학교에서 우려하는 부분인 소외감, 도난 문제, 금전적 문제, 그리고 내부와의 소통의 단절이 없는 것은 아니나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잘 해결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산청과 금산같이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있었다. 바로 작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스마트 폰에 대한 문제이다. 이 스마트폰에 대한 문제를 휴대폰 사용이 자유로운 학교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으며 해결책을 찾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3-2 매점 관련 규칙 비교

매점 관련 규칙	
제천 간디학교	매점 규칙 - 학교 주변 매점 이용 할 수 없음. (주말에도 못갑니다.) 이유는? - 현금소지로 인한 도난 위험, 쓰레기 처리,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건강에도 안 좋아 갔을 경우 1단계 : 사과문, 마을청소1회(쓰레기봉투 50L), 먹은 과자 유해성 조사 게시판에 붙이기 2단계 : 사과문, 마을청소1회(50L), 매점에 가면 안 되는 이유 써서 붙이기, 식기 10개 닦기 3단계 : 사과문, 마을청소1회(50L), 식기 20개 닦기 4단계 : 사과문, 마을청소1회(50L), 식기30개 닦기, 책 발제(쌤과 이야기해서 정해야 함.) 5단계 : 마을청소1회(100L) , 식기 40개 닦기 → 1학기 기준 * 매점이 아닌 교육 공간 안에서 인스턴트 식품을 먹었을 경우에 1단계 규칙과 같다.
산청 마을학교	매점 관련 규칙은 딱히 없다.
산청 간디학교[고등]	[매점 관련 규칙 딱히 없음] 라면 먹지 말아요 홍화원을 포함한 교내 공간에서는 라면을 먹지 말아요. (급식 제외) 배달음식 시켜 먹지 말아요. (단, 사오는 경우 제외)
금산 간디학교[중등]	[매점 관련 규칙 딱히 없음] 음식규정 ① 배달음식은 안돼요 : 사가지고 와서 데크에서 먹는 것은 가능해요. 그리고 제대로 정리해요.

	* 치킨을 배달시켜서 먹으면 봉사시간 3시간 ② 학교와 기숙사 실내에서 과자먹으면 안돼요. : 과자는 카페나 데크에서만 가능해요.(실내에서 차나 과일을 먹는 것은 괜찮고, 뜯지않고 보관도 가능합니다.) * 실내에서 과자를 먹은 경우 운동장 10바퀴를 뛰어야 합니다. ③ 학교나 기숙사에서 라면먹는 경우 : 봉사시간 3시간
금산 간디학교[고등]	[딱히 매점 관련 규칙은 없다.] - 배달 음식 : 평일은 금지이고,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일요일 저녁 6시까지 가능하며, 밤 11시 이전까지 마치도록 한다. 장소는 맛좀봐라와 기숙사 거실에서 음식 배달은 가능하다. 어길 경우에는 식솔회에서 논의한다.

매점 관련 규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 간디학교에는 매점 관련 규칙이 딱히 없다는 것을 위 내용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천 간디 학교 가 왜 유독 타 간디학교 들이 딱히 가지고 있지 않은 매점 관련 규칙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제천간디 학교 학생 인터뷰를 통해 왜 그런지 알아 보았다. 인터뷰 과정 중 나온 내용은 매점 사용이 되면 너무나도 많은 쓰레기 문제와 도난 문제가 심각 할 것 이라고 한다. 그러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옛날 에는 매점을 부분적으로 갈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일주일에 무슨 요일은 매점에 갈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렇게 하니깐 매점 가는 날이 아닌 데도 무단으로 매점 사용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쓰레기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며, 도난에 대한 문제도 상당 했다고 한다. 그래서 매점을 다시 갈수 없도록 했다. 이런 예가 있어서 제천 간디학교 에서는 매점에 가지 못하도록 규칙을 제정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타 간디학교에는 왜 매점 관련 규칙이 딱히 없는 것 일까? 타 간디학교는 쓰레기 문제, 도난 문제가 없는 것일까? 그 부분을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타 간디학교의 매점의 사용	
산청 마을학교	외부에서 들여오는 간식은 먹지 못하며, 근처에 매점이 없다. 대신 학교 안에 매점이 있다.
산청 간디학교	학교 근처에 매점이 있다. 하지만 매점이 너무나도 멀어 생각보다 학생들이 매점에 가지 않는다. 그래서 규칙으로 규제해 놓지 않았다.
금산간디학교[중등]	학교 근처 매점이 있으며 학생들은 휴게실, 1동 데크, 운동장 선생님들은 교무실에서만 음식물 섭취를 허가
금산간디학교[고등]	가까운 곳에 상점이 있지 않다 그 대신 학교 근처 카페에서 친환경 과자나 라면을 먹는다.

타 간디학교의 매점문제, 해결방법	
산청 마을학교	학교 안 매점도 간식을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번년도에 4차례 매점 도난이 일어났으며 매점을 도난에서 구할 방법을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한다.
산청 간디학교	매점 물건을 훔친다거나 하는 도난 문제는 일어난 적이 없다 하지만 소지하고 있던 돈을 훔쳐가는 경우는 몇 번 있었지만 근 2년 사이에 급속히 도난이 줄어들고 있다.
금산간디학교[중등]	원래 매점이용, 실내에서의 음식 섭취가 가능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쓰레기, 식사를 거르는 일이 나오자 회의를 하였고 그 결과 학교 내에서 음식물섭취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너무 불편하여 일정한 장소에서의 음식물 섭취를 허가하게 되었으며 쓰레기양이 줄어들었다.
금산간디학교[고등]	도난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매점 쓰레기는 조금 나온다. 그래서 동아리에서 캠페인 등을 하며, 환기차원으로 이야기를 하며 해결을 한다.

필자는 인터뷰를 통해 몇 가지를 알 수 있었다. 산청 마을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근처 매점이 없으며 자치매점을 운영 중이지만 계속되는 자치매점 도난으로부터 학생들이 도난에서 구할 방법을 논의 중이다. 산청 간디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근처 매점이 있지만 너무 멀어서 거의 이용하지 않으

며 매점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는 없지만 도난문제는 조금 있다 하지만 근2년 사이 거의 도난은 사라지는 형편이며 매점보다는 배달음식 문제가 더 심각하다. 금산 간디학교(중등)같은 경우 원래 매점 이용이 무제한으로 가능 하였지만 너무나 많은 쓰레기 문제 때문에 음식물 섭취 장소의 제한을 두고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금산 간디학교(고등)같은 경우에는 근처의 매점이 없으며 학교 근처 카페에 가서 친환경 과자나 라면 등을 사먹는다. 이때 매점 쓰레기가 조금 나오는데 동아리 활동이나 캠페인, 논의를 통해 해결을 한다.

3-3 전자기기 관련 규칙 비교

전자기기 관련 규칙	
제천 간디학교	전자기기 규칙 노트북 - 교사회, 학생회 의 동의를 받은 후 사용 가능합니다. - 공공장소, 수업, 기타 등등 모임에서는 사용하지 맙시다. (다른 전자기기들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들. - 게임 , DMB, TV 프로그램 다운 / 닌텐도, PSP 소지 안 됩니다. / 고데기 사용도 금지
산청 마을학교	○ 전자기기 사용과 오락 1. 정보실의 컴퓨터를 제외한 모든 컴퓨터(개인 노트북 등)의 학내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2. 개인 전자기기로 게임이나 DMB 시청을 할 수 없다. - 게임을 할 경우 포맷한다. - DMB시청을 할 경우 72시간동안 사용할 수 없다.(담당 교사가 보관함) 3. 핸드폰은 사용할 수 없으며 몰래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1학기 담임이 보관한다.
산청 간디학교[고등]	전자기기 사용 1학년 2학기 이후부터 정보부 선생님들께 신청하고 식구총회 때 식구들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어요. 용도 외 사용시 경고를 주고, 2번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집으로 돌려보내요. +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전자기기 - 노트북, PMP, PSP, DMB등의 영상기기 + 동영상기능이 MP3, DMB폰 있는 영상기능을 사용하면 안돼요.
금산 간디학교[중등]	전자기기 사용 - 1학년 2학기부터 MP3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업시간이나 공동으로 모였을 때는 안 됩니다. PMP나 잔자수첩도 뮤직비디오만 볼 수 있어요. 인터넷이 되는 아이팟같은 기기도 사용이 안 됩니다. - 노트북 사용도 금지입니다. * 무단 사용 시에는 일주일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산 간디학교[고등]	- 컴퓨터사용 : 학교컴퓨터와 개인노트북으로 게임을 하지 않는다. 사용시간은 기숙사 혹은 방별로 정하여 사용한다. 이를 어길 경우 72시간동안 컴퓨터를 압수하며, 주인이 아닌 사용자의 경우 3일 이내 3시간 봉사활동을 한다. / 학교 컴퓨터는 문서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준다. / 노트북은 지혜마루와 헤민서에서 사용할 수 없다. / 노트북 사용자들은 노트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전자 기기 관련 규칙 같은 경우 다른 학교랑 제천간디 학교랑 사실 별척이나 규칙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다를 뿐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다른 학교랑 제

천 간디학교랑 다르지 않는 것일까? 그 부분을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타 간디학교의 전자기기의 사용	
산청 마을학교	mp3, mp4 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 그러나 DMB시청과 게임을 넣어서 사용할 수 없으며 학교 내에서 개인 노트북 사용은 금지 매일 3시간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중독된다는 근거가 있어 사용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산청 간디학교	전자기기 사용이 처음부터 금지 경제적인 위화감 조성, 소통의 문제,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교사회에서 이 부분을 금지 해왔다. 하지만 자기 진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동의하는 절차를 구해서 사용을 한다
금산간디학교[중등]	기본인 전자기기에 대한 이해는 제천간디학교와 비슷하다. 1학년 1학기 때는 모든 전자 기기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소통을 위해서이다. 인터넷이 되는 전자기기는 모두 금지이다.
금산간디학교[고등]	1학년 1학기 는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한다. 하지만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큰 제약 없이 노트북이나 다른 전자기기 사용이 자유롭다. 노트북 사용 같은 경우 올해 유독 논의가 많았는데 2012년부터 일체 개인노트북 사용이 금지될 예정

타 간디학교의 전자기기의 문제, 해결방법	
산청 마을학교	지금 산청 간디마을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터넷이 되는 기계인 아이패드와 아이 팟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
산청 간디학교	산청 간디학교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처음 사용하기로 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다. 지금 현재 전자 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 식구총회 안건으로 논의 중에 있다.
금산간디학교[중등]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였다.
금산간디학교[고등]	금산간디 [고등]은 1학년 1학기 때의 제한 말고는 2학기 때부터 자유롭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논의를 하여 지금 현재 제한적인 사용 중이며 2012년부터는 일체 개인노트북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필자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중등만 사는 금산 간디학교(중등), 산청간디마을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자 기기 사용이 시간, 사용의 제약이 많으며 노트북 같은 경우 사용이 불가능 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산청 간디학교 같은 경우 전자기기 사용이 처음부터 금지가 되어 있었다. 그 배경에는 경제적인 위화감 조성, 소통의 문제,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며 자기 진로에 관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동의를 구해서 사용 하지만 문제는 사용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 문제를 논의 중이다. 금산간디학교(고등)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때의 제한 말고는 2학기 때부터 자유롭게 쓸 수 있었으나.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 논의를 하여 지금 현재 제한적인 사용이 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노트북 같은 경우 개인 노트북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3-4 외출, 외박 관련 규칙 비교

외출, 외박 관련 규칙	
제천 간디학교	무단외출 - 평일에 선고 2구 이상, 도기까지 나가면 안됨. 주말 외출은 12시부터 가능 입소는 7시 30분까지 기숙사로 이유는? - 수업에 지장, 사고나 실종의 위험 값을 경우 - 외출·외박 2주 금지 무단외박 - 평일·주말(종이에 안 쓰고) 기숙사 외에서 외박하는 것. 이유는? - 사고나 실종의 위험

	갔을 경우 - 전교생에게 개개인별로 사과·싸인 받기 (종이는 학생회에 에게 받고), 외출외박 3주금지 ** 외출. 외박 금지 벌칙을 받는 학생들은 평일, 주말에 못나갑니다. 개인적인 일, 수업 체험학습, 등산 모두 포함됩니다. 판례로는 전교생 싸인을 받고 나가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싸인을 받고 나가게 될 때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로) 1주일 밀리게 됩니다.
산청 마을학교	○ 외출외박 1. 외출을 갈 경우에는 외출 일지를 꼭 써야한다.(통학생은 자신의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는다) 2. 외박을 할 경우에는 외박을 할곳을 자신의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허락된다. (홈페이지 ‘바깥나들이’ 란 사용) 3. 무단으로 외출을 할 시에는 원지까지 주말 도보 4회 (편도) 를 실시한다.(포인트를 정해서 사진을 찍어온다) 단, 무단 외박시에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교사회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4. 모든 학생은 원칙적으로 평일에는 외출외박을 할 수 없고 주말에만 가능하다. 다만 집안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평일 외출외박이 가능하다. 5. 평일 일과시간 중에는 숙소(기숙사, 홈스테이)로 갈 수 없다. (교사의 허락을 받은 뒤에 는 가능함) 6. 외출 시 교무실로 와서 당직교사에게 입교 확인을 한 후 기숙사로 들어간다.
산청 간디학교[고등]	무단외출외박은 안돼요 -외출 : 1개월 + 주말에 노동작업 20시간 + 에세이 -외박 : 3개월 + 주말에 노동작업 40시간 + 에세이 -책임이행 기간 중 다시 한번 규칙을 어긴다면 외출 시 3개월 추가 및 외출 시 주말에 노동작업 40시간 추가 + 에세이 외박이 3개월 추가 및 외박 시 주말에 노동작업 80시간 추가 + 에세이 (2008년 3월 27일 개정 315회) + 선생님의 허락 없이, 평일 혹은 주말에 무단으로 외출/외박 하는 것 포함 + 식구총회를 기준으로 적용, 방학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요. + 학사일정 및 대학입학관련의 경우에는 이 벌칙에 저촉되지 않으며, 식구들 앞에서 알려야 해요. + 기타 특수한 상황 발생시는, 안건으로 상정해서의결합니다. 무단외출외박은 안돼요 -외출 : 1개월 + 주말에 노동작업 20시간 + 에세이 -외박 : 3개월 + 주말에 노동작업 40시간 + 에세이 -책임이행 기간 중 다시 한번 규칙을 어긴다면 외출 시 3개월 추가 및 외출 시 주말에 노동작업 40시간 추가 + 에세이 외박이 3개월 추가 및 외박 시 주말에 노동작업 80시간 추가 + 에세이 (2008년 3월 27일 개정 315회) + 선생님의 허락 없이, 평일 혹은 주말에 무단으로 외출/외박 하는 것 포함 + 식구총회를 기준으로 적용, 방학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요. + 학사일정 및 대학입학관련의 경우에는 이 벌칙에 저촉되지 않으며, 식구들 앞에서 알려야 해요. + 기타 특수한 상황 발생시는,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결합니다.

금산 간디학교[중등]	무단외출, 무단외박, 무단침입은 안돼요. ① 무단외출 : 봉사 5시간(일주일 내 실행하지 못하면 남은 시간의 2배) - 무단외출은 외출일지를 쓰지 않거나, 약속시간 내에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 주말외출이나 외박시 오후 5시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학교에 들어오지 않으면 무단외출 - 기숙사에 오후 8시 30분 넘어 10시까지 시간에 들어오면 무단외출 ② 무단외박 : 봉사 10시간(2주일 내 실행하지 못하면 남은 시간의 2배) - 부모님과 학교에서 동의되지 않고 무단으로 외박하는 경우 - 기숙사에 오후 10시 이후에 들어오는 경우 - 새벽 6시 이전에 허락없이 기숙사를 나가는 경우 ③ 무단 침입 : 저녁설거지 (인원수와 동일한 횟수만큼 하기- 2명이면 이틀) - 무단침입은 잠겨져 있는 공간을 임의로 열고 들어가는 경우 ④ 남녀 기숙사침입에 대해서 봉사 3시간을 합니다. * 기숙사 입소는 오후 8시30분 (동절기, 하절기 동일) * 생활관위원회 : 무단외박 2회 발생시, 그리고 생활이 계속 개선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생활관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사감샘과 담임, 기숙사장이 함께 자리를 만듭니다.)
금산 간디학교[고등]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외부출입은 하지 않는다. (무단 외박) 이를 어길 경우 무단 외출 : 노작 5시간 외출금지 2주 A4한장 이상 작성하여 책임제도 쌤에게 제출 무단 외박 : 노작10시간 외출금지 3주 A4한장 이상 작성하여 책임제도 쌤에게 제출

외출 외박 관련 규칙 같은 경우에도 전자기기 사용 규칙 처럼 다른 학교랑 제천간디 학교랑 사실 별칙이나 규칙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다를 뿐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다른 학교랑 제천 간디학교랑 다르지 않는 것일까? 그 부분을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타 간디학교의 외출외박관련규칙의 사용	
산청 마을학교	산청 마을학교 같은 경우 외출은 외출 일지에 시간과 장소, 동행인을 기록하고 나 갈수 있으며 평일 외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외박은 학부모 카페 나들이 신청 게시판에 부모님들이 신청을 하시면 담임이 확인 후 나갈 수 있다. 외박 신청을 이렇게 하기된 이유는 학부모님들과 담임이 학생들의 위치를 알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외출, 외박관련 규칙 같은 경우 학생들의 안전상의 문제로 인하여 정해진 것이다.
산청 간디학교	산청 간디학교 같은 경우 외출, 외박 규칙이 어떤 통제의 개념이 아니다.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하여 식구총회에서 외출외박에 대한 규정을 공동체 약속으로 만든 것이며 학생들과 같이 정한거기 때문에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문제는 학생들이 몰래 나가는 것이 문제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들이 공동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조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금산간디학교[중등]	외출 외박은 주말에만 가능하다. 외박은 금산간디학교(고등) 과 마찬가지로 학부모 카페에서 부모님이 신청을 해야 하며 금요일 저녁부터 가능하다. 이것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은 없으며 문제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금산간디학교[고등]	외출은 평일과 주말 외출로 나뉘는데 평일은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병원, 학교 일이나 수업에 필요한 물건 사기 등)에 한해서 나갈 수 있다.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로운 환경을 원했고 회의를 하여 정하였다. 외박은 금요일에 부모님이 카페에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받고 외박여부를 확인하여 갈수 있다. 금산의 규칙이 이렇게 정해진 데는 제일 기본적인 안전을 위해서 이다.
------------	--

필자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외출, 외박에 대한 규칙이 이렇게 정해진 이유가 학교마다 조금 식은 다르겠지만 공통된 부분이 안전상의 문제 때문이란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학교 같은 경우 학생들이 외출, 외박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특이하게 금산간디학교(고등)만이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로운 환경을 위하여 논의를 거쳐 학생들의 이야기가 수렴이 되었다. 그리고 금산의 특이한 점은 해의 길고 짧음에 따라서 외출시간이 달라진다.

4. 제천간디학교와 규합하는 학생 생활 규칙 제시

이제 필자는 제천간디학교와 규합하는 학생 생활 규칙을 제시 하도록 하겠다. 이때까지 우리 학교 규칙을 알아본 다음 우리 학교에서 논의가 많은 규칙을 알아보았고 또 다른 간디학교들의 규칙을 알아본 다음 다른 간디학교들은 우리 학교에서 논의가 많은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그다음 다른 간디학교의 규칙이 제천간디학교의 규칙이랑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를 해 보았고 다른 간디학교의 규칙이 왜 그렇게 정해 졌는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그럼 이제 제천간디학교에 규합 되는 규칙을 제시 하여 보겠다.

[휴대폰 관련 규칙.]

지금 제천간디의 휴대폰 관련 규칙	제시하는 휴대폰 관련 규칙
핸드폰 규칙 - 휴대폰 소지 금지 (사감쌤께 맡기는 것, 주변 학생들 집에 맡기는 것 포함) 이유는? - 공동체 생활에서 소통이 안 됨. 수업시간 방해 가져왔을 경우 (한 학기 기준) 1단계 - 귀가조치 (집에 두고 오세요. 양식종이를 가져가서 작성해서 와야합니다.) 2단계 - 학생회에서 무료 보관 해드립니다. (2달)	핸드폰 규칙 - 휴대폰은 외박, 가정학습을 갈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외박, 가정학습을 갈 때 사감쌤에게 받고 갔다 와서는 다시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휴대폰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빌려줍니다. 맡기지 않았을 경우 - 휴대폰과 함께 집에 가서 두고 오며 1년 동안 학교에 휴대폰을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단 사정이 있어서 맡기지 못했을 때는 가족회의에서 이야기 해 봅니다.]

필자가 제시하는 휴대폰 관련 규칙은 외박, 가정학습 갔다가, 올 때만 쓴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와서는 사감쌤에게 맡겨야 하며 맡기지 않을 경우 벌칙을 받아야 합니다. 필자가 외박, 가정학습을 갔다 올 때만 쓰자고 하는 이유는 이미 산청마을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로 휴대폰 사용이 외박, 가정학습을 갔다 올 때 핸드폰을 줬다가 다시 반납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규칙이 실행이 된다면 내부와의 소통문제, 휴대폰 도난 등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을 상당부분 없애면서 다른 간디학교에서 걱정하는 부분인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 없으며, 또한 아주 부분적으로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필자가 제안하는 규칙이 우리 간디학교 안에서 휴대폰을 쓰자는 입장과 쓰지 말자의 입장의 절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매점 관련 규칙]

지금 제천간디학교의 매점 관련 규칙	제시하는 매점 관련 규칙
매점 규칙 - 학교 주변 매점 이용 할 수 없음. (주말에도 못합니다.) 이유는? - 현금소지로 인한 도난 위험, 쓰레기 처리,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건강에도 안 좋기 때문.	매점 규칙 - 학교 매점은 평일에 이용 할 수 없다 단 주말에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평일에 매점을 갔을 경우는 원래 규칙을 적용한다.

제천간디학교가 매점을 금지하는 이전에 매점을 열었을 때는 현금 소지로 인한 도난위험, 쓰레기 처리문제 때문에 매점 사용이 금지 되어졌다 그래서 필자는 매점 사용을 현금을 소지하게 되는 주말에만 매점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며 또한 쓰레기 문제는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한정된 곳을 정해 주면 될 것 이다. 금산간디학교(중등)같은 경우 자유롭게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다가 많은 양의 쓰레기와 식사 문제로 인하여 음식물 섭취가 금지가 되었다가 다시 한정된 곳에서만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니 쓰레기양이 줄어들었다. 이렇듯 금산간디(중)의 예를 보면 쓰레기 문제는 해결이 가능 했다. 그렇다면 제천간디학교도 똑같은 방법으로 쓰레기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금 소지가 가능한 날에만 매점을 가게 함으로써 새로운 고민거리를 만들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전자기기 관련 규칙]

지금 제천간디학교의 전자기기 관련 규칙	제시하는 전자기기 관련 규칙
전자기기 규칙 노트북 - 교사회, 학생회 의 동의를 받은 후 사용 가능합니다. - 공공장소, 수업, 기타 등등 모임에서는 사용하지 맙시다. (다른 전자기기들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들. - 게임 , DMB, TV 프로그램 다운 / 닌텐도, PSP 소지 안 됩니다. / 고데기 사용도 금지	전자기기 규칙 노트북 - 교사회, 학생회 의 동의를 받은 후 사용 가능합니다. - 공공장소, 수업, 기타 등등 모임에서는 사용하지 맙시다. (다른 전자기기들도) - 게임 , DMB, TV 프로그램 다운 / 닌텐도, PSP 소지 안 됩니다. / 고데기 사용도 금지 단 1학년 1학기 때는 전자기기 사용 금지

필자는 우리학교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1학년 1학기 때는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자기기가 저렇게 몇 가지 규칙으로 못쓰고 게 하는 가장 큰 다른 간디학교들과의 공통된 이유가 소통의 문제 때문이다. 그래서 금산 간디 학교 같은 경우 1학년 1학기 때 소통의 이유로 전자 기기 사용을 금지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제천간디학교도 1학년 1학기 동안의 전자기기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학생들의 소통을 위해서이다.

[외출, 외박 관련 규칙]

지금 제천간디학교의 외출, 외박 관련 규칙	제시하는 외출, 외박 관련 규칙
무단외출 - 평일에 선고 2구 이상, 도기까지 나가면 안됨. 주말 외출은 12시부터 가능 입소는 7시 30분까지 기숙사로 이유는? - 수업에 지장, 사고나 실종의 위험 무단외박 - 평일·주말(종이에 안 쓰고) 기숙사 외에서 외박하는 것, 이유는? - 사고나 실종의 위험	무단외출 - 평일에 선고 2구 이상, 도기까지 나가면 안됨. 주말 외출은 12시부터 가능 입소는 7시 30분까지 기숙사로 이유는? - 수업에 지장, 사고나 실종의 위험 무단외박 - 평일·주말(종이에 안 쓰고) 기숙사 외에서 외박하는 것, 이유는? - 사고나 실종의 위험 평일 외출 - 평일 외출은 담임선생님의 허락 하에 1:00~5:30까지 할 수 있다.

필자가 제시하고 싶은 규칙은 평일 외출에 관한 부분이다. 금산 간디학교(고등) 같은 경우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병원, 학교일이나 수업에 필요한 물건 사기 등)에 한해서 점심 후에 나가서 저녁 전에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제천간디학교도 금산간디학교(고등)처럼 합당한 사유가 있으며 담임선생님의 허락 하에 점심 후~ 저녁 식사 전까지 나갔다가 들어오는 걸 제시를 해 본다.

이렇듯 필자는 학교에서 논의가 많은 4가지 규칙을 제시해 보았다. 하지만 필자의 논문 자체가 비교 연구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규칙 제시가 목적이 아니라서 규칙 제시 부분이 너무나도 빈약하다. 하지만 필자는 비교 연구 자체의 의미가 아주 크다고 생각한다.

III 결론

나는 나의 논문으로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사람들 에게 부탁하는 법을 배웠고 학교 규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으며 다른 학교 규칙을 우리 제천간디학교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논문을 쓰면서 때때로 나의 게으름에 내 자신이 한심해 보일 때도 있으며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이 논문을 완성한 이 시점에서 너무나도 내 자신이 뿌듯하면서 만족한다. 논문을 통해 나 자신이 성장한걸. 느꼈고 우리 반 친구들이 성장하는걸 보았다 그러면서 나는 처음 생각했던 '왜 논문 따위를 쓰는 거야' 가 아닌 '논문이란 것이 제천간디학교 과정 중에 정말로 뜻 깊고 필요한 부분이구나.' 는걸. 느꼈다.

나는 이 논문을 쓰면서 우리 제천간디 학교와 타 간디학교의 논의가 많은 규칙을 비교해 보았다. 해 보니 제천간디학교 안에서 논의가 많은 규칙은 첫 번째로 휴대폰 관련 규칙이 나왔으며, 두 번째로 매점 관련 규칙, 세 번째로 전자기기사용 관련규칙, 네 번째로 외출, 외박 관련 규칙이 나왔다. 그래서 이 규칙들을 타 간디학교들과 비교를 해 보니 휴대폰 관련 규칙 같은 경우 산청 마을학교 같은 경우 외박, 가정학습 때만 자신의 휴대폰을 받아서 쓰고 갈다 와서는 다시 사감쌤 에게 맡기는 식으로 되고 있었으며 산청간디학교 같은 경우 휴대폰 사용이 자유롭게 사용을 하며, 금산간디학교(중등)의 경우 주말에는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금산간디학교(고등)같은 경우 휴대폰 사용이 자유로웠다.

매점 문제 같은 경우 산청 마을학교 같은 경우 근처에 매점이 없다. 그 대신학교 안에 자치 매점을 운영 중이다. 산청 간디학교 같은 경우 근처에 매점이 있지만 매점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는 없으며 매점이 멀리 떨어져 있어 사용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한다. 금산간디(중등)의 경우 매점이용,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였으나 쓰레기, 식사 문제가 발생하여 학교 내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 해 졌다가 다시 특정한 곳에서만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 졌다. 금산간디(고등) 같은 경우 학교 근처 매점이 없으나 유기농 과자를 파를 카페가 있어 그곳을 이용한다고 한다.

전자기기 사용 관련규칙은 다른 간디학교들과 제천간디학교의 규칙적인 면에서는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 산청 마을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인 노트북 사용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매일 3시간 이상 전자기기 사용이 불가능 하다. 산청 간디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기 사용이 불가능 하며 1학년 2학기 이상부터 선생님께 신청하며 식구총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사용 할 수 있다. 금산간디학교(중등)의 경우 기본인 전자기기에 대한 이해는 제천간디학교와 비슷하나 1학년 2학기 때부터 전자기기를 사용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으며 산청간디학교(고등)의 경우 1학년 1학기 때는 쓰지 못하며 2학기 때부터 쓸 수 있다. 노트북 사용 같은 경우 올해 유독 논의가 많았다. 외출, 외박 관련 규칙 또한 다른 간디학교들과, 제천간디학교의 규칙적인 면에서 비슷한 부분도 있으며 아닌 부분도 있다. 산청 마을학교와 산청 간디학교 같은 경우 우리 학교와 비슷하였지만 금산 간디학교(중등), 금산간디학교(고등) 두 학교는 외박을 하려면 학부모들이 카페에 신청을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야 외박이 되는 모습이 달랐다.

나는 우리 제천간디학교 규합되는 규칙을 제시 하였다. 나는 그 제시된 규칙과 내가 비교 연구한 자료를 통해서 간디학교들의 규칙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1. 논문의 한계.

나의 논문의 한계는 바로 많은 타 간디학교 사람들의 조사를 통한 조사가 아닌 소수의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한 조사여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타 간디학교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나의 논문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나의 논문에서 내가 중심으로 한 것이 타 간디학교와의 규칙 연구 비교여서 규칙 제시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한계 인거 같다.

2. Thanks To

우리학년 아가들, 인터뷰 해주신 모든 분, 그리고 나. 감사합니다. 손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름 : 남궁홍

성 별 : 여자

혈액형 : A형

한마디 : 논문 끝나서 좋아요♥

그 외 하고 싶은 말 : ♥♥♥♥♥♥♥♥♥♥

촉감 동화책 만들기

제출자 : 남궁 홍
지도 교사 : 김 태진

목 차

I. 서론

1. 논문의 동기
2. 논문의 목적
3. 연구 방법 :참고사이트, 참고문헌

II. 본론

1. 촉감동화책의 정의
2. 촉감동화책의 장점
3. 촉감동화책 만들기
 - 3-1 준비물
 - 3-2 내용구성 글과 그림
 - 3-3 그림에 촉감 입히기
 - 3-4 겉표지 제작 디자인
 - 3-5 완성

III. 결론

1. 작품 완성도 및 고찰
 2. 촉감동화책의 활용계획
- thanks to

I. 서론

1. 논문의 동기

나는 논문 주제 범위를 조금씩 좁혀가면서 팝아트 '자화상'에서 촉감 동화책을하기로 했다. 누리 어울림센터에서 아기돌보미를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다 입체적인 동화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시중의 다른 동화책보다 좀 더 흥미롭고 독창적인 책을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독특한 나만의 창작 동화책을 논문의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스토리와 촉감을 경험할 수 있는 동화책을 만들게 되었다.

2. 논문의 목적

요즘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전자기기를 끼고 살다시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전자기기와 멀어지고 내 동화책을 읽고 촉감을 느끼면서 부담 없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1. 동화책 속에서 만질 때마다 나는 촉감에 호기심 형성을 돕는다.
2. 그림책 속에서 다양한 사물, 그림을 본다.
3. 손가락을 자극하며 사고력·상상력·구성력을 길러준다.
4. 단순한 그림과 간단한 문장으로 된 동화를 보는 경험을 한다.

다양한 스토리와 다양한 테마에 맞춰 아이들이 충분히 흥미를 느낄 있는 재미있는 구성으로 만들고 싶었다.

3. 연구방법

참고 사이트

- blog.naver.com/playchildren/50010919743 놀이가 넘치는 세상(playchildren)
- blog.naver.com/vkdlquf/30092655619 아리, 하늘을 날다.
- blog.naver.com/kkmoon1004/90109866471 동화책 미술놀이 해보자 아자
- blog.naver.com/pumpkinpooh/120137008256 귀여운 쭈니와 웃음가득 엄마아빠 놀이
- [구름 빵]

II. 본론

1. 촉감 동화책의 정의[定義, definition]⁵⁷⁾

촉감 동화책이란 우리 몸에는 다섯 가지 감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 등의 5가지 감각으로, 신체에 있는 감각수용기의 종류로 분류한 것이다. 감각 수용기 중에서 촉각이란, 우리 피부에 닿는 냉기와 온기를 구별할 수 있고 외부에서 오는 감각을 구별 할 수 있다.

2. 촉감동화책의 장점

촉감 동화책의 주 대상은 어린이지만,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었고, 어린아이

57) 네이버 백과사전

들이 직접 표지, 두께, 만졌을 때의 촉감 등 좋아하는 책을 실제로 한 장 한 장 들추며 읽고 손으로 만지면서 촉감 발달 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시각적 사고력 향상과 아이의 촉각을 자극하여 생동감 있는 재미있고 풍성한 이야기를 즐길 수 있어서 학습효과도 뛰어나다.

3. 촉감동화책 만들기

3-1 준비물

10절지 도화지, 하드보드지, 부직포, 색종이, 넓은 골판지, 한지, 각종 느낌의 천, 동 글이 솜, 일반 솜, 손 코팅 지, 나뭇가지, 비닐 봉투, 고무줄, 양면테이프, 일반 테이프, 가위, 찹킹 가위, 풀, 반짝이 풀, 모래 가루, 색연필, 네임 펜, 골판지, 벨크로 테이프, 글 루건, 단추, 실, 아이클레이, 털실, 포장지, 수수깡, 아3-2 내용구성 글과 그림

- 연습 본 작품 표지

위의 표지는 “궁금해요”의 첫 장이고, 토끼의 귀는 과일 포장지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봄에는 끼토의 귀에 솜을 붙여서 부드러운 감촉이 나게 만들었다. 봄에서 벚꽃은 벚꽃처럼 부드러운 촉감은 아니지만 반짝이 색종이를 찢어서 붙여보면 예쁠 것 같아서 붙여봤다. 잔디는 기름종이처럼 얇고 미끌미끌한 종이를 가늘고 길게 잘라서 붙였다.



기토의 여름에서 “궁금해” 는 위에 있는 잔디와 같은 종지로 써서 붙여봤다.
 여름에서는 기토가 바다에 놀러온 그림인데 그림에 있는 동물들은 벨크로 테이프를 이용해서 떼다 붙였다 를 할 수 있게 만들면서 작은 학습 놀이를 만들어봤다.
 흙은 색 모래를 이용했고, 바다는 미끌미끌한 천을 이용했다.



기토의 가을이 궁금해요 에서는 과일 포장지도 사용해 보고 여러 느낌의 천과 동글이 솜도 사용 해봤다.기토의 가을에서의 감나무는 진짜 나무를 조각조각 붙여서 만들었고 나뭇잎도 진짜 나뭇잎을 사용해서 붙여 봤다.



기토의 겨울이 궁금해요 에서는 거의 솜만 사용해서 만들었다.

3-3 그림에 촉감 입히기

두 번째 작품은 “구름 빵”이다.

첫 번째 장에는 창밖으로 비가 오는 장면인데

비를 쌀로 대신해봤다. 두 번째 장은 끼토가 일어나서 비가 오는 하늘을 보는 장이다.



세 번째 장면에서는 부엌에서 나오는 빛을 셀로판지를 붙여서 부엌을 좀 더 밝게 보이게 했고 부엌 바깥쪽에서는 끼토와 강토가 밖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 장면이다.



네 번째 장면은 끼토와 강토가 나무위에 있는 솜을 따려고 끼토가 강토를 무동 태워준 장면이다.
다섯 번째는 나무에서 딴 솜을 엄마에게 전해주는 그림이다.



여섯 번째 장면은 아빠가 회사에 늦어서 뛰어 허둥지둥 하는 모습이다.

일곱 번째 장면은 엄마가 구름으로 구름 빵을 만드는 모습이다. 구름 빵 반죽은 찰흙을 이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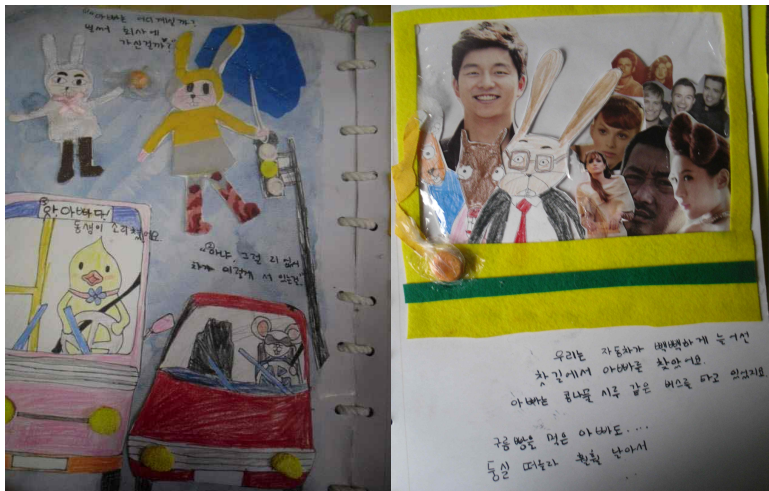
여덟 번째 장면은 오븐을 여니 구름 빵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림이다.

아홉 번째 장면은 끼토와 강토가 아빠에게 구름 빵을 가져다 드리려고 구름 빵을 들고 창문으로 날아가는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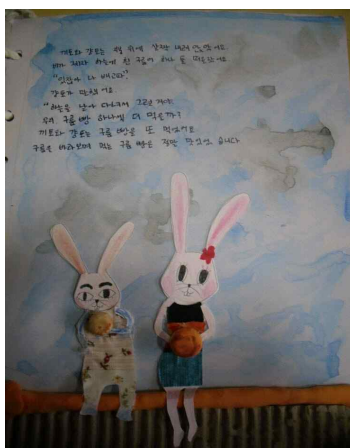


열 번째 장면은 끼토와 강토가 하늘에서 아빠가 타 있는 버스를 찾는 장면이다.

열한 번째 장면은 끼토와 강토가 아빠를 찾아서 구름 빵을 건네주는 장면이다.



열두 번째 장면은 끼토와 강토가 집으로 돌아와 지붕위에 앉아있는 장면이다.



세 번째 작품은 촉감의 종류를 넣은 책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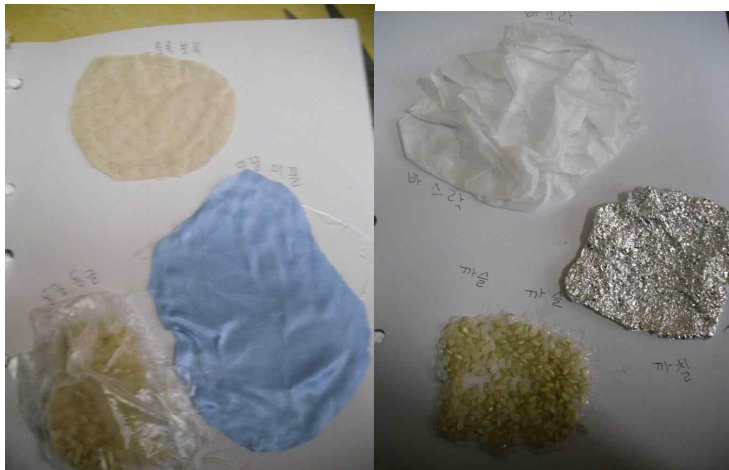
첫 번째 장은 부드러운 촉감을 사람의 얼굴로 표현한 것이다.

두 번째 장은 부드럽고 폭신한 느낌과 그에 반대되는 느낌을 넣었다.



세 번째 장은 대체적으로 볼록 볼록한 느낌의 촉감이다 쌀을 비닐에 넣어서 붙였더니 만질 때 동글동글한 느낌이 든다.

네 번째 장은 거칠한 촉감으로 했다.



다섯 번째는 울퉁불퉁한 촉감과 움푹 패인 촉감을 넣었다.



3-4 겉표지 제작 디자인



‘궁금해요“ 의 겉표지에 먼저 표지 종이는 골판지‘궁금해요“ 의 겉표지에 먼저 표지 종이는 골판지를 이용했고 그 위에 얼굴은 솜을 붙였고 눈은 원래는 그리려고 했지만 친구가 준천을 붙였고 그 위에 얇은 철사로 속눈썹을 만들었고 입도 마찬가지로 철사로 만들었고 코는 글루건을 굳혀서 색칠을 했다. 스카프는 기름종이 재질의 종이를 만들었고 물방울무늬도 코와 마찬가지로 글루건을 사용했다.



하드 보드지를 마분지 크기에 따라 앞, 뒤 각 2장과 모서리부분까지 3장을 만들어 놓는다.



박스의 겉 부분을 뜯어내면 울퉁불퉁한 쪽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위쪽으로 가게해서 붙인다. 그런 다음 가로로 겹겹이 쌓아서 붙인다.



지붕 및 여백 쪽에 찰흙을 얇게 펴 바른 뒤 자를 이용해서 체크무늬를 만든 다음 그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칠하면 겉표지는 완성이다.

겉표지 위에 창문, 숲, 나무를 넣어 주면 구름 빵 겉표지가 완성 된다.

표지와 속지 하나로 잇기



에스 자를 그리듯이 실을 앞으로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 된다.

3-7 완성

Ⅲ. 결론

1. 작품 완성도 및 고찰

이 책의 제목은 ‘궁금해요’이다. 그래서 일단 연습 본으로 ‘궁금해요’를 만들어 놓고, 다음에 다시 만들어 그것을 본 작품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처음 만드는 거라 그런지 아직 미흡한 점도 있고, 책이 깔끔하게 되지 못한 부분도 많다. 그래서 내용을 구성할 때도 마땅한 주제가 생각나지 않았다. 결국 고심한 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제로 삼게 되었으며, 이 주제를 통해 주인공 “끼토”가 어떻게 이야기를 꾸려 나가면 좋을지 많은 생각을 하였다. 그리하여 사계절 동안 주로 할 수 있는 활동 등의 내용으로 정하게 되었다.

두 번째 작품은 내용의 구성이나 주인공을, 그림책 “구름 빵” 과 유사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다. 원래 그림책 “구름 빵” 캐릭터는 고양이인데 내가 직접 만든 “궁금해요” 에 나오는 주인공은 내가 평소에 많이 그리는 토끼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림책 “구름 빵” 은 촉감 동화 책 이 아니라 일반 그림 동화 책 이다. 그래서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촉감 동화 책 을 참고하여야 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결국 스스로 구상 및 계획하고 만들어 나의 작품이 되었다.

촉감을 나타내기 위해 준비한 재료들을 넣어만들 때 어렵기도 하고 주인공 “끼토” 의 옷을 다 천으로 붙이기 때문에 똑같은 천도 많이 부족했고, 촉감 동화 책 을 제작하다 보니 같은 천의 느낌 보다는 다양한 느낌의 천을 골라 붙이고 싶었는데 그것 또한 쉽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림책 “구름 빵” 은 그림과 빛 그림을 통해 만든 동화책 이었다. 특히 책의 내용 중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는 장면은, 조명이 비추어진 상태에서 찍은 그림이라 오렌지 빛을 나타내었다. 이것을 내 작품에 적용시킬 때는 이와 유사하게 연출해 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리고 진짜 창문처럼 열었다 닫았다를 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였고, 창문 주위의 배경들은 진짜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 붙였으며, 창문에 유리 부분은 투명한 비닐을 이용하여 미끈미끈한 느낌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창문 위쪽에는 창문을 열어 보면 비오는 그림이 나오게 만들려고 생각해서 커튼을 달아서 커튼을 젖힐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랬더니 이 부분은 처음 계획했을 때처럼 만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겉표지는 아이클레어로 넓게 편 다음에 자를 이용해서 체크 무늬를 만들었고 만들기 힘들었던 장면은 많았지만 특히 더 힘들었던 것은 마지막 마무리였던 동화책 표지와 속지를 하나로 합치는 게 제일 힘들었다. 그리고 만들어 보니 책의 장수는 적은 편이지만 책의 부피가 커서 아이들이 읽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 번째로 만든 책은 스토리 없이 그림만 넣어서 만든 건데 거의 보면 촉감의 종류를 넣은 것 같다. 근데 이번에 만든 책은 너무 허겁지겁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뭔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2. 촉감동화책의 활용계획

초록색과 갈색 계통의 파스텔 톤이 살아있고, 수채화의 느낌이 잘 묻어 있는 동화책이면서 촉감을 부드럽게 하는 폭신폭신향 커버로 구성되어 있어, 내가 만든 또는 앞으로 만들 이 촉감동화책들이 놀이교육으로 접근한다면 아이가 능동적인 학습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나의 계획은,

1. 단순한 보기에서 그치지 않으며 머릿속 명상에서 잠기는 동화가 아닌 직접 실행하고 만들고 만져보는 촉감 적 감각적인 동화책을 만들고 싶다.
2.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는 이야기 그림책일 뿐만 아니라 오감을 자극하며 아이들에게 손으로 만지는 촉감 까지도 느끼게 하는 동화책으로 남고 싶다.

IV. 참고문헌

Thanks to

♥엄마, ♥아빠, ♥ 오빠♥, 연이♥ 우리 반 아이들♥♥♥♥♥♥♥♥♥♥



이 름 : 박록리

성 별 : 여

혈액형 : AB형

한마디 : 논문 끝났다!! ㅎㅎ

직접 만든 걱정인형으로 간디인들의 걱정 덜어주기

(부제 : 여러 가지 종류의 걱정인형)

발표자 : 박 록리

담당교사 : 김 태진

♥ 목 차 ♥

I 서론

1. 동기 및 목적
2. 연구방법

II 본론

1. 걱정인형이란?
 - 1-1. 걱정인형의 정의
 - 1-2. 걱정인형의 유래
 - 1-3. 걱정인형의 효과
 - 1-4. 걱정인형의 필요성
 - 1-5. 걱정인형의 종류
2. 걱정인형 제작방법
 - 2-1. 부직포로 만든 걱정인형
 - 2-1-1. 준비물
 - 2-1-2. 제작과정
 - 2-2. 수수깡으로 만든 걱정인형
 - 2-2-1. 준비물
 - 2-2-2. 제작과정
3. 걱정인형 선물하기
 - 3-1. 간디인 모집하기
 - 3-2. 대상 그룹에게 걱정인형 선물하기
 - 3-3. 대상 그룹 인터뷰하기
4. 내가 만든 여러 가지 걱정인형

III 결론

Thanks To

I 서론

1. 동기 및 목적

나는 평소에도 걱정거리가 많았다. 그렇지만 도무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서 힘들어 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에 걱정인형을 알게 되었고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 보았다. 사용해 본 결과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나처럼 힘들지만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 간디인들을 도와주고 싶었다.

모든 간디인들에게는 걱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간디인들에게 걱정인형을 선물해서 그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이다.

2. 연구방법

* 참고 서적

<다큐멘터리 마음> - 이영돈 (예담)

* 참고 사이트

걱정인형 판매 & 기부 하는 사이트- www.dontworryworry.com

과테말라 전통 걱정인형 판매 사이트- <http://www.worrypeople.co.kr/>

발도르프 걱정인형 -<http://blog.naver.com/pink10000>

목장갑 걱정인형- <http://blog.naver.com/pink10000>

<http://blog.naver.com/pinkhanna7>

<http://blog.naver.com/dic1224>

화장솜 걱정인형- <http://cafe.daum.net/cjy9153>

아이클레이 걱정인형- <http://ddalso.kr/110116197836>

나무젓가락 걱정인형- <http://cafe.naver.com/imsanbu>

* 대상 실험

실험방법 : 걱정인형을 선물받고 싶은 사람에게 걱정인형을 선물하고 약 한 달간 사용하게 한 다음에 인터뷰를 해서 효과가 어떤지 조사하고 통계 및 분석을 한다.

* 방문 및 탐방

<짚풀 생활사 박물관>

방문 날짜 : 2011년 8월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2가 8-4 짚풀 생활사 박물관

II 본론

1.걱정인형이란?

1-1.걱정인형의 정의

걱정인형이란 과테말라 고산지대 인디언들을 시초로 시작된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자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인형이다. 걱정인형에게 자기 전에 걱정을 말하고 나중에 인형이 사라지면 걱정도 사라

졌다고 믿었는데 이 걱정인형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후회하고 고민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걱정을 떠나보내려는 인디언의 지혜가 담겨 있다.

만들 때는 정성들여서 수 제작을 해야 하며 재료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재료로 여러 가지 모양을 낼 수 있다. 또 걱정을 들어주는 인형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웃는 얼굴은 삼가 해야 한다.

1-2.걱정인형의 유래

-걱정인형은 중앙 아메리카의 과테말라 고산지대 마야족 인디언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고대 마야인은 기술수준이 높았는데 직물을 짜는 수준도 높았다. 이 직물로 옷을 짜고 나면 자투리 천이 남기 마련인데, 마야인 주술사들은 옷감 자투리와 작은 나무 조각으로 걱정인형을 만들었다. 그렇게 만든 걱정인형을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루는 아이들에게 나눠주면 아이들은 그 걱정인형에게 자신의 걱정을 말하고 베개 밑에 두고 자고 그 걱정을 걱정인형이 대신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1-3.걱정인형의 효과

<플라시보 효과 (placebo effect)>

의약계에서 엄마 손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이 플라시보 효과이다. 플라시보 이펙트, 위약효과 라고도 부르며 실제로는 치료에 생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약이 아닌데도 단지 환자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복용함으로써 실제로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기대 효과이다. 이 효과는 세계 2차 대전에서 사람이 많이 다쳐서 약이 부족할 때 많이 쓰였던 방법이다. 위약효과는 특히 심리적 상황이 포함되는 병일 경우 효력을 발휘한다. 가벼운 우울증, 불안, 불면증 등이 바로 위약 효과가 큰 병들이다.

걱정인형이 직접적으로 걱정을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플라시보 효과로 인한 심리적인 안정감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효과사례>



해석요약 : 걱정인형, 포스터, 가면과 만다라가 아이의 암 치료에 도움이 되었다.

1-4.걱정인형의 필요성

냉정하게 말하면 걱정인형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미신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회사에서 기업 이미지로 세울 정도이다. 그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걱정들이 있고 그 걱정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걱정인형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철사와 실 등으로 장사하려는 상술로 보일 수 있겠지만 걱정인형에는 크기나 재료보다 더 큰 마음이 담겨있다. 그래서 우울함을 느끼거나, 알 수 없는 불안함을 느낄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등 걱정인형에게서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회사의 cf 속 걱정인형

▲걱정인형 어플

1-5. 걱정인형의 종류



▲과테말라 전통 걱정인형



▲걱정인형 판매와 기부 하는 사이트에서 만든 걱정인형



▲아이클레이 걱정인형



▲시중에서 파는 걱정인형



▲목장갑 걱정인형



▲발도르프 걱정인형



▲천 걱정인형





▲나뭇조각 걱정인형



▲나무젓가락 걱정인형



▲화장솜 걱정인형



▲목공예 걱정인형



▲짚풀 걱정인형



▲그 외 걱정인형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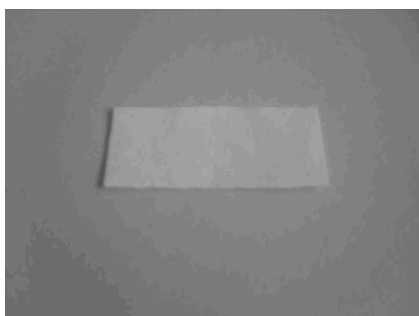
2. 걱정인형 제작방법

2-1. 부직포로 만든 걱정인형

2-1-1. 준비물

부직포, 철사, 글루건, 여러 가지 색깔의 실, 각종 천, 공예재료(눈알, 단추 등 여러 가지 추가로 꾸밀 재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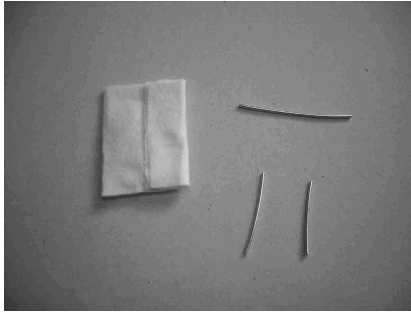
2-1-2. 제작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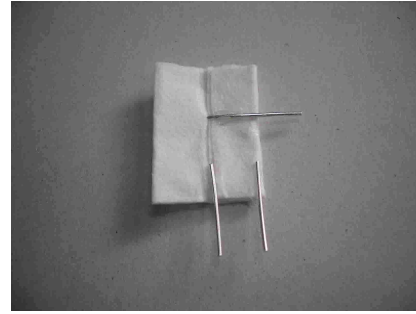
①부직포를 알맞게 잘라서 삼등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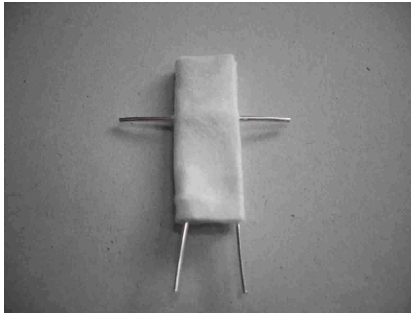
②삼등분 중에 한 쪽에 글루건을 붙이고 접는다.



③다리와 팔을 할 철사를 알맞게 자른다.



④글루건을 살짝 묻혀서 팔과 다리를 붙인다.



⑤나머지 한쪽면도 글루건으로 고정한다.



⑥걱정이의 몸에 두를 실을 고른 후 두른다.



⑦걱정인형 표정을 그려준다.



⑧걱정인형 머리를 붙여준다. 완성!

2-2. 수수깡으로 만든 걱정인형

2-2-1. 준비물

수수깡, 목공풀, 글루건, 철사, 칼, 여러 가지 색깔의 실, 공예재료(눈알, 단추 등 여러 가지 추가로 꾸밀 재료들

2-2-2. 제작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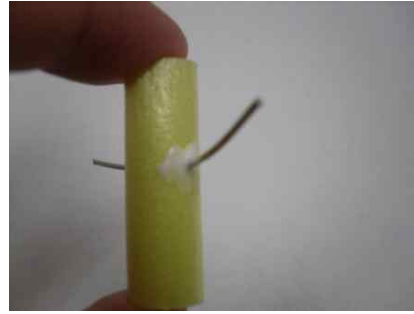
①수수깡을 적당한 크기(3~4cm)로 자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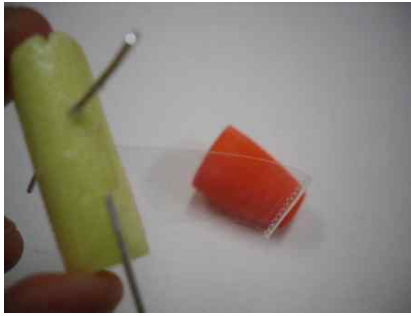
②철사 팔다리를 잘라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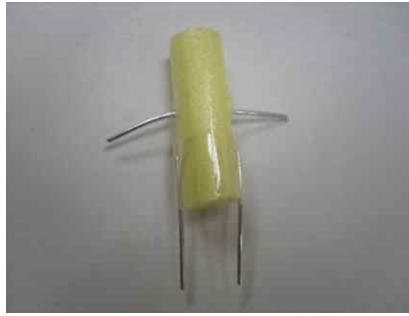
③ 잘라놓은 수수깡을 철사 팔로 뚫습니다.



④ 목공풀을 구멍에 발라놓고 말립니다. (반대쪽도)



⑤ 테이프로 돌아가며 다리를 고정시킵니다. (한번 더 돌려주면 좋습니다.)



⑥ 옷을 입혀줍니다.



⑦ 표정을 그려줍니다.



⑧ 머리를 붙여줍니다.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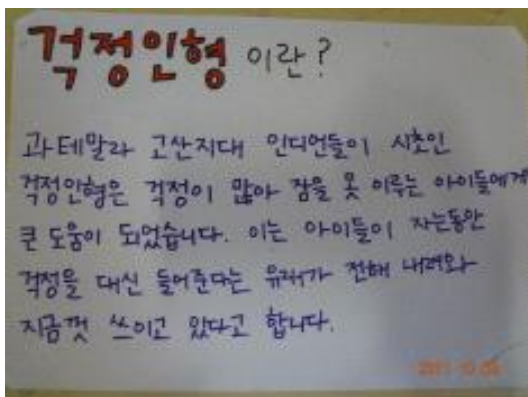
3.걱정인형 선물하기

3-1.간디인 모집하기



‘걱정인형 나눠드려요!!

안녕하세요. 3학년 박록리인데요. 논문주제가 ‘직접만든 걱정인형으로 간디인들의 걱정 들어주기’라서 걱정인형을 받고 싶은 사람을 신청받아서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신청하신 분은 제 논문의 인터뷰나 설문지에 응해주셔야 되요!! 그러니 잘 생각해서 걱정인형을 받고 싶은 사람은 모두모두 이름 적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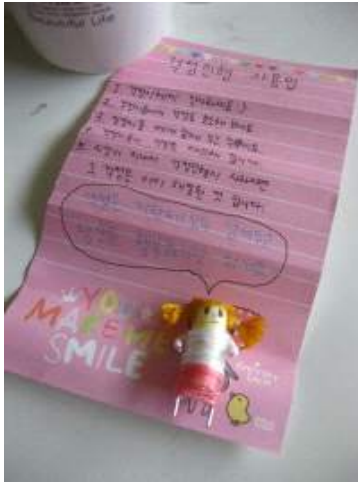
‘걱정인형이란?

과테말라 고산지대 인디언들이 시초인 걱정인형은 걱정이 많아 잠을 못 이루는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자는 동안 걱정을 대신 들어준다는 유래가 전해 내려와 지금껏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전체 설문조사를 하려 했지만 설명할 글도 많고 종이도 아깝고 게시판에 걱정인형 받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했다. 하나에는 내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하나에는 걱정인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3-2.대상 그룹한테 선물하기

총 43명이 신청을 했으나 휴학생하고 필리핀에 간 학생들은 주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선물하기로 하고 총 29명에게 선물했다.



걱정인형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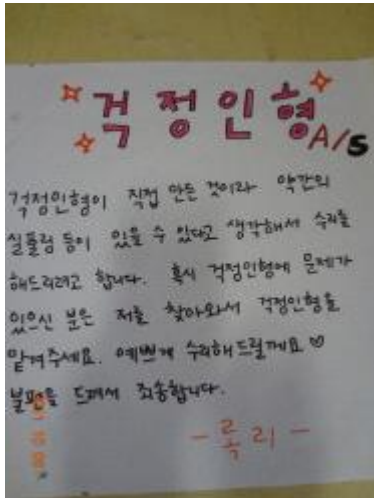
- 1.걱정이에게 인사하세요. :)
 - 2.걱정이들에게 걱정을 호소해 보세요.
 - 3.걱정이를 베개 밑에 두고 주무세요.
 - 4.걱정인들이 걱정을 대신해 줍니다.
 - 5.시간이 지나서 걱정인형이 사라지면 그 걱정은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 ‘걱정은 저한테 모두 맡겨두고 당신은 행복하기만 하세요.:D’



비닐봉지에 넣어서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포장 비닐은 금방 버릴 것 같아서 새로운 방법을 찾다가 걱정인형이 설명서를 들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선물을 했다.

걱정인형 A/S

걱정인형을 나눠준 후에 실이 풀리거나 팔이 빠진다는 등의 소리를 듣고 걱정인형 A/S를 했다.



‘걱정인형 A/S

걱정인형이 직접 만든 것이라 약간의 실풀림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수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걱정인형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저를 찾아와서 걱정인형을 맡겨주세요. 예쁘게 수리해 드릴게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록리-

3-3.대상 그룹에게 인터뷰하기

처음에는 29명에게 설문지를 돌리고 몇 명한테만 심층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주제도 걱정이란 주제이고 설문지를 돌리는 것보다 짧게나마 한명, 한명 인터뷰를 하고

얘기를 듣는 편이 좋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29명 전부 1:1인터뷰를 통해서 효과가 어땠는지 꼼꼼하게 들어보기로 하였다.

질문목록

1.걱정인형의 효과가 어땠나요?

- ① (진짜 별로)
- ② (별로)
- ③ (그냥)
- ④ (좋음)
- ⑤ (진짜 좋음)

2.걱정인형의 만족도는 어땠나요?

- ① (진짜 별로)
- ② (별로)
- ③ (그냥)
- ④ (좋음)
- ⑤ (진짜 좋음)

3.쓰고 나서 달라진 점 (ex : 맘이 편해졌다. 속이 후련하다.

4.하고 싶은 말 (요구사항 등)

통계

1. 걱정인형의 효과가 어땠나요?

- ① (진짜 별로) - 0명
- ② (별로) - 2명
- ③ (그냥) - 12명
- ④ (좋음) - 9명
- ⑤ (진짜 좋음) - 6명

2. 걱정인형의 만족도는 어땠나요?

- ① (진짜 별로) - 0명
- ② (별로) - 1명
- ③ (그냥) - 6명
- ④ (좋음) - 9명
- ⑤ (진짜 좋음) - 13명

3. 쓰고 나서 달라진 점 (ex : 맘이 편해졌다. 속이 후련하다.)

- 걱정인형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악몽도 안 꾸고 편하다.
- 사람한테 말 못할 고민을 말할 수 있어서 되게 마음이 후련하고 편하다.
- 친한 친구라도 솔직히 못 말하는 개인적으로만 알고 싶은 비밀을 말하니까 후련하기도 하고 걱정인형이 내 고민을 담고 있는 게 불쌍하기도 했다
- 한결 가벼워졌다
- 쓰고 친구가 더 생긴 기분이었고 신나는 일이 많았다
-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다. 걱정인형이 걱정을 먹어준다는 생각이 든다.
- 딱히 달라진 건 몰라도 재밌었다.
- 항상 고민이 생겼다 없어졌다 해서 잘 모르겠지만 의지는 많이 됐다.
- 조금 나아졌다.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다.
- 나는 얘기를 했는데 없어지지 않고 달라지지도 않았지만 위로가 됐다.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생각이 달라져서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 좀 뭔가 나의 걱정을 혼자 앓지 않고 있어도 된다.
- 마음이 후련해진 기분이다.
- 걱정인형이 있으니까 의지할 게 있어서 더 마음이 편했다.
- 우연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일상다반사 사설로 쓰는 것을 걱정인형에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 할 때 수월해졌다. 신기했다.
- 걱정이 없어진 건 몰라도 생각하고 털어놓은 것이 좋았다.
- 걱정이 사라졌어요!

4. 하고 싶은 말 (요구사항 등)

- 걱정인형 하나 더 만들어줘요~
- 철사가 좀 위험할 듯
- 실이 잘 풀림

- 아담해서 귀여웠어요. 좋았어요!
- 걱정인형이 더 토실토실했으면 좋겠어요. 얇아서 불쌍해요
- 크기가 좀 작은 듯 더 커도 좋을 듯해요. 귀여워요
- 만드는 법도 알려주세요.
- 실이 잘 풀려요. 더 탄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 팔다리도 조금씩 빠져요.
- 걱정인형이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 매년 걱정인형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분석 : 대부분 걱정인형을 쓰고 걱정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편해지거나 후련해졌다고 한다. 친구한테도 말 못할 부분을 다 말할 수 있어서 좋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상황이 바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실이 풀리고 다리가 빠지는 등 약간 부실한 면이 있어서 좀 더 튼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외엔 걱정인형 만드는 법이 궁금해 하거나 걱정인형을 하나 더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심층 인터뷰

걱정인형을 선물 받은 간디인들 중 한명이 느낀 점을 길게 적어주었다.

자기 전에 하루 걱정을 말하고 잠자면 다음 날 걱정이 없어지는 그런?...
 사실 직접적으로 걱정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자기 전에 걱정을 말하면서 하루를 돌아보고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걱정인형이 실이 풀리면서 걱정도 풀리는 것 같은 느낌에 그냥 풀린 채로 나왔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친구들이랑 진짜 크게 싸웠던 날에 잠이 안와서 걱정인형을 베개 안에다 넣고 잤는데 다음 날 너무 자연스럽게 다시 화해 할 수 있었다. 또 바쁜 일이 너무 많이 쌓였을 때 걱정인형한테 얘기하고 잤는데 다음 날 그 일을 다 할 수 있었다. 그냥 무언가를 믿을 수 있다는 게 힘이 됐다. 참 고맙고 통과했으면 좋겠다. 파이팅!!!

4. 내가 만든 여러 가지 걱정인형

만들기 전에 주의할 점!

- 칼이나 가위같은 날카로운 물건을 쓰는 과정은 조심하기
- 글루건을 오래 켜두지 않고 데이지 않게 조심하기
- 철사를 자를 때 철사가 튀지 않게 조심하기
- 최대한 정성껏 마음을 담아서 만들기

<나무젓가락 걱정인형>

특징 : 나무젓가락 걱정인형은 일단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적은 재료로 많은 작품들을 만들 수 있지만 나무젓가락을 원하는 크기로 자르는 데에 약간의 힘이 든다.

준비물 : 나무젓가락, 칼, 실, 목공풀, 펜



①나무젓가락을 칼로 원하는 크기로 자른다.



②칼로 자른 나무젓가락을 얼굴과 몸통 모양으로 다듬는다.



③다듬은 나무젓가락에 실을 감는다.(목공풀로 깔끔히 마무리)



④표정을 그린다.

완성!

<짚풀 걱정인형>

특징 : 짚풀 걱정인형은 재료도 간단하고 만드는 법을 익히면 더 재밌는 인형이다. 여러가지 포즈를 취할 수 있고 걱정을 써서 붙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서 더 재밌다. 표정과 머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알아서 선택할 수 있다.

준비물 : 짚풀, 가위, 조그만 종이, 펜, 시침핀이나 테이프, 여러 가지 꾸밀 재료

*매듭을 지을 때 보이는 앞 부분 말고 뒷 부분에 짓는게 보기에 깔끔하다.



① 짚풀을 가지런히 정리한다. 짚풀의 3/2를 잡는다.



② 밑에서 5cm정도에 매듭을 짓는다. (머리를 더 작게 하고 싶으면 더 짧게 한다.)



③ 매듭보다 위를 짚풀로 돌돌 말아준다.(머리모양으로 동그랗게)



④ 머리모양을 밑으로 쥐고 위에 뺀 짚풀들을 내려준다.



⑤목 부분에 매듭을 짓는다.



⑥몸통을 할 길이만큼 미리 접어본다.



⑦남은 짚풀 3/1을 반 나눠서 밑과 위를 잘 섞이게 한다.



⑧섞은 짚풀을 반으로 접어 몸통 할 만큼 접은 곳과 맞춘다.



⑨다리가 빠지지 않게 매듭을 짓고 목부분 매듭위에 또 매듭을 짓는다.



⑩양쪽 다리의 무릎, 발목 위치에 매듭을 짓는다. (양쪽의 위치를 잘 맞춘다.)



⑪남길 만큼 남기고 남은 짚풀을 자른다.



⑫팔을 반으로 나눠 각각 어깨, 팔꿈치, 손목 위치에 매듭을 짓는다.



⑬남길만큼 남기고 남은 짚풀을 자른 후 삐죽삐죽 튀어나온 짚풀을 가위로 다듬는다.

⑭머리랑 표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⑮매듭지은 곳을 알아서 접어 포즈를 취하게 하고 걱정을 적은 종이를 끼운다.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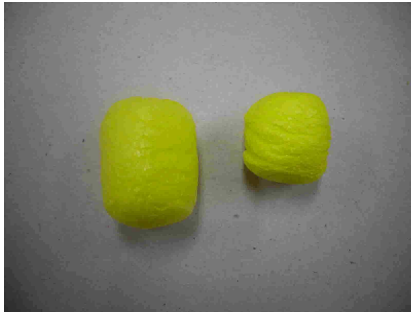
<퍼니콘 걱정인형>

퍼니콘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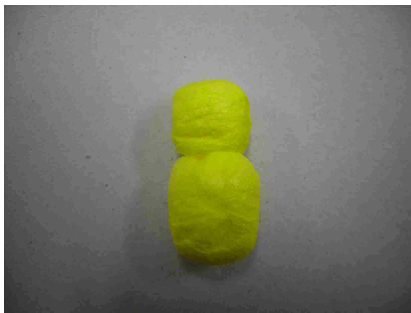
퍼니콘은 3~4cm의 크기의 원통형으로, 전분과 식용색소로 만들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퍼니콘은 빵튀기 과자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어서 힘을 주어 누르면 부피가 줄어든다. 퍼니콘은 별도의 접착제 없이 물을 이용하여 서로 붙일 수 있고, 수분이 닿으면 그 부분이 녹으면서 점성이 생긴다. 물을 너무 많이 묻히면 모두 녹아버리니까 살짝 발라야 한다.

특징 : 퍼니콘 걱정인형은 인형을 통통하게 표현할 수 있다. 물만 묻히면 접착기능이 생겨서 더 쉽게 만들 수 있고 퍼니콘을 녹이면서 여러 모양을 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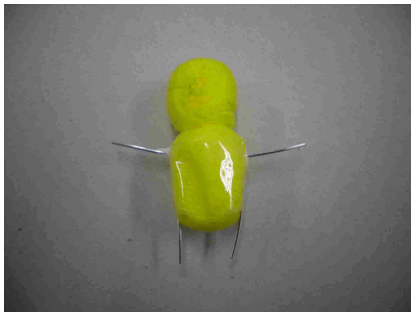
준비물 : 퍼니콘, 실, 목공풀, 물, 글루건



①퍼니콘 두 개를 골라서 하나는 머리모양으로 하나는 몸통모양으로 다듬는다.



②물을 묻혀서 두 개를 붙인다. (물로 머리와 몸통모양을 다듬는다.)



③철사를 알맞은 팔다리 길이로 잘라서 다리는 몸통 옆에 테이프로 돌돌 말아준다. 팔은 알맞은 위치에 몸통을 통과해서 목공풀로 접착시킨다.



④실을 이용해서 옷을 입혀준다.



⑤머리를 만들고 표정을 그린다.

완성!

<발도르프 걱정인형>

특징 : 만드는 과정이 힘들고 복잡하고 익히기도 쉽지 않다. 그렇지만 만들면 예쁘고 튼튼하다.

준비물 : 면천(신축성 있는 붕대), 실, 솜, 살색 천, 바늘, 가위, 천(잘 늘어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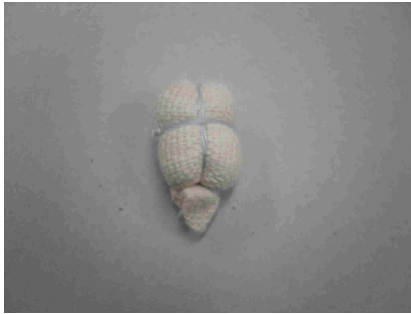
①신축성 좋은 붕대를 직사각형으로 자릅니다. (약 가로 8cm 세로 3cm)



②반으로 접어서 박음질을 한 뒤 붕대의 한쪽 끝을 묶어준 후 뒤집는다.



③솜을 뽕뽕하게 채워주고 얼굴모양으로 묶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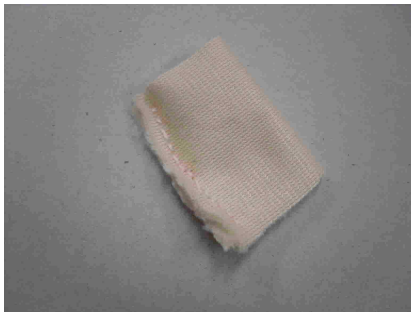


←앞



←뒤

④턱에서 정수리를 약 3번 지나가게 한다. 실이 쉽게 풀리지 않게 턱에서 귀 쪽으로 통과한 후 묶어준다. 그리고 가로로 약 3번 둘러준다. (뒤통수는 울퉁불퉁하지 않게 실을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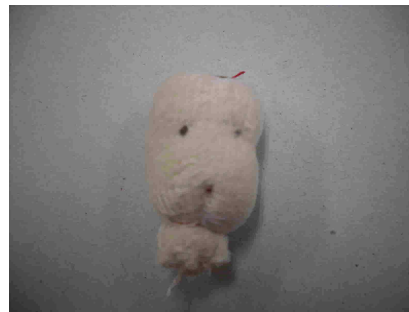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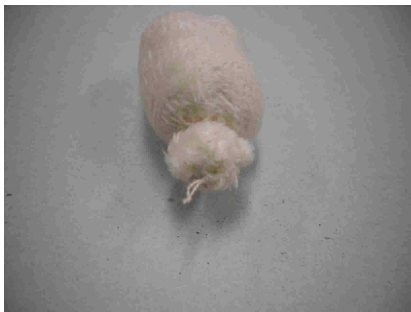


⑤피부색 천을 직사각형으로 자른 후 얼굴모양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반으로 접고 박음질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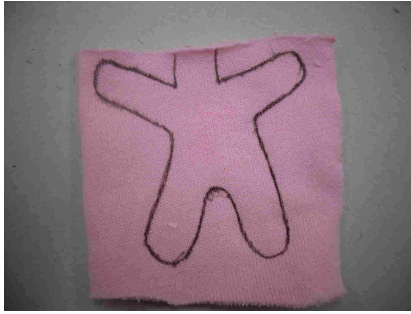
⑥박음질한 천을 뒤집어서 얼굴모양에 끼운다.

⑦정수리는 감침질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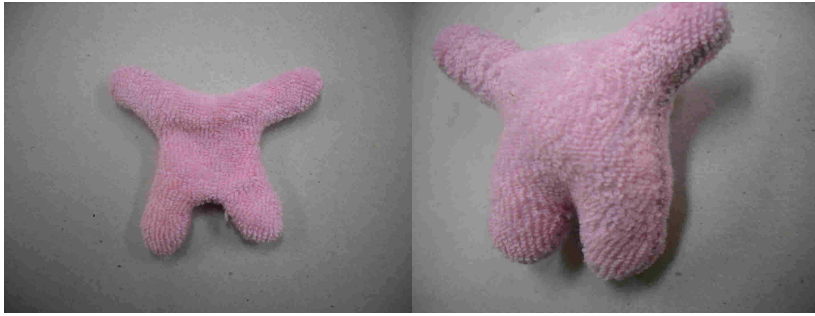


⑧목 부분의 남은 천도 묶고 너덜너덜한 부분은 감침질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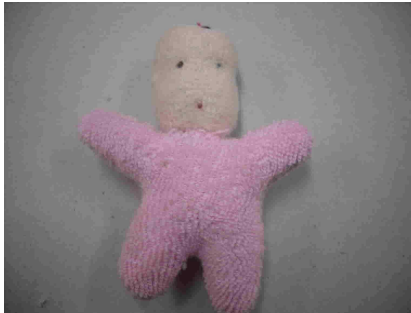
⑨눈과 입에 수를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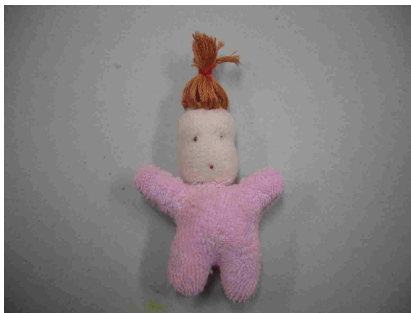
⑩몸통 할 전에 미리 그림을 그려본다. (목이나 손, 발을 더 길게해야 원하는 길이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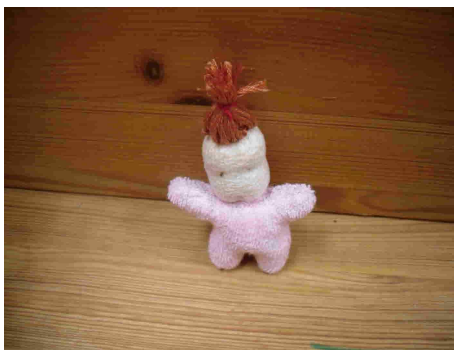
⑪박음질을 한 후 뒤집어서 솜을 뽕뽕하게 채운다.



⑫얼굴과 몸을 공 구르기로 연결해준다.



⑬머리를 심어준다.



완성!

<목장갑 걱정인형>

특징 : 발도르프 걱정인형이랑 약간 비슷한 과정이 있다. 발도르프보다 더 쉽게 할 수 있고 재료도 덜 필요하다. 구멍이 커서 매듭을 크고 두껍게 지어야한다.

준비물 : 목장갑, 가위, 철사, 솜, 실, 천



①목장갑의 손가락 부분만 자른다.



②목장갑에 눈과 입을 수 놓는다. (매듭을 크게 짓는다.)



③솜을 채워 넣고 얼굴만큼만 잡아서 실로 돌돌 만든다.



④밑부분에도 솜을 채우고 공구르기로 마무리한다.



⑤철사 팔,다리를 알맞은 자리에 꽂아준다.



⑥글루건으로 팔,다리를 잘 고정시켜준다.



⑦철사 위에 글루건을 붙이고 솜을 붙인다. (이 때 솜을 글루건으로 고정 시켜놓고 한 방향으로 돌돌 말아서 솜이 죽게 해준다.)



⑧그 솜 위에 실을 목장갑과 비슷한 색깔로 감는다.



⑨머리는 한 땀, 한 땀 심어주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표현한다.

완성!

<화장솜 걱정인형>

특징 : 그냥 일반 솜과 다르게 모양이 잡혀있어서 더 만들기 편하고 폭신했을 느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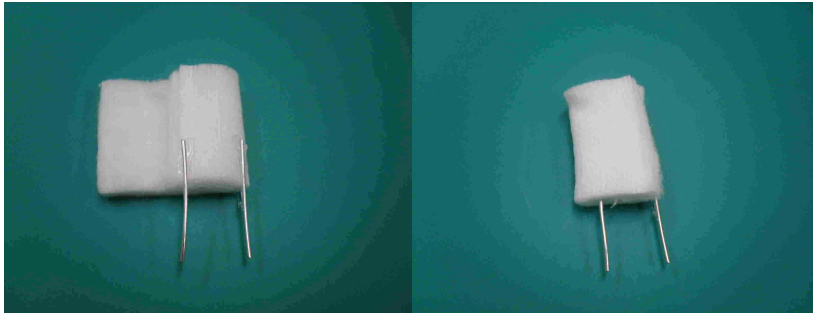
준비물 : 화장솜, 반창고 테이프, 철사, 실, 가위, 펜, 글루건, 목공풀



①화장솜을 반으로 자른다.(솜 더 두툼하게 하고 싶으면 반으로 접는다.)



②삼등분을 미리 접어보고 철사를 자릅니다.



③한쪽 면을 글루건으로 고정시키고 다리를 붙인후 한쪽 면도 글루건으로 붙입니다.



④반창고 테이프로 꼼꼼히 신경쓰며 붙입니다. (특히 머리 쪽)



⑤그 위에 철사 팔을 글루건으로 붙입니다.



⑥옷을 입힙니다.



⑦표정을 그려줍니다.



⑧머리를 알아서 개성있게 붙여줍니다.



완성!

III 결론

논문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도 모르겠고 논문쓰기 수업을 안 들어서 어떻게 논문을 쓸지 난해했다. 그러다 겨울방학 때 우연히 만들어본 걱정인형이 생각났다. 걱정을 말하고 매일 베개 밑에 두고 자서 너털너털해진 걱정인형을 가정학습 때 이불 사이에 잘 두고 갔는데 갔다 오니까 없어져있었고 심지어 그 걱정이 뭐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났다. 이렇게 확실히 효과가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논문주제도 걱정인형으로 잡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걱정인형의 종류도 많고 알면 알수록 재밌었다. 걱정인형 논문을 쓰면서 인형의 효과가 확실히 있었다면서 고맙다고 맛있는 것을 주고 가기도 하고 다른 방에 놀러갔을 때 걱정인형이 베개 밑에 고이 모셔져 있어서 뿌듯하기도 했다. 조금 어려웠던 점이나 힘들었던 게 있다면 논문을 처음 써봐서 잘 몰라서 어려웠고 걱정인형 받은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할 때 안 친한 사람에게 말 걸어야 한다는 게 무서웠다. 그리고 얘기를 이어가고 마무리를 하는 게 어려웠지만 사람들이 대답도 잘해주고 29명이랑 전부 1:1인터뷰를 하다보니까 적응도 되고 나름의 방법을 얻게 되었다. 하여튼 뿌듯하고 재밌게 논문을 쓴 것 같다.

논문자료 조사를 하다가 한 걱정인형 판매 사이트에서 파는 방식을 보고 감동 받았었다. 그 사이트에서는 걱정인형을 주문할 때 자신의 걱정을 써서 보낼 수 있다. 판매자는 미리 걱정인형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그 걱정을 보고 걱정에 맞는 걱정인형을 직접 하나하나 다 수 제작하며 그 걱정을 달래줄 위로 글들을 적어서 같이 보내준다. 이런 판매 방식을 보고 판매자가 걱정인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고 감동받았다. 그것을 보고 나도 걱정인형을 단순히 선물만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인형을 선물해 주면서 그 사람의 고민도 듣고 위로도 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걱정인형을 만들면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 사람의 걱정을 들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진짜 쉽게 고민을 말할 수 있을까? 친한 사람한테도 못 말하는 걱정이 많을텐데 나한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엔 신청자가 나에게 쉽게 고민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걱정인형만 선물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논문이 다 끝나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도 걱정을 들어줄 방법은 생각이 안 나지만 아쉽다. 하지만 내가 걱정을 들어주지 않았음에도 효과가 좋았다고 말하고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말해주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많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래서 나는 논문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걱정인형을 만들고 싶다. 걱정이 있다는 사람들과 걱정인형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간디학교 안에서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학교 밖에 걱정인형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또 다시 정성껏 만들어서 선물하고 싶다. 사실 논문을 쓰는 도중에 미리 쌤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강정마을을 도와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었다. 좋은 생각이기도 했고 조사해보니까 내가 알던 것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보내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만 주제가 간디 인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기도 하고 혼자 100개 이상의 걱정인형을 만드는 게 무리인 것 같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강정마을에 있는 강정초등학교에 보내려고 한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평범한 인형을 보고 걱정인형이라 그래도 그 인형은 걱정인형이 되는 것이다. 걱정인형은 딱히 정해진 모양이 없기 때문이다. 모양이나 생김새에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 효과도 없는 약을 암 치료에 아주 획기적인 약이라 믿고 먹어서 암을 치료한 사람처럼, 냉방장치가 고장 난 냉방차인데 냉방차라는 사실만 믿고 얼어죽은 사람처럼 믿음으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보면 믿음이라는 게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엄청난 것 같다. 걱정인형이 미신이고 효과가 사람한테마다 개인차이가 있겠지만 누구에게든 어느 정도 의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Thanks To

걱정인형 신청해주고 인터뷰도 해준 29명! (시정, 별, 준상, 고운, 현선, 우정, 민지, 채현, 지은, 하한, 현영, 채은, 소은, 소아, 형규, 하린, 민정, 영빈, 성혁, 예림, 명아, 효연, 가원, k수정, 수열, a다연, 승희, 세영, 한솔) 과 그 외에도 신청한 사람들♡

논문파티 해주고 격려 많이 해준 우리방 현선이♥ 채은이♥ 은솔언니♥

진짜 엄마같이 잘 챙겨주고 논문도 잘 봐준 수자쌤♡

옆에서 파이팅 해준 정상쌤♡

같이 논문 쓴 우리반 김수자 간장게장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 ♥♥♥♥♥

모두모두 진짜진짜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논문에 도움을 주신 분들 모두 다~

[illegible]



이 름 : 박수열

혈액형 : B

한마디 : 논문 끝났다... 축구해야지!

그 외 하고 싶은 말 : 나랑 김채현이랑 닮았다고 하는데
절대 안 닮았으니까 놀리지마!

좋아하는 것 : 라면, 초밥, 회, 선지 해장국, 축구축
구, 책, 공부

싫어하는 것 : 곤충

이상형 : 신세경, 아이유, 이민정, 박보영

폐품을 활용한 학교버스 리모델링하기

- 폐품을 활용해서 학교 버스 문제점 보완하기-

제출자: 박수열

지도교사: 주승룡

목차

I 서론

1. 논문의 동기
2. 논문의 목적
3. 연구방법

II 본론

1. 리모델링 방향잡기
 - 1) 현재 학교버스 모습 평가
 - (1) 현재 버스 모습
 - (2) 개인평가
 - (3) 간디인 평가
 - ① 설문지 내용
 - ② 설문조사 결과
 - 2) 리모델링 구상하기
-
2. 리모델링하기
 - 1) 버스 청소하기
 - 2) 앞, 뒤, 옆 창문,
 - 3) 바닥
 - 4) 의자
 - 5) 나무소파, 방석
-
3. 결과
 - 1) 작품 배치 전
 - 2) 작품 배치 후
 - 3) 리모델링 후 간디인 평가

III 결론

1. 소감 및 후기
2. 버스관리, 버스활용
3. 논문의 한계

Thanks to

I 서론

1. 논문의 동기

나는 예전부터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마침 학교버스가 파손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학교버스를 리모델링을 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멋지게 꾸미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물건을 구입하여 가져다 놓는 결과와 다를 것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손길이 묻어나는 방법을 고민했고, 그 결과 ‘폐품을 활용한 버스 리모델링하기’라는 주제를 택하게 되었다.

2. 논문의 목적

현재 파손되어 위험하고 활용되지 않는 버스를 리모델링해서 간디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3. 연구방법

현재 학교 버스의 모습 및 활용에 대해 설문을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버스 활용 방향을 정한다. 활용 방향에 맞게 버스에서 리모델링해야 하는 부분을 결정한다.

리모델링의 재료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폐품을 활용한다.

II 본론

1. 리모델링 방향잡기

1) 현재 학교버스 모습 평가

(1) 현재 버스 모습



(2) 개인평가

더럽다고는 예상했었지만 이렇게 많이 더러울 줄은 몰랐다.
앞, 뒤 창문은 깨져있었고 그 깨진 유리 파편들이 버스 내부에 튀어서 발을 디딜 틈이 없었다.
또 의자는 시트가 낡고 찢어져서 앉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버스 전체 페인팅이 너무 지저분해서 한마디로 폐차해도 아깝지 않은 버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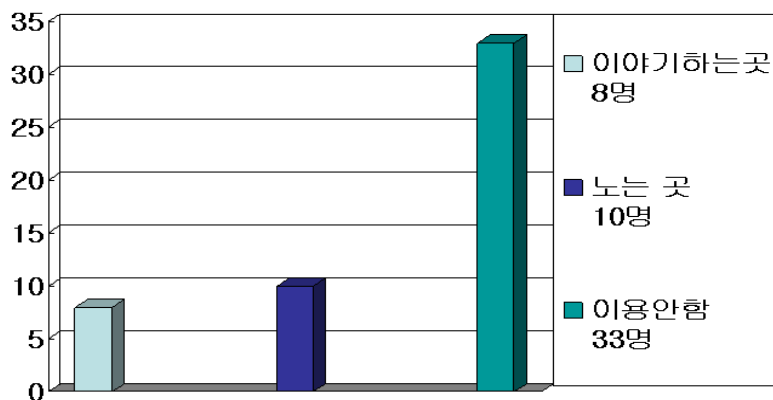
(3) 간단인 평가

① 설문지 내용

1. 현재 버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2. 지금 학교에 있는 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만약 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리모델링 한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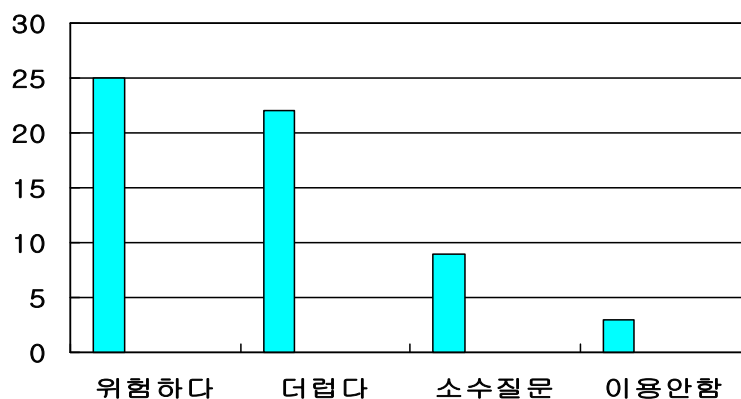
② 설문조사 결과

1. 현재 버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이야기 하는 곳 8명, 노는 곳 10명, 버스 이용 안하는 사람 33명 합5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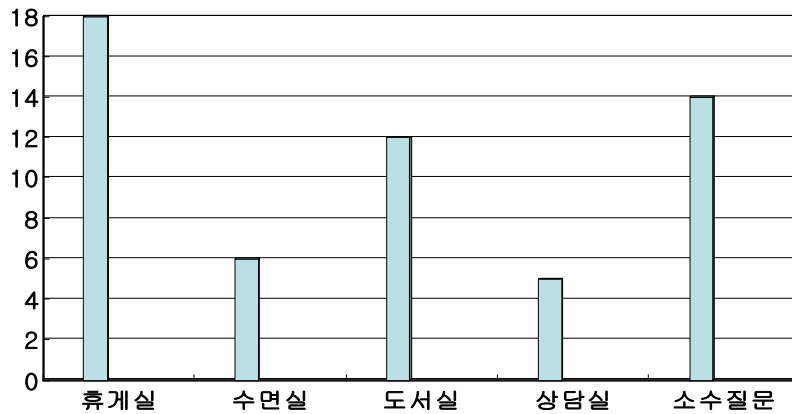
2. 지금 학교에 있는 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험하다 25명 더럽다 22명 소수질문: 9명 이용안함 3명
합 59명



3. 만약 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리모델링 한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나요?

휴게실(이야기하는 곳, 쉬는 곳) 18명, 수면실 6명, 도서실 12명, 상담실 5명 소수의견 14명 버스 이용 안하는 사람 3명
합55명



2) 리모델링 구상하기

처음에는 나의 생각으로 리모델링 방향을 잡으려고 했지만, 버스가 혼자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디인들의 의견을 통합하여 방향을 잡기로 하였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버스 활용 용도에서 휴게실로 라는 의견이 가장 많아서 휴게실로 버스를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휴게실은 쾌적하고 휴식 공간(의자, 책상 등)과 더불어 책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 리모델링 하는 방법은 휴게실을 만들기 위한 현재 버스의 문제점을 선정하고, 그것을 리모델링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

2. 리모델링하기

1) 버스 청소하기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청소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청소부터 하였다.



2) 앞, 뒤, 옆 창문(문제점)

현재 버스의 앞, 뒤, 옆 창문이 깨져 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버스에 비가 들어오게 된다.

비가 들어오면 버스가 젖게 되고 계속 방치해 두면 썩은 내가 난다.

이런 문제점을 폐품을 활용해서 고치고 보완해서 비나 바람이 안 들어오게 할 것이다.

(1) 앞, 뒤창문 만드는 과정

재료: 분리수거장에 있던 안 쓰는 장판, 드릴, 전동 드라이버, 글로건, 실리콘, 칼



1. 버스에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2. 구멍 낸 곳에 장판을 대고 못을 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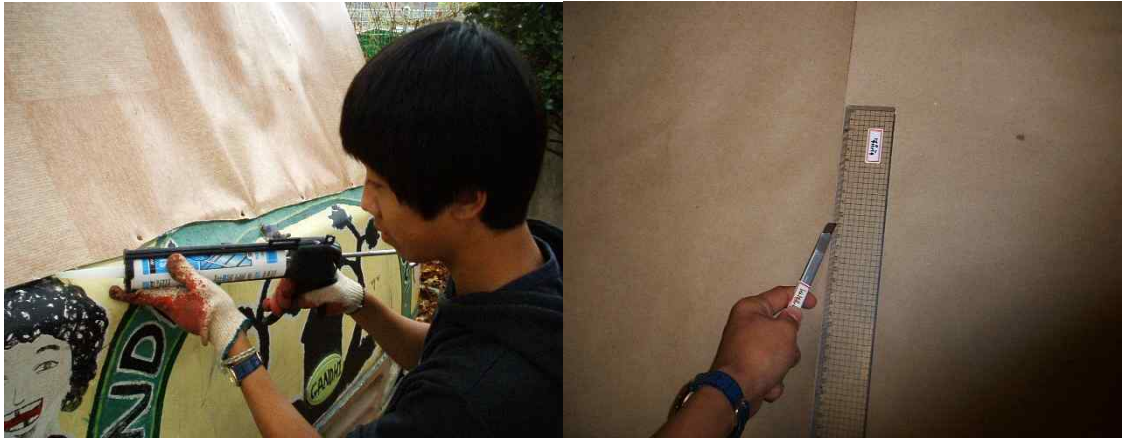


3.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낸다.

4. 비가 새지 않게 창문 주위에 글로건을 바른다.



5. 뜯어지거나 비가 새지 않게 실리콘을 바른다. 6. 대자보를 장판 크기에 맞게 자른다.



7. 대자보에 버스에 어울릴만한 그림을 그려서 안에서 보이는 장판에 실리콘으로 붙인다.



8. 완성



(2) 소감, 후기

만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버스 창문틀이 직사각형이 아니라 굴곡이 져서 창문 재료 구하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다. 이것 말고도 드릴이나 전동 드라이버, 실리콘 등을 처음으로 써보는 거라서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재밌었던 것도 있었다. 재밌었던 것은 장판에 붙일 그림을 그리는 거였는데 그림에 영 소질이 없어서 못 그리긴 했지만 그리면서 엄청 재밌었다.

(2) 옆 창문 만드는 과정

재료: 분리수거장에 있던 안 쓰는 장판, 드릴, 전동 드라이버, 글로건, 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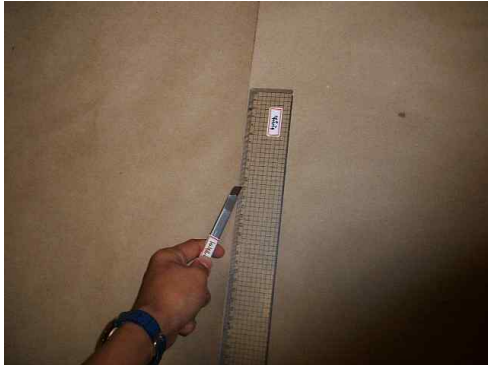
1.장판을 창문 크기에 맞게 자른다. 2.드릴로 구멍을 뚫고 전동 드라이버로 장판을 고정시킨다.



3.비가 새지 않게 창문 주위에 글로건을 바른다. 4.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낸다.



5. 대자보를 장판 크기에 맞게 자른다.



6. 대자보에 버스에 어울릴만한 그림을 그려서 안에서 보이는 장판에 실리콘으로 붙인다.



7. 완성



(2) 소감, 후기

창문 크기가 작아서 앞, 뒤 창문 만드는 것 보다 조금 쉬었던 것 같고 만들 때 승룡 쌤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만들어서 더욱 더 재밌었다.

3) 바닥(문제점)

현재 바닥이 비 때문에 곰팡이가 피어서 쿼퀴한 냄새가 난다.

퀴퀴한 냄새가 나면 사람들이 냄새가 나서 잘 이용을 안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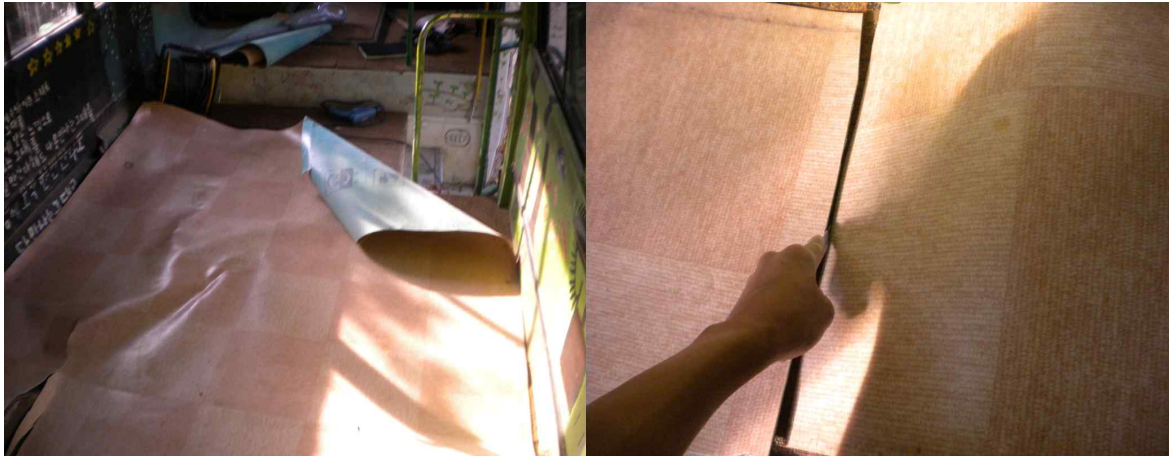
이런 문제점을 고치고 보완해서 냄새 안 나고 깨끗한 바닥으로 만들려고 한다.

(1) 만드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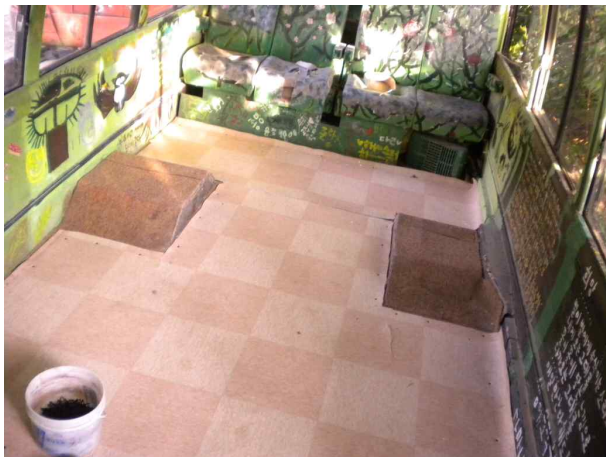
재료: 분리수거장에 있던 안 쓰는 장판



1. 장판을 버스에 알맞게 자르고 깎는다. 2. 버스 구조와 맞게 자르고 장판을 못으로 고정시킨다.



3. 완성



(2) 소감, 후기

장판 까는 것을 처음 해보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웠다. 제일 어려웠던 것은 장판을 버스 길이에 맞게 잘라야 되는데 버스에 튀어나온 것 때문에 자르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완성하고 나니 버스가 많이 변한 것 같아서 좋았다.

4) 의자(문제점)

버스에 의자가 있긴 하지만 많진 않다.

버스를 휴게실로 리모델링 할 것인데 의자가 많이 없으면 쉬기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의자들을 더 구하거나 만들어서 사람들이 휴게실에서 편하게 쉴 수 있게 할 것이다.

(1) 만드는 과정

재료: 분리수거장에 있던 안 쓰는 쿠션의자



1. 더러운 의자를 깨끗이 닦는다.

2. 완성



(2) 소감, 후기

의자를 쉽게 구해서 만들 때 쉬울 줄 알았는데 의자에 먼지, 흙 같은 것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걸 다 닦아내느라 엄청 힘들었었다.

5) 나무소파(문제점)

원래는 책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공부나 책은 안 읽고 의자 용도로 사용할 것 같아서 ‘그렇게 쓸 바에 차라리 의자 같은 것을 하나 더 만들자’라고 생각해서 소파를 만들게 되었다.

(1) 만드는 과정

재료: 분리수거장 주변에 있던 안 쓰는 나무소파, 분리수거장에 있던 안 쓰는 방석, 성열 뿔이 논문에 쓰라고 갖다 주신 의자 스펀지



1. 나무소파를 깨끗하게 닦는다.

2. 방석을 세탁한다.



3. 방석에 시트에 쿠션과 스펀지를 넣는다.



4.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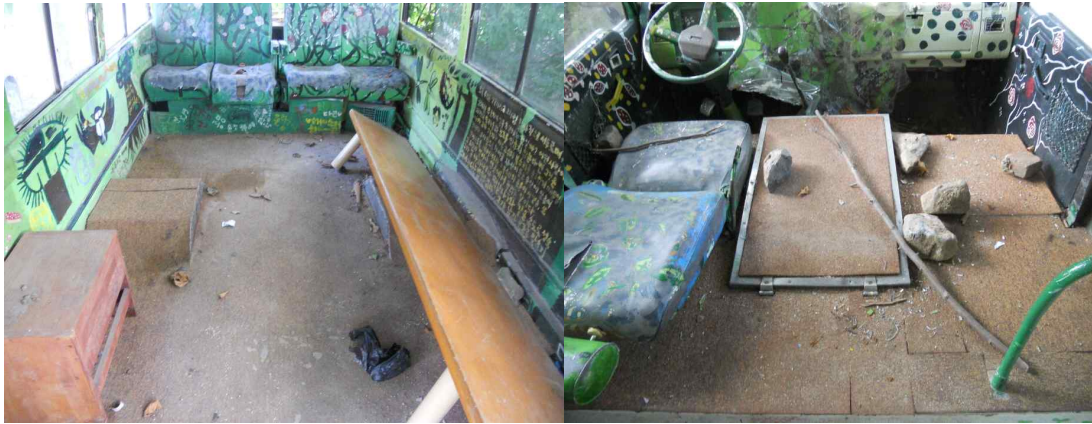


(2) 소감, 후기

나무소파 만드는 과정은 되게 간단해서 안 힘들 줄 알았는데 나무소파에 먼지랑 흙, 소파에 붙어서 안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닦아내는 엄청 힘들었다. 그래도 논문 쓸 때 성열 쌤이 한번 써보라고 주셨던 의자 스펀지를 꼭 써보고 싶었는데 쓰게 돼서 좋았다.

3. 결과

1) 작품 배치 전



2) 작품 배치 후



3) 리모델링 후 간디인 평가

리모델링 후 버스에 대자보를 붙여 '리모델링 후 바뀐 버스가 어떠신지 소감이나 평가 한마디 씩 써주세요'를 적어 붙여 보았다.



리모델링을 늦게 끝나쳐서 참여 수는 적었지만 대체로 리모델링 후 쾌적해졌다, 깨끗하다, 멋지다 등이 나왔다.

Ⅲ 결론

1. 소감 및 후기

처음 논문 주제를 잡을 때 리모델링이 쉬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어려웠던 것 같다. 처음에는 작품 구상만 해놓고 만드는 것은 쉬운 줄 알았는데 생각과는 달리 만드는 과정이 엄청 어려웠다. 장판을 까는데 버스에 면적이랑 장판 면적도 구해야 됐고 창문들에 맞게 길이도 재야 하고 버스가 철로 만들어져서 드릴로 구멍 뚫기도 어려웠고 대체로 어려운 것들이 정말 많았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아가면서 재밌었고 다 끝내고 나니 정말 뿌듯했다.

2. 버스관리, 버스 활용

1) 버스관리

버스관리는 학생회 ‘잘살아보세’에 학교버스를 청소구역으로 넣어달라고 부탁해서 청소를 하루에 한번 씩 하게 될 것이고 만약 ‘잘살아보세’에서 안 된다고 한다면 내가 청소를 할 것이다.

2) 버스활용

버스활용은 학생회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 학교 안에서 운영하던 간티크를 버스 앞에서 운영한다고 했다. 간티크는 한살림이라는 곳에서 유기농 과자를 사서 학교에서 과자를 파는 자치매점이다. 내년부터 버스 앞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과자를 사들고 버스에서 많이 먹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버스 활용도 많아질 것이다.

3. 논문의 한계

리모델링을 할 때 재료를 폐품을 사용해야 되서 원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도 그 작품에 필요한 폐품들을 구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다.

Thanks to

우리 반 논문 다 수고했고 버스 청소 혼자하기 정말 힘들었는데 도와준 상혁이와 승희 고맙고 논문 쓰면서 힘들었을 때 도와주신 수자 쌤 감사드리고 별로 도와준 것은 없지만 부모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제 논문 봐주시고 도와주신 지도교사 승룡쌤 정말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 름 : ♡신지은♡

성 별 : 아름다운 여성

혈액형 : O형

좌우명 : 예쁘게 살아요~♡

생 일 : 1996년 12월 14일

이상형 : 권지용

<디자인한복 만들기>

이름: 신 지은
지도교사 : 강미리, 김현숙

- 목차 -

I 서론

1. 논문의 동기
2. 논문의 목적
3. 연구방법
 - 3-1. 참고서적
 - 3-2. 방문

II 본론

1. 한복이란?
 - 1-1. 한복의 정의
 - 1-2. 평면적인 옷, 입체적인 옷
 - 1-3. 한복 천의 종류
 - 1-3-1. 옷감의 종류
 - 1-4. 한복의 색
 - 1-4-1. 현대판 배색
 - 1-5. 디자인 한복이란?
 - 1-6. 전통한복과 디자인 한복의 차이점
2. 작품 제작 과정
 - 2-1. 한복을 만들기 전에
 - 2-1-1. 부위별 용어 알기
 - 2-1-2. 필요한 도구
 - 2-1-2-1. 본뜨기용구
 - 2-1-2-2. 재단용구
 - 2-1-2-3. 바느질용구
 - 2-1-2-4. 끝손질 용구
 - 2-1-3. 본뜨기
 - 2-1-4. 마름질
 - 2-1-3. 치수재기
 - 2-2. 디자인
 - 2-3. 한복 만들기

III 결론

I 서론

1. 논문의 동기

‘나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싶은데 어떤 것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 <한복>이라는 주제를 생각 했었다.한복을 주제로 정하고 만든다고 했을 때도 틀에 막혀있는 전통한복이 아닌 좀 더 자유롭고 나의 개성을 더 살릴 수 있는 디자인 한복을 선택했다.

2. 논문의 목적

디자인 한복을 만들어서 한복에 대한 거리감을 좁혀주며, 한복에 나의 색깔이나 디자인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가능 하다면 저고리 없는 드레스 느낌의 한복도 만들 것이며,

공익성을 위해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한복 책을 만들기도 할 계획이기도 하다.

3. 연구방법

3-1. 참고서적

-아름다운 한복 구성/황의숙, 윤양노, 조선희, 이 민주/수학사

-<백애현의 아름다운 우리 옷>중 ‘기본편’/백애현/죽심

-한복 만들기/홍나영, 김 남정, 김정아, 김 지연

-전통의상 디자인(우리 옷 만들기 기초-여성한복)/양숙향/교학 연구사

3-2. 방문

-한복을 전공한 ‘강 지혜’선생님 과의 만남

-한복 천으로 유명한 ‘광장시장’ 방문

-대구에 있는 ‘서문시장’ 방문

II 본론

1. 한복이란?

1-1.한복의 정의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민족 고유의 의복으로서 조선옷이라고도 불린다. 직선과 약간의 곡선이 조화를 이루어 한층 더 아름다워 보이며, 특히 여자 옷은 짧은 저고리와 넉넉한 치마가 잘 어울려 옷차림이 단정하고 아담하게 보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예복과 평상복이 나뉘어 있으며 남녀별 성인과 어린이용, 계절별로 나누어진다.

1-2. 한복의 특징 평면적인 옷, 입체적인 옷

옷을 만들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두 가지 종류에는 평면적인 옷과 입체적인 옷 이 있다. 평면적인 옷은 제도를 할 때 사각모양 으로 제도를 해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입체적인 옷은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제도하여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 중 한복은 평면적인 옷이라고 불린다. 한복을 만들 때는 사각으로 제도한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은 자르거나 바느질은 이용해 한복을 만든다.

1-3.한복 천의 종류

옷은 어떤 옷감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다. 옷의 모양과 느낌이 달라지며 ,같은 섬유로 짠 것이더라도 그 직조상태에 따라서 재질에 차이 생긴다.

따라 형태가 단순한 한복에서의 옷감의 선택은 한복의 개성을 드러내는 커다란 요인이다.

한복용 옷감은 그 종류가 다양하나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 단(緞)직물⁵⁸⁾에는 공단, 모본단, 양단 등이 있고, 사(紗)직물⁵⁹⁾에는 갑사, 생고사, 숙고사, 진주사 등이 있다.

1-3-1. 옷감의 종류

1) 면직물

- 무명: 무늬가 없는 평직의 면직물(한복감, 속옷류)에 주로 사용됨
- 광목: 무늬 없이 평직으로 직조⁶⁰⁾한 것으로 옷감의 폭이 넓다
- 옥양목: 광복보다 촘촘하게 짠 평직의 면직물로 표면이 매끈하고 곱다
- 면아사: 면을 사용하여 리넨(linen)의 느낌이 나도록 직조한 것(치마허리감으로 쓰임)

2) 마직물

- 삼베: 짙고 시원하기 때문에 여름철 옷감으로 쓰임 (침구류로 많이 사용됨)
- 모시: 저마(苧麻)를 평직으로 짠 것으로 시원하고 까슬까슬하며 촉감이 느껴짐

3) 견직물

- 명주: 무늬 없이 평직으로 직조한 견직물(전통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 옷감)
- 노방주: 생사(生絲)를 사용해 평직으로 직조한 견직물로, 노방이라고도 불림
- 생고사: 경·위사를 모두 무연의 생사를 사용하여 만든 직조한 견직물
바탕은 사직, 무늬는 평직인데 사직 비율이 거의 80%를 차지해서 아주 투명함
- 숙고사: 무연의 연사를 사용하여 생고사와 반대로 바탕은 평직이고 무늬는 사직으로 직조한 견직물(근래 생산되는 가장 전형적인 숙고사)
- 국사: 숙고사와 마찬가지로 무연의 연사를 사용하여 바탕은 평직, 무늬는 사직으로 직조하였으나, 바탕보다 무늬의 비율이 더 많은 것이 숙고사와 다름
- 갑사: 경·위사 모두 생사를 사용하지만 특별히 연사를 사용한 숙갑사도 있음
- 자미사: 경·위사에 연사를 사용한 견직물
- 진주사: 경·위사 모두 생사를 사용하여 바탕은 사직으로 무늬는 평직과 사직이 혼란된 형태로 직조한 견직물
- 옥사: 둘 이상의 누에가 모여서 하나의 고치를 만든 옥견에서 뽑은 실을 사용해, 실을 굵기 고르지 않아 직물의 표면이 거칠거칠 함
- 공단: 무늬가 없는 수자 직물로 두꺼우면서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있는 소재

1-4. 한복의 색

한복은 형태의 변형 보다는 색의 구성에서 변화와 개성을 쉽게 표출하기 때문에, 배색⁶¹⁾은 옷감의 선택과 더불어 한복의 다양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전통적 배색의 대표적인 예로 결혼하기 전에는 다홍색 치마에 노랑색 저고리, 결혼 후에는 남색치마에 노랑색, 미색, 옥색 등의 저고리를 입었다. 이와 같이 한복의 배색에서는 화려한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색채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온화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유사배색⁶²⁾을 사용한다. 백색과 옥색, 옥색과 남색의 조화가 주종을 이루는데, 남색 치마에 옥색 저고리, 옥색 치마에 백색 저고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배색은 평상복으로 가장 많이 애용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이 볼 수 있는 배색이다.

1-4-1. 현대판 배색

근래에 와서는 급격한 유행의 영향으로 개성과 취미를 살리는 한복을 입게 되면서, 전통배색에 구애 받지 않고 현대적인 미적 감각을 기준으로 다양한 배색이 등장했다. 전통배색에서는 거의 쓰지 않았던 검은색, 회색 같은 색이 활성화 되었다.

58) 풍부하고 부드러운 질감의 직물

59) 생사로 성기게 짠 얇고 가벼운 천

60) 기계나 베를 따위로 피륙(무명, 비단 따위의 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짜는 일

61)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색채를 서로 맞추어 구성하는 것

62) 가까운 색을 이용해 배색하는 방법

배색 할 때에는 기본이 되는 색과 강조 되는 색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색 자체가 좋아도 그 옷은 어울리지 않음으로 자신에게 맞는 기본 색을 주조로 하여 유행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1-5. 디자인 한복이란?

전통한복처럼 형식(색, 고름의 길이 등)에 맞추어서 만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색, 고름, 썸 등을 바꾸어 만들은 것을 디자인 한복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고름, 소매의 폭을 줄이거나, 굳이 저고리 치마 로 나누지 않고 원피스 형식의 한복으로 바꾸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꾸어 만들 수 있다.

디자인 한복을 통해 현대적인 미, 한복의미를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한다.

<디자인 한복사진>



(깃을 둥글게 만들어서 멋을 냄)(원래 기본형식의 썸보다 길게 만듦) (고름이 많이 좁아짐)



▲ 치마, 팔의 길이가 짧음



▲ 저고리가 없어 드레스 같은 느낌



▲ 치마의 색을 여러 가지로 함

1-6. 전통한복과 디자인 한복의 차이점

사실 두 한복의 차이점을 말하자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다. 전통한복과 디자인 한복의 선이 명확하지 않아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다. 그래도 굳이 이 두 한복의 차이점을 말하자면

전통한복에는 틀에 갖추어진 것이 많다. 전통한복은 배색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복을 제도 할 때에도 전통한복은 고름은 일정도의 넓이 이어야 하고, 배래는 일정도의 박아야한다. 등 여러모로 정해진 것이 많다. 그러나 그에 비해 디자인 한복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좀 더 자유롭다. 내가 만든 한복에서도 그렇듯이 한복에서 전혀 쓰지 않는 색만 골라서 사용했다. 전통한복에서는 검은색을 바탕으로 두고 밝은 파랑으로 포인트를 준 한복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런 색을 사용하는 것도 디자인 한복이니까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한복 천으로 파티 북, 드레스를 만들 수도 있

다. 이처럼 디자인 한복은 이런 것이고, 전통한복은 이거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차이는 있다.

2. 한복 제작 과정

2-1. 한복을 만들기 전에

2-1-1. 부위별 용어 알기

-저고리-



-치마-



2-1-2. 필요한 도구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용구가 필요하다. 또한 옷을 만드는 과정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용구를 선택하여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용구들은 사용 목적에 따라 본뜨기 용구, 재단 용구, 바느질 용구 끝손질 용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1-2-1. 본뜨기 용구

- 자: 직선 길이를 긋는 데 사용되며, 실제 치수로 본을 뜰 때는 50cm, 1m 다가 편리하다.
- 방안자: 0.5cm 간격으로 방안 눈금 표시되어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 자
- 곡자: 도련선, 배래선, 깃선, 그 외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긋는데 사용한다.
- 직각자: 직각선을 긋는 데에 사용한다.
- 줄자: 인체의 치수를 재거나 곡선의 길이를 잴 때 사용한다.
- 측도자: 측도 치수를 재거나 곡선의 길이를 잴 때 사용한다.
- 커브자(진동자): 당의의 도련, 색동저고리의 진동을 그릴 때 사용된다.



방안자

곡자

직각자

측도자

커브자

2-1-2-2. 재단 용구

- 재단가위, 종이가위: 옷감을 자르는 가위와 종이를 자르는 가위를 반드시 구별하여 사용해야 한다. 재단가위를 살 때는 날 끝이 예리한 것을 사야한다.
- 시침핀: 두 장 이상의 옷감을 서로 맞추어 고정할 때 사용한다.
- 초크: 옷감에 표시하는 데 사용하며 연필 초크, 파라핀(paraffin) 초크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 누름쇠(문진): 옷본이나 옷감이 서로 움직이지 않도록 눌러 고정시키는 데 사용 한다.



재단가위

연필초크

누름쇠(문진)

2-1-2-3. 바느질 용구

- 바늘: 비늘에는 손바늘, 재봉틀 바늘 등이 있다. 바늘의 굵기는 호수로 나타내며, 손바늘은 호수가 클수록 가늘고 재봉틀 바늘은 호수가 클수록 굵어진다.
- 실: 실은 면사, 견사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 골무: 바늘귀를 밀어 넣는 데 사용되며 손바느질에 필요한 용구이다.
- 쪽가위: 바느질을 할 때 실을 끊거나 세밀한 부분을 자르는데 사용되는 작은 가위이다.
- 리퍼(실뜯개): 바느질한 판을 뜯을 때 사용된다.
- 족집게: 작은 실밥을 뽑는 데 사용된다.
- 옷본: 저고리의 도련본, 깃본, 배래본, 버선본 등을 얇고 뽀뽀한 재료로 만들어 완성선을 표시할 때나 솔기를 꺾어 다릴 때 끼워서 사용한다.
- 재봉틀: 주로 가정용과 공업용으로 구별된다. 가정용은 부피가 작고 사용법이 간단하며, 공업용

은 큰 옷을 만들 때 사용하면 편리하다.

2-1-2-4. 끝손질 용구

-다리미: 옷의 바른 모양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다리미대: 다리미질을 할 때 사용한다.

-덧형걸: 함유섬유나 모직물과 같이 다리미를 직접 댈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분무기: 마름질하기 전 옷감 손질이나 바느질한 후 옷 모양 정리과정에서 옷감에 물을 뿌릴 때 사용한다.

2-1-3. 치수 재기

입어서 아름답고 내 몸에 맞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치수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 몸의 구조, 체형을 잘 파악하고 기준점과 기준선을 정확하게 알고 치수를 재는 것이 중요하다.

한복을 만들 때는 본뜨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치수(저고리: 가슴둘레, 등길이, 화장)만 계측하고, 그 이외의 치수(저고리: 앞길이, 앞폭, 뒷폭, 진동, 고대 등)는 기본치수를 가지고 산출하거나 참고치수를 이용하기도 한다.

*치수를 잴 때는 줄자를 지나치게 잡아당기거나 느슨하게 하지 않는다. 겹옷을 입은 상태에서 재는 경우에는 옷의 두께를 고려하여 치수를 정해야 한다. *

(1)길이 항목

①총길이

뒷목점부터 허리둘레선까지 수직으로 내리고 그 선을 눌러 엉덩이둘레 선까지는 체형에 따라 재고, 그 아래는 수직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려 바닥까지 잰다.(저고리길이, 치마길이, 바지길이, 두루마기길이 등을 정하는 데 참고가 되는 치수)

②등길이

뒷목점부터 허리둘레선까지 수직으로 약간 여유 있게 내려서 잰다.

③여자 저고리 길이

보통 여자 저고리길이는 25~28cm 정도로 하지만 체형·유행·연령·기호에 따라 변할 수 있다.

⑤화장

피계측자가 팔을 옆으로 45° 든 상태에서 뒷목점부터 어깨점을 지나 손목점까지 자연 스럽게 잰다. (소매길이의 기준이 되는 치수이다.)

⑥치마길이 한복을 착용할 때 신을 신발을 신고 가슴둘레선의 뒷중심에서 바닥까지 잰다. 이때 치마의 부피를 고려하여 발뒤꿈치에서 30cm 정도 떨어져 사선으로 재면 적당한 길이를 얻을 수 있다.

⑦두루마기 길이

총길이에서 여자용은 20~25cm정도(남자용은 25~30cm 정도)를 뺀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원하는 길이까지 잰다. 이 길이는 대략 무릎과 바닥의 중간 위치까지 내려오게 된다.

2)둘레 항목

①가슴둘레

유두를 지나는 가슴의 수평 둘레로, 유방이 처진 경우에는 유두를 지나지 않더라도 유방이 제일 높은 곳을 돌려 잰다. 이때 줄자는 너무 잡아당기지 않도록 하며, 느슨하게 잡아 뒷부분이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허리둘레

허리에 고무줄 또는 가는 끈을 매고, 그 위를 수평으로 돌려 잰다. 이때 줄자의 뒤가 처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엉덩이둘레

엉덩이의 제일 굵은 부분을 지나도록 고무줄 또는 가는 끈을 매고, 그 위를 수평으로 돌려 잰다.

2-1-4. 본뜨기

본을 뜰 때에는 본뜨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치수만 계산하고 그 이외의 치수는 산출하여 본을 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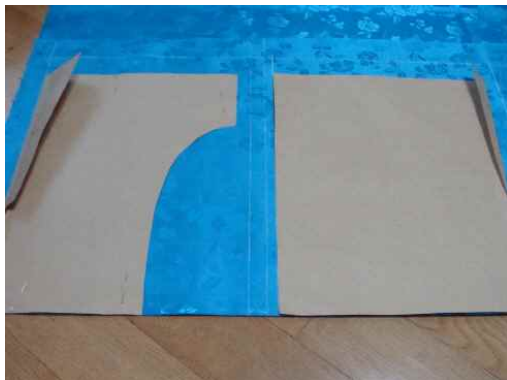
거나 참고치수를 이용한다.

본을 때에는 계측한 치수에 동작이 필요한 여유분을 포함시켜 그린다.

참고치수

-저고리-

항목 크기		소	중	대
가슴둘레		82	86	90
저고리길이		25	26	27
화장		72	74	76
진동(B/4+0.5)		21(최소값)	22	23(최대값)
고대/2(B/10-0.5)		7.7(최소값)	8.1	8.5(최대값)
결섵	윗너비(깃너비+1)	5.3	5.4	5.5
	아랫너비(깃너비+1.4)	5.7	5.8	5.9
안섵	아랫너비(깃너비-1.4)	2.9	3	3.1
깃너비		4.3	4.4	4.5
겉깃길이(B/4+0.5)		21	22	23
고름너비		5	5.5	6
고름길이	긴고름	100	105	110
	짧은고름	90	9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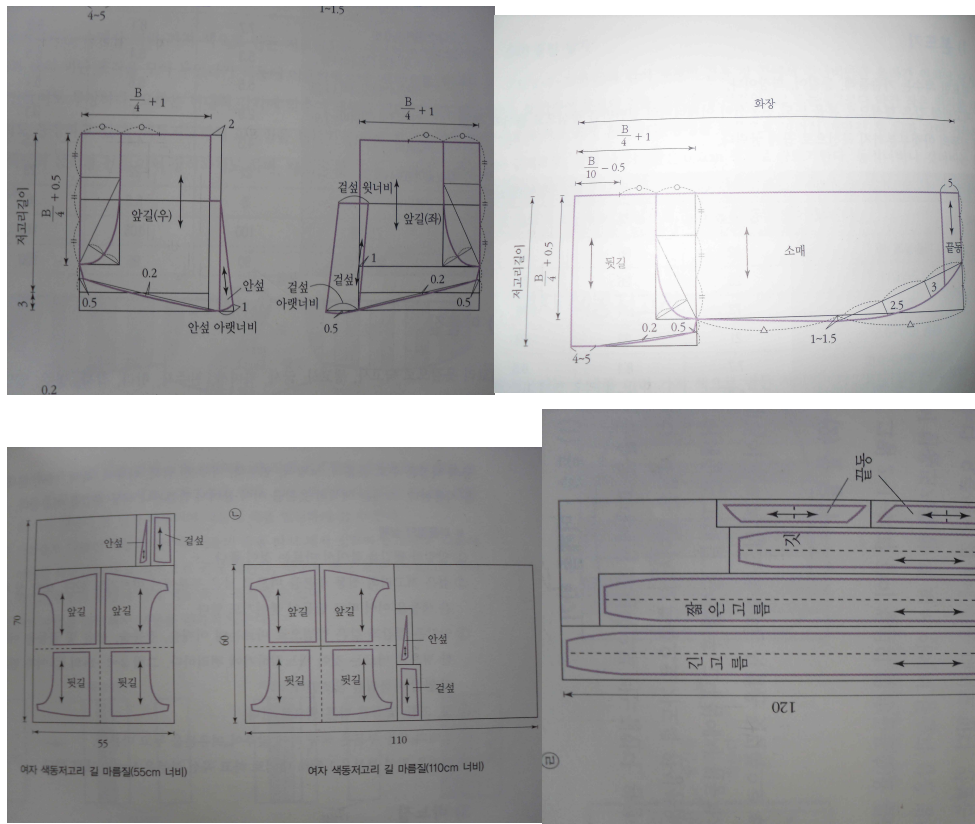
-치마-

항목	크기	소	중	대	저고리와의 관계
가슴둘레(B)		82	86	90	
치마허리길이		23	24	25	저고리길이-2
치마길이 (총길이-치마허리길이+구두굽 높이)		115	120	125	
허리끈너비		2~2.5	2~2.5	2~2.5	

2-1-5. 마름질

여자 색동저고리

구성	옷감너비	옷감 계산방법	옷감 필요량
길	55cm	저고리길이*2+시접	60cm
	110cm	저고리길이*2+시접	60cm
색동	110cm	소매너비*2+시접	50cm
고름	55 · 110cm	긴고름길이	120cm



치마

옷감 너비		옷감 계산방법	옷감 필요량
55cm	5폭	(치마길이+시접)*5	600~650cm
	6폭	(치마길이+시접)*5	720~780cm
110cm	2.5폭	(치마길이+시접)*2.5	360~390cm
	3폭	(치마길이+시접)*3	360~390cm

치마폭은 치수대로 매 폭의 길이가 똑같이 되도록 마른다. 한 폭의 길이는 치마길이+시접 (밑단+허리시접, 5~6cm)로 정한다. 치마폭이 넓은 경우 에는 허리둘레를 줄여 사선으로 마르는데, 이때 가운데 폭은 양쪽을 줄여 구며 가장자리 폭은 한 쪽만 줄이고 안자락과 겉자락은 직선으로 남겨둔다. 줄이는 분량이 너무 많으면 보기에 흉해짐으로 적당히 줄여야 한다.

2-2. 디자인

한복을 한 번도 디자인해보지 않았던 나는 디자인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종이에 내가 원하는 한복 모양을 그리는 건데 그것조차 내 맘대로 안 되어 결국 전통한복을 그리고 그 위에 내가 하고 싶은 모양을 조금씩 변경 하면서 디자인을 했었다. 전통한복이랑 다른 점을 아래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색은 원래는 한복하면 가장 대표적인 노랑색, 빨간색을 쓰려고 했었다. 그러나 디자인 한복이고 나만의 느낌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해 한복에는 거의 쓰지 않는 검은색을 바탕색을 두었다. 바탕색을 검은색으로 둔만큼 우아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검은색을 바탕으로 둔만큼 차분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있어 밝은 파랑색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밝고 화사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내 개인적으로는 색이 그래서 그런지 이 한복을 보면 겨울이 생각난다.

* 고름: 다른 한복에 비해 폭이 좁다.

다른 한복은 고름이 두 개이지만 위의 사진에는 세계이다.

* 깃: 깃의 끝을 둥그런 모양으로 표현했다.



*섶: 다른 섶에 비해 좀 더 날카롭다.

*소매, 배래: 소매가 짧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배래도 짧아짐으로 좀 더 현대적이며 몸이 부해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다.

*저고리의 짧기: 저고리가 다른 것에 비해 짧다.

* 치마 양면: 치마를 앞에는 검은색, 뒤에는 분홍색으로 함으로써 양면 사용이 가능하다.

* 색: 한복에 잘 쓰지 않는 검은색, 분홍색을 씬으로써 독특한 분위기를 볼 수 있다.

2-3. 한복 만들기

1)저고리

*봉제하는 동안 옷감의 두께에 따라 완성선보다 0.1~0.2cm 시접쪽으로 나가 박음질하고, 완성선을 중심으로 시접을 꺾어 다림질 해준다.

(1) 등솔박기

뒷길의 좌우를 걸끼리 마주 대어 고대에서 도련쪽으로 내려 박는다. 옷감의 폭이 좁아 등솔의 뒷길 좌우가 각각일 경우 통솔 처리하면 옷이 풀리지 않아서 좋다.

(2) 어깨솔 박기

앞길과 뒷길의 길끼리 맞대어 고대점에서 진동시접까지 박는다. 이때 고대점에서 진동시접까지 박는다. 이때 고대점에서 되돌아 박기를 정확히 한 후 진동부분의 시접 끝까지 박는다. 시접은 뒷길 쪽으로 꺾어 다림질한다.

(3) 고대점 가위 집주기

시접에서 고대점으로 약 0.2cm 정도 떨어진 점까지 가위 집을 넣는다.

(4) 겹섶달기

길과 겹섶의 길끼리 맞대어 겹섶의 안쪽에서 박고, 시접은 섶쪽으로 꺾어 다림질한다.

(5) 안섶달기

오른쪽앞길 아래에 안섶을 놓고 박음질 하여, 시접은 길 쪽으로 꺾어 다림질한다.

(6) 색동박기



제도한 모양을 서로 이어 박아준다

(7) 소매달기



길과 소매의 진동부분을 겹끼리 맞대어 앞길에서 뒷길 쪽으로 진동치수까지 박음질 하며, 시작과 끝부분은 되돌아 박는다. 솔기는 가름솔로 처리하여 다림질 한다.

(8) 안감 바느질

안감은 치수와 모양을 겹감과 동일하게 바느질 (등솔→어깨솔→진동솔)하고 등솔기의 시접을 입어서 겹감과 같은 방향으로 꺾어준다.

(9) 안감 맞추기



안감과 겹감의 겹끼리 맞대어 등솔선, 어깨선, 진동선, 수구 등이 일치되게 핀 시침한다.

(10) 소매부리 박기

안감의 완선선과 겹감의 0.3cm 밖으로 나간 선을 맞추어 박는다.

(11) 도련박기

도련은 사선이기에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앞도련 선은 옆선에서 옆쪽으로 시접까지 박음질 한다. 옆코 부분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봉제하며 겹감 쪽으로 꺾어 다린다.

*도련박기를 끝마친 후 시침한 핀을 빼고, 시접을 정리한다.

(12) 옆코 만들기



-옆도련에서 시접 쪽으로 0.3~0.5cm 밖으로 곱게 흠질한 후 겹감 쪽으로 꺾어 다린다.

-옆코 위쪽에 가위 집을 주어 자연스럽게 꺾고, 도련부분의 흠질한 실을 잡아당기며 자연스럽게 오그린다.

-옆코에 실을 걸어 옆코 위쪽과 옆코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다림질한다.

-겹곁 코와 같은 방법으로 안곁코를 빼어 완성한다.

(13) 4겹 맞추기 (진행과정)

어깨솔기, 소매중심을 기준으로 반을 접어 안감과 겉감의 뒷길 사이에 앞길을 끼워 넣는다.

(14) 4겹 맞추기(완성)

안감의 겉과, 겉감의 겉과 겉을 맞추어 4겹을 정리하여 옆선과 배래박기를 준비한다.

(15)옆선(결밀)박기

도련과 옆선이 만나는 옆선의 끝점에서 1cm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재봉기 바늘을 꽂고 노루발을 내리고 시침핀을 뺀 후 후진으로 시작하여 되돌아와 박는다.

(16) 배래박기

옆선에서 배래로 꺾어 박을 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봉틀을 손으로 돌리고, 겨드랑이점에 재봉틀바늘을 꽂은 상태에서 배래 쪽을 향하게 하여 4겹을 박는다.(박은 후 다림질을 하면 좋다.)

(17) 뒤집기

전체적인 시접을 정리한 후 겉감의 고대 쪽으로 손을 넣어 수구의 시접을 잡고 뒤집어 양쪽 소매와 길을 뒤집는다.(뒤집은 후 다림질을 하고 매무새를 정리한다.)

(18) 깃 만들기



-길을 편평하게 놓은 후, 겉감, 심감, 안감 3겹을 들뜨지 않게 어슷시침하고 깃선을 표시하여 깃달 준비를 한다.

-겉깃과 안깃의 안쪽에 심감을 대고 겉깃은 길에 달리는 부분의 완성선에서 0.1cm떨어진 곳에서 박는다. 안깃은 길에 달리는 부분의 완성선에서 0.1cm 안쪽으로 들어와 박음질 한다. 특히 고대부분에는 심감은 2~3겹 겹쳐 지그재그 모양으로 박아 고정시킨다. 이 때 심감은 좌우로 약 5cm정도 나간 분량만큼 재단하여 박음질 하여 고정시킨다. 겉깃과 안깃의 깃머리는 완성선에서 0.2cm 정도 나가 촘촘하게 홈질한다.

-겉깃과 안깃의 깃머리에 깃본을 대고 홈질해 둔 실 끝을 당기며 다림질하여 깃머리를 만든다. 겉깃은 완성선 0.1cm 밖에, 안깃은 완성선 0.1cm 안의 중심선을 겉끼리 맞대어 박는다. 시접은 겉감 쪽으로 꺾어 다린다.(이는 뒤집었을 때 겉깃이 안깃 쪽으로 0.1cm넘어가기 위해서이다.)

-저고리의 앞길을 들추어 두꺼운 판을 끼워 넣고, 만들어 놓은 깃의 고대점과 길의 고대점을 잘 맞추고, 앞길을 위에 깃을 올려 핀으로 고정한다.

-깃은 좌우 고대점을 잘 맞추어 겉깃과 고대, 안깃을 모두 맞추어 핀으로 고정한다.

-시침핀으로 고정시킨 깃선을 따라 안깃 쪽에서부터 깃의 완성선에 2cm 간격으로 숨은 시침을 하고 길에 고정된 시침핀을 모두 뺀다.

-겉깃 안쪽 깃머리 시접에 가위집을 준 후 완성선에 반박음질을 한다.

-깃머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깃선부분을 박는다.(고대부분이 물리지 않도록 고대점에 재봉기 바늘이 꽂이도록 하여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 깃머리에 입체감을 주기 위하여 깃머리 안쪽에 깃본을 대고 겹섹을 다리미로 눌러준다.
- 안깃의 머리에서부터 끝까지 시침핀으로 꽃아 창구멍을 막는다.
- 안깃의 깃머리에서 고대, 깃끝까지 핀으로 시침한 부분을 공그르거나 감칠 질한다.
- 길을 달아 완성한 후 다림질하여 정리해 놓는다.

(19) 고름 만들기



- 고름 옷감의 안쪽에 심감을 대고, 길에 달리는 부분을 창구멍으로 하고, 그 시접을 꺾어 완성선에서 0.3cm 들어가 박음질한다. 겹끼리 맞대고 중심선을 접어 완성선을 박음질 한다.
- 얇은 감일 경우에는 전체 길이만큼 심감을 고름 내부의 길에 닿지 않은 안쪽에 대주고, 두꺼운 옷감일 경우에는 길이의 반장도 심감을 대거나 아예 생략할 수도 있다.
- 고름 너비 쪽 시접을 먼저 꺾고, 길이 방향 쪽 시접을 꺾어 다림질한다.
- 길에 대어질 창구멍으로 뒤집어 다림질한 후 공그르거나 감칠 질 한다.
- 긴 고름은 솔기가 위쪽을 향하게 하고, 깃머리선이 고름너비의 1/2선에 오도록 위치를 정한다.
- 짧은 고름은 앞길 오른쪽 고대점에서 1cm 떨어진 점에서 수직으로 내려와 긴 고름과 수평으로 만나는 곳에 부착한다.

(20) 동정심과 동정감만들기

동정너비는 깃너비의 2/5, 동정 끝의 각도는 60°, 동정길이는 깃길이(깃너비+2~3cm)로 한 두꺼운 종이를 자른다. 동정감은 동점심의 길이, 너비보다 각각 1cm씩 더 크게 준비한다.

(21) 동정 만들기

- 동정심을 부착시킬 때 동정코 부분의 시접은 1cm정도 하고, 아래쪽 시접은 0.5~1cm정도 두고, 동정코의 풀을 발라 부착한다.
- 동정코가 뽕족하게 되도록 시접을 세모로 접는다.

(22) 동정 달기

- 깃의 안쪽 깃너비만큼 올라간 부분에 깃끝과 시접 끝을 맞추어 시접이 끝나는 0.4cm 되도록 박음질을 하는데 시작과 끝점은 0.5cm 되도록 박음질하여 꺾어 넘긴다.
- 겹깃 쪽으로 동정을 꺾어 다림질한 후 가는 바늘과 실로 동정코 부분을 깃안쪽에 떠서 고정시킨다.
- 깃안쪽에서 동정코를 고정한 후 동정심리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2cm정도 간격(바늘땀은 0.2cm정도)으로 숨뜨기를 한다.

(23)스냅단추달기

안고름 대신 저고리의 왼쪽앞길 안쪽에 볼록 스냅 달고, 오른쪽 앞길에 겹에 오목 스냅을 버튼홀 스티치로 단다.

(24) 완성



다림질을 하여 옷을 뽀뽀하게 한다.

2)치마

(1) 끈허리 만들기



- 2개를 만든다.(그림참조)
- 허리감을 길이로 반을 접어 완성선을 표시한다.
- 치마가 달린 부분의 시접을 미리 꺾어 다린다.
- 허리감 사이에 만들어 놓았던 끈을 솔기가 위로 가도록 끼워 놓는다.
- 양 옆을 튼튼하게 두 번 박은 후 뒤집는다.

(2) 치마폭잇기



옷감의 무늬와 결을 맞추어 겹끼리 마주 대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오려 박는다.

(3) 겹감 시접 정리하기

치마폭잇기는 늘어지기 쉬운 사선 박음질이기에 폭잇기를 한 후 1~1.5cm 시접만을 남기고 베어낸다.

(4) 겹감 시접 다림질하기

겹감과 같이 안감도 시접을 베어낸 후 가름솔로 다림질 한다.

(5) 안감 폭잇기



겹감과 마찬가지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박음질해 나간다.

(6) 안감 시접 다림질하기

겹감과 같이 안감도 시접을 베어낸 후 가름솔로 다림질한다.

(7) 안감 시접 정리하기

겹감과 같이 폭잇기를 한 후 시접을 잘라낸다.

(8) 모서리 만들기



-치마단의 분량은 1.5~2cm로 하고, 겹감과 안감의 시접은 1~1.5cm로 정하여 표한다. 밑단과 양쪽 선단 부분은 안감을 겹감보자 3cm 적게 마른다. 이것은 겹감을 안으로 꺾어 넘겨서 1.5~2cm 정도의 단을 만들기 때문이다. 겹감과 안감을 맞대어 놓는다.

-시접 1cm를 두고 안감과 겹감에 표한 점을 겹끼리 서로 만나도록 안감을 쓸어 내려 잘 맞추어 밑단의 박음질을 준비한다.

-밑단의 완성선을 박음질한다.

-1~1.5cm의 시접만을 남기고 깨끗하게 정리한다.

-밑단 쪽에서 허리 쪽으로 박음질해 나간다.

-밑단과 선단의 시접은 겹감 쪽으로 꺾어 다림질 한다.

-모서리의 밑단과 선단의 단과 시접을 균일하게 잡는다.

-선단의 시접을 안쪽으로 눕히고, 손으로 모서리를 꺾어 누른다.

-모서리 시접을 세우고, 꺾어진 선이 보이면 이를 모서리 이 음선으로 삼는다.

-겹감의 모서리를 접어 박음질한다. 이 때 박음질 선은 치마단 바느질선의 끝점레서 시작하여 모서리 접히는 선에서 끝낸다.

-모서리의 시접을 네모로 접어 다림질하고, 이 네모난 시접을 잡고 뒤집는다.

-양쪽 모서리를 뒤집어 다림질하면 완성이다

(9) 겹감과 안감 허리선 맞추기

모서리를 완성한 후 겹감과 안감의 밑단과 건단을 기준으로 옷감을 쓸어 올리며 핀으로 고정한다.

(10) 겹자락쪽 성김 박음질하기

허리선을 맞춘 후 밀리지 않도록 성기게 박음질해 나간다. 이때 시작되는 겹자락은 처짐을 막기 위하여 완성성보다 1cm 내려가 박음질한다.

(11)주름잡기



겹감과 안감이 고정된 전체 치마폭의 주름수와 주름분량을 계산하여 핀으로 주름 잡아 고정한다. 이때 겹자락은 처음부터 주름을 잡고, 안자락은 끝에서 7~8cm정도 주름잡지 않는다.

(12)허리선 박음질하여 주름 완성하기



주름의 시침질서에서 0.2cm 내려온 완성선을 재봉기로 박음질하고, 박음질 선에서 2cm 내려간 곳까지 다림질하여 주름을 완성한다.

(13)치마의 허리선 위에 어깨허리 겹단의 완성선을 맞추어 핀 시침한다.

(14) 어깨허리 박기

핀 시침된 치마와 어깨허리 겹자락쪽에서 안자락 쪽으로 박음질한다.

(15)어깨허리 안쪽에서 감칠 질하기

어깨허리 단의 안쪽으로 치마의 시접을 넣고, 감칠질 하거나 공그르기를 한다.

(16)매무새 정리하기

완성한 어깨허리 치마를 다림질 하여 매무새를 정리한다.

III. 결론

처음 논문을 쓴다고 했을 때 많은 고민을 했었다. 특별히 한 쪽으로 잘 하는 것도 하는 것도 없었고, 관심 있는 것도 없고 해서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그럼 내가 이때까지 가장 칭찬 받았던 건 뭘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색감이 좋다.’ 라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들은 칭찬 중 하나여서 그럼 색감 쪽으로 보여 주자라는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색감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까라고 한참의 고민하다가 우연히 한복 팸플릿을 볼 수가 있었다. 그 팸플릿을 보아서 그럼 한복을 주제로 하면 내가 색감, 느낌을 더 보여주고 나를 표현하기도 좋을 것 같아 한복이라는 주제를 결정했다. 그런데 그냥 한복을 하면 너무 정해진 것이 많아서 보여주는 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그럼 디자인 한복을 하면 내 디자인, 색감 등 여러 가지를 더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디자인한복이라는 것을 주제로 정했다.

디자인한복 만들기가 주제인 한복을 만들기 위해 서울 다녀왔다. 서울에 한 달 정도(여름방학 동안) 있으면서 배웠다. 처음에는 집을 떠나 서울에 가서 한복을 배운다는 생각에 걱정 반 설렘 반이었다. 그런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정말 한복을 배우는 하나하나 단계가 뿌듯하고, 신선하고, 알찬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힘들기도 했다. 그렇지만 힘든 것 보다는 재미있고, 뿌듯함이 더 컸기에 잘 버티고 할 수 있었다.

한복을 만들고 나서 내가 한복을 만들었다는 뿌듯함도 있었고, 한 달 정도 공들인 작품이 완성된 사실에 서취감도 있고 좋았지만 가장 큰 건 아쉬움이었던 것 같다. 조금나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더 배우고 싶고, 더 해보고 싶었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다 만들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다.

사실 내가 처음에 원한 작품의도와 내 작품을 비교했을 때 정 반대의 분위기를 나타낸다. 지금 내가 만든 한복은 검은색, 밝은 하늘색의 색동저고리와 긴치마를 이용해 무겁다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처음에 원했던 의도는 긴 저고리, 짧은 치마를 이용해 발라한 느낌이면서도 긴 저고리를 통해 차분한 분위기를 내려 했었다. 그러나 이런 모양의 한복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한복의 모양이 예쁜 게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원했던 한복은 만들기가 좀 힘들었다.

이번 논문을 통해 한복을 만들면서 나 자신부터 한복에 대해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사실 나도 처음에는 한복은 입기 어려운 옷, 불편한 옷, 번거로운 옷 등 안 좋은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을 통해 시장을 가서 요즘 한복의 종류를 알아본다거나, 한복 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또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 보니 내 처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이 논문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한복에 대한 거리감을 많이 좁아지며, 한복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졌으면 좋겠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한복이 한 벌 더 있는데 시간상 아직 완성을 하지 못했다. 논문 발표가 끝나고 또 다른 작품은 부록(작품, 도안, 그에 대한 설명)으로 나갈 계획이고, 디자인 한복에 대해 좀 더 연구할 계획이기도 하다.



이 름 : 오지영

성 별 : 감자

혈액형 : cartoon형

좌우명 : 어떻게든 살자

그 외 하고 싶은 말 : 드디어 논문이 끝났습니다. 어른으로도 한 발짝, 만화가로도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간 느낌입니다. 깔끔함과 건강으로부턴 3백보 떨어진 것 같지만요. 어쨌건 우리 모두 열심히 삽시다. 하늘로!

간디학교에서의 일상을 4컷 만화로 그리기

- 부제 : 이 땅에서 살아남아봅시다 -

작성자 : 오지영

지도교사 : 김정환

- 목차 -

서론

1. 논문의 동기 및 목적
2. 연구 방법

본론

1. 만화란?
2. 작품 만들기
 - 2-1. 제작과정
 - 2-2. 작품 설명
 - 2-3. 결과물 발표

결론

THANKS TO!

서론

1. 논문의 동기 및 목적

처음에는 하회탈별신굿놀이를 소개하는 아동학습만화책을 만들려고 했지만, 하회탈이라는 주제에 싫증이 나 담당교사와 학교 근처의 만화가 선생님, 담임 쌤과 얘기를 한 결과 논문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쓰기로 했다.

논문 발표일까지 보름도 남지 않은 기간에 약 20페이지를 그려낸다는 무모한 결정을 내린 것에 약간은 후회하는 중이다. 선생님들 모두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젓길래 내가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게 시간을 흘려보냈구나. 아무도 몰래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실 전에도 간디에서의 일상을 만화로 그렸던 선배가 있었다(졸업생이지만).

1학년 때 그 만화를 보고 “우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가?! 재밌네! 나도 논문을 쓰게 되면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 결국은 그 때의 생각이 지금 와서 현실화되었다.

이렇게 되면 자신만의 논문이 아니잖아, 라고 탄죽을 거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뭐 어찌랴.

내 마음은 상당히 번덕스럽다. 하나에만 집중하기 어렵고, 주제가 무거울수록 쉽게 싫증낸다.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주제를 골랐다.

후회가 없지는 않다. 앞으로는 정신 좀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목적은 간디인이나 외부인들에게 "간디학교의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라고 외치는 것.

일상생활에서 똥 터지는 에피소드들을 긁어모아 연습장에 꺾꺾 눌러 넣는다. 그 때의 상황을 잘 살려내야 하고, 개그 코드가 매우 중요하다. 개그 없는 만화는 봐줄 맘이 생기지 않는다. 가끔은 억울한 입장을 위해 그려보기도 하고, 안 되는 머리 쥐어짜서 만든 풍자 만화도 도전해본다.

이런 말을 아무리 떠들어도, 이 만화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봐야 한다.

가벼운 만화를 무거운 시선으로 보면 괜히 자신이 힘들어지고, 무거운 만화를 가볍게 보면 철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일단 그리는 사람부터 가벼운 사람이니 자연스레 만화는 가벼운 만화가 된다. 무겁게 그리고 싶은 마음은 추후도 없다.

모두들의 마음이 좀 더 가벼워졌으면 한다.

2. 연구방법

- 김대중(<새만화책> 출판사 사장) 선생님에게서 만화그리기 지도받기

- 책/자료 참조

한이정학생(제천간디학교 04학번) 논문 / 펭귄과 간디학교에 관한 개론-펭귄이 날아간다-

요츠바랑 / 아즈마 키요히코 작

대한민국 원주민 / 최규석 작

본론

1. 만화란?

1-1. 이야기 따위를 간결하고 익살스럽게 그린 그림. 대화를 삽입하여 나타낸다. [비슷한 말] 만필화.

요즘은 어렵거나 딱딱한 내용을 만화로 만들어 읽기 쉽게 한 책들이 매우 인기가 높다.

1-2 . 사물이나 현상의 특징을 과장하여 인생이나 사회를 풍자·비판하는 그림.

1-3 . 붓 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린 그림. 한가로이 그린 만화.

1-4 . 웃음거리가 되는 장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백과사전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어보자면 이렇다. 만화란 무엇일까?

만화는 “시각적으로 자유로운 스토리텔링 기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상상력이란 날개를 달고 잉크와 펜으로서 다양한 연출을 선보이며 작가가 짜낸 스토리대로 그려가는 콘텐츠. 만화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인 면에서도 자주 쓰인다.

최근 만화를 접할 수 있는 경로를 몇 가지 손꼽아보자면 단행본, 연재 잡지, 웹툰이 되겠다. 단행본은 연재 잡지의 몇 회 분량의 만화를 모아 책으로 만든 만화책이다. 연재 잡지를 읽고 다음 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나 퍽엄퍽엄 읽기 때문에 흐름이 끊기는 느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주 접한다. 한권 마다 4~6회가 들어있으며, 대부분 흑백이고 가격은 4천 원대이다.

연재 잡지는 다수의 만화가들이 장편 혹은 단편 만화를 모은 잡지. 가격이 싸고 한 번에 여러 가지 분위기와 그림체를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애호한다. 순정과 소년 잡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단행본에서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가격은 2~3천대.

마지막으로 웹툰. 네이버나 다음, 야후같은 웹사이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만화이다. 남녀노소(성인 만화 제외) 마음껏 읽을 수 있고,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편리하고 대중적인 방식이다.

장르도 스릴러, 순정, 판타지, 공포, 일상, 학원, 격투, 코믹 등등, 혹은 앞의 장르들을 혼합한 다양한 갈래가 존재한다. 자신이 원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킬 수도 있고, 아예 장르 그 자체의 길을 걷지 않고 자신만의 만화를 그릴 수도 있다.

네이버나 다음, 야후같은 웹사이트에서 셀 수없이 많은 정식 웹툰이 연재되고 있고, 때로 매우 많은 인기와 인정을 받은 작품은 영화화가 되거나 대기업 혹은 신제품의 광고, 의류나 팬시 부문에서 활동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의류 부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예: 네이버 월요일 웹툰의 ‘폭풍의 전학생’, 네이버 화, 토요일 웹툰 ‘농지마 정신줄’). 의류 이외에도 텀블러나 큐브, 달력, 일러스트집, 브로마이드 등등 다양한 곳에서 웹툰의 캐릭터들을 볼 수 있다.



<63> 웹툰샵의 네이버 웹툰 ‘농지마 정신줄’ 반팔티>

63) 웹툰에 관련된 물건들을 판매하는 인터넷 매장. 주소는

<http://www.webtoonshop.com/shop/main/index.php>

의류나 텀블러, 머그컵, 핸드폰 용품, 인형, 파우치, 가방, 기타 등등의 다양한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웹툰샵의 네이버 웹툰 ‘들어는 봤나! 질풍기획’ 텀블러>

웹툰이 자리를 확실하게 잡은 웹사이트는 네이버와 다음, 야후이다. 네이버에는 약 120개의 웹툰이 연재되고 있고, 다음에는 약 83개의 웹툰이, 야후에는 약 20개의 웹툰이 연재되고 있다.

도전 만화 게시판에는 초등학생들의 연습작 혹은 낙서부터 시작해서 프로 작가들의 투고작까지 상당히 다양한 퀄리티와 넓은 자유도를 자랑하는 작품들이 올라온다. 또한 독자들의 연령대나 직업, 성격 등등 여러 가지 환경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점으로 자신의 작품을 평가받기 좋은 장소이기도 하다. 때론 실력이 뛰어난 사람의 작품을 보며 스스로를 단련시킬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실력이 좋아 인정을 받으면 정식 만화가에 도전할 수 있는 문도 열려있어 만화계의 새로운 길이라고들 부른다. 만화 시장에서 다각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 웹툰. 그렇지만 이것 역시 만화계의 새로운 얼굴이며, 새로운 길이다. 많은 신세대들이 ‘진정한 만화’를 깨닫고 ‘참다움’을 그려내기 위한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곳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식 웹툰이 참 다운 만화라고는 할 수 없다. 웹툰이 만화계의 새로운 빛나는 길로만 비쳐 보이는 것은 아니다. 작가의 실력이 너무 낮고, 전하고자 하는 철학이나 메시지같은 게 없으며 눈요기만으로 채워진 만화도 웹툰계의 사이에 상당한 수로 퍼져있다. 웹툰이 만화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면서 출판 만화들은 스캔 만화(출판만화를 스캐닝하여 사이트에 올리는 것. 불법이다)에 이어 새로운 위기에 부딪혔다. 단행본은 약 4천원을 주고 사야 볼 수 있고 연재 잡지 또한 최소 2천원은 지불해야하지만 웹툰은 인터넷만 있으면 무료로 볼 수 있고, 출판 만화에 데뷔할 수 있는 길은 몇 차례 없는 공모전에서 큰 상을 받고 연재 기회를 따내거나 출판사에 직접 찾아가 인정을 받아야만 데뷔를 할 수 있지만 웹툰은 언제나 만화를 올릴 수 있으며 독자와 운영진의 눈에 띄면 정식 작가가 될 수 있다. 또한 출판 만화는 원고용지, 펜, 잉크같은 물품을 구매하는 것만으로 큰 돈이 드는 반면 웹툰은 컴퓨터와 태블릿이라는 도구만 있으면 만화를 그려 올릴 수 있어 비용 또한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출판 만화보다는 웹툰을 더욱 선호하게 있다.

웹툰의 등장으로 인해 시들어가는 출판 만화를 다시 살리자고 하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지만 지금 시대는 디지털 시대. 앞으로 만화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웹툰을 짧은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넓은 자유로움을 자랑하는 광활한 들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곳은 정해진 길 없이 매우 번잡하고 개성이 넘쳐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들판에서도 약육강식이 이루어진다. 실력이 낮은 자는 빛을 보지 못하고, 인정받은 자는 정식 웹툰이라는 명예의 전당에 발을 들일 수 있다. 그렇지만 굳이 정식 웹툰에 눈독을 들이지 않고 자신만의 작품을 세상에 내보이고 싶은 사람들 또한 많은 편이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들판에 발을 딛을 새로운 도전자들을 웹툰은, 만화 시장은 기다리고 있다.

2. 작품 만들기

2-1. 제작과정

어떻게, 무엇으로, 무엇을, 왜, 이런 것을 정해두는 것으로부터 만화가 시작된다. 연습장과 샤프, 지우개를 들자. 콘티용으로 쓸 연습장은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약간 꺼칠하고 장수가 많으며 하드커버인 것을 사두는 것이 좋다. 샤프나 지우개는 지극히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다. 샤프가 아닌 잉크펜이나 연필을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무작정 그리면 시간도 연습장도 샤프도 아까우니 차분히 시간을 들여서 생각해야 한다. 그림은 자신이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만 그리면 된다. 졸라맨 들이 이상하게 춤을 춰도 자신만 알아볼 수 있다면 좋다.

그리고 4컷 만화에 넣을 상황이 중요하다. 이도저도 안 되는 평범하고 애매한 상황을 그리는 건 비추천이다. 욕만 먹을 수 있다. 인상적이고 뭔가 남겨져있는 기억을 떠올려 분량을 조절해 그리는 것이 좋다. 내용을 구하고 그리는 과정은...

2-1-1. 스스로의 기억 속에 있던 이야기들을 꺼내 그린다.

2-1-2. 주변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인상적이고 재밌던 상황을 이야기로 들어서 만화로 긴다.

2-1-3. 너무 주관적이거나 상황의 오류, 한쪽으로만 쏠리는 흐름이 되지 않도록 자주 주변 인물들 혹은 당사자에게 만화의 체크를 받는다.

2-1-4. 타인의 만화(일상적인 분위기의 작품)를 참고하며 자연스러운 흐름과 4컷 만화의 특성을 연구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구성된 내용으로 콘티를 그린다. 원하는 분량만큼 그리고 본격적으로 원고 작업에 들어간다.

우선 칸을 먼저 나누는데, 4컷 만화는 한 장당 2편 씩 그리는게 안정적이고 그리기 쉽다.

밑그림은 콘티와는 달리 정교하고 느릿하게 그려야 한다. 다른 만화와는 달리 칸이 작기 때문에 자칫하면 선을 잘못 그어서 지운다는 게 그림 전체를 전부 지워버리는 수가 있다. 또한 자신의 그림체가 잘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

밑그림을 잘 그리고 말풍선을 그려 넣는다. 말풍선의 위치를 정하는 게 아주 중요한 작업인데, 말풍선에 의해 자신이 의도했던 장면의 중요한 부분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은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말풍선을 넣고, 대사를 써둔다.

나는 이 단계에서 약간만 더 손을 보고 끝냈지만, 더욱 깔끔하고 완성적인 모습을 보고 싶다면 잉크 펜으로 선을 따는 것이 좋다.

펜선이 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플러스펜을 추천한다. 굵기 조절하기도 좋고, 다루기 쉬운데다가 가격도 싸다. 하지만 물기에 닿기만 하면 바로 번져버리기 때문에 취급이 중요하다.

번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선 마하펜이나 하이테크 같은 가는 선의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이것 역시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진다.

편집을 위해선 스캐너가 필요하다. 스캐너에 원고를 넣고 스캐닝을 해, 알씨의 이미지 편집을 이용해 보정과 대사를 추가한다. 스캐닝을 하고 바로 포토샵으로 보내 편집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나는 알씨 루트를 자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다.

그리고 네이버 도전 만화 게시판에 업로드.

자, 만화가 다 그려졌다. 즐겁게 보는 것으로 만화는 완성된다.

2-2. 작품 설명

일단 내용은 교내에서의 일상적인 생활, 같은 학급끼리의 이야기나 상황이지만 대부분 나를 중심으로 흘러간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경우엔 철저히 그 사람 중심으로 그려져 있겠지만..

이 만화의 시작은 정체를 알 수 없는 <Mr. 할로윈> 이라는 괴생물체와 나의 대화로부터 시작된다.

“당신은 자신에 대한 애정도가 0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혹독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이유로 나의 옛날이야기(라고 해도 학교 내에서의 3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그리고 나의 대답과 함께 4컷 만화가 시작된다. 그 대답은, “제목은, 이 땅에서 살아남아봅시다.” 시작이 너무 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지만, 사실 나는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상하게 어긋나게 만들어보았다.

내용은 대부분 3학년 1~2학기의 이야기이다. 1,2학년 때의 이야기는 사실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동안 지내면서 있었던 에피소드(혹은 픽션)를 개그를 첨가해 4~6컷으로 그려낸 만화는 사실 타인의 눈으로 보자면 성의 없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다. 빨래당번 이야기, 제주도 무빙 스쿨 이야기, 공부방에서 논문쓰는 이야기... 외부인이 보자면 이해가 되지 않는 주제와 흐름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설명을 덧붙이기엔 이야기가 밀도 끝도 없이 넓어지고, 시간과 노력이 배로 들 것 같아 추가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블랙 코미디를 좋아하는 편이라 4컷 만화의 대다수는 그런 내용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거시기한 내용도 있지만 당당하게 밀고 나가겠다.

가끔 사람이 아닌 물체나 동물들이 보이기도 하는데, 최대한 특징을 살려서 그렸거나 평소에 불리는 별명대로 그렸기에 알아볼 수는 있을 거라 생각한다.

지극히 일상생활에 가까운 이야기이다. 동기 및 목적에서 말했듯이, 가벼운 분위기의 만화밖에 없다.

마지막의 ‘이 땅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편으로 가면 Mr. 할로윈이 본색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예상 외로 시시껄렁하고 평범한 얘기들만을 늘어놓은 나에게 정색하며 ‘16년 동안 감춰온 커다랗고 어두운 비밀’ 을 내놓으라고 하는 Mr. 할로윈에게 나는 ‘난 사실 양성애자야!’ 라는 반전(?) 을 선보인다. 그 다음의 내 대사가 마지막을 장식하며 나는 자신에게 오는 외부의 자극들의 무게를 내부에서 조절하고 받아들이는 법이 내가 간디학교에서 3년 동안 살아남은 방법이라 말하고 있다.

“그런데 너 말이야, 하나 착각하고 있어. ‘크고 무거운 비밀’ 은 사실 별게 아니야. 그런건 (자기 머리를 가리키고) ‘여기서’ 정하는거야. 무겁다. 가볍다. 어둡다. 밝다. 괴롭다. 기쁘다. 전부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 제주도에서 땀흘린 일들도, 친구들끼리 밤을 새는 일도, 누군가와 크게 싸우고 갈라진 일도, 친척이 돌아가신 일도, 자기가 양성애자인 일도, 전부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이렇게 웃을 수 있지.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3년 동안 살아남은 방법이다. 일어나. 그리고 앞을 보고 걸어. 옆에 있는 사람과 웃으면서 걸어.”

Mr. 할로윈은 ‘오지영’ 으로 변하고, 나와 함께 걸어간다. 그것이 내 만화의 마지막 장면이다.

3년 동안 살아가면서 있던 일들을 받아들여 일상에서 일어나는 빈번한 사건들을 자신의 나름대로 ‘추억’ 혹은 ‘상처’ , ‘경험’ 같은 것으로 분류하며 그것들의 ‘무게’ 를 조절하는 것.

조절된 무게추들을 달고 있는 기억들은 나를 웃음짓게 만들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의 기억. 나를 성장케 하고 나를 채워준 일들.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의 무게를 조절하는 방법을 점점 더 능숙히 쓸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이 바로 내가 간디학교에서 3년 동안 살아남은 방법이다.

2-3. 결과물 발표

결과물은 제대로 편집하거나 디지털로 다시 원고를 그려 네이버의 도전 만화에 게시할 것이다.

완성 목표는 약 20장. 시간적 여유가 남는다면 디지털 원고 화를 시도해볼 것이다.

결론

내 만화는 ‘난 이렇게 살았고,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3년 동안 살아남은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게 내 논문의 결론이다.

사람이 게으르게 살면 큰일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좋은 경험이었다. 방학을 잘 활용했어야 했는데 매일같이 나태하게 시간을 보내버려 결국은 나중에 커피와 피곤에 찌들어 연습장이나 컴퓨터를 붙들고 사는 나날을 지내고 있다. 심지어 병원에서 수험생 스트레스와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

게다가 주제를 너무 늦게 바꿔서 다른 친구들이 최종 발표할 때 나는 중간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후회가 더욱 늘어난다.

웹툰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는 너무 화가 나 몇 번 분노를 힘껏 표현해내기도 했었다.

이 만화를 그리면서 3년 동안의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논문을 쓰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었다. 괜히 스스로 지쳐서 모든 일에 손을 놓기도 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고, 일이 너무 많아서 엉엉 울고, 꽤나 힘들면서 나를 한차례 성장시키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다.

함께 공부방이나 전산실에서 커피를 훌쩍여가며 논문을 쓰던 아이들과 떠든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난 이 논문을 쓰면서 얻은 것은 성장도, 만화 실력도, 논문의 경험도 아닌 친구들과의 또 하나의 추억인 것 같다. 이 1년 동안,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지낸 친구들이 다시 한 번 가깝게 느껴졌다.

나를 위해 사라져간 수많은 커피믹스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내 논문에는 커피 향이 잘 어울리겠지.

Thanks to!

깔깔거리는 웃음이 잘 어울리는 09학번,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하신 제 2의 엄마, 수자쌤, 맛깔나는 사투리와 역시나 우리를 사랑하신 제 2의 아빠, 정상쌤, 사고뭉치같은 나를 아낌없이 도와주시던 태진쌤, 나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함께 해주면서 짜증나서 검은 페인트를 부어버리고 싶은 수많은 짐들을 얹어주신 정환쌤, 가끔씩 먹을 것을 주시면서 즐겁게 얘기를 나누며 조언을 해주시던 영민쌤과 소영쌤, 진짜 뭐라 말할 수 없이 고마워 죽을 것 같은 강도운, 상큼하고 귀엽게 웃어준 1학년 여자애들, 나를 위해 온갖 수난을 겪은 USB와 필통과 연습장과 지우개와 샤프들, 아낌없이 자기희생을 한 커피믹스들, YOU LOVE ME? I LOVE YOU! 엄마 아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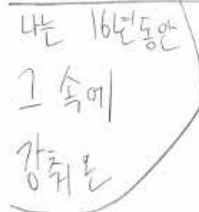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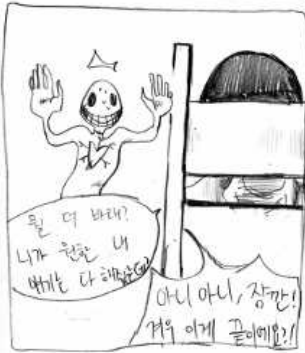
제목은
이 땅에서 살아남아 봅시다.



















이 름 : 유현영

성 별 : 남자임

혈액형 : 절대 싸이코 아님 에이빠형

한마디 : 춤 취야징-

그 외 하고 싶은 말 : 새 신발도 갖고 싶고 초콜렛도 먹고
 싶고 쇼핑도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춤 연습도 하고 싶
 고 에버랜드도 가고 싶고 엄마 아빠도 보고 싶은데 나는
 학교에 있네. 학교는 배가 고파

퓨전국악과 힙합의 만남

제출자: 유현영
지도교사: 이정상

I. 서론

1. 논문의 동기 및 목적
2. 연구 방법

II. 본론

1. 힙합과 국악의 소개
 - 1-1. 힙합이란
 - 1-2. 힙합댄스의 종류
 - 1-3. 춤 동작의 명칭
 - 1-4. 국악이란
 - 1-5. 국악음악의 종류
 - 1-6. 무용에 쓰이는 국악음악
 - 1-7. 전통무용의 특징
2. 창작안무과정
 - 2-1. 주제정하기
 - 2-2. 주제에 맞는 곡 선정
 - 2-3. 안무창작하기
 - 2-4. 창작안무 발표
3. 발표 후 간디인들의 소감

III. 결론

1. 논문의 한계점
2. 후기

IV. 부록

참고 서적
창작안무배경음악
Thanks To.....

I. 서론

1. 논문의 동기 및 목적

평소에 힙합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고 해금으로 국악을 연주하는 것도 즐거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되는 이 둘을 함께 접하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국악음악과 힙합음악을 접목시켜서 안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최근 서양의 락이나 일렉트로닉음악과 동양의 국악을 접목시킨 퓨전음악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에 맞춰 추는 춤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했었다. 그래서 퓨전음악에 맞춰 힙합댄스를 추고 그림으로써 청소년들이 평소 가볍게 접하기 쉽지 않았던 국악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와 함께 새로운 형식의 춤을 시도 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자료조사

힙합과 국악에 관련된 책을 읽고 전 세계의 힙합 역사를 담은 사이트나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국악 사이트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는다.

2) 평가지

창작안무 발표 후 힙합과 국악을 접목시킨 것에 대한 소감이 어땠는지 듣고 평가받는다.

3) 자료참조

힙합에 대한 사진/글 출처: <http://pslove4.blog.me/20120707250>-‘소리비빔밥’님의 글 발췌
국악음악에 대한 글 출처: <재미있는 우리 국악 이야기> 326p 발췌

II. 본론

1. 힙합과 국악의 소개

1-1. 힙합이란

힙합이라는 용어는 처음에는 구체적인 의미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철학적인 의미가 부여되었다.

대체로 ‘힙합(Hip Hop)’의 ‘힙(Hip)’은 히피(Hippy) 즉 ‘즉 눈을 뜨라’는 뜻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스스로 열라는 의미이다. 또한 힙(Hip)은 엉덩이를 뜻하며, 1960년대의 히피를 표현할 때 쓰이기도 했다. 1990년대 후에는 속어로 최신 유행하는 사상이나 스타일에 정통한 ‘신세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합(Hop)’은 1940년대 ‘린디 합(Lindy Hop)’으로 알려진 춤에서 나왔다고 한다. ‘합Hop’은 ‘만세’의 의미나 ‘펄쩍펄쩍 뛰다’로도 해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속사정에 밝다’는 뜻의 Hep과 같은 의미의 속어로 통용되고 있다. ‘합(Hop)’은 또한 미국 흑인들이 히프를 튀기면서 걷는 모습을 표현하는 동사로 쓰이기도 하며 1950~1960년대 속어로 댄스파티나 춤을 뜻하기도 한다.

힙합의 4대요소

① MC: MC는 Mic Checker 또는 Mic Controller의 약자로 말 그대로 관중들 앞에서 랩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나 MC는 단순히 랩을 하는 사람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자신이 직접 가사를 쓰고, 그것을 관중들에게 선보이며, 이로써 평가받는 사람을 MC라고 한다.

② **Graffiti**: 그래피티는 화려한 뉴욕의 이면으로는 대접받지 못한 자들과 평등치 못한 사회의 불만을 품고 있는 계층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태어났다. 초기 그래피티는 정치적, 사회적 발언을 통한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Gang⁶⁴⁾들의 영역을 표시하는데 이용되기도 하였다.

③ **DJ**: 힙합 DJ는 70년대 초 뉴욕의 브롱크스(Bronx)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힙합뮤지션들에 의해 간단한 믹싱이나 일정부분 구간의 반복으로 시작해서 더 많은 힙합뮤지션들이 활동하던 70년대 후반 그랜드 마스터 플래시(GRAND MASTER FLASH)라는 뮤지션이 ⁶⁵⁾크로스 페이더를 발명하면서 더욱 발전된 'DJING'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④ **B-Boy**: B-Boy(B-Girl)에서의 "B"는 breaking(break dance)을 가리키며, 곧 B-Boy는 Break Dance를 전문적으로 추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90년대 들어서는 힙합스타일이라고 하여, 보다 자유스럽고 즉흥적인 형태의 춤을 선보이기도 한다.

여기까지가 힙합이라는 문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4대요소이지만 이것 말고도 패션이라든가 언어와 같은 많은 부분이 모두 힙합문화를 구성한다.

나는 이중에서 B-Boy에 속하는 힙합댄스에 대해 소개하려한다.

☞ 가난해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예술적 재능을 지닌 사람들이 뒷골목의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길 원했고 거리의 음악, 고통과 분노를 지닌 흑인 음악을 들으며 자신의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춤을 추길 원했지만 체계화된 춤을 정식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해 라디오나 거리에서 흐르는 음악에 자신을 맡기고 분노와 고통을 실어 몸을 움직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두운 감정이 해소되는 것을 느끼면서 그들만의 춤을 탄생시키고 이것이 바로 힙합댄스, 스트리트 댄스라고도 불리는 문화의 시작이었다.

1-2. 힙합댄스의 종류

힙합댄스는 시대에 따라 올드 스쿨 힙합(Old School Hip Hop)과 뉴 스쿨 힙합(New School Hip Hop)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는 얼반 댄스(Urban Dance)로 나뉘어진다.

① 올드 스쿨 힙합(Old School Hip Hop)

비보잉(B-Boying): 말 그대로 브레이크를 추는 것을 뜻하는데, 초기의 브레이킹을 ⁶⁶⁾업락에 프리즈 위주의 스타일 무브였고 아프리카댄스와 동양 무술 등 많은 요소가 첨가되어 오늘날의 브레이크 댄스와 같은 스타일을 창조하게 된 춤.



팝핀 혹은 팝핑(Poppin): 로봇 춤, 각기 춤이라고도 불리는 팝핑은 B-Boy들이 테크닉을 하기 전에 하는 동작에 발전된 것으로 몸의 마디와 관절을 딱딱하게 끊듯이 하는 춤.

64) 범죄조직, 폭력단

65) DJ용 믹서에 장착하는 기계

66) 비보잉 테크닉 이름



락킹(Locking): 몸의 동작이 통제밖에 있다가 튕겨서 통제 가능한 상태로 돌아오고, 무너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듯 한 느낌으로, 주로 휘감아 올리는 동작이 주를 이루는 춤.



② 뉴 스쿨 힙합 (New School Hip Hop)

하우스(House): 재즈와 탭 댄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 댄서의 창조적인 동작을 음악의 비트에 맞춰 제어한다는 의미로 외형적으로는 보다 화려하고 복잡한 발동작을 보여주는 춤.



크럼프(Krump): 비트에 맞춰 주먹으로 내려치거나 누군가를 때리는 듯 강한 동작으로 굉장히 박력 있는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춤.



왁킹(Wacking): 음악에 맞춰 손을 하늘로 뻗거나 다소 부담스런 몸동작에 기원을 두고 있는 춤. 가슴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날려버린다는 의미.



③ 얼반 스타일 댄스 (Urban Style Dance)

최근 들어 아이돌가수들이나 댄서들에게 유행하는, 말 그대로 도시적인 댄스. 재즈나 현대무용, 스트리트 댄스의 여러 스타일을 본인의 느낌과 노래 가사나 느낌에 맞춰 깔끔하고 도시적인 느낌으로 표현에 제한 없이 추는 춤.



1-3. 춤 동작의 명칭

① 바운스(Bounce)

비트에 맞춰서 리듬을 타는 것인데 팝핀 외의 모든 춤에는 이 바운스가 기본이 되어 리듬을 타며 동작을 이어나간다.

② 웨이브(Wave)

웨이브에는 '암 웨이브(Arm Wave)'와 '바디 웨이브(Body Wave)'가 있는데 말 그대로 팔을 이용해서 웨이브를 주거나 몸 전체를 이용해서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을 표현하듯 부드러운 움직임이 이 동작의 포인트이다.

③ 롤(Roll)

주로 아이솔레이션과 함께 쓰이는데 단어 그대로 몸의 한 부분을 돌리는 동작이다. 턴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몸은 그대로 제자리에 서 있지만 한 부분이나 혹은 전체를 돌린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목이나 어깨, 가슴, 골반, 무릎 등의 롤이 있다.

④ 아이솔레이션(Isolation)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 동작이다. 몸의 부분 부분을 분리 시켜 한 부분만을 움직이고 다른 곳은 그대로 고정시키는데 아이솔레이션은 흔히 잘 아는 로봇 춤을 출 때 많이 쓰인다. 이 동작은 몸에 심을 박아놓은 듯 그대로 있고 정확히 한 부분만 정교한 움직임을 주는 게 특징이다.

⑤ 테크닉(Technic)

이것은 굳이 어떠한 동작이라고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안무 도중에 큰 임팩트를 주거나 클라이맥스로 올라왔을 때 시선을 끌거나 박수를 받기 위해 넣는 동작인데 더 어렵고 위험 할수록 많은 이목을 끌고 박수를 더 받게 된다.

1-4. 국악이란

국악은 한국음악의 준말이다.

한국음악이란 한국에서 연주되는 모든 음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에 뿌리를 내린 음악, 또는 한국적 토양에서 나온 음악을 가리킨다. 이미 한국에 뿌리를 내린 음악을 전통음악이라고 부르는데, 시대적으로는 일제 강점기, 즉 1920년 이전부터 있었던 음악을 가리킨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부터 약 50년 전, 즉 30년대 이전부터 있었던 음악을 전통음악이라 부르기도 한다.

1-5. 국악의 분류

정악 또는 아악 - '바른 음악', '아정한 음악' 등 넓은 의미로 쓰임

-궁중음악(궁중에서 사용된 모든 음악): 아악(문묘제례악), 수제천, 여민락, 당악 (보허자, 낙양춘) 등등

-풍류음악(선비들이 즐기던 음악): 정가(시조, 가사, 가곡), 영산회상, 평조회상, 삼현영산회상 등

민속악- 서민계층의 대중적인 음악과 음악 기능인들의 예술적이고 기교적인 음악

-잡가: 가사체의 긴 사설을 엮어 부르는 민속적인 성악곡의 하나.

-민요: 농업과 어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제례나 노동을 할 때 부르기 시작한 노래

-판소리: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이 고수(북치는 사람)의 장단에 맞추어 창(소리), 말(아니리), 몸짓(너름새)을 섞어가며 긴 이야기를 엮어가는 노래

-시나위: 굿에 뿌리를 둔 즉흥적인 기악합주 음악

-산조: 한국의 전통음악에 속하는 기악독주곡의 하나

제례악 - 종교 의식에 사용되는 음악

- 종묘제례악: 조선 왕조의 제례 의식에 사용되는 음악
- 문묘제례악: 고려 예종 때 송의 휘종이 선물로 전해준 (원래) 중국의 의식 음악
- 범패: 불교의 의식에 사용되는 음악
- 무악: 굿이나 무속의식에 사용되는 음악

1-6.무용에 쓰이는 국악

한국의 무용 음악은 한국 전통 무용에 반주로 사용되는 음악이다. 한국의 무용 음악은 크게 제례 무용 음악, 궁중 무용 음악, 민속 무용 음악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례와 궁중연례에는 그 제도가 악(樂)·가(歌)·무(舞)라 해서, 기악과 성악과 춤이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일무⁶⁷⁾와 궁중무용은 무용음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궁중음악은 거의 모두가 무용음악으로도 쓰인다. 민속무용음악은 타악기만으로 연주되는 예도 있고, 관현악기로 편성된 삼현육각으로 연주되는 예도 있다. 타악기만으로 연주하는 무용음악은 그 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굿거리·타령 등과 같이 장단 이름이 같은 경우와 곡 이름과 장단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일무와 정재⁶⁸⁾의 무용음악은 많은 특수 악기가 동원된 대편성으로 웅장하고 장중한 표현력을 갖는데, 민속무용음악은 소편성으로 간결하고 재치 있는 표현력을 갖는다. 일무의 무용음악은 아정하고 현묘하며, 정재의 무용음악은 장중하고 화려하고, 민속무용의 무용음악은 흥겹고 구성지다.

1-7. 전통무용의 특징

한국 전통무용을 나누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춤을 추어온 신분과 장소에 따른 분류로서 궁중무용(정재)과 민간무용(민속무용)으로 나누는 법과 춤의 유형적 형태에 의한 분류로서 궁중무용, 민속무용, 의식무용, 신무용으로 나누는 방법 등이 있다. 간단하게는 궁중무용과 민간무용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궁중무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재는 주로 궁중을 중심으로 발전 계승된 춤으로 춤을 추는 처음과 끝에 춤의 내용을 노래로써 담당하고 유유한 장단의 흐름과 함께 춤가락이 우아하고 선이 고와 현실을 초연한 것처럼 신비스러운 멋을 준다. 의상이 현란하며, 옷의 색깔과 춤 구성의 기본은 음양오행설 등 동양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정재에 사용되는 음악은 장단이 일률적이고 매우 유장(悠長)하며, 무용에 있어 동양화와 같이 여백이 있는데, 이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고력과 유현미(幽玄美)를 감지시킨다.

궁중무용의 반해 민속무용의 특징은 민속무용은 민간에 의해서 전해오는 춤으로 개인이나 집단 또는 취락(聚落) 단위로 각각 특징을 갖고 있다.

작자와 발생된 연대가 미상이고, 내용이 평민 계급의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며, 모든 표현에 있어 개인의 창의력이 많이 들어 있다. 또한, 장단과 반주음악에 변화성이 있고, 춤가락이 다양하여 리듬을 느낄 수 있는 맛을 준다.

2.창작안무과정

2-1.주제정하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춤을 좋아했고 계속 배우면서, 춤 문화가 저급문화로 무시와 차별을 받았었다는 말을 듣고, 차별 당하던 춤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순수 예술로써 인정받도록 이끌어온 사람들

67) 문묘(文廟) 및 종묘제례 때 여러 줄로 벌여 서서 추던 춤

68) 옛날 우리나라 궁중무용

을 너무나 대단하게 느꼈고 나도 언젠가 이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그저 그냥 어떠한 주제를 정해서 전부터 배워오던 춤의 동작이나 테크닉의 연속이 아닌 좀 더 창조적이고 독보적인 춤을 추고 싶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나, 사랑 이야기 같은 특정한 주제를 정하기 보다는 곡을 깊게 분석하고 최대한으로 표현하는 것을 중점으로 창작을 진행시키기로 했다.

2-2.주제에 맞는 곡 선정

처음에 잡았던 계획은 다양한 춤 동작을 선보일 수 있는 국악음악을 정해서 그 안에 힙합 비트나 여러 힙합의 요소들을 직접 편집해서 삽입한 노래를 창작안무에 사용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곡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비트를 만드는 것부터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작업이었고, 나에게도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필요로 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했지만 그건 나를 너무 과대평가 한 것이었고 결국 노래를 직접 편곡하는 것은 포기 할 수밖에 없었다. 많이 아쉽기도 했지만 어쨌든 나에게엔 창작안무를 짤 국악과 힙합의 퓨전음악이 필요했고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곡을 찾아서 쓰기로 했다. 외국 곡을 국악으로 연주한 퓨전음악은 많았지만 생각보다 힙합과 국악의 퓨전음악은 많지 않았고 안무를 짜기에 적합한 곡은 더욱더 찾기 어려웠다. 곡을 찾던 도중에 딱 듣고 ‘팬잡다!’ 하는 느낌의 곡을 찾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파일을 구할 수가 없었고 결정적으로 가사나 랩 분위기가 내가 의도 하려는 춤의 느낌과 맞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그 음악도 포기. 정처 없이 인터넷을 뒤지다 정말 우연히 검색 키워드에 뜬 노래를 클릭해서 들어보았다. 그 노래는 해금과 피리의 소리가 돋보이는 곡이었고 비트도 힙합비트였다. 정말 운이 좋았던 것은 그 노래에 MR파일이 같이 떠 있어서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결정. <해피페이스(Happyface), 이소원 - 보름달> 이라는 곡이다.

2-3.안무창작하기

사실 아예 처음부터 오로지 내 실력만으로 안무를 짤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학교에서 축제 때마다 무대에 오르긴 했지만 완성이 되어있던 안무나 그저 살을 조금 더 붙여서 무대에 올려본 게 다였다. 동작과 동작 사이의 연결도 많이 미흡하고 무엇보다도 나에게서는 자신감이 제일 부족 했다. 노래를 제대로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안무를 짜야 할 지 너무나 막막하고 괴로웠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했다.

일단, 노래를 수 백 번을 들었다. 평소에도 집에 있을 때는 스피커를 꺼 놓는 법이 없었고 밖에서는 이어폰을 빼 놓은 적이 없었지만 그 후 내가 듣는 노래들은 모두 논문 음악으로 바꾸었다. 하루에 적어도 100번은 들었던 것 같다. 노래를 듣고 있지 않아도 계속 그 음을 생각 해 낼 수 있고 그 음악의 분위기나 느낌 같은 것들을 완전히 파악 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노래를 들으면서 대략의 동선을 생각 해 보았다.

논문의 배경음악의 원곡은 사실 4분 20초짜리의 길다면 조금 길수도 있는 곡이었다. 그냥 듣기 위한 음악이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안무를 처음 짜보는 나에게 4분 20초의 매 순간순간을 동작으로 채우기란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다. 그래서 계속 음악 듣기를 반복하면서 그 안에서 반복되는 구간과 춤의 진행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자르고 잘라서 약 3분정도로 줄였다. 마음이나 욕심 같아서는 5분이 넘는 곡에 멋진 안무를 완성 해 발표하고 싶었지만 내가 활동을 많이 해본 전문 프로 댄서도 아니고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천재도 아니어서 욕심을 조금 버리기로 했다. 괜히 고집부리다가 이도 저도 아닌 춤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안무를 짜는 방법이나 이론 같은 것들에 대한 지식에는 백지 상태였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비웃겠지만 나는 그걸 최고의 강점으로 삼고 싶었다. 이사도라 덩컨⁶⁹⁾이라는 모던댄스를 창시한

69) 최초로 창작무용을 창조적 예술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미국 무용가. 독일에서 활동했으며 러시아에서 젊은 세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소련에 설치한 무용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즉흥적이고 체계가 없는 무용으로 계승되지는 못했으나, 20세기 모던댄스의 시조로 알려져 있다. - 출처: ‘힙합, 새로운 예술의 탄생’ 116p 발췌

여인도 어렸을 때부터 춤에 대한 이론적인 공부를 받았더라면 지금에 와서 천재라는 명칭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론이라는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더 많은 가능성을 내 보일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내가 이사도라 덩컨처럼 천재라는 소리도 아니고 아예 춤을 배운 적도 없이 이런 꽤나 큰 주제를 잡아 정말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아직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싶었고 그래서 굳이 그러한 이론들에 대한 정보를 긁어모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안무를 짜는 것에 대한 이론은 모르지만 프리 스타일 댄스는 좀 아는 편이고 그것과 이것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프리스타일 댄스는 노래를 듣고 즉흥적으로 그 음악에게서 느낀 것에 빠르게 반응해서 자유롭게 표현 해 내는 것인데 나는 그런 점을 안무 짜는 방식에 쓰고 싶었다. 내 안무는 기술들의 연속 보다는 음악에 대한 감성적인 표현을 최대한 살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래를 듣고 몇 번이나 즉흥적으로 프리스타일 댄스를 구사하면서 대략의 동선을 짜 보았다. 매번 할 때마다 동작도 다르게 해보고 표현의 스타일도 바꿔 보았다. 그러면서 가장 잘 어울리고 충분히 표현이 되는 동작들을 안무에 넣게 되었다. 물론 쉽지는 않았다. 아직은 춤에 대한 테크닉이나 동작들이 너무 한정적이라서 몇 번을 반복해서 프리스타일을 해도 같은 동작들의 반복이거나 같은 레파토리로 지루하게 안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처음엔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어떻게 안무를 다 짜나 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곡의 시작부터 차근차근 진행 해 나가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곡의 진행은 단조로운 편이었다. 아무래도 노래의 MR음원을 이용한 것이어서 특별히 흥미로운 진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안무를 조금 알차게 채워 넣어야 할 것 같아서 음악의 악기소리를 잘 표현하되 조금은 테크닉적인 동작을 많이 섞게 되었다.

해금소리와 피리소리가 주를 이루는 편인데 길게 끄는 음이나 스타카토 형식의 끊는 음 등의 표현 빼고는 다양하지가 않아서 그 안에서 최대한 다양한 동작을 구사해야만 했다. 내 논문 주제가 기존에는 있지 않았던 춤의 창작이기 때문에 노래를 표현하더라도 나만의 방법으로 나만의 테크닉을 만들어야 했다.

노래의 원래 내용 자체가 '신세한탄' 이라든지 서러움, 허무함을 표현하는 노래였다. 그래서 노래 분위기에 맞게 춤도 많이 외롭고 슬픈 느낌을 연출했다. 주로 팔 동작을 길게 뻗는 동작을 많이 사용했고 턴도 힙합 턴과 재즈 턴을 섞어서 시간을 좀 더 길게 끌어 보았다. 그리고 턴을 하면서 자리이동을 할 때 전통무용의 특징을 살려 발걸음을 사뿐 사뿐히 하는 요소를 추가 시켜보았다.

그리고 비트는 강하고 빠른 것에 비해 멜로디는 천천히 흘러가는 흐름이어서 춤의 밀고 당기기를 시도 해 보았다. 턴 한 바퀴를 돌아도 빠르게 시작했다가 한순간 확 멈춤과 동시에 느리게 흘러가는 것이다. 턴을 할 때 이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생각 보다 많은 균형 감각이 필요했다. 평소에 균형 감각이나 지구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나는 이 동작이 조금 힘이 들었다. 몇 번을 반복해서 연습을 해도 계속 넘어지기 일쑤였다. 무릎에 멍도 들고 턴을 하면서 마치 머리위로 꽃을 피우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동작을 넣고 싶어 무리를 했더니 어깨에도 근육통이 왔지만 순전히 나만의 창의적인 동작 하나를 완성하고 나니 뿌듯했다.

이번 창작 안무에서 내가 턴과 함께 또 많이 사용한 것에는 웨이브가 있다. 팔을 이용한 '암 웨이브(Arm Wave)'와 몸 전체를 사용한 '바디 웨이브(Body Wave)'가 있는데 나는 기본 동작도 이용을 했지만 웨이브를 할 때 필요한 몸의 부분 부분을 튕기는 방식의 움직임을 사용했고 그 동작은 주로 음악에서 해금이나 피리의 통통 튀는 소리에 사용이 되었다. 기본 동작을 사용할 때는 노래가 부드럽게 물 흐르듯 흘러 갈 때 주로 많이 쓰였고 그 외에는 동작의 연결 부분에도 간혹 사용이 되었다.

멜로디의 통통 튀기는 소리나 동작과 동작 사이를 연결하는 것에 많이 쓰인 게 또 있다면 '롤(Roll)' 과 '아이솔레이션(Isolation)'이 있다. 나는 '롤 과 '아이솔레이션'을 접목시켜 무릎, 골반, 가슴, 어깨, 목 순이나 아니면 그 반대의 순서로 롤을 하는 동작을 사용했는데, 이 때 다른 몸의 부분들은 가만히 고정시키는 게 포인트였다. 이런 동작들은 사실 완전 나의 창작이라고는 할 수 가없었다. 형식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엄연히 기존에 있던 동작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응

용을 했고 충분히 창작 안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다 내가 직접 만들어 낸 동작을 넣기란 불가능이었고 내가 정말 만들어 낸 것은 이 정도이다. 기존에 있던 동작들을 썼다고는 해도 지금까지 추었던 춤의 장르와는 엄연히 다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구상하고 동작 하나하나를 채워 넣었다고 말 할 수 있을만한 안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이렇게 그냥 어떤 동작들이 들어갔고 이런 동작들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하면 이번 논문이 쉽게 쓴 것처럼 보이지만 안무를 창작하는 과정이 생각 보다 너무나 어려웠으며 몸도 너무나 많이 아팠고 시간도 굉장히 촉박했다. 다른 친구들보다 적어도 한 달은 늦게 시작했고 작품을 발표하는 시간도 친구들에 비해 10일 정도가 빨랐다. 내 목표는 가을 축제 때 멋지게 무대에서 안무를 발표하고 그 영상도 찍어 논문집에 실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회장은 아니어도 내가 맡고 있다시피 한 춤 동아리 '미지정'을 시작으로 여러 동아리나 모임 일정이 많았고 내가 맡은 일도 굉장히 많았다. 솔직히 모든 게 벅찼다. 작년에 괜한 욕심에 이것저것 다 들어놓은 내 자신이 무책임 하게 느껴졌다. 뭐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았고 괜히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신경질을 부리기가 일쑤였다. 괜히 민폐만 끼치는 것 같았다. 목표를 조금 줄여야 하나 하는 생각도 수 없이 했다. 그냥 논문 발표 때 친구들과 함께 작품발표도 하고 같이 평가를 받는 게 낫겠다 싶기도 하고 무리도 안 하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그 때의 몸 상태로는 춤을 출 수 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연습을 하려 가도 몸만 풀고 안무를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반복해서 되 내이는 게 다였다.

그러다 가을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공연자 리허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1차, 2차 그리고 3차로 나뉘어서 리허설을 하는 데 할 때마다 어느 정도 발전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았다. 이걸 뭐, 하기 싫어도 억지로 나를 달래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몸이 아프다고, 너무 바쁘다고 공연을 빼달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했다.

1차 리허설은 공연 1주일 전 목요일에 있었는데 그 때 까지는 아직 안무가 반 정도 밖에 완성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다. 진행 상황이 너무 느렸다. 레퍼토리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이내믹한 구성을 주어야 할 지 아니면 음악의 표현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시켜야 하는 것인지 정하지 못 한 상태였다.

정말 남들에게 내 실력을 보여주고 무대에 올리기 위한 안무였다면 다이내믹한 구성을 주어 잔잔하게 흐르다 클라이맥스로 오르는 게 맞았겠지만 이 안무는 내 논문을 위한 것이었고 논문의 주제는 음악을 충분히 표현한 창작안무였기 때문에 그런 점은 포기하기로 했다. 대신에 음악에서 그냥 놓치는 것이나 그저 흘러보내는 부분을 없애고 충실하게 카운트 하나하나에 음악을 표현하기위한 동작들을 채워 넣기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안무를 짜는 것에 조금 속도를 낼 수 있었다. 굳이 스토리를 집어넣어 복잡하게 하기보단 그저 음악의 표현에 충실했고 2차 리허설 때는 나름의 완성 된 안무를 보일 수 있었다.

마지막 마무리에는 테크닉을 넣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슬픈 느낌을 내고 외로움이 돋보이는 단조로운 안무에 그래도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임팩트 있는 동작을 넣을 필요를 느꼈다. 마지막 테크닉 전에 20초 정도는 프리스타일댄스를 안무로 넣기로 했다. 굳이 끝까지 어떠한 동작들을 끼워 넣는 것보단 듣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프리스타일댄스가 효과적일 것 같았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프리스타일댄스에 굉장히 약한 편인데 단독 무대에서 나를 한 번 시험 해 보고 싶었다. 잘 할 수 있을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프리스타일이라고는 해도 공연 전까지 계속 연습을 진행하면서 20초간의 사이에 넣을 동작들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카운트에 맞춰 여기엔 이 동작, 저기엔 또 어떤 동작으로 정해 놓지만 않았지 사실 뭐 거의 짜여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다만 동작의 구성이 계속 바뀌었고 조금 더 프리스타일 댄스의 느낌이 나도록 애드리브를 많이 집어넣었다.

이렇게 해서 나의 창작안무 완성. 공연까지 5일정도 남은 상태였다.

2-4.창작안무 발표

(영상참조)

3.발표 후 간디인들의 소감(평가지)

-간디학교 2학년 한 별

공연 전부터 국악과 힙합이 어우러진다는 것에 대해 매우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었다. 오묘한 느낌이었지만 어색함보단 흐름이 자연스럽고 지루하지 않았다. 서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른데 그 부분에서 잘 맞물린듯했다.

창작안무는 정말 놀라웠다. 춤의 완성도와 전문성도 엿보았지만 각 특징을 춤으로 옮겨와 묘사한게 보기 좋았다. 관객을 몰입하게 한 포스와 분위기도 좋았다.

힙합비트에 맞춰 절도 있게, 해금의 흐름을 타고 부드럽고 섬세한 느낌을 표현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창작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서로 다른 두 분야를 접목시켰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공연을 보며 뮤지컬의 한 장면 같다는 생각도 들게 하였다.

노래의 특성상 파워풀한 춤이 어울릴 거란 생각은 안했지만 그러한 춤도 보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다. 국악의 흐름을 따르면서도 비트를 타는 모습에 흥겨웠다. 마임같이 멋졌다.

-간디학교 5학년 이현무

가을축제에 올라갔던 3학년 유 현영 학생의 논문작품을 평가하자면, 처음 작품을 설명을 해줄 때에 나도 가을축제를 기획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과연 국악과 힙합(춤)을 퓨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춤뿐만이 아니라 노래든지 모든 장르를 다른 장르 퓨전 한다는 것은 여지간이 골치 아픈 일이다. 어느 정도 실력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했지만 괜한 기우였다.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작품의 흐름은 딱히 이상한 부분 없이 잘 흘러갔다.

다만 아쉬운 점을 꼽자면 웬지 앞이나 끝이나 똑같은 것 같다. 기승전결의 전개는 그다지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았다. 도토리묵 양념안하고 그냥 먹은 느낌이랄까. 멍멍했던 부분은 무시 할 수 없을 것 같다. 춤으로 보여줬던 장면 중 큰 행동 보여주는 부분들은 적었다. 국악의 특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안무를 짰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격상 약간 아쉬운 부분이다.

-간디학교 5학년 박다운

완성도가 꽤 높았다.

국악과 힙합의 퓨전인 동시에 현영이만의 새로운 스타일이 만들어진 것 같다.

우아하고, 슬프고, 디테일한 점을 높게 산다. 동작 하나한 음악에 어울리도록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 과감한 시도라든지 클라이맥스를 만들지 않아서 후반부로 갈수록 고요한 감은 있었다.

Ⅲ.결론

1.논문의 한계

이 주제의 가장 큰 한계는 표현력의 제한이었다. 음악의 장르에 따라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좁게 정해져 있었다. 내가 창작안무에 쓴 음악은 전체적으로 구슬픈 멜로디의 연속이었는데 이런 음악에 신나게 방방 뛰는 스텝을 밟거나 강렬함을 표현 할 수가 없었다. 만약에 역지로 그런 동작을 섞어 넣게 된다면 나는 주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었다. 몇 번이나 상기시키는 것이지만 내 논문의 주제는 노래를 가장 잘 표현한 창작 안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스텝이나 테크닉을 넣지 않는다면 약 3분정도는 되는 안무가 지루 해 질 것은 불 보듯 뻔했다. 그래서 위의 동작들을 추가시키되, 조금 무거운 느낌을 주기로 했다. 스텝을 밟을 때도 공중에 있는 시간을 좀 더 늘여서 무게감을 주고 테크닉을 넣을 때도 강하게 치는 느낌이나 한 부분만 사용하는 동작보다는 몸 전체를 쓰는 동작을 주로 했다. 그럼으로써 동작의 다양성도 늘리고 지루함도 없앨 수 있게 된 것 같다.

다음은 안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서었다. 다이내믹하게 안무를 진행 시키면 노래의 특징적이 요소들에서 놓치는 게 족족 생기고 그렇다고 완전 노래의 표현에만 충실하자니 안무가 전체적으로 너무 단조롭게 될 것 같았다. 이 부분에서는 고민이 많았다. 논문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안무가 심심하게 진행이 되더라도 노래의 표현에만 집중하는 게 맞지만 괜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중간에 한두 번,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난이도 있는 테크닉을 집어넣어 보았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었지만 조금씩 다듬고 연습을 더해가다 보니 눈에 띄만한 임팩트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심심함을 조금 덜어줄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2.후기

좀 더 나은 작품. 좀 더 완벽한 공연을 위해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든다. 굉장히 힘들게 안무를 짜고 연습을 하고 무리를 해서 공연에 올랐다. 무대에서 내려오고 나서 이제 한시름 덜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뿌듯함과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허탈함, 아쉬움에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했다. 이렇게 공들이고 또 그만큼 가슴 떨렸던 춤 공연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다. 언제나 춤이라면 누구보다 신나게 즐길 수 있고 자신이 있었는데 논문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내 진로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냥 즐기면서 하면 되고 무엇보다 내 즐거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춤꾼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춤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마음을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고 보면 내 첫 안무는 그런 점에서 놓친 게 많지 않았나 싶다. 관객들에게 생각보다 내가 긴장하고 있음을 너무 역력히 보여주었고 정작 내가 춤으로써 전하고자 했던 것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듯하다. 내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표현하는 안무를 짜고 무대에도 올렸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위축되어 관객들과 소통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

평가를 많이 받지 못한 게 아쉽다. 처음 계획은 공연에 오르기 전에 미리 학교에 있는 몇 사람들에게 작품발표를 눈여겨보시고 좀 더 심도 깊은 평가를 해 달라고 부탁 할 생각이었다. 내 불찰이었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못 한 건 아니었는데, 변명을 하자면 정말 정신이 없었다. 좀 더 많은 평가를 받고 의견을 받아서 논문에 같이 올릴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뒤늦게 부탁한 몇 명밖에는 평가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처음으로 한 창작안무 치고는 나는 잘 해 냈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큰 시행착오도 없었고 무대도 사고 없이 잘 치렀지 않았나. 그리고 무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안무 안에 내가 도전해 보고 싶었던 모든 것이 들어갔다. 무엇보다도 프리스타일을 20초가량 넣었다는 게 제일 뿌듯했다. 만족스러울 정도로 잘 하지는 못했지만 도전한 것만으로도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한다.

창작안무 과정동안 즐겁고 신나는 날보다 고민에 빠지고 힘겨운 날들이 더 많았던 한 달 이었고

정말 고생 해 가면서 완성 해 낸 작품이지만 앞으로 댄서로서의 인생에 겨우 신발 끈 한쪽 묶은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IV.부록

참고 서적

힙합, 새로운 예술의 탄생/이우재/돋을새김
재미있는 우리 국악 이야기/이성재/서해문집

창작안무배경음악

<해피페이스(Happyface), 이소원 - 보름달>

Thanks To.....

작품평가해준별이,현무오빠랑다운언니
영상을위해바쁜와중에도애써준구원산이랑산이네아버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고생한간장게장꼬끼들
내가무섭게해도별말않고참아준미지정πππ
논문파티완전감동이어써용105호다운언니안다다권수정
간장게장공장주인수Ja정상에서봔세
제일사랑하는엄마아빠그리고오빠
마지막으로자기좀넣어달라는예쁜지은이
자기왜안쓰냐고억억지억지억지억억억지억지억지억지억지빠빠빠수열이



이 름 : 이민지

성 별 : 女

혈액형 : AB형

한마디 : 드디어 끝났다~~~~!!!!!!

생 일 : 4월 6일

좋아하는 것 : 밥, 잠, 노래듣기, BIGBANG

싫어하는 것 : 잠잘 때 방해받는 거, 노래들을 때 방해 받는 거, 밥 먹을 때 방해 받는 거, 유치한 거

내 손으로 간디학교 홍보 리플릿 만들기

제출자 : 이민지
지도교사 : 강미리

<목차>

I 서론

1. 논문의 동기 및 목적
2. 연구방법

II 본론

1. 홍보란?
 - 1-1. 홍보물의 종류
2. 리플릿 만드는 순서
 - 2-1. 리플릿의 중요 요소
 - 2-1-1. 용지
 - 2-1-2. 색감
 - 2-1-3. 문구 배치
 - 2-2. 만드는 순서
3. 나만의 리플릿 만들기
 - 3-1. 스케치하기
 - 3-1-1. 설문 통계
 - 3-2. 편집하기
 - 3-3. 인쇄하기
 - 3-4. 외부 평가

III 결론

1. 논문의 한계와 후기
2. 논문을 쓰고 난 후

Thanks To

I 서론

1. 논문의 동기 및 목적

나는 원래 홍보 쪽에 관심이 있었다. tv를 보다가 프로그램이 끝난 후 cf가 나오면 ‘저 cf는 어떻게 만든 걸까?, 아이디어가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다. 그러나 차마 작품으로 만들자고는 손재주에도 소질이 없어 생각도 못 했다. 그래서 다른 주제로 하다가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내가 홍보를 해보겠냐 싶어 다시 고민했다. 그러다가 예전에 봤던 옛날 간디학교 안내 책자를 보았던 것이 생각났고 그 때 나는 내용이 너무 많아 쉽게 질려했었다. 그래서 이번에 간디학교에 도움이 될 만한 주제로 하고 싶어졌다. 오래 전에 만든 간디학교 홍보책자를 다시 만들어서 내용을 정리하고 가지고 다니기 쉽게, 보기 편하게 만든다. 그리고 최대한 간디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고 입학을 고려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방문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간단한 리플릿을 만들기로 했다.

2. 연구방법

2-1. 참고서적

현재 제천 간디학교 소개 책자와 여러 홍보 책자 참고

브리태니커 사전

박상국 선생님의 인터뷰 답장 내용

2-2. 참고 사이트

<http://www.wikipedia.org/> -위키 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두산 백과사전

2-2. 인터뷰

후원인 박상국 선생님께 인쇄 관련해서 인터뷰

2-3. 사진

리플릿에 넣을 학교와 기숙사 시설, 행사 사진

2-4. 설문

2012년도 예비 신입생들이 제천간디학교에 대해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설문조사

학생들이 좋아하는 장소와 학사일정 설문조사

2-5. 방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구점인 ‘성충문구’에서 복사하기 위해 방문

II 본론

1. 홍보란?

홍보는 개인이나 단체의 조직체가 스스로의 생각이나 계획 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이다. 다른 사람들이 직접 보지 않아도 종이나 영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다. 또 요즘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서도 많은 홍보효과를 보고 있다.

1-1. 홍보물의 종류

홍보는 크게 종이와 영상, 말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내가 만드는 리플릿이 속해있는 종이로 홍보하는 것들을 알아보자.

종이 인쇄물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차이가 적어 헛갈렸던 것들을 정리 해봤다. 페이지 수와 크기, 사용 등에 따라 그에 이름이 바뀐다.

1) 전단지 : 주로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많이 보기도 하고 책자 사이에 끼어 있기도 한다. 한 장으로 되어있고 양 면으로 두 쪽을 사용한다. 많은 내용이 들어 있다기보다는 간단하지만 소비자들의 눈을 끄는 문구를 넣고 오시는 길만 넣어 호기심을 유발한다.

2) 리플릿(leaflet) : 리플릿은 페이지의 수가 팸플릿보다 적으며 광고메시지나 학교나 병원의 홍보를 주로 하는 인쇄물이다. 내가 만드는 것도 리플릿에 속한다.

3) 팸플릿(pamphlet) : 팸플릿은 일반적으로 2~3페이지에서 몇 십장으로 삼등분이나 사등분으로 접어놓은 인쇄물이다. 다양한 용도의 소책자로 제본을 하지 않거나 철사로 간단히 제본이 되어있다.

4) 카탈로그(catalogue) : 카탈로그는 회사에서 상품을 소개하려 만든 인쇄물이다. 회사의 간략한 설명, 고객들의 사용후기나 경험담 소개, 그리고 상품 정보 등의 내용이 들어가는 편이라 페이지 수가 많다. 마니아층에서는 수집을 하는 경우도 있다.

	포스터	리플릿	팸플릿	카탈로그
페이지 수	1장, 양,단면	1~2장 양면	2~몇 십장까지	4~5장 이상
용도	상가 소개	기관(학교, 병원 등), 상가 소개	공연, 행사 소개	상품 소개

2. 기본적인 리플릿 만드는 방법

2-1. 리플릿의 중요 요소

1) 종이

사람들이 홍보 전단지를 받을 때 제일 처음 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종이다. 내용에 따라 거친 종이, 부드러운 종이, 매끈한 종이 등 여러 가지 촉감의 종이가 있다. 인쇄용으로 만든 종이인 인쇄용지는 잉크의 매질의 잉크를 흡수할 수 있는 성질(흡수성), 인쇄할 면의 매끄러운 정도 (평활도), 인쇄용지의 흰색 정도(백색도), 불투명도, 인쇄용지의 두께 정도, 탄력성 등 인쇄에 적합한 인쇄적성을 필요로 한다.

용지의 종류는 매우 많으며, 그 중에서 책자로 쓰이는 용지로서는 상질지·중질지·하급지의 구분이 있다. 상질지는 고급 책자 등에 쓰이고 고급 종이로서 표면이 평활하고 백색도가 높다. 용지의 종류로는 아트지와 모조지 등이 있다. 중질지는 교과서나 잡지, 정기간행물 등에 많이 쓰이는 것으로 상질지보다 백색도가 떨어진다. 하급지는 갱지를 말한다.

다음은 시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용지들이다.

①신문용지 - 흔히 말해 갱지이다. 대개가 신문이나 시험지 등으로 쓰인다.

②마넨라지 : 박스 등 두꺼운 인쇄에 적용되는 용지이다.

③스노우 화이트지 - 인쇄면의 부드럽고 은은한 광택으로 인해서 캘린더, 카탈로그, 명함 등 용도의 인쇄로 적당한 용지이다.

④아트지 -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이로서 고도의 광택과 표면이 매끄러운 고급 인쇄지이다. 고급 전단이나 포스터, 카탈로그, 팸플릿 등에 주로 쓰이는 용지이다.

⑥백상지 - A4용지, 시험지 등 얇은 사무용품 인쇄가 적합한 용지이다.

2) 색감

두 번째로 사람들이 홍보 전단지를 받았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은 색감이다. 리플릿이나 팸플릿 등 기관을 소개하거나 미술관 등을 소개할 때는 은은한 색상으로 튀지 않는 색을 넣어야 보는 사람이 편하다. 또,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시켜야 하는 내용의 경우는 튀는 색상을 넣어 눈이 많이 가게 한다.

3) 문구 배치

세 번째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문구 배치이다. 사람들은 대개 큰 글씨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뉴

스의 헤드라인이 약간 과장되지만 큰 글씨로 맨 위에 적으면 호기심을 유발시키면서 그 기사를 읽게 된다. 또, 글이 많거나 글이 색상에 묻히거나 여백이 좁으면 보는 사람들이 쉽게 질리고 답답해 하며, 부채로 쓸 만큼 필요가 없어질 수 있다. 이처럼 제일 중요한 문구 배치를 잘 해야 사람들이 호기심을 생겨 계속 보게 된다. 그래서 내용뿐 아니라 문구의 여백이나 위치를 잘 정해야 한다.

2-2. 만드는 순서

이제 중요 요소도 살펴봤으니 리플릿의 과정을 살펴보자.

1) 내용 정리 및 도안

우선 리플릿은 중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컨셉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다음 단계인 페이지 수나 분위기가 달라져서 자신이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싶은지를 잘 정해야 한다. 리플릿의 중점을 잘 생각하면서 들어갈 내용을 정리하고 사진이나 글을 배치한다. 내용 중에 어떤 것을 부각시키는가에 따라 페이지 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 배치를 할 때는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백을 생각하면서 하고 글씨나 사진의 크기 등도 정해두면 좋다.

2) 페이지 수 & 사이즈 선택

내용을 정리하고 도안을 다 짜면 페이지 수를 정한다. 제품을 소개하는 홍보책자는 많은 제품을 담아야 해서 페이지 수를 늘리지만 리플릿은 적은 페이지 수를 말하는 것이어서 최대한 적게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다.

사이즈를 선택할 때는 용도에 따라 다른데 들고 다니기 쉽게 만들거나 내용을 우선시 하여 조금 크더라도 내용을 많이 넣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본래 리플릿의 사이즈는 대부분 작은 사이즈가 많다.

3) 색 & 배경 정하기

대충 내용과 사이즈가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편집이 들어간다. 우선 색을 정한다. 그 리플릿의 분위기에 따라 부드러운 색, 따스한 색, 강렬한 색, 어두운 색 등 분위기에 맞춰 색을 지정한다. 그러나 색이 글보다 튀어서 글이 묻히면 안 되고 배경을 정할 때도 너무 튀지 않게 은은하게 해야 한다.

4) 소재 원지(용지, 종이)

그 다음엔 어떤 소재의 용지로 할지 정한다. 일반적인 팸플릿, 리플릿 용지로는 '아트지'를 많이 한다. 요새는 친환경적인 용지가 많이 보급되고 연구 중이라고 한다.

5) 인쇄소에 의뢰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여 인터넷 인쇄소에 의뢰를 하면 견적과 용지, 필름 등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고, 해당 인쇄소의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면 택배비가 부담되면서 발송되는 쉬운 절차이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 다른 사람들이 올린 홍보물 의뢰를 보면서 도움을 보기도 한다.

인터넷 말고도 원래 인쇄기에 인쇄하는 방법이 있다. 요새는 많이 사라졌지만 충무로 같은 서울 근처의 골목뿐 아니라 대전근처에도 인쇄골목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곳을 돌아다니면서 조언을 들을 수 있고 가격을 비교하면서 많은 인쇄소를 들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런데 요즘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고 대를 잇는 사람도 사라져 인쇄소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다고 한다.

6) 교정 후 생산

인터넷의 경우가 아닌 인쇄소에서 의뢰를 하면 의뢰를 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인쇄소 사장님의 조언을 들으면서 몇 번의 교정을 거쳐야 비로소 인쇄가 된다. 인터넷 인쇄소에 의뢰를 하게 되면 그런 교정이 없이 바로 인쇄가 되어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색이나 여백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게 될 경우에 많은 교정을 거치게 된다. 그 후 드디어 인쇄를 하고 생산을 하게 된다. 인터넷의 경우 위에서 말했듯이 간단하게 계좌번호로 택배비와 같이 입금을 하면 집으로 오게 되고 보통 인쇄소 같은 경우도 집으로 택배가 온다.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치고 많은 조언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리플릿이 나오게 된다.

3. 나만의 리플릿 만들기

이것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천 간디학교의 홍보책자이다.



< 겉표지 >



< 내용 >



< 대략 11페이지는 된다. >



< 뒤표지 >

나는 이 홍보책자를 처음 봤을 때 너무 내용이 많아 쉽게 질렸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만든 리플릿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만들어 봤다.

우선 제천 간디학교를 설명하기에는 한 부의 리플릿으로는 훨씬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학교 소개, 입학관련 내용과 함께 <학교 소개>, <행사 소개>, <시설 소개>, <동아리 소개> 등을 알려주는 총 4종의 리플릿을 만들었다.

용지를 한번을 접어 만드는 2단 리플릿을 만들기로 했다.

내용 1	내용 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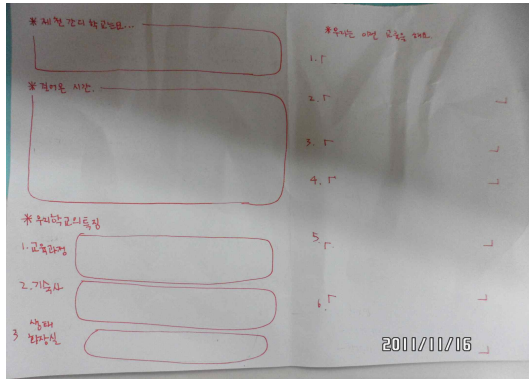
(안)

표지 (앞면)	내용 3 + 뒷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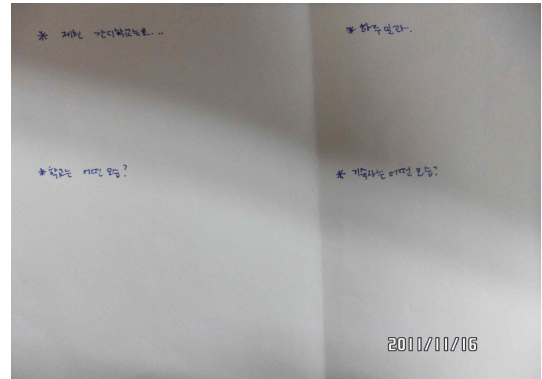
(밖)

3-1. 스케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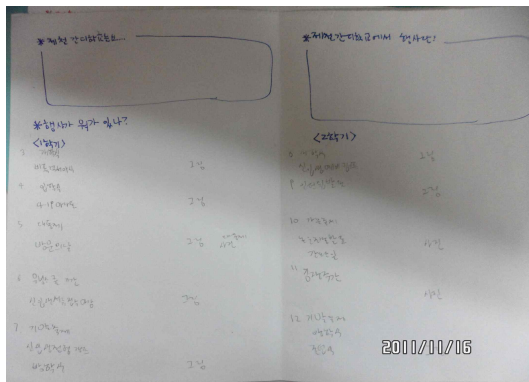
우선 리플릿이라는 것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론조사를 하여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그래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 중 하나가 사이즈다. 내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리플릿은 사람들의 편리한 휴대를 위한 것이므로 작은 사이즈의 B5⁷⁰⁾을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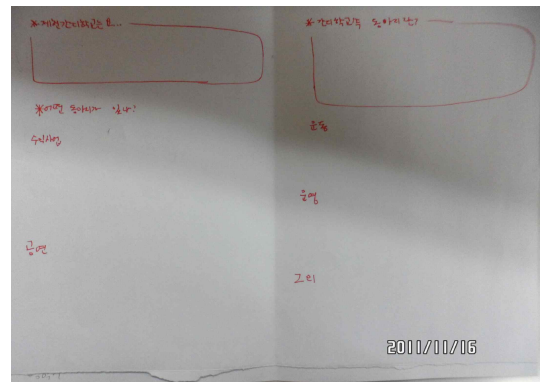
<학교 소개 편>



<학교, 기숙사 시설 안내 편>



<행사 소개 편>



<동아리 소개 편>

3-1-1. 설문 통계내기

① '2012년도 신입생이 아는 동아리' 설문(설문지1)

나는 2012년도 예비 신입생 캠프 둘째 날에 신입생 남녀 20명에게 신입생들은 어떤 것이 궁금하고, 어떤 동아리를 아는지 질문을 해 순위를 매겼다.

궁금한 내용은 동아리에 관련된 것과 학교 일정에 대해 많이 궁금해 했다. 처음에 궁금한 것은 질문해 그 내용에 답해주는 코너를 만들려 했으나 여백 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서 <학교 소개 편>을 만들고 <동아리 편>에 아는 동아리 순위만 리플릿에 넣었다.

아는 동아리의 수를 헤아려보니 1위는 빨간 비디오가 10표를 차지했고, 2위로 생리통, 3위로 다섯 손가락을 많이 알고 있었다.

이 순위에 따라 리플릿에 동아리 소개를 적었다.

② '간디인이 뽑은 best3' 설문(설문지2)

이번에 재학생 간디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재학생들에게 설문을 돌렸다. <학교와 기숙사 내에 가장 편한 장소>와 <연간일정중 제일 좋아하는 일정>을 질문으로 학생 총 78명에게 설문지를 돌렸다.

첫 번째 질문으로 학교 내에 가장 편한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다. 1위는 반이 넘는 49명이 도서관이라고 답했다. 도서관은 학교 1층 맨 끝에 있는 곳인데 뽑은 이유는 '따뜻하고 소파가 있어 책을 읽기 편한 장소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2위로는 양호실이였다. 15명의

70) B5 : 길이는 182*257(mm) 을 뜻한다.

사람이 고른 양호실은 학교 2층 첫 번째 교실에 있는 공간이다. 양호실을 뽑은 사람 역시 ‘침대가 있고 난로가 있어서 따뜻하며 혼자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답했다. 그 외로도 소강당이라든지 2층 교실을 많이 선택했고 그 이유 역시 ‘따뜻한 공간이라서’라고 했다. 가을에 설문을 해서 그런지 따뜻한 곳을 많이 선택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기숙사 내에 가장 편한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다. 1위는 48명이 자신들의 방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개인적인 공간이면서 방음이 안 되긴 하지만 따뜻해서 좋다.’라고 답해주었다. 2위는 12명이 고른 비밀의 방이다. 비밀의 방은 여자 사감샘 방 옆에 위치한 공간이다. 비밀의 방을 고른 사람들은 ‘따뜻하면서 모임장소로도 좋고 로맨틱한 분위기가 난다.’라고 답해주었다. 3위는 11명이 고른 별 보는 방이다. 별 보는 방은 흔히 별방으로 부르며 남·여 기숙사에 각각 2층 끝에 있으며 하늘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별방을 고른 이유는 ‘별을 볼 수 있고 진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학교 행사 중 재밌는 행사를 물어봤다. 1위는 34명이 고른 축제이다. 제천 간디 학교는 축제를 계절별로 봄에는 대동제, 여름엔 기말축제, 가을엔 가을축제, 겨울엔 기말축제를 할 만큼 축제를 많이 한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뽑았다. 이유로는 ‘다양한 행사가 많고 먹을거리가 많으며 공연을 한 후에 뿌듯함이 있고 외부 손님들도 놀러오기 때문에 재밌어서’라고 답했다. 2위는 5명이 고른 문화의 밤이다. 문화의 밤은 1~2주에 한 번씩 외부 손님이 오셔서 강연을 하거나 1년에 한 번씩 마을 주민들과 영화보기 등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행사이다. 이 문화의 밤을 고른 사람들의 이유도 ‘외부와 소통을 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경험을 할 수 있어서’라고 했다.

나는 위에 나온 설문 결과를 리플릿에 참고했다.

3-2. 편집하기

편집 프로그램이 시험기간이 만료되어 많이 바뀌었지만 내용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글과 그림만 넣기에는 리플릿이 밋밋해서 오지영(3)양의 도움을 받아 내 모습과 비슷한 캐릭터를 넣었다. 하나 당 1~2개 씩 넣었다. 그리고 배경을 흰색으로 통일하다보니 밋밋하기도 해서 살구색을 바탕으로 넣었다.

1) 학교 소개 편

*** 제천 간디학교는요**
충북 제천에 있는 기독교형 비전과 대안학교예요.
이념과 자립성, 민족성을 꿈꾸며 선택하신 공간에서
칼과 기술이 있는 학교예요.

*** 우리는 이런 교육을 해요**
중등과정이에요. 중등에서는 무병을 확립해라 하고,
확립해라 예년 고대에서 못지 않게, 너와 나의 이해,
예상치 못했던 것도 여러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로 진행해요.

*** 걸어서 3시간**
- 2002년 9월 간디 청소년학교 교육과정을 본리하고 제천으로 이사.
- 2006년 교육과정을 중·고 통합 과정으로 바꾸고 제천 간디학교로 개명.
- 2006년 우리학교의 자랑인 청정리조트를 지음.
- 2007년 6월 부터 기숙사를 학교에서 16분
떨어진 곳에 지었고 그 해 2학기엔 입주.
- 2009년 겨울에 공동화장실을 지었어. 첫 졸업.
- 2009년 겨울에 학교에서 20km를 지음.

*** 우리 학교만의 특징**
우리 학교는 중·고 통합과정으로 6년 과정이에요.
그 중 1학기 중 간담 정도는 뭐는 무병을
죽, 다른 곳으로 수업을 가지 않고.

1 교육과정
2007년에 새로 기숙사를 지었어요. 남자와 여자의 기숙사가 한 건
물에 있고 그 안에는 안락의자, 침대, 탁자, 책상,
비밀의 방 등 여러 공간과 사생활 방이 있어요.

2 기숙사
2006년에 생태화장실을 지었어요. 생태화장실에서
나오는 동은 학교 앞 계로로 가고 조들은 남로로
해서 청소년으로 느끼는 거로 쓰여요.

3 생태 화장실

1학년 - 학교 적응 시기. - 기숙사를 적응함.
- 무병 가져 중을 배우고 공단.
- 친구들과 서로 알아가는 시기.

2학년 - 서로 이해하는 시기.
- 무병 가져 연극 배우고 공단.
- 친구들과 많이 자주하고 화해하는 사춘기 시기.

3학년 - 중등과정을 마무리 하고 고등과정 진급을 준비하는 시기.
- 무병을 배우도록 하여 공사도 하고 작업을 느끼며 학교.
- 친구들과 많이 소통해가는 시기. - 논문을 써요.
- 중등 희망, 학생회, 당원 등 많은 일이 많아져 바쁜 시기.

고등과정 - 예년제예요. 고등에서는 무병을
확립해라 예년제 학교고 고대에서 발표해요.

4학년 - 개인 무병을 하고.
- 2학기에 2달동안 필리핀으로 여행하고요.

5학년 - 고등 과정을 끝내고
- 10월에 하는 겨울축제에 기획.

6학년 - 6년 과정 마무리 하는 시기.
- 1학기에 진학함. - 8월에 진학함 발표.
- 2학기에 진학함 발표. - 겨울방학식 전 날 졸업함.

학교 소개 편의 배경은 간디학교 버스를 약간 투명하게 넣었다. 내용에는 학교 소개와 역사, 특징, 교육 과정을 넣었다. 특징 3가지에는 교육과정, 기숙사, 생태화장실이 있다. 교육 과정에는 학년 별로 하는 일정 등을 넣고 중등과 고등의 설명을 간략하게 넣었다.

2) 행사 소개 편

※ 제원 간디학교는요...

중북 제천에 있는 기숙사형 비인가 대안학교예요.
사랑과 자발성, 비폭력을 꿈꾸며 생태적인 공간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학교예요.

※ 캠퍼스가 얼마나 넓나요?

<1학기>

3월 - 새학기 시작,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입학식 - 수업 수강 신청
- 동아리 한마당
- 비폭력 서약식

4월 - 4월 마라톤

5월 - 대동제
- 어린이날
- 방학식 날
- 무명 준비

6월 - 무명스쿨 시작
- 신입생 서류 접수 마감

7월 - 간중식 수업 주간
- 기말숙제
- 방학식

8월 - 논문 계획서 발표
- 신입생 전형 캠프8발표

※ 제원 간디학교 속의 행사란?

간디학교의 행사는 학생들이나 수업이나 행사부(학생회)에서
기획해요.
행사 주축제는 학부모론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와서 즐겨요.
그 중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가을 축제는 5학년이 직접
편찬을 해요.
또, 문화의 방은 격주마다 하는데 학교 내에서 진행하거나
외부에서 손님이 오어서 진행을 해요.

<2학기>

8월 - 신입생 예비 학교 - 개학식
- 수업 수강신청 - 인턴쉽 발표

9월 - 논문 중간발표
- 필리핀 제정 학습

10월 - 가을 축제 - 현민익 날
- 간담회 - 논문 최종 발표
- 노작의 날

11월 - 김장 주간
- 학생회 선거

12월 - 인문학 캠프 발표
- 교과발표8기말숙제
- 졸업식 - 방학식

행사 소개 편에는 사진이 들어가서 배경을 안 넣었다. 내용에는 학교 소개와 간디학교에서 행사란? 과 연간행사가 있다. 마라톤, 노작의 날, 필리핀 발표회, 가을 축제 사진을 넣었다.

3) 시설 소개 편

※ 제원 간디학교는요...

중북 제천에 있는 기숙사형 비인가 대안학교예요.
사랑과 자발성, 비폭력을 꿈꾸며 생태적인 공간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학교예요.

※ 학교는 어떤 모습?

양호실

소강당

학생회실

도서관

생태 화장실

※ 하루 일과

오전
6:46 기상
~8:20 아침식사
8:40~9:16 아침독서8아침열기
9:16~9:30 학교 청소
9:30~12:46 오전 수업
12:30~12:50 점심식사

오후
2:30~5:30 오후 수업
6:30~6:20 저녁 식사
7:00~9:00 독학
9:00~9:46 기숙사 청소
10:00~ 소등
10:46~ 취침

※ 기숙사는 어떤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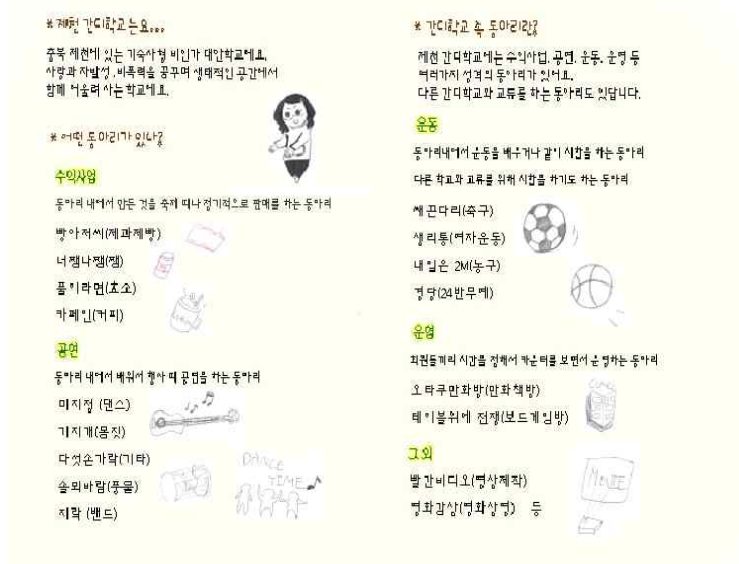
다목적실

비밀의 방

별보는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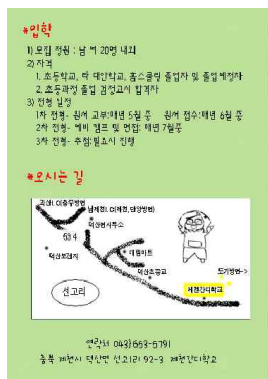
학교 시설 편도 그림이 들어가서 혼잡해 보여 배경을 안 넣었다. 내용에는 학교 소개, 하루 일과, 학교와 기숙사의 모습이 있다. 학교와 기숙사의 사진을 넣고 부분 장소를 붙여 설명을 넣었다. 학교 부분 사진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양호실과 도서관과 소강당, 생태 화장실과 학생회실을 넣었다. 기숙사 부분 사진은 역시나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다목적실과 비밀의 방, 별 보는 방을 넣었다.

4) 동아리 소개 편



동아리 소개 편의 배경은 따로 안 넣었다. 내용에는 학교 소개와 간디학교 속 동아리란?, 동아리 소개가 있다. 각각의 동아리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게 그림을 넣었다. 동아리를 소개 하는 곳에서 수익사업, 공연, 운동, 운영, 그 외에는 노란색의 띠를 둘러 구분을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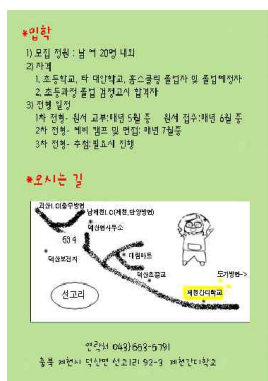
5) 뒤표지&겉표지



행사 소개



동아리 소개



시설 소개



학교 소개



4종류의 이름을 적었고 그 외에는 같다. 뒤표지는 무난하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간디학교와 어울리는 초록색을 바탕으로 했다. 내용에는 입학, 오시는 길,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다. 오시는 길은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위해 따로 그림판으로 그렸다. 겉표지에는 제천 간디학교와 로고대신 학교 곳곳

에 숨어있는 민들레, 홈페이지를 넣었다.

3-3. 인쇄하기

처음엔 인쇄를 하기 위해 인쇄소를 찾아봤다. 인터넷 인쇄소밖에 안 찾아 봤지만 모든 인쇄소에서 기본 300부가 최소이고 내가 원하는 10부 이하의 소량인쇄가 안된다고 하여 복사를하기로 했다. 그래서 충주근처의 복사제본소를 찾아보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구점에서 복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그 곳에서 복사를하기로 했다. 그런데 2차로 들어가면서 복사를 많이 하지 않고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각각 1부씩만 제출하기로 했다.

3-4. 외부 반응 조사

다 만든 것을 각각 한 부씩 덕산에 들고 가서 초등학생 9명과 어른 1명에게 반응조사를 했다. 질문은 사이즈와 글씨 크기, 글의 양, 사진, 총 평(5점 만점)으로 했다. 사이즈는 괜찮거나 작다고 했다. 글씨 크기는 좀 작다, 글씨체가 맘에 안 든다고 하고 글의 양은 많고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사진은 흐리고 사진은 너무 사실적이어서 그림이나 캐릭터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괜찮다고 했다. 총 평은 총 22.5점으로 평균 2.5점이 나왔다. 아이들이 장난 식으로 많이 하고 인원도 적어서 많은 반응을 못 얻은 것 같아 아쉽다.

III 결론

1. 논문의 한계

나는 논문의 주제를 이 주제로 늦게 정해서 시간문제에나 정보도 부족했다. 그리고 홍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정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의견을 물어봐야 했다. 그런 면에서도 시간을 많이 쓴 것 같다. 또, 인쇄의 가격과 최소 매수를 생각 못 해서 어쩔 수 없이 복사를 하게 되어 아쉽기도 하다. 그리고 기계적인 부분에서 칼라나 글씨가 깨져서 내 맘대로 안 나온 것, 한 부밖에 못한 것도 아쉽다. 그리고 반응 조사를 할 때에 많은 인원을 하지 못해 아쉽다.

2. 논문을 쓰고 난 후

드디어 끝났다. 1차 발표 미완성으로 제출해 불통과로 2차 발표 때 발표를 하고 조건부 통과를 해서 현재 조건을 채우고 있는 나를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다. 주제를 늦게 바꾼 것도 잘못이었던 것 같다. 처음 해보는(다 처음 해보겠지만) 주제라 힘들기도 했고 늦장을 부려서 시간에 쫓기느라 많이 힘들었다. 이것으로 나의 게으름의 심각성을 진정 실현했다. 늦게 시작 한만큼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결국 불통과가 되고 2차 발표라는 곳까지 오게 되어서 슬프다.

내가 논문을 쓰면서 얻은 것은 우선 나의 귀가 얇다는 것을 실감했다. 누군가가 옆에서 '이것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면 말을 하면 '어? 그런가?'라고 계속 고치다가 다른 사람이 또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의욕이 없어져 버려 아무런 진행이 안 되었다. 또, 무엇보다 책임감이 늘었다. 기한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꼭 다해야된다는 부담감 같은 책임감이 생겼고 그와 같이 USB보관의 책임감도 늘었다. 그리고 계속 불통과에 조건부 통과를 하면서 리플릿의 내용을 계속 수정했는데 점점 하면서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진작 됐을 거라 시간에 쫓겨 급하게 쓴 것에 대해 반성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간디 3학년 이민지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제천 간디학교를 홍보물 만드는 것으로 논문을 쓰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성의껏 답해주세요.☺♥

1. 간디학교 오시기 전에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학교 일정이나 동아리 등)
()

2. 간디학교에 오시기 전에 미리 알지 못해서 불편했던 것이 있나요?
있으시면 써주세요.
()

(설문지1)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이민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논문으로 학교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어 설문지를 돌립니다. 성심성의껏 답해주세요

학년 여/남

1. 학교 시설 중 가장 좋은(편안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

1-1. 그 이유는요??

()

2. 기숙사 시설 중 가장 좋은(편안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①만광 ②다목적실 ③비밀의 방

④별 보는 방 ⑤ 테라스 ⑥ 외부

⑦ 기타 ()

2-1. 그 이유는요??

()

3. 학교 일정 중 가장 좋은(재밌는) 일정은 무엇인가요?? * 방학식 가정학습 제외

()

3-1. 그 이유는요??

()

감사합니다. ☺♥♥♥♥♥♥♥♥♥♥☺

(설문지2)

Thanks To

내 주제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집에서 항상 나 응원했을 우리 가족 아버지, 엄마, 오빠 진짜 사랑해요♥♥

집에서 말고 학교에서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주면서 먹을 것도 주시던 미리강과 수자쌤. 만날 “화이팅이야”라고 외치면서 힘을 주셨던 정상쌤, 나의 논문의 가장 많은 정보를 주신 후조쌤 초등학교 동창 ‘박상국’선생님.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자는 애 깨워가면서 밤늦게까지 공부방에서 논문 쓴 우리 반 여자애들 천쫂가리 떨어뜨리면서 코골던 지은이와 이사하던 수정이, 바닥에서 잤던 지영이, 항상 바닥에 실밥과 글루건 똥을 떨어뜨리던 혜린이와 홍이, 옆에서 혼잣말로 중얼중얼대면서 할 거 다했던 채소 수고했고 일찍 끝내서 나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던 현영이 같이 덕산 나가서 반응 조사해주고 많이 도와준 로그리, 빵아저씨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고 논문 때문에 힘들어 했던 덕산녀 현정이까지 수고했어요. 밤12시까지 전산실에서 같이 논문 쓴 우리 반 남자애들 자기 다 했다고 애들 놀리다가 욕 잔뜩 먹었던 한솔이, 만날 전산실에서 지은이랑 떠들었던 지금도 떠들고 있는 수용이, 반이며 전산실이며 허브냄새 풍겼던 상연이, 버스 꾸민다고 그 앞 유리에 장판같은거 붙이던 수열

이, 전산실 유저 풀어준 민현이와 기중이, 영빈이, 도운이 완전 사.. 감사함. 내 옆자리에서 펜 빌려가던 진규, 도서관에서 혼자 논문쓰던 종화, 정상쌤의 “파이팅이야”을 따라하면서 웃음 주던 쥘 모두모두 수고했어요~!! 자기도 쓰고 싶다고 못 써서 아쉽다고 말하던 채현이, 아침에 나 항상 깨워주고 땡스 투에 자기 꼭 넣어달라며 땡깡피운 세발이도 고마워~~

논문 잘 쓰라고 응원해줬던 101호 다모언니랑, 가원이랑, 202호 세발이랑, 하린이랑 효연이 감사 감사 그리고 논문 핑계로 일 다 시켜도 군말안고 하던 미안한 산이랑 현선이, 영어 수업 때 논문 때문에 단어시험 공부못했다고 해도 그냥 무시하고 단어시험 봤던 짜장면 사주셨던 종환쌤, 항상 응원해주셨던 소영쌤, 2층 교무실 프린터기 고쳐주시고 많은 도움주신 종명쌤, 많은 도움주신 영민쌤, 학교 리플릿 시안 보여주시면서 도움 주신 윤하쌤을 포함한 모든 쌤들, 간디인들 감사해요~~~~♡♡♡♡

무엇보다 나의 전산실 1,2번 컴퓨터, 나의 usb, 논문님 살아남아 계셔서 다행이고 감사해요 그리고 가혹한 일정 속에서도 무사히 살아남아있는 나 자신!!! 이제 좀 자고 먹고 놀자~~!!



이 름 : 장기중

성 별 : 남

혈액형 : AB형 아레이치뿌라스

한마디 : ㅎㅎㅎㅎㅎ헤헤헤

별 명 : 폐인, 죽은자의 얼굴, 신신애, 산돌학교 나성이, 희수, 나까무라, 쪽바리, 니폰징, 장가종기중장기중장기중가종갓집감치즈피자먹는중, 땡중.

좋아하는 것 : 라면, 24반 무예,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그 외에 육질들, 견과류, 콜라, 게임, 칼, 한자, 영어, 만화책

싫어하는 것 : 버린 것, 대부분의 해산물, 잘난척하는 자식

이상형 :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본국검법(本國劍法)의 원본 재해석

제출자: 장 기중
지도교사: 강 희석

-목차-

I. 서론

1. 논문의 동기 및 목적
2. 연구방법

II. 본론

1. 24반 무예와 무예도보통지
2. 본국검법이란
 - 1)본국검법의 기원
 - 2)본국검법의 체계와 구성
3. 임동규 선생님의 소개
4. 원본과 해석본 비교하기
5. 비교결과

후기

별첨자료

I. 서론

1. 논문의 동기 및 목적

나는 3학년이 될 때까지 나의 뚜렷한 이미지나 자랑할 만한 취미 같은 것이 없었다.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특히 논문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3학년 1학기부터 학교에 새로 오신 강희석 쌤에게 24반 무예를 배워보니 힘들긴 해도 재밌었고, 조선 시대부터 책으로만 전해져왔다는 것이 매우 흥미가 갔다. 그래서 24반 무예에 대해 논문을 쓰기로 했다. 하지만 24반 무예를 접해본 것도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이 큰 틀에서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난감했다. 그래서 전문가이신 희석 쌤을 찾아가 고민을 말했고, 쌤이 재해석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그 중 본국검법을 고르고 이 쪽 분야에선 희석 쌤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지도교사를 부탁드립니다.

좀 어렵긴 해도 한번쯤 확실히 해보고 싶었고, 지금껏 책 한권으로밖에 전해지지 않은 무예라서 그런지 나에겐 아직 풀지 못한 퍼즐같이 느껴졌다. 또한 정조 시절 왕과 신하들이 온 힘을 들여 만든 이 훌륭한 문화재를 사람들에게 더 자세히 알려주고 싶었다. 아무튼 이러저러한 이유들도 있고 나도 24반 무예를 좋아하니까 논문주제를 이것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 나는 이 논문을 계기로 삼아 좀더 24반 무예 연구에 힘쓰고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

2. 연구방법

1) 참고자료

조선 중기 무예서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나영일 외 3명 저

한국의 전통무예/ 학민사/ 임동규 저

무예도보통지/ 원본 이덕무, 박제가 저

무예도보통지주해/ 동문선/ 박청정 저

허건식/ 본국검법의 의미와 방법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학위논문

2) 24반무예 수련

수업을 통해 수련하기

II. 본론

1. 24반 무예와 무예도보통지

무예도보통지란?

1790년 경 정조 대왕 때 왕명에 의해서 각종 병기술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책이 바로

<무예도보통지(武藝圖普通志)>다. <무예도보통지>는 1598년(선조 31) 한교(韓嶠)가 편찬한 <무예제보(武藝諸譜)>와 1759년(영조 35) 간행된 <무예신보(武藝新譜)>의 내용을 합하고 새로운 훈련종목을 더한 후 이용에 편리한 체제로 편집하여 간행하였는데, 그 간행은 그 당시 규장각의 검서관이었던 박제가와 이덕무가 편찬하였고, 장용영 장교인 백동수가 실기를 담당하였다. 그렇게 간행된 무예도보통지의 총 분량은 4권이라고 한다.

24반 무예란?

24반 무예는 무예24기 또는 무예 24반이라고도 불리며,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되어 있는 24가지의 무예를 말한다. 24반 무예는 크게 18가지의 지상무예와 6가지의 마상무예로 나눌 수 있다. 지상무예로는 예도, 월도, 쌍검, 기창, 본국검, 제독검 등이 있고 마상무예로는 마상월도, 마상쌍검, 마상재

등이 있다. 24반 무예는 동양 3국 무예들의 정수만을 뽑아내 만든 무예로서, 타 국가와의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 그 실용성을 인정받은 조선의 국방무예다.

2. 본국검법이란

본국검법의 기원

본국검법의 기원은 <동국여지승람>에 소개되어있는데, 풀어 쓰면 이렇다.

‘여지승람에 이르기를 황창은 신라 사람이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황창이 7세가 되었을 때 백제에 들어가 칼춤을 추었는데 이를 구경하는 사람이 담을 이루듯 했다. 백제왕이 이 소문을 듣고 그를 불러서 마루 위에서 칼춤을 추도록 명하였다. 황창은 그 기회를 틈타 백제왕을 찔렀다. 이로 인하여 백제인 들이 황창을 죽였다. 이를 애통하게 여긴 신라인들이 그의 얼굴모양대로 가면을 만들어 쓰고 칼춤을 추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 그 칼춤이 전해져 내려온다.’ 이 내용이 본국검법의 기원이라고 한다.

본국검법의 체계와 구성

본국검법(本國劍法)은 여타의 검법과는 다르게 독특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전후좌우로의 방향전환과 베는 법, 찌르는 법과 여러 가지 기본자세들로 구성돼있고 동작 하나하나가 맛있는 춤사위 같고 정갈한 맛이 나는 검법이다.

본국검은 총 33개의 자세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치는 자세가 12세(勢), 찌르는 자세가 9세(勢)로 합쳐서 21세의 격자지법(擊刺之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12세(勢)는 내략(內掠), 외략(外掠), 방적(防賊) 등의 방어법과 지검대적세(持劍對賊勢), 백원출동세(白猿出洞勢) 등의 기본자세로 이루어져 있다.

본국검법의 자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지검대적세(持劍對賊勢)	18. 전기세(展旗勢)
2. 우내략(右內掠)	19. 진전살적세(進前殺賊勢)
3. 진전격적세(進前擊賊勢)	20. 금계독립세(金鷄獨立勢)
4. 금계독립세(金鷄獨立勢)	21. 좌요격세(左腰擊勢)
5. 후일격세(後一擊勢)	22. 우요격세(右腰擊勢)
6. 금계독립세(金鷄獨立勢)	23. 후일자세(後一刺勢)
7. 진전격적세(進前擊賊勢)	24. 장교분수세(長蛟噴水勢)
8. 일자세(一刺勢)	25. 백원출동세(白猿出洞勢)
9. 맹호은림세(猛虎隱林勢)	26. 우찬격세(右鑽擊勢)
10. 안자세(鴈字勢)	27. 용약일자세(勇躍一刺勢)
11. 직부송서세(直符送書勢)	28. 후일격세(後一擊勢)
12. 발조심사세(撥艸尋蛇勢)	29. 후일자세(後一刺勢)
13. 표두압정세(豹頭壓頂勢)	30. 향우방적세(向右防賊勢)
14. 조천세(祖天勢)	31. 향전살적세(向前殺賊勢)
15. 좌협수두세(左挾獸頭勢)	32. 향전살적세(向前殺賊勢)
16. 향우방적세(向右防賊勢)	33. 시우상전세(兕牛相戰勢)
17. 후일격세(後一擊勢)	

3. 임동규 선생님의 소개

임동규 선생님은 1979년 11월 발생한 남민전사건(南民戰事件)⁷¹⁾에 동참한 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임동규 선생님은 감옥 안에서 계속 24반 무예 복원작업에 힘쓰셨다.

그래서 24반 무예를 다 복원하시고 1998년에 누명이 풀려 감옥에서 나오신 다음 민족무예 24반 '경당'을 설립하시고 인재양성에 힘쓰신 분이다. 그리고 현재 24반 무예협회에 총재님이시다.

4. 원본과 해석본 비교하기

비교방법

본국검법의 동작 하나하나를 비교해 본다.

비교대상은 원본 그림, 임동규 선생님의 풀이, 나의 풀이 총 3개를 비교한다.

3-1. 지검대적세(持劍對賊勢)



원본 설명: 두 손으로 칼자루를 잡아 왼편 어깨에 의지한다.

임동규 선생님의 풀이: 설명 그대로 한다.

나의 풀이: 설명 그대로 한다.

3-2. 내략(右內掠)



원본 설명: 바로 섰다가 오른편으로 한 번 돌아 우측을 들고 안으로 스친다.

임동규 선생님의 풀이: 오른 쪽으로 돌때 칼을 다리 쪽에서 원을 그리며 올려 벤다.

나의 풀이: 임동규 선생님과 같다.

71) 남민전은 반유신과 민주화, 민족해방을 목표로 결성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의 약칭으로 1976년 2월 이재문, 신향식, 김병권 등이 결성한 비밀단체이다. 이들 조직은 위원회를 결성하여 유신체제 비판 및 유인물과 기관지를 제작 후 배포하였다. 또한 청년학생위원회를 조직하여 여러 연맹들을 결성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1979년 10월 4일 공안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이재문, 이수일, 김남주 등이 체포되고 그해 11월까지 84명의 조직원이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국가 공안기관에 의해 '북한과 연계된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되었고 '무장 도시게릴라 조직'으로 발표되었다. 그리고 체포된 사람들은 대부분 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06년 3월 13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남민전 관련자 중 최석진, 김남주 등 29명이 반유신운동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했다.

3-3. 진전격적세(進前擊賊勢, 앞으로 나아가며 도적을 치는 자세)



원본 설명: 진전격적세를 하되 우수우각으로 앞을 한 번 친다.

임동규 선생님의 풀이: 앞으로 한 발 나아가며 칼을 허리까지 내려 벤다.

나의 풀이: 임동규 선생님과 같다.

3-4. 금계독립세(金鷄獨立勢, 황금 닭이 한 발로 서는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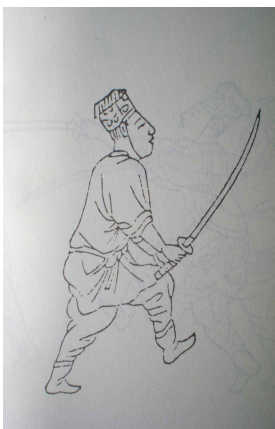
원본 설명: 왼편으로 돌아 칼을 들고 좌각을 들어 뒤를 돌아본다.

임동규 선생님의 풀이: 왼편으로 반 바퀴만 돌고 좌각을 높이 들어 뒤를 돌아본다.

나의 풀이: 왼편으로 한 바퀴 돌고 좌각을 높이 들어 뒤를 돌아본다.

이유: 원본 그림에서 한 바퀴를 도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적을 상대할 때도 시선뿐만 아니라 몸이 상대를 마주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3-5. 후일격세(後一擊勢, 뒤로 한 번 치는 자세)



원본 설명: 왼편으로 한 번 돌아 후일격세를 하되 우수우각으로 한 번 친다.
 임동규 선생님의 풀이: 왼편으로 반 바퀴 더 돌아 우수우각으로 한 번 내려친다.
 나의 풀이: 한발 나아가며 우수우각으로 한 번 내려친다.
 이유: 한 바퀴를 이미 돌아 있어서 바로 쳤다.

3-6. 맹호은림세(猛虎隱林勢, 맹호가 수풀에 숨은 자세)



원본 설명: 맹호은림세를 하되 오른편으로 두 번 돈다.
 임동규 선생님의 풀이: 돌 때마다 같은 방향으로 칼을 쳐내듯이 돌리며 돈다.
 나의 풀이: 칼을 들어 왼편에서 막는 자세를 취하고 오른편으로 두 바퀴 돌며 뒤로 빠진다.
 이유: 일단 이 동작이 간단하게 '두 번 돈다' 외에는 상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 추측이 가능했다. 그리고 나는 원본 그림이 칼로 막고 있는 동작으로 보였기 때문에 막는 자세로 두 바퀴를 돌았다.

3-7. 안자세(鴈字勢, 기러기가 날아가려는 모습의 자세)



원본 설명: 왼편으로 돌아 안자세를 하되 오른편을 향하여 좌우로 감아 우수좌각으로 한번 찌른다.
 임동규 선생님의 풀이: 왼편을 향해 270도 돌아 왼편으로 올려 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좌우로 칼을 돌려 우수와 좌각으로 한번 찌른다.
 나의 풀이: 왼편으로 반 바퀴 돌아 왼쪽으로 올려 치고(걸쳐치기) 오른편으로 반 바퀴 돌며 좌우로 감아 우수좌각으로 한 번 찌른다.
 이유: 난 처음 본국검법을 배울 때부터 왼편으로 돌 때 굳이 몸을 270도나 돌리는 것이 계속 의문점이었다. 아마 다음 동작들과의 연결성을 고려해서 한 것이었겠지만 난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도는 것은 반 바퀴만 돌도록 해석한 것이고, 왼쪽으로 올려치는 것은 원본 도보에 손 모양 등을 자세히 보면 찌르는 동작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올려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3-8. 직부송서세(直符送書勢, 군사를 출병시키는 병부의 문서를 보내는 자세)



원본 설명: 직부송서세를 하되 오른편으로 한 번 돌아 우수와 좌각으로 왼편을 한 번 찌른다.
 임동규 선생님의 풀이: 오른편으로 한 바퀴 돌아 우수와 좌각으로 왼편을 한 번 찌른다.
 나의 풀이: 임동규 선생님과 같다.

3-9. 발초심사세(撥艸尋蛇勢, 풀을 헤치며 뱀을 찾는 자세)



원본 설명: 왼편으로 돌아 앞을 향하여 발초심사세를 하되 우수우각으로 한 번 친다.
 임동규 선생님의 풀이: 왼편으로 270도 돌아 내려친다.
 나의 풀이: 칼을 이마까지 들고 왼편으로 180도를 돌아 정면을 우수우각으로 내려친다.
 이유: 일단 이 동작의 정확한 의미는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 뱀을 찾으려면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게 떠올랐다. 그리고 희석 썸의 교정 제안 중에는 뱀을 적(賊)으로 의역(意譯)해볼 수도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 동작은 뱀을 잡을 때와 같이 보다 신중하고 빠르게 적을 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3-10. 표두압정세(豹頭壓頂勢, 표범의 정수리를 누르는 자세)

원본 설명: 한 발 나아가며 한 걸음 뛰어 표두압정세를 하되 좌우로 감아 우수우각으로 앞을 한 번 찌른다.
 임동규 선생님의 풀이: 한 걸음 뛰며 적을 내려친다.
 나의 풀이: 왼발부터 진보로 두 번 나아가서 좌우로 감고 최대한 높이 한 걸음 뛰며 앞을 우수우각으로 찌른다.
 이유: 한자의 의미들을 찾아보니 압(壓)은 제압하다, 무너뜨리다 등으로 나왔다. 그리고 정(頂)은 머리의 최상부, 머리의 꼭대기 등으로 나왔다. 그래서 난 표두압정을 크게 굴러 높이 약자(躍刺)하여 적의 머리 꼭대기를 찍어 누르는 것으로 풀이했다. 성난 표범도 단번에 눌러버릴 듯한 기세를 표현해야 하는 것이 이 자세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했다.



3-11. 조천세(祖天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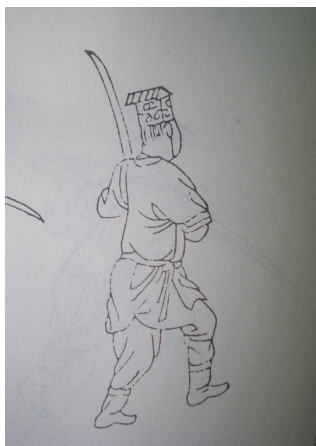


원본 설명: 오른쪽으로 돌아 뒤로 들어와 조천세를 하되 두 손으로 칼을 이마 높이 들고 오른쪽으로 돌아 앞으로 나아간다.

임동규 선생님의 풀이: 칼을 높이 든 채로 오른쪽으로 반 바퀴 돌고 다시 반 바퀴 돈다.

나의 풀이: 임동규 선생님과 같다.

3-12. 좌협수두세(左挾獸頭勢, 왼쪽에 짐승의 머리를 끼는 자세)



원본 설명: 뒤를 향하여 좌협수두세를 한다.

임동규 선생님의 풀이: 지검대적세와 비슷하게 칼을 왼쪽 어깨까지 올리고 바로 서 있다.

나의 풀이: 임동규 선생님과 같다.

3-13. 향우방적세(向右防賊勢, 오른쪽을 향해 적을 막는 자세)



원본 설명: 인하여 향우방적세를 하되 좌족을 들고 밖으로 스친다.

임동규 선생님의 풀이: 왼발을 오른발 옆으로 꼬고 오른발을 들며 오른쪽을 스쳐 지나간다.

나의 풀이: 임동규 선생님과 같다.

3-14. 전기세(展旗勢, 깃발을 펴는 자세)



원본 설명: 오른쪽으로 돌아 앞을 향하여 전기세를 하되 우족을 들고 안으로 스친다.

임동규 선생님의 풀이: 우내락과 같은 형태로 했다.

나의 풀이: 나도 별다른 점을 못 느껴서 그대로 했다.

3-15. 좌요격세(左腰擊勢, 왼쪽으로 허리를 치는 자세)



원본 설명: 인하여 들어와 왼편으로 돌아 좌요격세를 하되 좌각을 들고 좌검으로 왼편 목을 찌른다.

임동규 선생님의 풀이: 왼발을 축으로 잡고 왼편으로 한 바퀴 돌아 검으로 왼편 목을 벤다.

나의 풀이: 임동규 선생님과 같다.

- 우요격세도 같은 해석.

3-16. 후일자세(後一刺勢, 뒤로 한 번 찌르는 자세)



원본 설명: 즉시 오른쪽으로 돌아 후일자세를 하되 우수와 좌각으로 한 번 찌른다.

임동규 선생님의 풀이: 우요격세가 끝난 다음 또 돌지 않고 곧바로 앞을 향해 찌른다.

나의 풀이: 임동규 선생님과 같다.

이유: 처음에는 설명을 보고 한 바퀴 도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총보와 총도를 보니 돌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똑 같이 해석했다.

3-17. 장교분수세(長蛟噴水勢, 긴 교룡이 물을 뿜는 자세)



원본 설명: 왼편으로 돌아 앞을 향하여 장교분수세를 하되 우수우각으로 한 번 친다.

임동규 선생님의 풀이: 왼편으로 한 바퀴 돌아 위에서 아래로 내려친다.

나의 풀이: 임동규 선생님과 같다.

3-18. 백원출동세(白猿出洞勢, 흰 원숭이가 동굴에서 나오는 자세)



원본 설명: 인하여 백원출동세를 하되 우수우각을 든다.

임동규 선생님의 풀이: 우수우각을 들되 칼을 왼쪽 어깨에 댄다.

나의 풀이: 임동규 선생님과 같다.

이유: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칼을 왼쪽 어깨에 대야 한다고 생각했다.

3-19. 우찬격세(右鑽擊勢, 오른쪽으로 비비어 치는 자세)



원본 설명: 우찬격세를 하되 우수우각으로 오른편을 비비어 찌른다.

임동규 선생님의 풀이: 우각을 구르며 우수좌각으로 오른편을 내려 베며 한 바퀴 돌고 우수좌각으로 한 번 더 내려친다.

나의 풀이: 우수좌각으로 앞을 향해 찌른다.

이유: 격(擊)자가 들어가서 치는 동작 같지만 원본에선 찬자(鑽刺, 비비어 찌른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찌르는 것으로 풀이했다.

3-20. 용약일자세(勇躍一刺勢, 날래게 뛰어 한 번 찌르는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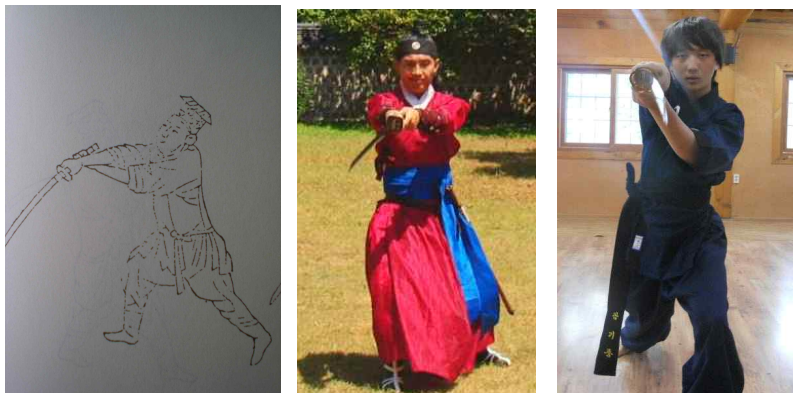


원본 설명: 오른편으로 돌아 용약일자세를 하되 우수와 좌각으로 한 번 찌른다.

임동규 선생님의 풀이: 한 걸음 나아가 뛰며 우수좌각으로 한 번 찌른다.

나의 풀이: 임동규 선생님과 같다.

3-21. 시우상전세(兕牛相戰勢, 외뿔소가 서로 싸우는 자세)



원본 설명: 인하여 시우상전세를 하되 우수우각으로 한 번 찌러서 마쳐라.

임동규 선생님의 풀이: 우수우각으로 앞을 한 번 깊게 찌른다.

나의 풀이: 임동규 선생님과 같다.

4. 비교결과

임동규 선생님의 해석과는 크게 다른 점은 없었던 것 같다.

맹호은림, 백원출동~ 용약일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조금 달랐다. 그런 차이점들을 보니 해석의 정확성과 연결성 등에서 임동규 선생님의 것이 훨씬 좋은 것 같다. 하지만 꼭 임동규 선생님 것과 같지 않더라도 다른 식의 해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비록 그 해석에는 그에 따른 주장과 근거가 확실해야 되겠지만.

후기

솔직히 말하면 결과는 별로 만족스럽지 못했다. 처음엔 사람들이 놀랄만한 재해석을 해서 펼쳐 보이는 게 목표였는데 한문 해석이란 영역이 직접 해보니까 애매한 부분도 많고 내 수준엔 너무 어려워 해석하기를 포기하려 했던 동작도 여럿 있었다. 그래서 그냥 중3수준으로 생각하자! 라는 식으로 목표치를 낮췄더니 어깨가 가벼워져 그럭저럭 앞길이 보였다. 그리고 발표 날을 며칠 앞두고 밤을 새워 논문을 거의 다 썼다. 하지만 기다리는 건 2차... 그거야 뭐 지금은 통과했으니까 됐다. 논문이 끝나버린 지금은 가슴에 응어리가 짝 풀린 느낌이다. 간디학교 6년 과정 중에 큰 프로젝트를 하나 끝냈다는 것과 논문을 쓰면서 얻은 그 분야의 지식과 풍부한 경험들을 생각하면 뿌듯하다. 정말 이번 논문은 경험하기 힘든 값진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아쉬운 점도 몇 개 있다. 내가 처음에 목표했던 것은 사람들이 좀 더 이 훌륭한 24반 무예를 검토나 태권도처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인식 개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선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그리고 누구나 내 논문을 보면 느낄 테지만 결론이 참으로 부실하다. 차마 내 입으로 결론이라 말하기 부끄러울 지경이다.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우리 학교에 조금이나마 24반 무예에 대해 알렸으니 됐다. 어찌 되었든 중요한 건 논문을 쓰면서 취미로만 하려고 했던 24반 무예를 이제 좀 더 깊게 고민해 보고 싶어졌다는 것이다. 짧은 기간이나마 24반 무예를 경험하고 논문도 써가면서 난 24반 무예에 대한 흥미가 더 생겼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잘하고 싶다. 앞으로는 논문에 큰 장애물이었던 나의 게으름을 탓하며 지금보다 더 부지런하고 땀샘 삶을 살고 싶다. 마지막으로 논문을 쓰면서 많은 분들에게 조언과 소소한 도움들을 받았다. 이 논문을 쓰는데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아! 같이 고통을 나눠가지며 논문을 쓰고 다가오는 논문 디데이를 열심히 꼬박꼬박 세준 우리 학년도 여러모로 고맙다. 그리고 논문 쓰는 과정에서 정부터 발표까지 꼭 지켜봐준 간디인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내년부턴 나도 논문 쓰는 애들 보면서 저땀 그랬지, 고생 좀 해라 이러면서 놀고 자빠져 있겠지. 아 기분 좋다.

별첨자료

-장기중 본국검 영상



이 름 : 최민현

성 별 : 남

혈액형 : O

한마디 : 없음.

그 외 하고 싶은 말 : 알아서 님들이 써줘요.

생태 건축에 대한 연구

제출자: 최 민현

지도교사: 김 태진

●목차●

I 서론

1. 논문의 동기
2. 논문의 목적
3. 연구방법

II 본론

1. 생태건축이란?
 - ①생태 건축의 정의
 - ②생태건축의 핵심
 - ③생태 건축의 장단점
 - ④생태건축의 사례
2. 생태건축에 기본
 - ①생태건축에 주재료들
 - ②에너지 효율을 위한 전략들
3. 주변의 생태건축
 - ①송영민선생님댁 리모델링과 인터뷰
 - ②경익호선생님댁 흙집과 인터뷰
 - ③김태진선생님댁 흙집과 인터뷰

III 결론

I 서론

1. 논문의 동기

내가 이 논문을 쓰게 된 이유는 예전에 조금 있던 건축이라는 관심이 학교에 와서 배운 자급자족이라는 것에 생각이 공통됐다. 졸업 후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싶어서 적어도 내가 사는 집은 내가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만의 집을 짓진 못하더라도 나중을 위해 이 논문을 쓰게 됐다.

2. 논문의 목적

이 논문을 통하여 간디인들이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자연중심에 생태건축의 중요성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과 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언젠가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라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3. 연구방법

* 참고자료

재미있는 건축이야기/루이스 헬만/

생태 건축 론 /임상훈/고원

흙과 통나무로 짓는 생태건축/강준모/발언

생태건축/임상훈/고원

자연친화 건축/임상훈/고원

생태건축 마을/임상훈/고원

건축을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그리다/서현/효형출판사

자연을 닮은 집짓기 /조지프 케네디, 캐서린 워넬, 마이클 스미스/뜨님

“녹색 성장이란 말 자체가 모순 생태위기는 사상스로 극복해야”/임석제/경향신문 2011년 9월17일 호

II 본론

1. 생태건축이란?

① 생태건축의 정의

생태건축이라는 말은 1979년 독일의 P.Krushe 가 환경부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의 제목에서 등장하였다. 여기서 생태건축이란 “ 자연환경과 조화되며 자원과 에너지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건강한 주생활 또는 업무가 가능한 건축”으로 정의 하였다.

1970년대 독일에서는 급속한 산업화에 의한 공해문제와 환경 파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문제가 되었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는 이에 대응책을 찾기 위해 다각적인 대대적인 대안이 모색되었던 시기임을 생각해 보면 생태건축의 탄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 세계적인 관심으로 확대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등장하였고 1992년 리우의 UN 환경회의⁷²⁾ 이후 건축분야의 새로운 개념으로 자리 잡는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다음 세대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지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 세대의 요구를 반영한 개발”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환경보전형, 친환경, 환경친화적, 그린, 그리고 생태건축 등 매우 다양한 이름으로 새로운 건축 개념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 간의 정확한 차이나 한계를 두는 것은 아직 정리되지 못

72) '지속가능발전 세계UN정상회의

한 채 연구에 따라 용어사용이 결정되고 있다.

② 생태건축의 핵심

일단 건축에 쓰이는 재료부터 알면 제조과정이나 차후 발생하는 오염이 적은 재료를 말한다.

예를 들면 페인트의 경우 기존에는 화학적인 재료를 많이 사용했지만 친환경 건축에선 자연에서 추출되는 자연 색소를 사용한다. 자연 색소에 접착력을 위해 송진을 사용하며 사용 후 폐기에 있어도 자연으로 환원될 수 있는 재료도 이에 속한다.

설계에 있어서 친환경 건축을 말하자면 주위 환경과 어울리는 즉 자연에 포함되는 건축을 말한다. 건축은 인위적인 행위에 속하는데 친환경 건축에서는 인위적이지만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중요하다. 또한 건축물의 운용에 있어 기계적인 측면보다 자연에너지를 주로 사용해야한다. 냉난방이나 공기조화, 조명등의 설비 면에서 화석에너지나 전기에너지 보다 태양열이나 설계에 의한 자연적인 공기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기정화에 있어 기계적인 시스템을 쓰는 것이 아니라, 대상지의 공기흐름을 파악하여 창을 내고 자연스럽게 창을 열면 공기가 순환하도록 하는 방법도 친환경 건축에 속한다. 태양 판을 설치하여 온수공급이나 난방에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에너지절약,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자연 환경의 보전,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보전,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 관리, 폐기까지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된 건축이다.

③ 건축의 장단점

생태 건축의 장점 :환경에 파괴를 최소화 한다, 유지비용이 매우 조금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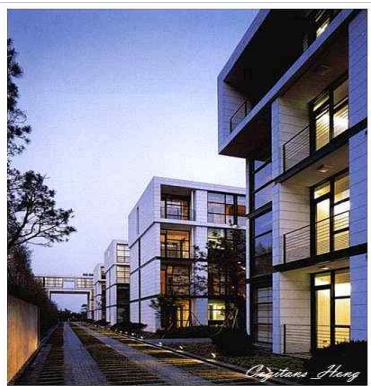
생태 건축의 단점 :현대 기술로는 보급될 수 없다, 건축 시공에 어려움이 있다.

④ 생태 건축사례

1. 씨프 빌모트

빌모트 마을 이라는 뜻으로 장 미셸 빌 모트와 테트라 건축사 사무소 소장 임상관씨의 공동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의 기본 컨셉은 '자연 속에 건축'으로 초기설계부터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의 자연을 최대한 느낄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들자가 모티브다.



2. PAPERTAINER (페이퍼+컨테이너)조립식 종이 건축으로 유명한 일본 건축가 시게루 반이 설계.

353개의 거대한 종이 기둥과 166개의 컨테이너 박스가 벽과 지붕이 된 건축물.

이곳 은 미술관으로 언제든지 해체해서 다시 조립할 수 있는 이동식 건물.

철과 콘크리트를 이용하지 않아 건축폐기물 발생할 경우가 없고, 종이기둥은 수백겹의 종이를 붙여서 만들어 방수처리 되었다.



3. NEXT 21 (넥스트 21)

일본 오사카. 도시형 집합주택으로 총 18호 중 16호가 거주용, 2호가 전시용으로 활용되고 있음. 환경공생주택, 환경보전적 설계, 에너지 절약시스템, 내장재 시스템의 새로운 설계요소 도입.

* 건축면적은 1,534 제곱미터 (건폐율60%⁷³⁾), 연면적 4,577 제곱미터 (용적률 300%⁷⁴⁾)

*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 총 공사비는 약 250억원.

* 인공녹화, 실내녹화, 옥상 녹화 등 열 부하를 고려한 식재

~ 옥상과 테라스 등을 이용하여 녹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1~6층까지 녹화 테라스를 설치함.

~ 연못조성, 곤충 및 소동물 서식처 조성, 옥상에 새집을 조성하여 조류들의 서식처 제공 등.

* 액티브 솔라 시스템과 패시브 솔라 시스템 활용 - 에너지 절약과 자연에너지 이용



73) 건폐율은 해당대지에 건축한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땅 100평에 건축면적이 20평이면 건폐율이 20%가 된다.

74) 용적 율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에서 대지 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즉, 각층 바닥 면적이 많을수록 용적 율이 많아진다.

4. 켄양

IBM 말레이시아 에이전시 본부건물, 말레이시아 쿼라룸푸르에 위치.
생태기후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외형 디자인을 하게 되었고,
자연의 빛과 전망들을 주변에 위치한 작업 공간 쪽으로 끌어들이도록 함.



5. 카와찌나가노 키도 주택단지

5.4 ha의 면적의 일본 오사카의 주택 단지.

친환경 아파트 단지 설계 공모전에서 특선 안으로 당선된 공영주택단지.

공영주택 200호, 공공 임대주택 270호 총 470호

* 지붕에 설치한 풍력발전장치를 이용하여 비상경보설비의 에너지로 활용

* 단지내에 도로는 빗물이 그대로 침투되는 재료로 포장되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빗물을 지하 저장조에 저장시켜 두었다가

여름에 아이들 물놀이나 식재관리 등에 사용

* 옥상에 화초를 심어 정원으로 꾸미고, 열섬 방지 및 냉방 시 에너지 절약 효과를 꾀함.



2. 생태 건축의 기본

① 생태건축의 주재료들

1-1 자연 재료

흙이나 나무, 돌 같은 소재로, 원재료를 채취하여 절단, 연마 등 간단한 물리적 가공만을 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으로 천연재료는 재생산이 가능한 곳에서 공급받고 제품화 과정이 간단하여 그 생산에 필요한 오염이 적다. 자연스러움을 주고 사람에게 무해하여 환경 친화적 건축에서 가장 좋은 재료가 된다. 그러나 모든 천연재가 인공재보다 좋은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환경적 대가를 치르게 됨으로 선택 시 반드시 이를 생각해야 한다.

1-2 지속가능한 재료

지속가능한 재료는 재료로 자체가 훼손이 되지 않고 썩지 않는 재료를 세대를 교체해도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을 말한다. 이러한 재료로 대표적인 것은 스틸⁷⁵⁾과 동판, 알루미늄 등 금속재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제품은 깨질 위험이 없고, 다양한 형태를 연출할 수 있으며, 같은 용도로 지속적으로 재사용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재활용 할 수 있다.

폐기에 대한 환경 부하가 없고 지속 사용이 가능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환경 친화적 재료이다. 그러나 초기 생산 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유독성 물질을 사용하여 환경에 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 스틸 하우스가 지속가능한 건축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는 스틸을 사용함으로써 구조재의 재사용율이 60%이상이며 분리수거가 가능하여 쓰레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틸하우스는 금속재를 유용하게 가공하여 건축재로 사용하면, 환경, 경제, 관리, 공간 활용 면에서 여러 이점을 주는 재료라고 할 수 있다.

② 에너지 효율을 위한 전략들

* 액티브 솔라

태양열을 흡수하여 동력을 통해 사용하는 기계적인 힘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액티브 태양열방식이라고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를 패시브 태양열방식이라고 한다.

하이브리드⁷⁶⁾ 태양열주택은 지붕의 태양열 집열기로부터 마루 나 물탱크로 열을 운반하기 위해 펌프를 사용하므로 패시브 솔라가 아니고 액티브 솔라 이다. 더운 공기를 운반하기 위해 송풍기를 사용해도 동일한 액티브 솔라 이다. 하이브리드 2개에 동력을 이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

* 패시브 솔라

패시브솔라에 대표적인 예로는 다이렉트게인⁷⁷⁾ 이나 그린하우스형 등이 있다.

패시브솔라 만으로는 날씨에 영향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있으나 자연현상을 거스르지 않고 공생해 나간다는 의미에서는 매력적인 시스템이다. 하이브리드 태양열주택과 같이 약간 기계적으로 쾌적성을 만드는 시스템을 메인으로 하고, 여기에 식재를 통한 나무그늘효과나 다이렉트게인 등을 병용하는 방법이 있다.

* 다이렉트 게인

남쪽의 창으로부터 유입되는 태양열을 방의 돌이나 콘크리트 등 축⁷⁸⁾열 성이 있는 마루나 벽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 그린 하우스

집의 남쪽에 온실을 만드는 방식으로, 다이렉트 개인과 트럼프 벽을 조합하여 태양열을 이용합니다. 동시에 원예⁷⁹⁾도 즐길 수 있다. 또한 등나무에 포도나 담쟁이 등의 재배를 사용한 나무그늘효과도 패시브솔라 라고 할 수 있다.

3. 주변의 생태건축

①송영민선생님 님 리모델링과 인터뷰

송영민선생님 집 탐방

인터뷰 날짜 :11/14

집주인 소개 : 송영민 (제천간디학교 살림터 교사 / 학부모)

이집을 인터뷰한 이유 : 가장 최근에 집을 리모델링했고 집이 옛날 집을 리모델링해서 해봤다.

1.덕산 같은 곳 도 있는데 당장 살지 못하는 지금 집으로 이사한 이유는 ?

학교 주변에 집을 찾다가 근처에 사는 은하샘이 집이 비었다고 해서 당장 계약했다.

75)강철(steel)

76) 2개에 동력을 이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

77) 태양에서 직접 열에너지를 얻는 구조

78) 열을 저장하는 것

79) 내부에서 (울타리로 두른 것도 포함) 작물을 키우는 것 (비닐하우스 등 에서 작물을 키우는 것)

2.리모델링을 하는데 어느 정도 걸렸나요?

벽체 ,바닥을 뜯는데 3일 필요 없는 나무기둥 제거하고 바닥을 매우고 시멘트 굳이는 데 2일 천장, 벽체 붙이는데 10일 전기공사, 수도배관, 하수도배관 설치 10일 전기 배관이 잘 못 되서 다시 하는데 1일 외부 하수관 공사 3일 외벽 창고 뜯는 데 1일 상수원 보호구역 오수, 하수관 연결공사 3일 화장실 타일 변기 설치 1일 장판도배 4일 쓰레기 태우기, 정리, 청소 1일 보일러 공사 1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휴식15일 총60일정도 걸렸다. 처음 예상시간은 30일 정도 예상했지만 인력부족으로 60일정도 걸렸다.

3.리모델링을 할 때 어디에 가장 중심점을 두고 리모델링 하셨나요?

뒷방과 부엌 거실은 열이 최대한 안 빠져 나가게 창문을 작고 적게 만들었다.

대청마루와 작은 방은 그냥 뒀다.

4.리모델링 후의 가장 좋은 점이나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집이 깨끗하고 따뜻해지고 사람들이랑 모여서 이야기 할 공간이 생겼다.

5.리모델링 하며 어려웠던 점과 리모델링 비용을 말씀해 주세요.

원래 살았던 집주인이 두고 간 물건을 치우는 것이 어려웠고 비용은 처음 도와주시기로 한분들이 인건비를 안 받는 다고해서 예상으로는 3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했는데 다시 받는 다고해서 인건비 200만원 재료비350만원 정도 들었다.

6.리모델링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과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할 것 인가요?

리모델링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없고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계획을 철저히 하고 혼자 할수 있는 부분은 혼자 해보고 싶다.

7.학교에서는 생태적 삶을 지향하는데 친환경적이지 않은 리모델링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이 부족했고 돈도 많이 들기도 하고 가장 큰 이유는 빌린 것이라 돌려줘야 돼서일 것이다.

영민선생님 집에 대한 나의 생각

인터뷰에서 보듯 영민쌤은 집을 만든 게 아닌 리모델링했다.

영민쌤 집에 기둥과 토대는 전통한옥은 아니지만 한옥에 성질을 뒀고 있고 처음 시공 시 풍수지리에 신경을 써서 만든 집 인듯하다 문은 남향으로 나있고 북쪽으로는 산이 찬바람을 막아 주는 구조다. 영민쌤이 리모델링 하면서 많이 현대식으로 고쳐서 현 상태로는 친환경 건축물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외관과 집터, 온돌 등 한국식 건축을 따르고 있어 한국식 건축물이라고는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한국식 건축물이지만 친환경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저 내부는 현대식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외부사진



내부사진

②경익호선생님 댁 흙집과 인터뷰

경익호선생님 집 탐방

인터뷰 날짜 :11/15

집주인 소개 : 경익호 (제천간디학교 농사교사)

이집을 인터뷰한 이유 : 현재 짓고 있는 집이기도 하고 황토로 짓는 친환경적집이라 인터뷰 했다.

경익호 선생님의 흙집 건축

1. 지금 사시는 집도 있으신데 왜 흙집을 짓게 되셨나요?

나무를 때서 소여물도 만들고 할 겸 그리고 지금 사는 집은 심야 전기를 사용해서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온돌방을 지어서 겨울에는 온돌방에서 자는 형식으로 해서 난방비를 줄일 것이다.

2. 집을 지으실 때 특별히 생각한 형태가 있으셨나요?

원래는 저축 방법으로 짓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짓지는 못했다. 그러나 황토 집은 만드는 도중에 뜯어 고칠 수 있어서 모양은 크게 신경을 안 썼다.

3. 어떤 재료를 쓰셨나요? 그리고 그 재료를 어디서 구했나요?

황토, 나무, 돌, 생석회, 모래, 짚

나무는 평소에 준비를 해두었고 돌은 주변에서 툴툴이 구했다. 흙을 반죽할 때 사용한 모래와 짚은 마을에서 구했다

4.여러 가지 건축 재료들 중 흙집으로 짓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고 온돌을 이용해서 난방을 함으로 열 효율성이 좋을 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땀감나무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난방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지었다.

5.흙집을 지을 때 가장 중점에 두고 지으신 것이 무엇인가요?

집이 따뜻하게 난방과 단열에 중점을 뒀고 온돌이라서 건강에도 좋고 주변에서 땀감 나무를 쉽게 구할 수 도 있어서 난방비용이 적게 들게 하는 것을 중점으로 뒀다.

6.집을 지으면서 어려웠던 점이 뭐가 있나요?

딱히 없다 예전부터 관심이 있던 거라 천천히 차근차근 만들어서 크게 힘든 점은 없었다.

7.집을 지으실 때 호자 지으셨나요?

기둥 세울 때 가끔 학부모님이나 동네 주민 분 들이 도와주고 흙 바르는 것이나 나머지 것들은 혼자 했다.

8. 앞으로 흙집 건축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딱히 할 말은 없고 만약 주변에서 짓게 되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

경익호 선생님 집에 대한 나의 생각

경익호 선생님 같은 경우 흙집을 짓는 이유가 난방비가 비싸서 소여물도 만들 겸 불을 지펴 집을 대피는 한옥 형 흙집을 짓고 계시고 있다. 경익호 선생님 같은 경우 생태건축의 정의의 맞게 주변에서 구 할 수 있는 재료들을 최대한 활용했으며 환경에 해를 끼칠만한 재료도 쓰지 않았다. 경익호 선생님의 흙집은 창문이 많아서 여름에는 바람을 잘 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집이 크지 않아 겨울에 떨감 나무를 떨 때 많이 때지 않아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외관



내관



③김태진선생님댁 흙집과 인터뷰

김태진선생님 집 탐방

인터뷰 날짜 :11/21

집주인 소개 : 김태진 (제천간디학교 미술교사)

이 집을 인터뷰한 이유 : 태진쌤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친환경적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인터뷰 했다.
김태진선생님 댁의 흙집 건축

1.이곳에 집을 짓게 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전부터 시골에 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 그러다가 간디학교에 와서 지어 보게 되었다.

2.여러 가지 건축 재료들 중 흙집으로 짓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처음에는 그냥 집을 지으려다가 간디학교에 와서 생태에 관심이 생겼고, 10 여년 전 헬렌이어링의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라는 책을 읽고 많은 감명을 받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집을 짓는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 흙집이 주는 안락함과 따스함, 부드러움이 좋아서 흙집을 짓게 되었다.

3.흙집에 살면서 편한 점이나 불편한 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편한 점은 흙과 나무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습도 조절이 잘되고 단열성과 통기성이 뛰어나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나 상쾌하고 기분이 좋다. 불편한 점이 있다면 흙집은 살면서 계속 보수를 해야한다는 점인데, 사람도 나이를 먹으면 늙어가듯이 집도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낡아지는 것이

라 가끔 손을 보면서 살겠다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크게 불편한 점을 없다고 본다.

4. 흙집에 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좋으세요?

가장 좋은 점은 건강에 좋다는 것이다. 그리고 살수록 정이 든다는 것과 편하다는 것, 그리고 오래 있어도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고 포근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집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5. 흙집을 지을 때 가장 중점에 두고 지으신 것이 무엇인가요?

하자가 없는 집, 살수록 편안하고 안락한 집

6. 흙집의 모양이 둥근 형태인데 특별한 이유나 의도가 있으세요?

직선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것이라고 말한 작가가 있다. 아파트와 같은 직선의 집을 매우 싫어해서 가능하면 직선 느낌이 나는 집을 짓고 싶지 않았다. 자연에는 직선이 없는데. 가장 자연스러운 집을 짓고 싶어 지붕과 벽도 가능하면 둥글게 하려고 노력했다.

7. 흙집을 지으면서 어려웠던 점이 뭐가 있나요?

비가 올 때와 끊임없이 해야 하는 마무리 작업. 그리고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일손이 극히 부족했던 점.

8. 흙집에 들어간 재료는 어떤 재료들을 쓰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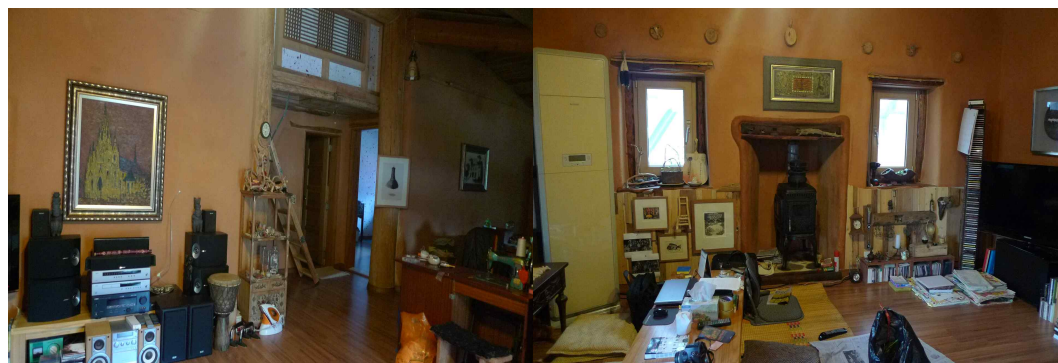
황토, 흙, 돌과 나무, 모래, 석회, 시멘트 등

9. 흙집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은 어디서 구하셨나요?

돌과 나무 그리고 황토는 주변과 고창에서 구했다.

10. 앞으로 흙집 건축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너무 급하게 짓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남이 지어주는 집에 사는 것도 좋겠지만 가능하다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지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태진 선생님 집에 대한 나의 생각

김태진 선생님댁의 경우는 건축에 사용한 재료도 돌이나 나무, 흙 등 친환경적인 재료들을 사용하였고 건물의 형태까지도 최대한 주변의 자연환경에 어울리게 지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리고 정원도 꾸미고 집 주변에 많은 나무를 심고 유기농으로 텃밭을 가꾸기도 한다. 단순히 생태적인 흙집만 지은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계속 가꾸어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Ⅲ 결론

학교근처에는 학부모 또는 교사 외에도 집을 지으시거나 앞으로 짓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도 좋을 뿐 아니라 자연과 환경을 살리는 생태건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생태건축은 일반 건축에 비해 시공기간이 길고 친환경적인 재료들을 사용해야 하므로 높은 건축 비용과 건축 공정 또한 까다롭고 복잡한 경우가 많아 쉽게 건축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학교주변에 흙집을 지은 선생님 댁이나 리모델링을 한 선생님 댁을 방문해 인터뷰도 해 보았지만 생태적으로 건축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인 콘크리트 건축을 하는 실정이라 환경문제가 극히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아직 생태건축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면도 있고 전문적인 생태건축가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앞으로 널리 보급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태건축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점점 생태건축이 활성화 되리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자연과 환경을 살릴 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생태건축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 판단된다.

개인적으로 이번 논문을 통해 생태건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갖게 되었으며, 앞으로 사람과 자연환경을 살리는 생태건축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 름 : 최소은

성 별 : 여

혈액형 : A형

한마디 : 논문 쓸 때는 힘들고 답답해도 완성하면 개운함.

생년월일 : 1996년 3월 16일

좋아합니다♥ : 나의 빛과 소금, 내가 영원히 사랑하고
응원할 13개의 별 Super Junior♥ 내 친구들~(사랑하는
우리반♥) 가족(엄마, 아빠, 동생)

이상형 : 지금은 친근한 사람이 끌림(버스커버스커 장범
준, 슈퍼주니어) + 피아노 잘 치는 사람 + 노래 잘 불러
주는 사람 + 목소리 좋은 사람

좋아하는 노래 : 슈퍼주니어 노래, 달달한 노래(절대 오그
라들지 않고 달달한...)

청소년 미혼모 인식개선 방안연구

-어린엄마들을 위한 이야기-

제출자 : 최소은

지도교사 : 김정환

-목차-

I 서론

1. 논문의 동기 및 목적
2. 연구 방법

II 본론

1. 청소년 미혼모 실태조사
 - 1) 미혼모의 정의
 - 2) 미혼모 현황
 - 2-1) 미혼모 시설 현황
 - 2-2)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실태
 - 3) 네티즌들이 생각하는 청소년 미혼모
2. 간디인들이 바라보는 청소년 미혼모
 - 1)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 간디인들이 바라보는 청소년 미혼모
3. 청소년 미혼모 인식개선 방안
 - 1) 청소년 미혼모 인식개선 방안연구
 - 1-1) 연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제안
 - 1-2) 간디인들에게 프로그램 진행
4. 프로그램 진행 후 후기

III 결론

부록

1. 고마운 사람들
2. 인터뷰 내용

I 서론

1. 논문의 동기 및 목적

간디학교에 들어와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내가 관심 있게 봐왔던 부분이 있었다. 바로 사회에서 소외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나와 비슷한 연령대이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다.

그리고 이 논문을 계기로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사람들 인식을 개선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한다. 또한 나는 이 논문을 통해 청소년 미혼모들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 볼 것이다. 또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이나마 변화 시키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 참고서적

별을 보내다/대한사회복지회 엮음/리즈앤북

2) 영상 및 사진

MBC휴먼다큐멘터리 사랑 <엄마의 고백>

SBS그것이 알고 싶다 715회<선생님,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고3 임신부 해원이의 선택>

영화 <제니, 주노>, <시선1318 중 릴레이>

3) 참고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yoo21/memo/60139061009> (이 세상 소풍)

<http://blog.naver.com/bluebirdinme> (낙태 예방을 위한 성교육)

위드맘 홈페이지-<http://withmom.mogef.go.kr>

4) 설문조사

간디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서 진행할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얼마나 인식이 바뀌었는지 알아본다.

5) 인터뷰

경상남도미혼모지원센터에 메일로 인터뷰를 해서 지금 미혼모시설은 충분한지 무엇이 더 필요한지, 청소년미혼모들이 힘들어하는 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6) 기타-기사

서울신문 11.5.13 기획/연재 면 <미혼모 ‘현주소’는…해마다 6500명이상 늘지만 정부 지원책은 ‘제자리’> (윤샘이나 기자)

서울신문 11.5.6 사회 면 <‘미혼모’ 명칭 퇴출 된다…’주홍 글씨 미혼모에 새 이름을’> (윤샘이나 기자)

서울신문 11.5.13 기획/연재 <‘미혼모 인식개선 거리캠페인’ 가보니> (김소라 기자)

서울신문 11.5.24 사회 면 <[미혼모, 이제 색안경을 벗자] 복지 선진국 미혼모 정책> (윤샘이나 기자)

서울신문 11.6.3 사회 면 <[미혼모, 이제 색안경을 벗자] (4) 당찬 그녀들의 희망 메시지> (백민경 기자)

연합뉴스 11.4.5 <졸업생 첫 배출 ‘미혼모 대안학교’> (김연정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11.7.29 <늘어가는 미혼모, 더 나은 ‘양육 환경’ 필요> (이미경 기자)

헤럴드경제 11.9.19 <“청소년 미혼모... 여전히 학교에서 외면당해”> (양대근 기자)

Ⅱ 본론

1. 청소년 미혼모 실태조사

1) 미혼모의 정의

미혼모의 사전적 의미로는 결혼을 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낳은 여자를 말한다. 또 정부 규정에서는 그녀에게 아기를 임신하게 한 남자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별거, 이혼, 사별, 본 남편 외의 아기를 가진 여성의 경우에도 포함시킨다. 즉, 미혼은 물론 기혼까지 포함시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결혼 경험이 없고 아직은 혼자서 사회를 살아가기 힘든 청소년미혼모를 중심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2) 미혼모 현황

서울시 한부모지원센터에 따르면 국내 미혼모는 해마다 6,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995년 9만4,000명이었던 미혼 한부모가 2000년에는 12만3,000명, 2005년에는 14만2,000명으로 늘었다. 2010년에는 한부모 가족 추산치인 149만 명 중 19만6,000명이 미혼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듯 아직 한국에서는 미혼모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다. 이 모든 것이 짐작일 뿐이다. 그 이유는 한국이 미혼모를 보는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그들이 공개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연도별 미혼모 연령변화>

(단위:%)

연도별	10대	20대	30대	계
1980년대	24.9	73.2	1.9	100
1990년대	52.7	43.6	3.6	100
2000년대	53.5	43.6	2.8	100
2008년대	30.6	31.8(20-24) 20.9(25-29)	16.7	100

(출처-현안보고서 제 89호 (양육미혼모관련 정책방안과 개선방안))

위의 표를 보면 1990년대와 2000년에는 10대 청소년 미혼모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2008년대는 조금 줄어든 모습이다. 그리고 점점 30대 미혼모도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설 입소한 청소년양육미혼모>

	1998	1999	2000	2001
미혼모대비양육미혼모비율	7.2(105)	8.3(123)	8.6(124)	11.0(172)
10대미혼모비율	22.9(24)	35.7(44)	27.4(34)	40.7(70)

(출처-08늘푸른포럼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삶과 미래-청소년양육미혼모실태조사보고))

몇 년 전만 해도 청소년 미혼모들은 양육보다 입양을 선택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혼모들 중 아이를 입양보내기보다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시설 애란원의 경우 1년에 80여 명이 입소하는데 이중 80퍼센트가 양육을 택한다고 한다. 그러나 나이가 어린 청소년 미혼모들은 출산할 때까지 입양과 양육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아직은 양육을 하는 청소년 미혼모들이 어떤 식으로 학업과 양육을 같이 해 나가야 하는지 풀지 못한 문제가 많다.

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에서 청소년 양육미혼모들에게 월 15만원정도 지원은 해 주고 있지만 이것도 최저생계비 150%이하 (2인가구 기준 1,360,245원) 에만 적용이 된다.

2-1) 미혼모 시설 현황

미혼모 시설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지원부분이 청소년 미혼모에게 필요로 하는 시설이다.

(1) 미혼모자시설-전국 32개

입소대상 : 미혼의 임신부 및 출산 후(6월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2)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전국 24개

입소대상 :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지만 시설은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생활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힘들어 질수도 있고 시설마다 가능한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그리고 대부분 지방지역보다는 수도권지역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지방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미혼모들에게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2)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실태

청소년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면 학교 측은 대부분 휴학이나 자퇴권유를 하게 된다. 하지만 청소년 미혼모들은 계속해서 배우고 싶어 하고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추억을 새기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학교는 그들에게 차가운 반응뿐이다. 그 이유는 다른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다. 이렇듯 청소년들에게 배움을 가르쳐야 할 교사조차도 학교 명예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와 다른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내쫓는 상황이다. 먼저 인권위원회의 하나의 사례를 보자.

<인권위원회 진정사례>

진정인(46세, 피해 학생의 어머니)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딸(A양)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안 학교측이 자퇴를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자퇴했으나 학업을 지속하고 싶다” 는 취지로 2009. 4. 2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학교 보건교사는 2009. 4. 13. 입덧으로 괴로워하는 A양을 우연히 발견하고 담임교사와 이를 의논했는데, 이튿날 담임교사와 3학년 부장교사는 A양의 어머니를 학교로 불러 “임신한 상태로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 며 “교장 선생님이 아시면 당장 퇴학이다” 라며 의사 결정을 독촉했다.

동석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항의하자 학교 측은 “미성년자를 임신시켰으니 (남자친구를) 형사고발할 수도 있다, 여학생이 임신한 행위는 징계(퇴학)감이다” 라며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조치 할 수 있도록 정한 A양이 재학 중이던 여자고등학교의 생활규정을 제시했다. 진정인은 결국 자퇴원을 제출했고, 학교 측은 4. 17. 자로 피해자를 자퇴처리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권위는 “임신이유로 자퇴강요는 차별”이라고 권고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자퇴를 강요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해져 있는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행위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 3조에서는 “[헌법] 제 3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4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7조도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의 유능한 성원이 될 동등한 기회를 아동에게 제공해야 한다.” 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의 취지를 볼 수 있듯이 학습권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 인격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학습을 할 고유의 권리로서 기본권적 인권 중에서도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나 은폐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던 청소년 미혼모에게도 학습권을 침해 할 수 없다.

그 이후 인권위는 학교장에게 “당사자 학생을 재입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교육청 교육감에게는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조치와 재학 중 임신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할 것”을 권고했다. 그렇게 인권위의 권고 이후 학교는 당사자 학생을 7월 13일자로 재입학 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미혼모 시설에 있는 청소년 미혼모 73명을 조사한 결과 47%는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17%는 중학교를 중퇴하는 등 중퇴와 휴학으로 85%가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 미혼모들의 95%정도는 '학업을 계속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서는 예전만큼 함부로 학생들을 휴학이나 자퇴시키지 못한다고 한다. 또 어린나이에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아서 학업을 포기하려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 미혼모들을 학업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설립된 미혼모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 인정받은 미혼모 대안학교도 있다. 이런 미혼모 대안학교의 특징은 학생 미혼모로서 위기 학생들에게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안 학교로 출석일수를 적용해 원래 학교에 복귀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학업이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 대한 검정고시 교육 병행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와 달리 미혼모대안학교에 학생은 거의 없다. 아직 미혼모 대안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청소년들도 많고 재학생 신분이어야 정규 학력을 인정받는 대안학교를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대부분 검정고시를 치르거나 아예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미혼모 시설과 연계하여 학업을 지속한 청소년 미혼모들도 중학생 25명, 고등학생 36명으로 61명이 전부이다. 물론 2009년 중학생 3명, 고등학생 1명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수치지만 실제 미혼모 수에 비하면 학습을 지속하는 학생은 부족하다. 아무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힘쓰고 있다지만 아직은 부족한 면이 많은 부분이 사실이다. 또 혼자 검정고시 준비를 하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를 위해서 연 154만원과 고교생 교육비 실비를 지원해 준다. 하지만 이 지원도 최저생계비 150% (2인가구 기준 1,360,245원) 만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아직도 청소년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제대로 된 학습권 보장은 받지 못하고 있다.

3) 네티즌들이 생각하는 청소년 미혼모 (출처-다음 아고라)

네티즌들은 청소년 미혼모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알아보았다. 주제는 ‘미혼모 질타의 대상인가, 보호의 대상인가’ 였다. 미혼모라고 해서 모든 미혼모를 포함하는 줄 알았지만 조금은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글도 있었다.

그 중 총 234개의 글 중에서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글 들을 제외한 165개의 글들을 정리해 보았다.

이슈 목록 원글 마했글

기획토론 주최: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관: 미혼모지원단체협의회

미혼모! 질타의 대상인가, 보호의 대상인가

한국에서 미혼모, 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혼모가 되는 순간 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낙인, 생활고라는 삼중고를 떠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슈 피카기

한국에서 미혼모, 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혼모가 되는 순간 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낙인, 생활고라는 삼중고를 떠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9년 실시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미혼모는 동성애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차별을 경험하는 집단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다음 아고라 기획토론-미혼모 질타의 대상인가, 보호의 대상인가			
부정적인 글	긍정적인 글	기타	총
51	43	71	165

처음에는 글을 읽으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모두 비슷한 비율로 보였는데 글을 끝까지 읽어보니 아직은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았다. 우선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글은

진정 자식을 위한다면 그 아이를 낳아서의 아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낳아서 자기의 아버지를 부끄럼 없이 또는 아버지에게 자식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자식이 아버지를 원할 때 같이 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것은 미혼모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낳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낳은 한쪽이 어째서 대단한사람이 될 수 있나요??

자식의 앞날은 생각지도 못한 극이기주의산 낳은 아이를 책임지지 못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사회 전체로 돌아 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아이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커가야 합니다. 결국 자신의 행위가 사회전체에 민폐를 끼치게 되는 거지요.

라는 글이 있었다. 이 글과 함께 ‘미혼모는 개인의 선택이다’, ‘미혼모는 이기주의다’, ‘미혼모는 사고를 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필요는 없다’, ‘피임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긍정적인 의미가 담긴 글은

미혼모에게도 꿈 이란 게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 있을 터인데 그런 것 모두 포기해가며 아이를 반쪽짜리 인생이 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사랑하며 키우는 것인데, 박수를 쳐 주기는커녕 질타한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자식 있는 부모라면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미혼모도 미혼모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위대합니다. 미혼모도 그 위대한 어머니들 중 하나입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어려운 외길을 선택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은 주지 못할망정 손가락질 하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과 ‘생명을 지키고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다’, ‘미혼모는 용기 있는 여성이다. 세상에 대면하는 어린엄마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그 외 다른 기타의견에서는 ‘청소년기에 성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질타의 대상도 보호의 대상도 아니다’, ‘질타

와 동시에 보호도 필요 하다’,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낙태를 합법화 시키자’,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자’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이것을 보아 네티즌들은 여러 가지 필요한 한국정책이나 사람들의 인식개선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아직은 부정적인 반응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간디인들이 바라보는 청소년미혼모

1) 간디인들이 바라보는 청소년 미혼모

간디인들이 청소년 미혼모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일시 : 2011년 10월 1일 오전

설문 대상 : 제천간디학교 재학생

응답 현황 : 1학년 (20명) 2학년 (16명) 3학년 (17명) 5학년 (13명) 6학년(13명) 총-78명 응답

설문 문항 :

1. 청소년 미혼모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1) 용기와 책임감이 있는 사람
- 2) 청소년 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한 사람
- 3)별 다른 생각 없음
- 4)기타-

1-1.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만 답변해주세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 1) 도덕적이지 못하다
- 2) 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청소년기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 3) 청소년들이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4) 한부모만 있다는 것은 나중에 아이가 커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 5) 기타

1-1-1. 위의 답변에 이유를 적어주세요

-

2. 만약 내가 미혼모나 미혼부가 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지금 나이에)

- 1)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
- 2) 아이를 낳지만 키우진 않는다 (입양, 위탁)
- 3) 낳지 않을 것이다
- 4) 모르겠다
- 5)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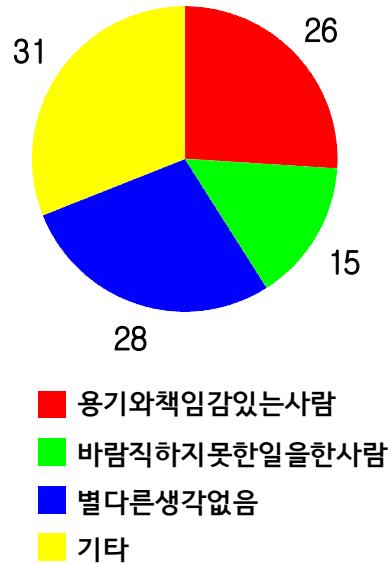
2-1. 위의 답변에 이유를 적어주세요

-

<여학생들 통계-총 38명 (다중선택 포함)>

1. 청소년 미혼모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소년미혼모를어떻게생각하나요?



기타의견으로는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책임감은 있는 것 같다.

-용기가 있다고 생각도 되고 벌써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한다.

-청소년 시기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지만 그래도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의도하지 않게 생긴 일도 끝까지 책임지는 대단한 사람,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응원을 주지만 스스로 자신의 실수를 되새김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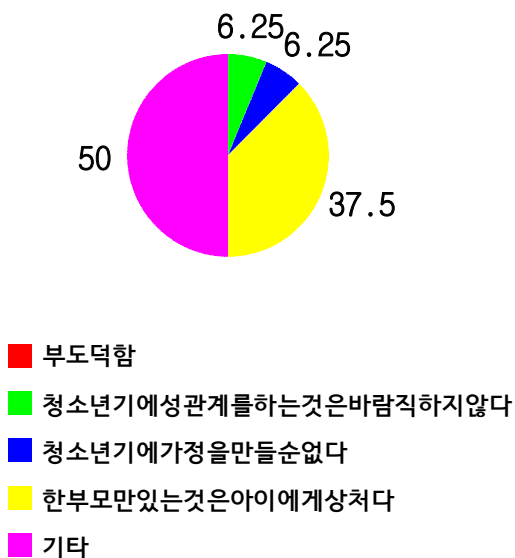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생각이 안 든다.

-안쓰럽다, 바람직하진 않지만 책임감은 있는 사람

-한 순간의 실수이고 피임방법을 모른다. 등 많은 의견이 나왔다.

1-1.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만 답변해주세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부정적으로바라보는이유



기타의견-특별히 성관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에게 미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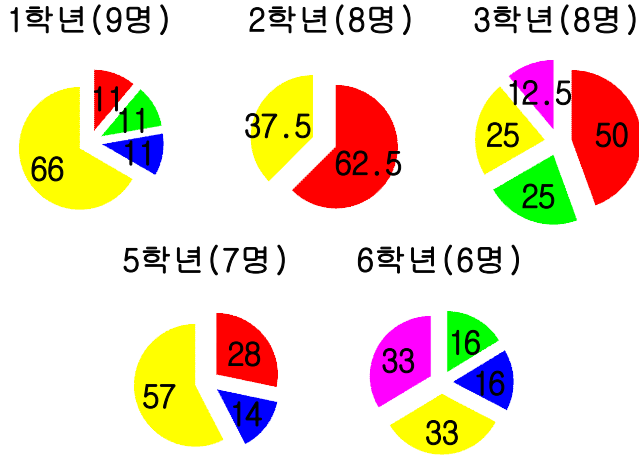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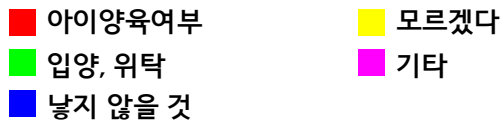
-성관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아이를 책임 질 수 없는 나이이에도 피임을 하지 않았다

-자신이 원해서 미혼모가 된 사람은 극히 드물다, 자신이 원하던 미래와 떨어진 것이 안타깝다

이 설문결과를 분석해보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5% 정도 된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타 의견 다음으로 한부모만 있다는 것이 아이에게 상처라고 답했다. 그 이유는 엄마와 아빠가 있는 균형적인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이가 힘들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각이 미혼모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아이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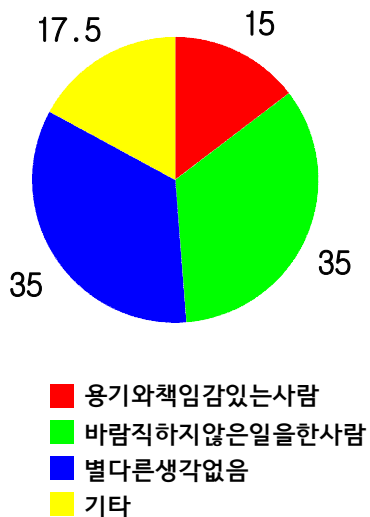
2. 만약 내가 미혼모나 미혼부가 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지금 나이에)

만약내가미혼모,미혼부가될상황이라면



1학년은 아직 어리다보니 청소년 미혼모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잘 모르겠다고 하거나 키우더라도 책임을 지지 못 할 것 같다는 내용이 많았다. 그리고 2학년은 생명을 존중하고 미래에 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해서 직접 양육하겠다는 의견과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대다수 였다. 그 다음 3학년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리고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충분한 애정은 있겠지만 내가 키우기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의견과 청소년기에는 책임감이 부족해서 아이를 망칠 것 같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5, 6학년은 비슷한 부분이 아직 일어나보지 않은 상황이라 상상이 안 간다고 했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낳지 않겠다 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차이점은 5학년은 직접 양육을 한다고 한 사람도 있고 6학년은 기타의견으로 미혼부와 함께 책임을 나눈다는 색다른 의견이 있었다.

청소년미혼모를어떻게생각하나요?



<남학생 통계-총 40명 (다중선택 포함)>

1. 청소년 미혼모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타의견으로는
- 부주의 한 것 같다
- 긍정적으로도 생각되고 부정적으로도 생각된다
- 용기와 책임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약간 부정적인 감이 있다
- 안타깝다
- 굳센 엄마 등으로 답했다.

1-1.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만 답변해주세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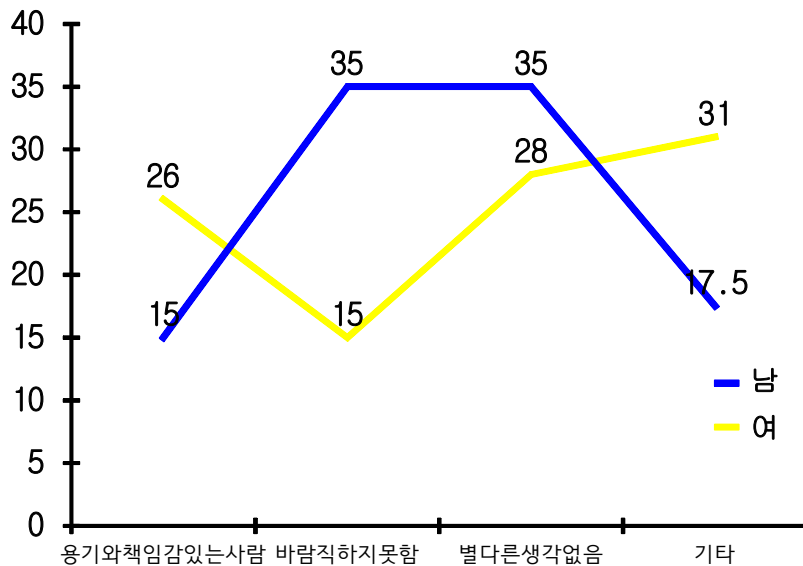
기타의견은

-성관계 전에 미리 피임약이나 피임도구를 준비하고 가졌어야 한다

-능력도 없는데 아이까지 키우면 힘들다

<남·여 반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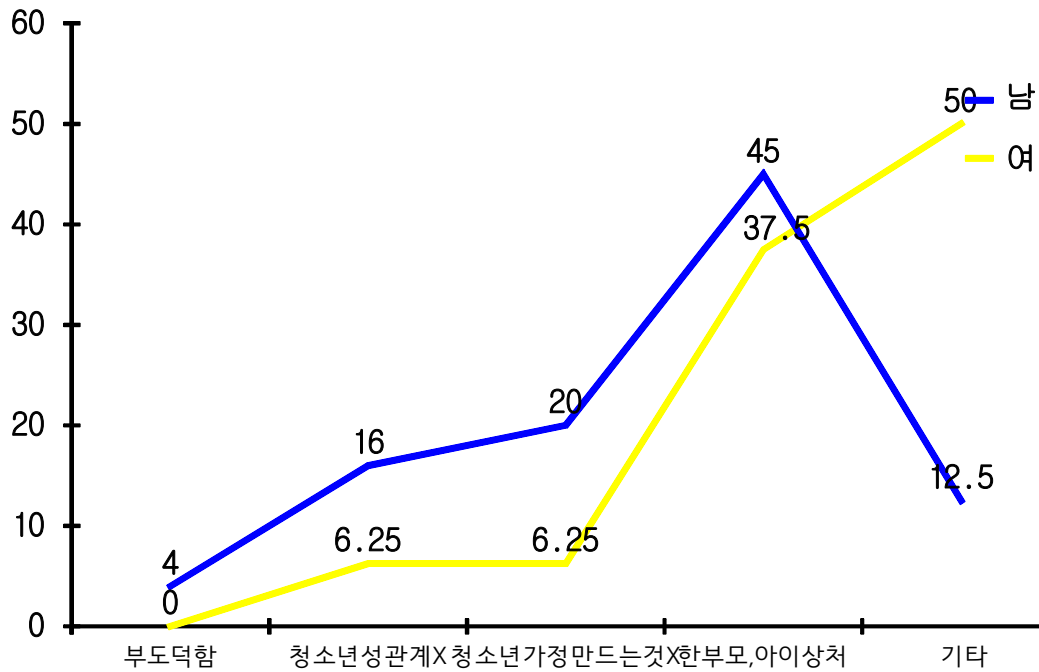
청소년미혼모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남학생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이라는 답변이 별 다른 생각 없음과 함께 많이 나왔다. 그리고 여학생들 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남학생들도 여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한 부모만 있다는 것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여학생들과 이유는 조금 다른데 청소년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를 버릴 것 같다,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 밑에서 자란 아이가 제대로 클까 라는 우려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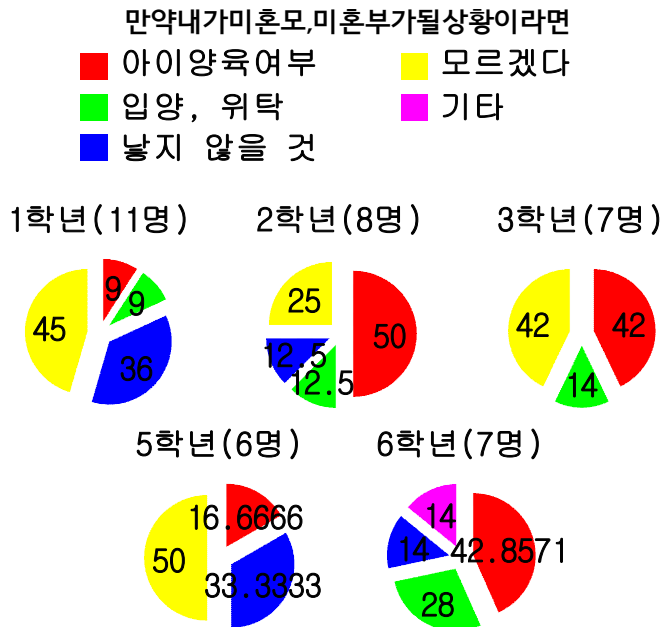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이 설문조사 통계를 보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은 부정적인 인식이 15% 정도 되는 반면, 남학생은 35% 정도로 20%가 더 많았다.

또 이 그래프를 보면 남·여 모두 한부모만 있다는 것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답이 제일 많았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엄마와 아빠가 있는 균형적인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이가 힘들 것이다,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 밑에서 자란 아이가 제대로 클까, 청소년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를 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한다. 사람들은 미혼모에게 부정적인 이유가 ‘아이가 상처 받을까봐’ 즉,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어서 이다. 이 말 한마디 속에 ‘혼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데…….’ 라는 말들도 숨어있다. 대체적으로 보면 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양육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만약 내가 미혼모나 미혼부가 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지금 나이에) (3학년 1명
무응답)



정리를 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그 중에서도 2, 3학년들은 대부분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겠다고 했고 1, 5학년들은 낳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6학년은 다양한 의견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

2) 청소년 미혼모 인식개선 방안연구

간디인 설문조사 결과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남·여학생 모두 ‘한부모만 있다는 것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그 이유는 ‘엄마와 아빠가 있는 균형적인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이가 힘들 것, 청소년이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도 않아서 형편이 어려워질 때는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 할 것 같다’ 라는 이유였다. 즉, 간디인들은 한 부모가정의 아이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 청소년이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은 다르게 인식시켜주어야 한다.

우선, 크게는 정부에서 청소년 미혼모들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아직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미혼모들을 위해서 아이양육비, 검정고시나 학교를 위한 학습비, 그 외 자립을 위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모든 청소년 미혼모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 외의 사람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 미혼모들은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들도 제대로 알지 못해 청소년 미혼모, 한부모에게 퇴자를 놓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스웨덴의 경우 청소년들의 성경험의 나이가 이른다. 그리고 스웨덴은 자녀가 있으면서도 정식으로 결혼한 가구는 전 가구의 1/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며 동거부부, 독신모, 미혼모가 더 흔하다.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3명 중의 1명이 미혼모에게서 태어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물론 미혼모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가 있기도 하지만, 스웨덴은 미혼모나 사생아가 비난의 대상이 아닌 동거부부나 독신모, 미혼모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인 경우에도 국가에서 학비지원, 탁아시설 등을 통해 자녀양육의

부담을 최소화해 일반 학생들처럼 생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동안 아이들을 돌봐줄 보육시설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다면 더 이상 청소년 미혼모, 즉 한부모만 있어도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다고 조금은 인식이 개선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알려주어야 한다. 덴마크의 경우도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미혼모 수용도가 높은 나라이다. 그래서 미혼모, 미혼부의 동거를 결혼으로 간주하기 시작해서 다양한 가족형태 중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경향이다. 그리고 오히려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이 덴마크 특징 중 하나이며 통계청에서는 미혼모, 미혼부의 동거를 결혼으로 간주한다. 특히 혼외에 출생한 아이의 아버지, 즉 미혼부로 확인 될 경우 16세 이상의 남성이 법적으로 부양책임을 져야 하는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는 여성보다도 오히려 남성들이 미혼부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된다. 그리고 사전적으로 가족이란 부부같이 법적으로 혼인관계이거나 부부와 자녀가 이루어진 구성원 또는 집단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 이 사회에서는 점점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부·모 중에서 한 사람과 미혼의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정, 혈연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은 입양가정, 부·모 없이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조손가정, 싱글족·독거노인 등 혼자 사는 1인가정, 초혼이 아닌 재혼으로 맺어진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부모만 있다고 해서 부·모 중 한 명이 없다고 해서 절대 불행한 것이 아니다. 가족의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받는가, 서로 얼마나 의지가 되고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과 성문화, 피임법을 알려주고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수업이나 기간마다 지속적으로 할 만한 성교육이 있어야 한다. 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관계라는 것이 10대라고, 청소년이 한다고 해서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것인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대만의 경우를 보자면 우리나라 보다 학생 미혼모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래서 대만은 2007년부터 ‘중·고등학생 출산휴가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임신한 학생들에게 56일 동안의 출산휴가와 최고 2년의 육아휴가를 보장하는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사회적으로 격렬한 찬반 논란을 일으켰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다. 대만의 양성평등교육법(2004)을 보면

-학교는 적극적으로 임신한 학생이 교육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의 휴가 신청은 공적인 휴가, 사적인 휴가, 병가 산전휴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양육휴가, 생리휴가 및 복상휴가로 나눈다.

이렇게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법안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대만에서는 임신한 학생이 아기를 낳겠다고 결정하면 아기를 낳기 전 과정, 출산, 출산 후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학교에서 협조를 해준다. 그리고 대만의 산부인과 중에서 청소년 지원 산부인과가 10개가 있는데 이곳은 청소년 전용 진료실이 있다. 청소년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꺼리기 때문에 제대로 검사받지 못한다는 점과 청소년들이 가급적 스트레스를 적게 받게 하기 위해서 라고 한다. 사실 대만도 이 정책이 생기기전에는 한국과 비슷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정책이 생기고 난 후에는 임신한 학생의 수가 늘지도 않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법률이 통과된 후 임신한 학생을 강압하던 학교의 관념이 바뀌었다고 한다. 이렇듯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중·고등학생 출산휴가제’를 우리나라에서도 한번쯤은 고려해 봐야한다.

2-1) 연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제시

프로그램 이라고 해서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한다. 우선 사람들과 함께 가족의 형태에 관한 영화를 본다. 영화를 보고나서 영화를 본 후 소감이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생각의 변화가 생겼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전시와 함께 캠페인을 해 본다. 해외에는 청소년미혼모를 위해 어떤 제도가 있는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그리고 미혼모의 자녀의 사례도 몇 가지 전시하고 작은 캠페인도 해 본

다.

2-2) 간디인들에게 프로그램 진행

총 2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먼저 전시와 함께 작은 캠페인을 했다. 캠페인은 2층 만광에 대자보 하나에 글을 쓰고 기사 스크랩 4개 정도를 했다.

<캠페인 전시 중>



<가족의 탄생 포스터>



그리고 토요일 오전 시간에는 <가족의 탄생> 이라는 영화를 봤다.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나오는 사람 모두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거의 없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얽히고설키면서 그들은 점점 가족이 되어간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가족을 보여줌으로써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화의 의미와 내 기대와는 달리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각자 동아리 활동도 있었고 학급행사가 있어서였다. 그리고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은 6명 정도 되었다. 영화가 지루했거나 각자의 수업활동이 있어서 끝까지 보지 못한 사람도 많았다. 그래도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들은 내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고 가족이라는 것이 꼭 피가 섞이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4. 프로그램 진행 후 후기

캠페인과 영화시청을 진행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다. 하지만 내가 캠페인을 할지 다른 활동을 할지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 나의 홍보부족 때문인지 생각보다 저조한 사람들의 참여가 아쉬웠다. 그리고 캠페인과 영화를 고르는 과정이 참 어려웠다. 캠페인과 영화를 그냥 내 마음대로가 아닌 내 설문 결과와 방안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캠페인에 기사 하나를 스크랩 할 때도 이 기사가 내가 말하고자하고 개선시켜야 할 부분인건지를 고민했다. 그리고 영화선택은 더 중요했다. 영화내용이 내가 생각한 내용과 맞는지 영화가 너무 지루하지는 않은지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 물론 영화내용은 괜찮았지만 시간이 조금 긴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진행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나름 만족하고 있다. 홍보부족으로 저조한 사람들

의 참여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지만 영화를 끝까지 다 봐준 6명의 사람들의 소감 중 5명은 대체적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에 고정관념이 깨졌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개선되었다고 본다. 물론 내가 생각한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시키진 못했지만 소수의 사람이라도 조금 개선된 점에서 만족한다.

III 결론

아직은 청소년미혼모를 바라보는 인식이 긍정적이기 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은 편이다. 이 사실은 간디인들의 설문조사 통계에서도 알 수 있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조금 더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한편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비슷했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한부모만 있다는 것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고 제일 많은 의견이 나타났다. 나는 그런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인식개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또 미혼모 시설의 느낌을 알기 위해서는 미혼모 시설도 방문해 봐야 했는데 연락하는 곳마다 거절을 당해서 가보지 않은 점도 나의 한계였다. 그리고 나의 홍보 부족 때문인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아서 아쉬웠다. 그래도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은 인식개선이 되었다. 처음에 생각하던 가족의 형태와 달리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다고, 가족이란 단어의 고정관념을 깬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우선 크게 생각하자면 정부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나라도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이라는 것을 통해 경제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 미혼모들이 지원받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아직은 혼자 사회에 다가가기 어려운 청소년미혼모들을 위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양육환경과 아이를 양육해 나가는데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이 학교와 함께 그들의 학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그 동안 아이들을 돌봐줄 보육시설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다면 더 이상 한부모여도 아이를 잘 자랄 수 있다고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답변이유가 청소년은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잘 키워나갈 수 없다는 이유가 많았기 때문이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경우 미혼모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와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같은 국가제도가 있어서 학생인 경우에도 국가에서 학비와 탁아시설 지원을 통해 아이양육부담을 최소화해서 일반 학생들처럼 생활 할 수 있다.

그 다음 가족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사전적으로나 지금 우리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 가족의 형태는 법적으로 부부관계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하지만 사회가 변하면서 가족의 형태 또한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 부모가정도 한 가족의 형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까 말했듯이 스웨덴과 덴마크는 정부에서 정한 국가제도도 있지만 우리나라와 제일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미혼모, 독신모, 동거부부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오히려 정식으로 결혼한 가구는 적은 편이다. 이렇게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미혼모나 사생아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과 성문화를 알려주고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수업이나 정해진 기간마다 지속적으로 할 만한 성교육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피임법과 건전한 성문화를 알려주고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대만은 2007년부터 ‘중·고등학생 출산 휴가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임신한 학생들에게 56일 동안의 출산휴가와 최고 2년의 육아휴가를 보장하는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사회적으로 격렬한 찬반 논란을 일으켰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렇듯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함께 우리의 인식도 조금씩 변화되어야 한다.

부록

1. 고마운 사람들

밤늦게 논문 쓸 때마다 간식과 음원을 해 주신 수자쌤과 정상쌤!

그리고 논문 쓰느라 피곤&스트레스도 받았지만 그래도 서로 알게 모르게 열심히 응원해 준 하 나
뿐인 우리반♥ 내가 우울하거나 걱정할 때 옆에서 웃음으로 기분을 풀어준 지은이, 논문 쓰면서도
별 신기한 이야기나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준 수정이, 논문 쓰면서도 같이 고민이나 수다를 떨어준
만자, 논문 쓰는데 컴퓨터 자꾸 만지작거리서 가슴 졸이게 한 수용이, 가끔 논문이라고 허브포푸리
향기 맡아보라고 한 상연이, 자꾸 버스 페인트칠 할 때 도와달라던 수열이, 자꾸 옆에서 논문 다 썼
다고 자랑했던 한솔이, 지치고 조용한 전산실에 활기참을 불어준 현준이, 작품하나 하면 바지에 실
밥이 엄청나게 붙어있는 실밥 인기녀 여사, 같은 방이었는데 방 청소도 잘 안했지만 흥흥거리는 웃
음을 전염시켰던 홍이, 우리 2학기 반장님과 동시에 논문 쓰는데 힘들었을 종화, 초록머리를 휘날리
며 테이블위의 전쟁실 꾸민다던 매생이 친구, 생태건축을 한다고 미니어처 만드는 민현이, 찌끄만한
걱정인형 만든다고 수고한 록리, 연극 연습 못 했다고 걱정하더니 연극 완전 잘 끝낸 현정이, 지 혼
자 열심히 멋진 춤추고 논문 마무리한 치사한 현영이, 우리들 일화로 4컷만화 그리는 지영이, 24반
무예 할 때 다른 사람 같이 느낄 정도로 멋있는 기종이 모두모두 수고했고 사랑해요~! 아! 자기도
논문 쓰고 싶다고 염장 지른 채현이와 옆에서 논문 어떻게 되어 가냐고 물어봐준 세영이도 많이 많
이 고마워요~♥

논문 쓸 때 내가 많이 찡찡대고 투덜거리려도 묵묵히 논문을 봐 주신 지도교사 정환쌤~미안하고 감
사해욧!

그리고 만날 때 마다 논문 어디까지 했냐고 물어봐준 아빠, 엄마 감사해요+논문 쓰는데 옆에서 자
꾸 컴퓨터자리에서 비키라고 했지만 결국은 조금씩 컴퓨터자리 양보해 준 동생 고마움~

이메일로라도 인터뷰를 받아주신 경상남도 미혼모지원 센터분들 감사합니다!

우리반 여자애들 공부방에서 밤늦게까지 논문 쓰는데 시끄러워도 참아준 여자기숙사 사람들&우리
201호 고운이·하린이^^, 새로운 방 203호 예림이, 권수정씨, 다연언니, 다모언니~

필리핀에서 편지도 보내주고 여러모로 힘이 되고 도움을 많이 주었던 종은언니!!

논문 핑계로 자주 활동 하지 못한 생리통&생리통회장 권수정씨 죄송합니다.

논문 핑계로 또 자주 신경써주지 못한 일상다반사 죄송해요..앞으로는 열심히 하도록 노력 할게
요~

그리고 모든 간디인 1학년, 2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쌤들!!!! 언제나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언제나 봐도 힘이 되고 내가 영원히 응원하고 사랑할 13명의 우주대스타들 슈퍼주니
어!!!!!!!!!!!!!!!!!!!!!!

스트레스 속에서도 논문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나!!

모두모두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해요~!!

2. 인터뷰 내용

Q. 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A. 이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번거롭겠지만 참고해주세요.

Q. 지역마다 미혼모 시설이 충분한 편인가요?

A.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경상남도는 생명터, 통영 신애원, 김해 희망모자원 3군데는
공동생활가정(미혼모와 엄마가 함께)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산전미혼모가 입소할 수
있는 생명터 미혼모자의 집과 통영 엄마와 아기 2군데가 있습니다. 더 많은 미혼모와

아기를 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긴다면 좋겠습니다.

Q. 미혼모 복지시설에서 부족하거나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A. 효율적인 업무 진행과 더 많은 서비스를 미혼모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미혼모복지를 실천하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10대 미혼모나 미혼모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나 인식이 어떠한가요?

A. 과거 차별적이고 편견 가득한 시선이 많이 나아졌다하지만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선이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Q. 미혼모 인식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나요?

A. 현재 본 센터에서는 미혼모 인식 개선을 위해 한국여성재단후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크게 5가지로 ①찾아가는 인식캠페인 ②거리 캠페인 ③포럼 ④표어공모전 ⑤찾아가는 인식교육 나누어집니다. 이 사업들은 일반인, 사회복지관련자, 미혼모 직간접 관련자들에게 실시되고 있으며 판넬 전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인식개선 및 본 센터의 홍보까지 다양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Q. 주로 10대 미혼모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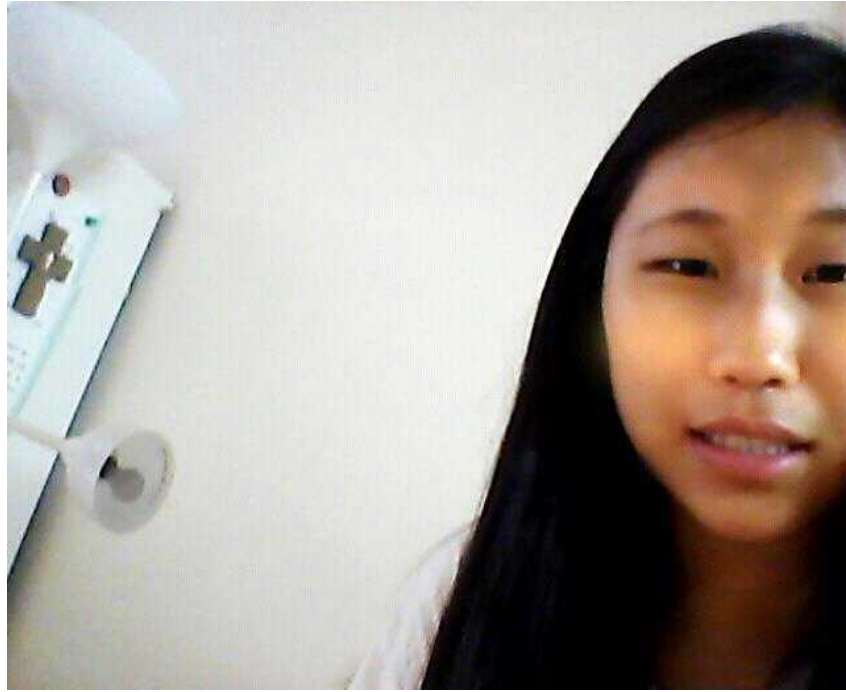
A. 예상하시다시피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며 그 외에 가족과의 관계, 주위 시선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청소년 미혼모에게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자립지원 이나 여러 가지 지원들이 충분한 도움이 되고 있나요?

A.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의 경우 홍보의 부족으로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들도 제대로 알지 못해 청소년 미혼모, 한부모에게 퇴자를 놓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지원액 같은 경우 2011년도 신규가입을 받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자립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저의 대답이 논문을 작성하는데 미비하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질문에 대한 답은 저의 주관적인 답변으로 미혼모복지를 실천하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이 아님을 주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 055.243.0233)



이 름 : ❀전수정❀

성 별 : 女女女女女. 나 여자라고

혈액형 : 대문자 B 세개

생 일 : 9월의 크리스마스 이브

좋아하는 것 : Coldplay, Katy Perry, Lady gaga, Adele, 피아노,
리스트아저씨, 엄마아빠오빠언니수인이,우리스트♡♡♡

싫어하는 것 : 추운 것

이상형 : 귀여운 남자. 키는 나보다만 크면 되는데 성격과 얼굴은
귀여운 남자 한마디로 양요섭

키 : 164CM

몸무게 : 5.....kg ^ㅎ^ 5키로잉.

좌우명 : 거울을 들여다보는 동안 부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거울
을 부술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바꿔야 한다.

한마디 : 좋아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관심 없는거면 얼마나 더
힘드리... 하... 논문 열심히 하길 바란다. 내 꼴 마지 말고. 마지

막으로 불법다운로드 하지 말고 ₩SO BEAST₩

도넛에 담은 나의 이야기

- 작곡과 음반제작-

제출자 : 전수정

지도교사 : 김경수, 장희숙

목 차

I. 서론

1. 논문의 동기
2. 논문의 목적
3. 연구방법 및 제작방법

II. 본론

1.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 1-1 최초의 녹음
 - 1-2 음반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2. 음반 제작 과정
 - 2-1 작곡
 - 2-2 레코딩
 - 2-2-1 사용된 기기
 - 2-2-2 녹음 방법
 - 2-3 앨범 디자인
3. 작품 소개

III. 결론

1. 작품의 한계
2. 이 작품을 통한 나의 성장과 다짐

Thanks to

I. 서론

1. 논문의 동기

나는 음악을 사랑한다. 노래를 부르는 것도, 연주를 하는 것도, 작곡을 하는 것도. 하지만 그만큼 음악을 사랑하지만 나 개인이 노력하거나 작품의 흔적을 남긴 건 없었다. 그 흔한 피아노 곡 하나조차 완성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내가 음반을 만들거나 작곡을 하는 거는 나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다. 내가 음반이라니.

그러나 제천간디학교를 재학하면서 나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은 음악이었다. 간디학교로 진학 하면서 음악이 나에게 큰 존재로 다가온 것이다. 그와 동시에 고민까지도 다가왔다. 다른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진로에 대해서 대체로 빠르게 생각하는 간디인 이기 때문에 나 역시 고민이 되었다. 하지만 음악이 나와 함께 계속 갈 것이라는 걸 알았기에 진로로 고민해봤지만 취미로도 음악은 충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사실은 도전해보고 싶었다. 과거에는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연주가, 녹음 엔지니어 등 각 분야별로 참여 인원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지만 컴퓨터 음악시대인 오늘은 이 모든 것 혼자서 해내고 있다. 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싶었다.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더러 자신감조차 없었다. 용기는 없으면서 욕심만 많았다. 아직 어리기도 하였고 내가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였다. 3학년으로 진학할 때 까지도 나에게서는 아직 자신감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논문을 통해서 기회가 생겼다. 처음에는 논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막연하고 힘들다고 생각했었다. 맞는 말이 것 같긴 한데 간디인이 내 작품에 관심을 가져줄 때가 이 기회라고 생각한다. 기회가 생겼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으로 내 주제를 잡고 싶었다. 그것도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총집합된 음반이라는 주제로!! 지금 내 상태는 실용음악이나 클래식이나 싱송생송한 마음도 있고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그동안 학교에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도 음악이었고 그 후에도 고민할 것이 음악이었기에 나로서는 조금 뻘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2. 논문의 목적

우선 ‘나’에게 초점은 두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겪어왔던 슬프고 기뻐던 감정들, 내 생활 또는 내 주변인의 생활. 이런 ‘나’를 노래로, 음반으로 담고 싶다. 어떤 부분은 간디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나 혼자만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담고 있기도 하였다. 또한 이 음반이 간디학교 학생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도 간디학교 생활을 담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이 음반은 나만의 싸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내가 보기에 내가 감당하기에는 큰 주제를 잡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아마추어가 음악을 만들 때 최저의 예산을 써서 최고의 음악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한다. 최고의 음악을 이 음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은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까하는 마음가짐으로 앨범제작을 해본다.

3. 연구방법 및 제작방법

* 참고도서

SONAR 7|최이진 저|노하우 도서출판

홈스튜디오 만들기|최이진 저|혜지원

박선주의 HOW SONG|박선주 저|위즈덤하우스

예술 고등학교 음악이론|윤경미 저|현대음악

경음악 편곡법|길옥윤 저|세광음악출판사

알기 쉬운 음악통론|조효임 · 이동남 · 주대창 공저|태림출판사

* 참고사이트
<http://ko.wikipedia.org/> 위키피디아
<http://www.midiuser.net/> 미디유저넷
cafe.naver.com/midimania/ 네이버카페 미디매니아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1814 네이버캐스트- 음반과 레코딩
http://cafe.daum.net/ok1221?t__nil_cafemy=item 쪽뽕카페 작곡가 Jade. 님의 글
postsecret.blogspot.com/ 포스트시크릿

II. 본론

1.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1-1 최초의 녹음

최초의 녹음은 발명왕 에디슨이다. 1877년 에디슨은 자신 앞에 있는 나팔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노래했다. 하지만 에디슨의 목소리는 그냥 책 읽는 것처럼 들린다고 한다. 이 음원은 어쿠스틱 나팔에 대고 큰소리로 노래하고 그것에 의한 공기 진동을 얇은 금속 막에 받은 후, 연결되어 있는 바늘을 통해 왁스가 입혀져 있는 원반이나 원통을 긁어서 간신히 소리를 기록하던 녹음 법이었다. 에디슨은 처음에는 유언을 남기거나, 시각 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을 의도했을 뿐 음악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용도로는 거의 생각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1925년 마이크로폰-마이크를 사용한 전기 녹음법이 고안됐다. 공기 진동을 마이크에 의해 전기 정보로 변환해 전자기 장치로 원반에 수록하는 기술 체계가 비로소 갖추어졌다. 이때에 쓰이던 미디어는 셀락⁸⁰⁾ 재질로 된 78회전 SP 음반⁸¹⁾으로 내구성이 약했다.

그리고 1948년에 LP가 등장했다. 플라스틱-염화비닐 재질로 된 LP⁸²⁾는 SP에 비해 장시간 동안 오디오 바늘을 견뎌낼 수 있는 내구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테이프 녹음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였다. 원반에 바늘을 대고 최초의 녹음(다이렉트 커팅)을 했지만 테이프로 원본을 녹음한 방식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음원 편집이 용이해지게 됐다는 걸 말해준다. 1950년대 말에는 바이노럴⁸³⁾ - 스테레오 음반이 상품화됐다. 스테레오 LP의 시대는 지금도 추종하는 애호가들이 많이 있을 만큼 ‘하이 피델리티’⁸⁴⁾ 취미의 궁극이라 할만 했다. 하나의 카트리리지⁸⁵⁾(바늘을 포함한 입력부)로 2개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당시로서는 첨단의 시스템이었다. 이후 스테레오 LP의 낭만시대는 30여 년 이상 계속되었다. 그 이후, CD로 대표되는 디지털 레코딩의 등장이었다. 디지털 녹음에 대한 시도는 1940년대부터 있어왔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진전이 없다가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녹음기술의 혁명으로서 다가왔다.

1-2 음반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일반적인 시장에 팔리고 있는 음반의 경우는, 녹음제작은 크게 레코딩, 믹싱, 마스터링 3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음반이 만들어지려면 우선 음반을 녹음할 아티스트가 있어야 한다. 아티스트 계약과 동시에 A&R(Artist & Repertoire) 프로듀서가 음반제작의 전반에 세심하게 관여를 하게 된다. A&R 프로듀서는 음반의 콘셉트를 정한다. 뿐만 아니라 선곡과 곡의 배치, 소비자들에게

80) shellac, 니스를 만드는 데 쓰이는 천연수지

81) Short Playing. 연주 시간은 25cm반에서 편면 3.5분 이하, 30cm반에서 편면 4.5분 이하이다.

82) Long Playing.

83) binaural, 방향 특성을 가진 2채널 사운드 시스템. 소리의 입체감을 넣어서 2채널이지만 5.1채널에 공간감과 입체감을 낼 수 있다.

84) 고충 실도. 앰프나 라디오, 레코드, 테이프 레코더 같은 것에서 재생되는 음이 원음에 충실하고 음역이 넓으며 왜곡이 없는 것

85) 레코드플레이어 픽업(pickup)의 한 부분. 레코드 홈과 접촉하는 바늘 끝, 진동을 전기로 변환하는 발전 기구, 이들을 결합하는 캔틸레버로 구성되어 있다.

어필할 수 있는 기획과 편곡, 그에 따른 스태프 구성에까지 기획을 하게 된다. 녹음 장소 헌팅 및 채택도 그의 몫이다. 그리고 녹음에 들어간다. 녹음 제작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곡을 구성하는 각 악기의 연주 혹은 한 악기를 여러 마이크로 녹음하는 레코딩, 이런 각각의 소스들을 하나로 섞는 믹싱, 그리고 믹싱한 소스를 발매할 음반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성하는 마스터링이 그것이다. 즉 마스터(master, 원본)를 제작하는 것이 레코딩의 목적이 되겠다.

D/A 컨버팅⁸⁶⁾ 기술은 계속 발달했기 때문에 기존의 녹음을 좀 더 원래의 음질에 가깝게 디지털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리마스터링 작업을 거친 관현악 녹음을 들어보면 좀 더 두터운 음색이나 투명한 음색, 저역이 살아나는 등 이전 녹음과는 다른 독특한 특색이 귀에 들어오곤 한다. 녹음과 리마스터링에 있어서 ‘톤 마이스터’라 불리는 음향 엔지니어의 역량이 요구된다. 레코딩이 완성된 후 A&R 프로듀서나 음반사 직원들이 패키징을 해서 출시하게 된다. 재킷 디자인의 인쇄, 음반의 라이너노트(해설지) 등은 마스터 완성 단계 즈음에 이미 진행이 되어 있거나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음반사의 일은 직배사의 경우 본사 음반을 마케팅해서 판매하고, 자체 기획의 경우 디자인과 라이너노트의 인쇄, 음반점에 진열되기까지 모든 과정에 힘써야 한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도 자료를 써서 언론사에 돌리고 라디오 광고 카피도 쓰는 홍보력, 때로는 CD 박스 옮길 때의 ‘힘’(?)도 필요하다.

2. 음반 제작 과정

2-1 작곡

컴퓨터 음악시대인 지금은 컴퓨터 하나만으로도 좋은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기술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업이 되었다. 내가 방학 때나 가정학습을 이용해서 공부를 꾸준히 했지만 솔직히 아직 작곡을 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처음할때에는 이론이니 화성학이니 뭐니 하며 작곡하기가 두려워서 며칠 동안은 작곡에 손을 놓고 있었다. 그렇게 그냥 무의미한 방학을 보내다가 어쩌다 작곡의 대한 정보를 얻는 곳에서 이런 글을 봤다. ‘음악을 창조하는 것은 음악을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 말을 듣고 음악을 틀었다. 그리고 집중해서 그 노래를 해석해보았다. 가사랑 형식이랑 멜로디라인이랑 장르 등을 한국한곡씩 해석하다 보니까 조금씩 귀가 뚫리는 듯 했다. 그날부터 차근차근 작곡을 해나갔다. 곡을 하나하나씩 해석했던 게 나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멜로디가 생각나면 핸드폰 꺼내서 녹음을 하고 좋은 가사가 떠오르면 적고 피아노로 연주해 코드를 찾고 반주도 만들고 가사도 쓰고 해서 곡이 하나하나씩 완성되었다.

2-2 레코딩

2-2-1 사용된 기기

1 - 스피커 or 모니터링 헤드폰

소리에 민감한 직업이기 때문에 음색을 파악해 정확한 음을 잡고 세세하게 연결하고 믹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

2 - PC (Sequencer)

작곡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장비이다. 아무리 좋은 악기를 사용해 녹음을 해도 컴퓨터의 사양이나 그 컴퓨터로 어떤 VSTi⁸⁷⁾를 구동시키느냐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난다. 좋은 사운드를 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PC의 사양이 높아야 한다.

시퀀서란 여러 가지 악기를 배합 및 조절, 그리고 음을 배치시켜서 연주가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북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듯.

3 - 신시사이저 (Synthesizer)

각종 악기의 음색을 자유로이 합성하여 연주할 수 있는 전자 악기. 대형 음향 합성장치. 전자회

86)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

87) VST instrument. 악기 없이 소프트웨어로 소리를 구동하는 가상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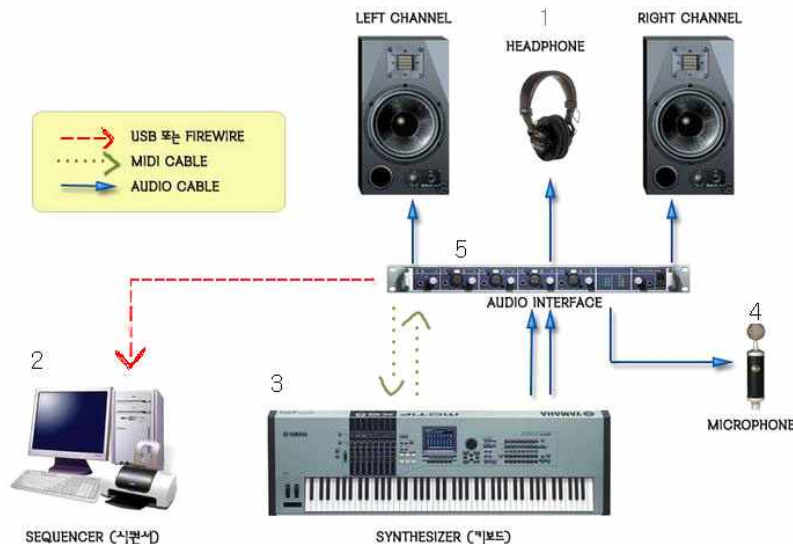
로⁸⁸⁾에 의한 장치로 스튜디오용의 큰 규모의 것부터 소형 건반악기풍의 것까지 다양하다. 작동 방식에 따라 아날로그 신시사이저, 디지털 신시사이저, 소프트웨어 신시사이저로 나눌 수 있다.

4 - 마이크 (Microphone)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이다. 음파 또는 초음파를 받아서 그 진동에 따른 전기신호를 발생하는 장비이다.

5 - 오디오 인터페이스 (Audio Interface)

마이크를 이용해서 녹음을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장치이다. 또한 PC사양이 아무리 좋아도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헤드폰이나 스피커를 연결해 듣는 거랑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사운드 카드로 듣는 거랑은 천지차이라서 오디오 카드가 없으면 좋은 소리를 만들지 못한다. 곡 음질의 가장 핵심적인 장치.



2-2-2 녹음 방법

- 1)컴퓨터의 마이크와 악기들을 이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한다.
- 2)프로그램을 열고 메트로놈을 켜 정확한 박자에 맞춰 비트메이킹을 한다.
- 3)피아노로 반주나 멜로디를 잡아준다.
- 4)기타나 베이스도 연결해 녹음한다.
- 5)다른 악기들도 넣을게 있으면 가상악기를 이용해 넣는다.
- 6)반주가 다 만들어 지면 보컬을 녹음한다.
- 7)보컬까지 마치면 곡을 정리하고 믹싱을 한다.
- 8)이렇게 하면 녹음한 것들이 합쳐져 곡이 완성된다.

2-3 앨범 디자인하기

배경은 색채들이 합쳐진 모습이고 앞면에는 빨간 꽃이 있는 디자인이다. 앨범 제목은 ‘꽃, 겨울가을여름봄’으로 정했다. 이 디자인은 앨범제목이 ‘꽃,겨울가을여름봄’이니 만큼 디자인이 앨범제목과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디자인으로 결정하고 작업했다. 원래는 5시 48분에 맞춰진 시계로 앨범표지⁸⁹⁾를 하려했으나 직접 일러스트로 그리기에도 무리가 있고 사진을 잘라서 작업하기에도 내 능력이 부족했다. 그래도 앨범 디자인은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신경을 많이

88) 전자 소자에 전류가 흐르도록 전기 전도체를 연결해서 목적에 맞게 동작하도록 하는 회로.

89) 5시 28분은 한 사람의 인생을 시계로 봤을 때 16살의 시간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에서 인생을 시계로 나타내는 걸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써서 작업했다.



이건 앞면 디자인이다. 전체적으로 배경은 색들이 오묘하게 섞여있는 바탕을 선택해 만들었고 오른쪽 아래에는 빨간 꽃이 배경과 잘 어울리게 자리잡아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 앨범제목인 ‘꽃, 겨울가을여름봄’ 이 적혀있다. 인화지로 인쇄를 했다.



이건 CD표지이다. 표지는 간단하게 앞면의 배경만 넣어서 하단에 앨범제목을 적었다. 라벨지로 인쇄를 해서 CD에 붙였다.



뒷면이다. 뒷면 역시 배경을 전과 똑같이 했고 옆에서 보일 부분에만 앨범제목을 적었다. 인화지로 인쇄를 했다.

3. 작품 소개와 활용

제목 : 음악실

artist 전수정

composer 전수정

genre new age

이 곡은 음악실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다가 문득 바로 옆에 있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온 곡이다.
감성적인 느낌이 좋다.

제목 : 혼자두지 않을게

artist 전수정

composer 전수정

written by 전수정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

노래가 다 얘기 해줄 테니

눈을 감고 한번 잘 들어봐

너를 혼자두지 않을게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지쳐서

잠시 쉬고 싶을 때

내가 하는 일이 문제가 생겨서

그만 두고 싶을 때

내게 기대 내가 강하지 못해도

너의 친구가 될 수 있어

전화 한통이면 돼 날 불러

너를 혼자두지 않을게

내게 기대 너의 어깨를 토닥여 줄게

너의 집을 나눠줄게 날 불러

너를 혼자두지 않을게

이 곡은 1학기 마지막 즈음 논문계획서를 쓸 때 누군가가 힘들어 하는걸 보고 쓴 곡이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제목 : 아름다운 소년

artist 전수정

composer 전수정

written by 전수정

언제부터 인건지 나도 모르게 내 머리가 너로 하얗졌어

잠자기 전에 너를 상상하며 말을 걸어보고 웃어 보였어

너에 번호를 알아내야 된다고 친구와 같이 얘기하고

내가 했던 장난이 마치 연인사이 같아 남 몰래 가슴 떨었지

이제는 너 안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이빠서 계속 쳐다보고만 있었어

세상이 거짓인데도 너에게만은 진실이야

너의 마음이 되고 싶어 그럼 넌 내 마음 될 텐데

아무것도 집중이 안 돼 너의 생각 말고는 내가 친구한테
하는 장난의 나는 또 부러움과 질투를 느껴
너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오늘도 6시에 일어나
내가 내 앞을 지나가도 실수할까봐 떨리고 가슴 조렸지
이제는 너 안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이빠서 계속 쳐다보고만 있었어
세상이 거짓인데도 너에게만은 진실이야
너의 마음이 되고 싶어 그럼 넌 내 마음 될 텐데

이건 내가 학교생활 하면서 짝사랑했던 마음을 표현한 곡이다. 어찌면 이곡은 나 혼자만의 얘기
일수도 있는데 간디인들 모두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사를 썼다. 정말 내가 생각하
고 고민하고 행동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이곡 안에 들어가 있다.

제목 : *Post Secret*
artist 전수정
composer 전수정
written by 전수정
널 사랑해
그게 나의 비밀이야
하트모양도
예쁜 그림도
시들도
아리송한 문구들도 없어
그냥 널 사랑할 뿐이야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oh 사랑해 사랑해
널 사랑해
그게 나의 비밀이야
하트모양도
예쁜 그림도
시들도
아리송한 문구들도 없어
그냥 널 사랑할 뿐이야
널 사랑해

이 곡도 역시 짝사랑한 마음을 담은 노래다. 이 곡은 포스트 시크릿이라는 전 세계인의 비밀을
엽서로 보내서 블로그에 올려주는 곳인데 거기서 본 한 사람의 비밀이 너무 공감이 돼 각색해서
곡을 만들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열심히 해서 작업했던 것 같다.

제목 : 부모님께
artist 전수정
composer 전수정
written by 전수정

당신이 그립지만 저 잘 참아 낼게요
 당신이 보고 싶지만 저 여기서 잘 지낼게요
 다시 보겠죠 전화할게요 사랑해요
 여기서는 별이 훨씬 잘 보여요
 당신은 지금 뭘 하나요
 제 걱정을 한다면 그만두세요
 저 잘 지낼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제 삶도 없었겠죠
 하지만 전 요즘에 그걸 잊고 살아요
 걸려오는 전화는 친구들과 있다고 건성으로 받고
 안부보다는 용돈이 너무 적다고 짜증을 냈죠
 힘들다고 학교 나갈 거라고 죽고 싶다고
 그런 저의 말 들으면서 위로해 주셨죠
 욕심 많은 철없는 딸내미
 아직도 막내 끼를 떼버릴 수 없어 투정만 부려요
 이렇게 쓰니까 제가 잘못된 게 너무 많네요
 언제나 받기만 했던 제가 밉고 원망스러워요
 돌려드릴게요 이제는 돌려드릴게요
 당신이 그립지만 저 잘 이겨낼게요
 당신이 보고 싶지만 저 여기서 잘 살아볼게요
 다시 보겠죠 전화할게요 사랑해요

이 곡은 학교에서 생활하다가 부모님이 생각나서 쓴 곡이다. 내 마음은 곡에 나온 그대로다.

제목 : 울고 싶은 밤

artist 전수정

composer 하한

written by 하한

밤이 찾아오면서 울적해지는 사람들.
 저녁노을 보면서 울적해지는 사람들.
 모두가 울고 싶은 밤엔 나도 울고 싶다고 말할래
 모두가 울고 싶은 밤엔 나도 울 수 있다고 말해줘
 눈물 나는 밤.
 평소와 다를 것 없던 길가의 풍경
 그냥 지나치던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
 너무나 울고 싶을 때는 니가 보고 싶다고 말할래
 힘든 땀 옆에 있겠다고 한마디만 해주지 않을래.
 괜히 울고 싶은 밤.

느린 템포에 우울한 멜로디의 노래다. 가끔 비가오거나 날이 흐릴 때 간디인들이 하나둘 울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

Ⅲ.결론

1. 작품의 한계

역시 중학교 3학년이 레코딩을 하기엔 무리가 있었나 보다. 솔직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불가능은 보였다. 아니 불가능이라기 보단 실현자체가 어려웠던 주제다. 나는 정체되어있는 내 음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논문을 썼지만 내 게으름으로 인해서 쪽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생각했으면 내 음악은 발전되어 있고 완성도 있는 곡이 나오겠지. 아쉽다. 정말로 내 게으름을 죽여버리고 싶다.

2. 이 작품을 통한 나의 성장과 다짐

나는 더 이상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나의 음악성을 망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논문으로 인해서 나의 책임감과 성실성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은 것 같다. 정말 확실하게. 그래서 나의 상상력을 100% 발휘해 나의 음악을 만들고 들려줄 것이다. 그것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받는다 해도 계속 시도해보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실용음악이니 클래식이니 하며 내 마음을 뒤숭숭하게 흔들지 않겠다. 나는 예술이라는 포괄적인 것에서 음악을 선택한 것이고 그것이 어떤 장르가 됐든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넓어진 것에 감사할 것이다. 나는 내 자체를 노래할 것이고 그 자체를 연주할 것이다. 더 좋은 노래를 만들려고, 좋다는 칭찬을 받으려는 괜히 눈치 보며 악곡의 길이를 줄이거나 가사를 빼버리는 무식한 짓도 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 나의 프라이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TV카메라에 찍히고, 메이크업을 하고, 광고를 찍고, 드라마를 찍고, 인터뷰를 하고, 카메라 세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분명 있다는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만족시키거나 남에게 보이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위에 것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위에 것들을 하는 것보다 후자를 찾아가는 것이 더 즐겁다고 판단했기에 미련 없이 놔 버렸다. 괜히 미련하게 잡고 있었던 것 같아 시간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이걸로 장르와 길이, 악기와 가사의 문제에서 해방되었다. 이 작품을 통해서 결정된 나의 음악의 정체성은 어느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창조한 음악과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음악이다. 그 자체가 내 음악이지 클래식이던 가요던 간에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음악 자체를 너무나 좋아해서 그것을 스스로 표현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안에서 스스로 행복해질 것이다. 내 음악을 누군가에게 들려줘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모조리 수용해서 곡을 고치고, 수정하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소리를 듣는 거지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중작곡가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술가가 되고 싶다. 이게 지금 내가 찾았던 꿈이고 나의 철학이다. 이제 더 이상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나의 음악성을 망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논문으로 인해서 나의 책임감과 성실성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은 것 같다. 정말 확실하게. 그래서 나의 상상력을 100% 발휘해 나의 음악을 만들고 들려줄 것이다. 그것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받는다 해도 계속 시도해보고 노력할 것이다.

Thanks to

내 주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작곡도 같이 해준 엄마!!!!!!사랑하는 엄마!!!

내 논문 날려준 아빠 논문 쓰고 있을 때 나오라한 오빠 옆에서 나 자고 있을 때 내방 들어와서 피아노 쳤던 수인이 나한테 설거지 시켰던 언니까지 우리가족 모두 사랑해♥♥♥♥♥♥♥♥♥♥♥♥

내 논문을 심심하게 안 해준 멜론 플레이어와 그 외 많은 작곡가 프로듀서 가수 등등의 예술가들. 가장 나에게 많은 지식을 줬던 작곡가 Jade. 님. 컨테이너 내주고 작곡도 해준 하한이. 내 생일 때 초코우유준 별이랑 편지써준 지훈이. 나 논문 쓴다고 바쁠 때 법무부 일 다해준 소아랑 인

